

6·25전쟁 증언

「6.25 참상 황성인의 못다한 이야기를 찾아」

박순업 · 정재영

서 문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태평성대 보다 국난극복을 위한 치열한 항쟁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열강의 세력다툼의 무대가 되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구한말 한반도, 일제 강점기 36년간의 핍박 속에 국권 회복을 위한 민초들의 처절했던 항쟁,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그 예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안일하고 해이된 상태에 젖어 있으면 똑같은 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신상담의 고사가 시사하듯 가슴 아픈 역사일수록 대를 물려 꼭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번영을 누린다는 것,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켜진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순엽
황성문화원장

일제 강점기 핍박 속에 목숨 바쳐 처절하게 항쟁했던 황성의 의병, 3·1운동을 길이 기억하고자 황성문화원에서는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2016), '황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 (2017), '황성 3·1운동 주도인물 재조명' (2017), '황성과 3·1운동'(2018재판), '아! 1919 삼일의 불길' (2018), '황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 (2018), '4·1황성군민 만세운동100주년 기념 전국 한글 백일장 입상 작품집'(2019) 등 황성지역에서의 항일 운동과 관련된 향토 사료집을 7권 발간했습니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황성전투' (2013), '황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2015)를 발간했으며 2020년도에 6·25 증언 「6·25 참상 황성인의 못다 한 이야기를 찾아」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흘러간 지금 20대 초반이었던 동안의 참전 용사들은 90세가 넘었습니다.

2012년까지 생존한 황성출신 6·25 참전용사들은 462명이었으나 8년이 흘러간 2020년 8월말 현재 271명이 돌아가시고 191명이 남아계십니다.

그 분들도 노환과 병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한 분이 많고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어 실제 6·25전쟁 참전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1년만 늦어도 증언록을 만들려면 불가능 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참전용사들은 고령으로 인하여 생명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소년 시절을 거쳐 민족 분단, 6·25전쟁, 보릿고개, 월남파병 등 온 몸으로 격동기를 헤쳐 나가 나라를 부흥시킨 세대이며 현대사의 증인으로 모든 어려움을 딛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의 바턴을 넘겨주신 분들입니다.

어려웠던 시대를 온 몸으로 헤쳐 나가며 특히 참혹했던 6·25 전쟁에 대하여 처절하게 목숨 바쳐 싸운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꼭 들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를 교훈으로 사랑하는 후세들이 다시는 동족상잔의 6·25전쟁 같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전용사 뿐 아니라 어렸을 적 6·25전쟁을 기억할 수 있는 7, 8세, 10대들도 노년이 되어 머지않아 6·25세대는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눈에 비춰졌던 그 참혹한 전쟁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그 아팠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참전용사들, 6·25세대들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기려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6·25세대들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점 아쉬움이 큼니다.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6·26전쟁 때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 낸 참전용사들의 호국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후세들이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6·25전쟁 70년이 흘러갔지만 아직 남·북이 대치 긴장감이 멈추지 않는 이 시대에 물리적, 정신적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힘이 갖추어져야 전쟁도 막고 평화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적군과 싸운 참전 국군용사, 펜 대신 총을 들고 군번 없이 전투에 참여한 황성농업중학교(현 황성고등학교) 학도병, 황성경찰서 참전 전투경찰관의 증언을 듣기에는 세월이 너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80대 노년으로 접어들었지만 당시 7, 8세, 또는 10대 초반의 어린 눈에 비춰

진 6·25참상, 또 하루에 1만 여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거슬치, 학곡, 도곡, 창봉, 초원 등
횡성전투지역 중심에서 목격하며 처절하게 겪었던 이야기들은 전쟁을 왜 막아야 하는
지를 말해 줍니다.

6·25증언록이 만들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행복 나눔 복지과 담당
직원 분들, 정보를 모아 주신 6·25참전 전우회 박상호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령으로 불편하신데도 생생하게 6·25참전 전투를 회고해 주신 참전용사, 횡
성고등학교 학도병, 참전 경찰관, 또 격전지의 참상, 피난살이 등 참혹했던 전쟁의 실상
목격, 체험담을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체험담을 모아 신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쉬움이
큽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증언 하실 분이 제한적인 한계 때문입
니다.

얼마 있으면 역사 속에 묻혀 버릴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후세에 전해져 참혹한 6·25
전쟁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을 기억,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불
행이 없도록 각오를 다지게 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10월

횡성문화원장 박순업

격려사

참혹한 6.25전쟁 못 다한 이야기를 찾아

6.25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한지 벌써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20대 초반의 참전용사들은 어느새 90을 넘겨 생존하는 분들도 얼마 남아 계시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용사들의 전쟁 당시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증언록을 발간해 주신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과 상기하기 싫은 기억을 더듬어 도움을 주신 고령의 참전용사 어르신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에 투입된 병력 중 한국군과 유엔군의 확인된 사망자 수만 178,569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6.25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이산가족은 1천만 명에 이르며, 전쟁고아는 10만 명, 미망인은 3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일제 식민통치를 벗어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이 뿌린 피와 희생의 결실입니다.

'전쟁을 잊은 민족에게 평화는 없다' 는 말이 있듯이 6·25를 결코 '잊혀진 전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던 민족 최대의 비극을 우리가 잊는다면 그 비극은 또 다시 되풀이 될 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이번 발간되는 증언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동안 영화나 구전으로 보고 듣던 6.25 전쟁을 보다 더 생생하고 세밀하게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증언록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생존해 계시는 6.25 참전유공자 모든 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 사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6.25 증언록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에서의 항일 운동과 관련된 향토 사료집 발간에 힘쓰신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근
황성문화원 회장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고령으로 점차 생명을 다하고 있고, 6.25를 겪지 않은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기억 및 존경심마저 점점 잃어져 가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져 가야 할 것이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를 후세에 오래도록 남겨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역사를 통해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미래의 지혜를 찾는 소중한 자료 조사 및 연구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황성문화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나라의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증언록 발간을 위해 소중한 체험담을 말씀해 주신 참전용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 25전쟁 증언

「 6.25 참상 황성인의 못다한 이야기를 찾아 」

1장	- 노병들의 못다한 이야기	011
	◆ 고성태, 김덕림, 김동근, 김동석, 김명수, 김명숙, 김영배, 김영환, 김태호, 박종남, 백범세, 석광운, 손호익, 안효명, 오봉도, 유원선, 이병만, 정수경, 정위철, 최경근, 최창정, 탁연숙, 한봉희, 함유덕	012~045 046~071 073~083 084~103
2장	- 펜대신 학도병으로	107
	◆ 김원한, 김현태, 도광태, 박순옥, 유관종 ◆ 황성 중 · 고 동문 학도병 참전 현황	108~147 157
3장	- 경찰관들의 황성사수 이야기	159
	◆ 김문걸, 박광훈, 이원식, 전재곤, 정계항, 정병익, 최재우, 홍석규 ◆ 태기산 경찰 전적비 ◆ 황성 강림지서 피습사건 ◆ 황성 태기산 전투 ◆ 황성 경찰관과 6.25 전쟁	160~177 179~187 190 192 193 196

※ 진녹색 박순업 조사, 파랑색 정재영 조사 글입니다



4장 - 학살의 계곡, 횡성전투 199

- ◆ 고락만, 고원재, 김월란, 박상호, 박순님 200~213
- 오종근, 원준희, 정두영, 정순택, 한상균 214~226
- ◆ 1.4 후퇴와 횡성 229
- ◆ 학살의 계곡이라 불리는 횡성전투 233
- ◆ 네덜란드대대의 지휘부가 있던 횡성감리교회 238
- ◆ 풍수원 성당 242
- ◆ 108연대 2대대 유해발굴 자료 243

5장 - 내가 겪은 6.25전쟁이야기 247

- ◆ 고락웅, 고병숙, 김철수, 박순남, 변석조, 248~262
- 심상철, 엄주한, 이기환, 이영구, 정영대, 최정옥 266~278

6장 - 6.25전쟁 관련 횡성 조형물 281

- ◆ 총흔탑 282
- ◆ 마리뉴스P. 에이덴 오우덴 중령 현충비 284
- ◆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 285
- ◆ 매일리 총흔비(순국 8 용사 총흔비) 287
- ◆ 경찰 전적비 289
- ◆ 6.25 전몰장병 위령비 291
- ◆ 월버 웨브스터의 기념 식수 292
- ◆ 갑천면 화전리 무명용사 위령비 293
- ◆ 네델란드 참전기념탑 294
- ◆ 우천 6·25, 베트남 참전 기념탑 296
- ◆ 학도병 총흔탑 298





노병들의 1장 못다한 이야기

- ◆ 고성태, 김덕림, 김동근, 김동석, 김명수, 김명숙
김영배, 김영환, 김태호, 박종남, 백범세, 석광운
손호익, 안효명, 오봉도, 유원선, 이병만, 정수경
정위철, 최경근, 최창정, 탁연숙, 한봉희, 함유덕

고성태의 6·25전쟁 참전기



고성태

나는 황성읍 읍하리에서 일제강점기인 1931년 7월 28일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나, 어린동생 셋이 살며 황성초등학교를 다녔다. 그 후 청운의 뜻을 품고 1947년 열일곱 살에 홀로 상경, 서울 동신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대구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즉시 7사단에 편입, 일선에 투입하고자 달성초등학교에 집결시켰고, 나는 스무 살로 갑종합격을 받아 입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훈련도 못 받고 전장에 투입시킬 수 없다하여 기초군사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여기서 통신병을 뽑으려 하니 중졸이상 나오라 하여 나갔다.

간단한 시험으로 주소, 이름 등을 써 보게 하였는데, 그 때만 하여도 문맹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합격하여 1950년 8월 23일 부산통신학교에 입교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1950년 9월 15일 유·무선과를 졸업하였다.

1. 지리산 전투

1950년 8월 27일 11사단 창설. 나는 이 해 9월 27일 11사단에 배속되었는데 사단은 전라도 남원에 주둔하였다.

밀물처럼 남쪽으로 내려오던 북한군은 낙동강 부근에서 멈추게 되었다.

유엔군 폭격기가 낙동강 철교, 인도교를 폭파, 여기서 치열한 전투로 북한군은 밀려 지리산으로 후퇴 그 곳에 주둔하였다.

11사단은 지리산으로 후퇴한 북한군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4월 까지 밤낮없이 치열한 교전이 계속 되었다. 나는 보병 부대에 편입 F·M 무전기를 등에 메고 순창,

담양, 운봉고개, 구례, 함양에서 전투중인 좌 우 부대와 연결, 전방부대, 본부 등에 연락을 책임졌다. 지리산에서의 공격, 후퇴 등 수 없는 전투 현장을 뒤로 하고, 1951년 4월경 다음 부대와 교대하고 동해안으로 이동하였다.



고성태 : 지리산 전투



광한루 주둔 시 고성태 (상단 왼쪽)

2. 동해안 전투

우리 11사단은 지리산 공비토벌을 다음 부대에 인계하고 동해안 최대 격전지로 가는 도중 연곡해변 쪽을 보았다. 많은 시체들이 줄을 지어 죽어 있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 군·경, 민간인, 아이들까지 수많은 시체를 커다란 개 7, 8마리가 뜯어먹고 있어 모두 사살해 버렸다.

우울한 마음으로 가다가 인구리 해변에 천막을 치고 주둔. 다음날 공산군이 남침하고 있는 양양으로 전진 적과 교전 후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물치 해변에 진을 쳤다.

양양, 속초 이북에서 남으로 피난 가는 피난민들! 엄마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아빠는 소등에다 가재도구를 싣고 남으로 남으로 떠나는 피난행렬이 애처러웠다. 양양을 지나 고성으로 전진 중 설악산에서 남하 하는 공산군과 대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후퇴 중 은폐물이 없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은폐하기도 하였다.

다음 날 다시 진격, 속초점령 북진 중 적의 대부대와 교전 후 후퇴 중 송지호 부근에 인민군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시체를 사망 은폐물로 쌓아놓고 그 안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시 전진 고성에 입성 전투 중, 하루에 여섯 번의 전진과 후퇴를 거듭할 때마다 많은 전사자를 냈다.



동해안 전투(양양, 연곡, 속초, 고성 오른쪽 고성태, 왼쪽 참모중령)

3. 건봉사 전투

건봉사에서 1951년 11월부터 12월 한 달 전투가 치열하였다. 금강산 남쪽 끝, 고성에서 진부령으로 가는 중간 우측에 금강산 건봉사가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의 우국충정의 혼이 서려있는 건봉사는 1952년 공산군이 주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다 공산군을 밀어내고 우리가 점령하였다.



오른쪽 첫 번째 고성태 (건봉사 전투)

4. 설악산 전투

우리 11사단은 건봉사, 고성일대를 방위 전진부대로 주둔하였다. 북진 중 공산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우리 부대는 다시 1951년 12월경 속초로 후퇴하였다. 설악산 전투는 1952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25일간 악조건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다.

부대를 재정비 북진 중 1952년 1월에 설악산에서 전투중인 연대가 전멸당하고 이를 지원하려 다른 연대 병력이 속초 신흥사에 집결, 사단장의 입장훈시 후 부대마다 인원 재편성 배치된 전투지역으로 각자 출동.

우리 부대는 통신장비, 유선 전화선, SCR 193무전기, FM 609 등을 준비 40명이 천불동 계곡에서 가파른 바위산을 힘겹게 올라 대청봉에 도착하였다.

정상에는 모진 바람과 추위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비상식량은 양말 한 쪽에 쌀, 한 쪽에는 건빵 한 봉지, 건빵을 양말에서 꺼내 한 움큼씩 먹고 40명이 각자 편한 곳에서 개인용 낙타침구에 자크를 열고 기관총과 같이 들어가 침구 자크를 잠그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깨어 보니 무엇인지 침구를 무겁게 눌러서 자크를 열고 보니 밤새 폭설이 내려 전우들은 보이지 않고 하얀 무덤들이 생겼는데 그 속에서 전우들이 하나씩 나와 집결 하였다.

아군 부대는 설악산 중청봉 봉정암 주둔, 공산군은 설악산 북쪽 마등령에 주둔 하였는데 계속 쏟아지는 눈, 거센 눈바람에 몸 지탱하기도 힘든 상태로 춥고 배고팠다. 우리 부대는 봉정암에서 하산하니 전 연대 집결지인 중청봉에 30%병력만 도착하였다.

그 날은 봉정암 근처에서 야숙하고 다음날도 계속되는 폭설로 집결하지 못하였다. 사단 사령부와 SCR 193무전기, 수동전기(발로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처럼 돌려서 발전시키는 것)로 연락을 하였는데 일부 부대는 인구리로 후퇴, 주류부대는 철정으로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

후퇴를 하려면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 정상으로만 후퇴하여야 하는데 또 다시 폭설과 바람 그리고 무릎까지 채이는 눈덩이를 뚫고 후퇴가 불가능해서 그 날은 중청봉과 대청봉 사이에서 야숙.

너무 배가고파 전우 5명 단위로 양말 속에 마지막 비상 쌀을 털어, 나뭇가지에 전화선으로 마찰 점화시켜 밥을 지어 먹었다.

다음 날 마등령에서 남침하는 수 만 명의 공산군을 뒤로 하고 우리는 대청봉에 오르는데 쏟아지는 눈과 바람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무릎까지 빠져드는 걸음에는 막막할 뿐이었다. 그 날은 대청봉에서 야숙하였고 건빵 넣은 양말에서 반을 꺼내서 저녁으로 먹었다.

다음 날 아침 기상하니 눈덮힌 침낭 속에서 여러 전우들이 얼어서 전사하였다. 살아있는 전우도 계속되는 눈바람 때문에 배고프고 힘이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전우가 많았다.

보급품 수송 비행기가 아군 진지에 보급품 박스를 투하하는데 눈바람이 북쪽에서 세차게 불어 보급품 박스가 북쪽 마등령 공산군 진지에 투하되고 우리는 3일째 굶고 춥고 얼고 해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설악산 봉우리에 쏟아지는 눈과 바람, 건다가 잠시 눈 더미에 앉았다가 그대로 얼어 죽는 전우. 3일째 걷고 또 걷는다. 하늘과 땅은 온통 하얀 설원. 남쪽 방향으로 설악산

능선을 걷는데 약간 내리막길에서 평지인지 알고 걷던 전우 2명이 절벽에 굴러 눈 속에 묻혀버렸다.

4일째 낙오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전 전선을 여러 겹 연결, 5명 1조 5m 거리로 전우와 전우의 허리를 연결, 서로 끌고 당기면서 계곡을 빠져나와 뒤돌아보니 끝도 안 보이는 눈 산뿐이었다.

이제는 배고픔도 모른다. 가다가 앉으면 동상으로 죽는 일 뿐이다. 5일째도 걷는다. 계속 내리는 눈은 무릎까지 차고 아픔의 감각도 없어졌다. 내 몸도 전체가 차디차게 동상으로 얼어붙어 가는데 배꼽 주위만 따뜻하게 살아있는 듯하다. 온 몸이 얼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따뜻한 배꼽만 툭 치면 조그만 힘에 또 걷는다.

너무 허기지면 눈을 먹고 그러면 배는 더 고프다. 나무 하나 없는 설악산에서 눈에 묻혀있는 가랑잎을 먹었더니 입이 아프고 혀바닥이 갈라졌다.

6일째 되던 날. 눈은 끝나고 맑은 태양을 보니 남은 전우는 네 명 뿐이었다.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을 지나 구산리에 도착하니 집이라고는 초가 한 채. 먹을 것은 없었다. 간장 항아리에 간장이 있어 간장을 퍼먹고 배가 아프다고 뒹굴다가 세 명이 죽었다. 혼자 남은 나는 그날 밤 죽은 전우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다. 잠들면 얼어 죽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 정신 줄을 잡았다.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햇살이 좋아 온누리 하얀 눈에 쌓이고 나는 죽은 전우를 뒤로한 채 하산 길을 걸었다.

건다가 앞드려 기면서 해가 질 무렵 삼척, 부평 산 밑에 내려오니 하얀 눈과 파란 바다.



고성태 : 설악산 전투

그 사이 아군 제무시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발뚎에 쓰러져 버렸다. 7일을 굶고 눈과 바람, 영하 30도 속에서 버텨온 후유증이다.

그 후 천운으로 구출되어 강릉 59육군병원에 입원, 링거 꼽고 3일 후에 깨어났다. 변을 9일이나 보지 못하였는데 그 후 계속 피와 섞여 나와 죽는 줄 알았다.

몸을 추슬러 다시 15일 만에 원대복귀 하였다.

나는 지금도 후유증으로 차가운 물을 먹지 못하고 더운물만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5. 남강전투

남강전투는 1952년 2월부터 1953년 1월 7일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우리 11사단은 전진해서 진부령중턱 CP 주둔. OP는 진부령 정상 1,010고지. 좌측은 1,400고지 향로봉, 우측은 건봉산이다.

OP 1,010고지 전방 아래로 금강산 남쪽 끝과 건봉산 사이로 남강물이 흐르고 강 건너에 스탈린 800고지. 밑에 김일성 700고지.

여기에 공산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강을 건너려면 서로가 노출되어 건너지 못하고 이 곳에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싸웠다.

OP에서 남강까지는 지형적으로 노출되기 쉬워 강가에서 OP까지 계단식 호를 파고 24시간 경계, 전투를 하였다.

통신병들은 전화선을 등에 메고 엎드려 기면서 가설, 이때마다 수없이 공격을 받았다. 전화 가설은 3인이 1조로 3개조가 10m간격으로 가설하다 적의 직사포에 맞으면 3인이 죽거나 중상이었다.

나는 중상 입은 전우를 우측 어깨에 메고 좌측 어깨에는 E8 전화기를 메고 OP까지 갔다.

중상에 관통당한 부위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양말을 벗어서 틀어막고 고통스러워하는 전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OP까지 올라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OP에서 최전방 아군 방어 진지까지는 무전기를 사용하면 피아가 다 같이 수신하기에 유선 전화를 끊어야 하는데 적군의 직사포, 산포 공격으로 수시 절단되었다.

2교대로 교체 가설을 떠나 온 좋은 날은 3명의 전우가 무사히 복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총상을 입기가 일수였다. 이 같은 일을 2일에 한번 전선을 갖고 오르내린다.

총상을 입은 전우는 치료를 했지만 전사자는 나무더미 위에 눕히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다. 불은 활활 타고 우리는 받들어 총. 나팔기수의 “잘 가라 전우여!” 나팔소리를 들으며 3발의 소총소리.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신체가 파괴되는 굉! 소리 검은 연기 다음에 흰 연기가 솟아오르면 그것이 전우의 영혼이라고 슬퍼하며 “받들어 총” 하고 있는 나의 눈에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저께 같이 출동한 전우를 하늘나라로 보낸 나. 남강전투에서 전사, 데려오지 못한 전우. 일부는 그 자리에서 산화되었고 일부는 짐승의 밥이 되고.

어머니를 그리던 전우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영혼은 산새가 되어 남강 줄기를 오르내리며 오늘도 울고 있으리라.

나는 때때로 그대들을 그리워하며 애달프게 그려본다.



남강 전투(진부령 1010고지, 금강산 끝 남쪽 전투, 고성태 우측 첫 번째)

6. 화진포 전투

화진포 전투는 1953년 1월부터 7월까지 휴전을 앞두고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졌다. 사단 OP에서 복귀하라는 명령으로 귀대하였더니 육군 보병 20사단 창설 요원으로 발령.

20사단은 강원도 양양군 16km 속초방향 바닷가 솔밭에서 1953년 1월 8일 창설되었다. 사단 인사처 전입신고, 통신 참모부 발령.

고성군 소재 화진포와 건봉산 동쪽 끝에서 거진바다 지금 전망대에서 보는 해금강 북동쪽 금강산 북진 전투였다. 동쪽바다 해변을 중심으로 금강산 주둔 공산군과 치열한 전투. 앞으로 휴전한다는 유엔 측의 말이 있어 영토 확장을 위하여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전망대에서 해금강 약 2km전방까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약 7개월간의 격전이였다. 이 전투에서도 많은 전사, 전상자를 내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했다.

뒤돌아보면 나는 1950년 8월부터 휴전할 때까지 3년간 죽을 고비도 수 없이 넘기면서 전투를 하였다.

이곳에서 피 흘려 싸운 결과로 양구, 양양, 속초, 거진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의 땅으로 만들었다.

여기엔 수많은 전사자, 전상자, 살아남은 자가 젊음을 바친 곳이다.

그 후 우리 20사단은 예비 사단으로 인제, 김화, 철원, 양평등지를 이동하면서

나는 후배들에게 전술, 전투교육을 시키고 1955년 7월 1일 전역하였다.



고성태 : 화진포, 거진, 해금강전투



천막안에서 사무 보는 부대원, (고성태, 첫 번째 모자 쓴 사람)



화랑무공훈장(11사단)
남강전투공적



화랑무공훈장(20사단)
화진포 전투 공적



영웅기장

김덕림의 6.25전쟁 증언

나는 횡성 우천면 양적리 출신으로 1950년 21세로 국군에 입대 군번 1804031을 부여 받고 제3사단 제18연대 제3대대에 배치되었다.

적군과 생과 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를 하였지만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에서 7월경 금화지구 백암산 전투는 참으로 치열했었다.

이때 아군의 피해가 컸다. 당시는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아군은 물론 적군도 보유하고 있는 탄환을 최대한 소모하면서 격렬한 전투를 하는 시기였기에 서로 피해가 컸다.

6·25 전쟁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권 P398~415 에 의하면 아군 전사134명/부상422명/실종636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내가 소속한 국군 제3사단과 중공군 제 180 · 201사단과 529고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이어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금성산 일대에서 전투가 격렬하였다.

7월 13일 21시 중공군이 공세를 시작하여 진퇴를 거듭하며 공방전이 치열 전사자,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김 덕 림

김동근의 6·25전쟁 참전기

철원은 6·25전쟁 이전에는 공산치하였다. 그 곳에 살았던 나는 철원고등학교를 다녔다.

4학년이던 1948년 12월 홀어머니와 작별 (훗날 만날 것을 기약하고) 친구와 함께 월남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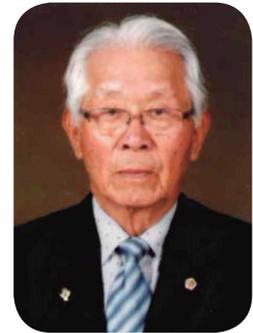
의지할 곳 없던 나는 서울 을지로4가 빵 공장(현 오리온 제과의 전신)에 취직, 빵 배달 상자를 닦는 일을 하였다.

2년의 세월이 흐른 19세 때 6·25가 터졌다. 이 땅의 젊은이가 다 그렇듯 나도 1950년 12월 3일 징집되어 대구에서 1주일간 군사훈련을 받았다. 12월 10일 춘천 소재 7사단 5연대 본부 정보과(나중에 수색대로 편성)행정요원(독도: 제도 조수, 군사 작전지도 판독 업무)으로 배속되었다.

부대의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다. 홍천 북방 고지에 포진하고 있던 대대가 중공군에 포위 고립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니 연대장의 명령으로 행정요원을 2개 소대로 편성 포위망을 뚫을 수 있도록 엄호하기 위하여 고지로 긴급 배치되었다.

물론 나도 이 작전 요원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개미 떼처럼 군인이 모여 있었다. 이를 보고 중



김 동 근



전선에서의 김동근



전우와 함께



6.25 당시 김동근

대장은 아군이라고 하였고 소대장들은 틀림없이 중공군이라 하였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사격을 한번 하니 인해전술에 익숙한 중공군이 개미떼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태에서 소대별로 1문씩 갖고 올라간 기관포를 쏘았으나 탄피가 총구에 막혀 무용지물이 되었다. 무서운 추위 속에 나흘간 산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구사일생 밤 12시 후퇴하였다.

연대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격려와 함께 지프차로 연실 연대본부가 있는 용두리로 후송시켜 주었다.

물론 포위되었던 대대는 박살이 났다.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피난민 수용소에서 재회하였으나 완전무장한 아들인 나를 알아보시지 못했다.

어머니는 40대의 젊은 나이셨지만 기침을 많이 하고 계셨으며 나중에 면회를 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땅에 묻힌 뒤였다.

12월 20일에는 인해전술에 의한 중공군 대 병력과의 삼마치 횡성전투에서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가운데 연대장 장도영 대령의 지휘 하에 5연대는 원주와 여주를 거쳐 1951년 1월 10일경 경북 풍기까지 후퇴, 전세를 가다듬었다.

1월 25일경에는 풍기에서 단양, 정선을 거쳐 평창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벌여 많은 전사자가 또 발생하였다.

2월 10일경 평창초등학교에 진을 치고 있던 연대본부는 중공군에 밀려 원주까지 후퇴하였다.

다시 양구방면으로 진격 4월 춘천 화천 갈림길 전투에서 김인철 연대장이 전사하자 김삼봉 부연대장이 연대장으로 승진 지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구에서 작전 중 연대장은 적의 직사포에 또 전사하였다.

이에 김용배 연대장이 취임, 북진으로 504고지를 점령하고 편치볼로 가는 다리 놓는 일을 지휘하다 적의 공격으로 연대장이 전사하였으며 1200고지에서 중공군의 습격으로 대대병력이 거의 전사를 하였다.

다시 채명신 연대장이 부임하였으며 내가 소속하였던 연대 정보과가 없어지고 수색중대로 바뀌었다.

나는 연대 수색중대에 소속되어 OP연락병, 1소대 분대장으로 작전을 하다 1952년 11월 취사반장으로 배속 1년 6개월 그 역할을 하였다.

야전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빈 탄약통에 담아 산 속의 전투병에 전달하였으나 모든 보급품이 아주 열악하였다.

우리 부대는 1953년 3월 인제 원통에서 밤 10시 20사단과 교대를 위하여 논 가운데 집결하였으나 20사단은 적에게 큰 타격을 받고 일부 목숨을 부지한 장병들이 후퇴하고 있었다.

우리도 이 전투에서 손실을 입고 영월, 정선까지 후퇴 채명신 연대장의 지휘 하에 부대를 재편성 다시 화천으로 진격하였다.

이 때 용감한 전우가 떠오르는데 수색중대 박관도 2등중사는 중공군 적진 깊숙히 침투 중공군을 포로로 잡아 오는 등 맹활약을 하여 2등상사로 승진 1개월 포상 휴가도 받았으나 전선으로 조기 귀대, 또 적진에서 용감하게 작전을 펼치다 행방불명이 되어 시체라도 찾기 위하여 주변을 수색하였다.

그러나 적진의 스피커에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박관도는 ‘우리가 잘 모시고 있다.’ 라는 방송을 듣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도 계속 생사를 넘나드는 격전을 벌였다. 참혹했던 6·25전쟁은 끝나고 1953년 7월 27일 화천에서 휴전을 맞이하였다.

김동석의 6.25전쟁 참전 증언

나는 횡성 읍하리에서 부모님, 형님 내외와 함께 살다
1949년 1월 18일 스무 살 때 국군에 입대하였다.

소속은 6사단 8연대 군번은 1802964.

6·25가 발발했을 때 우리 부대는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한강 방어전을 펼쳤다.



김 동 석

그러나 6·25남침 이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용감히 싸웠으나 후퇴를 거듭, 영등포, 안양, 오산을 거쳐 안동까지 가서 낙오병을 수습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그렇게 되어 우리 6사단 8연대는 수도사단 18연대로 편입되었다.

대전마저 차례로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 우리 군은 8월 1일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50년 8월 낙동강 지구 전투의 최대 격전지인 다부동 전투, 포항, 기계, 영천 전투 등 곳곳에서 대규모 전투를 전개하여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적 사살 1,250명, 포로 31명, 탄약, 전차 등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전사기록 참조)

이 전투에서 아군 희생자도 많았지만 기계지역에서 포항, 안강에 이르는 도로를 우리 군이 완전히 차단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내가 소속한 우리 18연대 전원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1계급 특진되었다.

이어서 전개된 경상북도 포항시 신광면 비학산 전투는 1950년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9일 동안 치열했었다.

적 제12사단은 육군 제2군단의 기계지역 탈환작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8월 17일 비학산 지역으로 총퇴각을 시작하였다.

우리 연대는 8월 20일 오전 여섯시를 기해 공격을 단행하였으나 유리한 지형을 점령

한 적의 강력한 방어로 많은 병력 손실이 가중 되었다.

그렇지만 비학산 남사면의 352고지, 652고지, 385고지 선을 확보, 공격을 다시 시도했으나 적이 완강하게 저항하여 아군의 피해가 속출 부득이 현 전선을 유지한 채 적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부대 재편을 완료한 적이 8월 24일을 기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 해 공격을 감행 해 왔다.

우리는 적에게 포위당해 많은 전사자가 발생, 현장에서 가매장하고 일부는 후송하려 했으나 부득이 버리기도 하였다.

특히 박격포 포수들이 적 기관총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대반격으로 압록강까지 적군을 몰아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은 엄청난 희생을 치루며 후퇴를 하였으며 우리 군은 인제 현리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전투 기간은 1951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아군은 국군 제3군단, 미 제10군단, 적군은 인민군 제 5군단과 중공군 20군단과의 전투였다.

현리 전투는 중공군 제 2차 춘계 공세기간에 있었던 전투로서 당시 적군 제 1차 춘계공세 (51년 4월 22일~4월 30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7개 사단 병력을 집중 투입 아군 제 3군단을 포위하고 동부의 아군 제 1군단을 고립시켜 국군 주력을 이 지역 일대에서 섬멸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당시 3군단은 제 9사단을 서, 제 3사단을 동으로 배치, 관대리로 부터 가리산 간 26km간을 점령 방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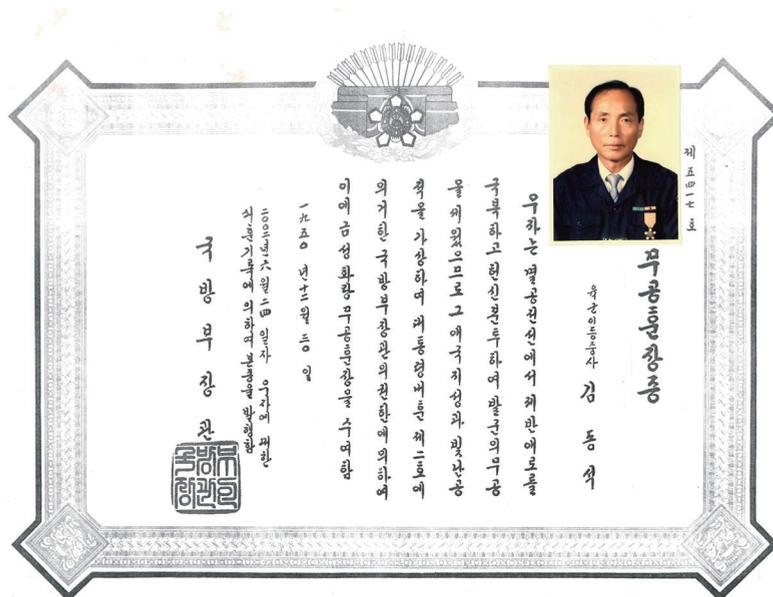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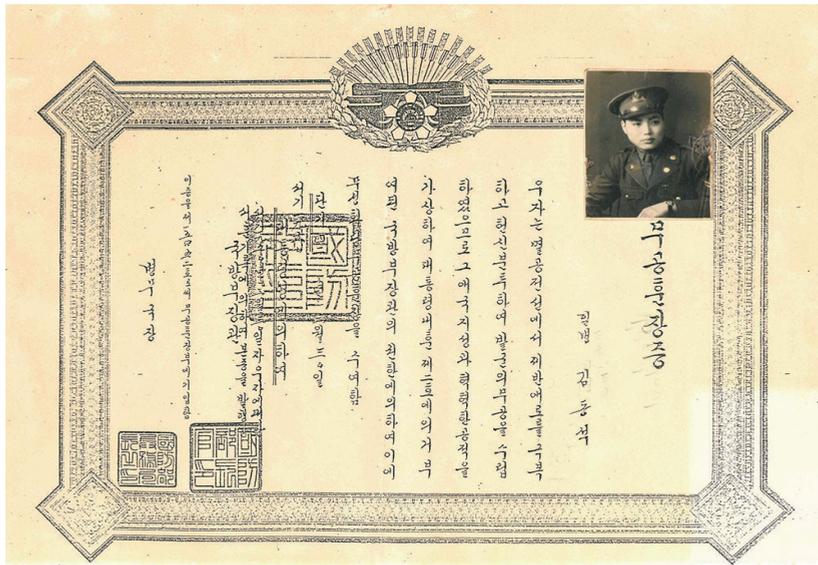
그러나 서 측의 미 10군단과 국군 3군단의 사이로 침투한 적이 군단의 후방 요지인 미 10군단 지역의 오마치(오미재) 고개를 점령 차단함으로써 국군 3군단은 지휘체제가 와해되고 인접 부대 간의 협조가 단절되어 조직적인 철수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차후 집결지인 하진부 일대로 후퇴 집결하였으나 끝내는 불명예스럽게도 군단이 해체된 뼈아픈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전사, 부상, 실종, 포로 등으로 희생 된 아군은 15,000명 적군은 25,000

명이라고 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참혹했던 인제 현리 전투에서 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팔에 심한 부상을 입고 묵호에 있는 야전31 육군 병원 으로 후송, 그 후 배로 부산에 있는 육군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다 51년 8월 15일 명예 제대를 하였다.



무성화랑무공훈장 (육군이등중사 김동석)

김명수의 6·25참전기

6·25전쟁 회고 (1)

나는 황성농업중학교 (당시 농업중학교 6년제) 재학 중 1948년 12월에 헌병하사관학교 3기로 입교하여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6사단 헌병연대 정보과에서 근무하다 2개월 후 6사단 7연대 헌병대로 파견되었다. 당시 7연대 헌병 18명 중 헌병하사관 학교를 이수한 헌병은 6명이었고 12명은 보조 헌병이었다. 정보업무를 담당한 나는 최전선 고지까지 방문하여 장병들의 근무 환경과 북한군 동향을 확인하고 귀대하곤 했다. 1949년 12월 초에 이르러 북한군의 남침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다는 육군 정보대의 정보가 있었다. 나는 사단 헌병부장 정강 소령에게 정보대 동향과 최전선 북한군 동향을 보고하는 일을 했다.



김명수



헌병하사관 학교 졸업 후 임관 초기 모습



헌병학교 동기생들과 서울 대방동에 있던 헌병 학교 정문에서 찍은 졸업 기념사진 (1950년 3월 뒷줄 맨 왼쪽 김명수)

1950년은 오랜 가뭄으로 무더웠다. 춘천시 봉의산을 감싸고 흐르는 소양강의 정기가 흐르는 옥산포와 우두동 농촌이 한눈에 보이는 들판에 보리가 누렇게 결실을 맺고 있을 무렵 북한군이 1950년 3월경부터 북한군 병력을 38선과 39도선 전선으로 전진 배치하고 북한주민을 5km 후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전 장병의 군기작전과 임전태세를 강조하고 일요일 외출 외박을 금지시켰다.

전통 야전군 지휘관인 연대장은 산하 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군 동향이 예사롭지 않으니 최전선 산악지대의 적 진입에 유리한 지점과 소양로 주변을 중심으로 우두동 샘밭 등에 1개 대대 진지 구축과 옥산포 5번 도로와 북한강 요충지 능선에 각각 1개 중대 진지를 구축하라”고 지시하였다.

연대장은 1950년 봄부터 방어 진지 구축공사를 착수하였다. 이 무렵 춘천사범학교 외 5개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자진해서 찾아와 방어 진지공사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존중한 임부택 연대장이 이를 수락하였다. 남녀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곡괭이와 삽을 들고 방어 진지를 열심히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장병들과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모습이 역력했다.

땀 흘려 진지를 구축하던 학생들은 이 방어 진지가 앞으로 3개월 후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춘천시민들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장병과 학생들이 구축한 진지에서 전투훈련과 특공조직 훈련까지 철저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

6월 24일 늦은 밤부터 시민과 농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단비가 고요한 산하에 생기를 적셔주었다. 다음날 6월 25일 새벽4시 최전선에서 북한군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 평화로운 온 산하는 30분간 포화로 뒤덮였고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다.

무방비 상태였던 아군은 구 구 식 소총과 수 냉 식 기관총, 81mm 박격포 2문, 61mm 박격포, 57mm 대전차포 2문과 제16포병대대 105mm 곡사포 10여문을 무기로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3개월 전 중요 요충지 방어진지 구축과 방어훈련과 전투 훈련을 비롯한 특공조를 구성하여 적을 제압하는 훈련까지 연마한 7연대는 강력한 북한군 화력에도 지형에 유리한 진지 구축과 특공조 육탄공격으로 북한군을 제압할 수 있었다. 북한군은 40%의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후퇴하였으나 아군역시 중상자와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수송 운전병이 부족했다. 헌병하사였던 나는 직접 쓰리쿼터(Three Quarter:트럭보다 좀 작은 군용차)를 운전하여 최전선 샘밭 여우고개 포화 속으로 들어가 중상자와 부상자 12명을 싣고 춘천시내 연대 의무대로 수송했다. 군인의 의표인 헌병으로서 본연지성의 임무 수행이었지만 당시의 아찔한 순간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며 보람을 느끼곤 한다.

하염없이 내리던 비가 멎어 하늘은 맑게 개이기 시작했다. 연대본부는 휴가 중 귀대 장병과 대기 중인 병력을 포함해 완전무장하고 트럭4대에 탑승하여 전선을 향해 소양로를 질주할 때 연도에는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필승을 다짐하는 “국군만세! 대한민국 만세!” 를 외치며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었다.

6 · 25전쟁 회고 (2)

7연대 제2대대가 원창고개에서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한편 제2연대는 27일 아침 한계리와 북창을 잇는 큰말고개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 제19연대의 지원을 받아 29일 밤까지 북한군 제7사단 진출을 저지하였다.

27일 아침 제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홍천을 향해 철수하라는 사단장 이재영의 작전 명령을 받았다. 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연대 작전주임 박주근 소령에게 선발대로 내려가서 지형을 정찰하여 남하하는 적을 분쇄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을 설정토록 하고 행군 서열을 정하여 27일 오후 6시30분 홍천 국민학교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작전주임 박소령은 “사단작전 명령에 지적된 지역은 방어선을 펼만한 곳이 못되고 성산리 북쪽 큰말고개야말로 지형 상 유리한 방어진지가 될 만합니다. 이 곳은 차량 2대가 서로 비켜 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에다 좌우는 급경사의 산으로, 우측은 절벽이고 길은 S자형으로 구불구불 고갯길이 나 있는 곳” 이라고 정찰결과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지형을 이용해 적 탱크를 쳐부수면 되겠

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천하무적의 북한군 탱크를 폭파시켜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전통 야전군 지휘관인 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출발명령을 기다리는 대대 앞으로 나섰다.

“적의 전차 위력은 모두가 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춘천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철수하게 된 것도 그들의 전차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원한을 씻어야 한다. 57mm 대 전차포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안 된다면 육탄 공격으로 부딪쳐 깨부술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적의 전차를 보기 좋게 때려 부술 용사가 없는가? 있다면 앞으로 나와!”

연대장의 비장한 말에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고 서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다. 세어보니 모두 30명이나 되었다. 감격한 연대장이 떨린 목소리로 “고맙다. 귀관들은 애정 충정을 본받을 용사들이다. 연대장으로서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하지만 30명까지는 필요치 않다.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당사항이 있는 병사는 열에서 뒤로 3보 물러나라.” 연대장의 말에 잠시 침묵의 순간이 흘렀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릴 뿐 너무나도 조용했다.

연대장은 30명중에서 독자, 기혼자, 막 결혼한 장병, 노부모를 모시는 병사들을 억지로 제외시키고 11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11명중 전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임택규 이등중사를 시켜서 자원한 용사들에게 전차의 약점이 무엇이며 손쉽게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임택규 이등중사는 “적 탱크의 취약부분은 바퀴에 있다. 바퀴쇠줄을 향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격포로 때려 맞추면 줄이 끊어져 탱크가 정지하게 된다. 이때 전차 위로 뛰어 오르면서 전차 꼭대기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당겨 뚜껑을 열어 수류탄을 집어넣고 재빨리 탱크에서 뛰어내려 대피하라. 탱크 안에서 수류탄만 폭발하면 탱크는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동작만 빠르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며 용사들을 격려했다.

S자형으로 구부러진 말고개 밑의 좁은 길가에는 11명의 육탄용사들이 가슴에 수류탄을 안고 사살당한 시체처럼 여기저기 엎어져 있었다.

육탄 11용사는 각자 수류탄 2발, 안전핀을 뺀 박격포 81mm탄 1개씩 받아들이고 연대 수색 대장 박준수 중위의 인솔아래 출발했다. “살아서 모두 만나기를 하늘에 빌겠다.” 떠나는 그들에게 연대장은 말했다. 곧이어 제3대대가 선두로 말고개를 향했다. 19연대는 말고개를 중심으로 동쪽 산기슭에 방어 배치를 끝냈다. 육탄11명의 용사들은 S자로 구불거리는 고갯길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양쪽 10m~20m의 간격을 두고 배치를 끝냈다.

그런데 도로 양편에 숨길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 배수로가 훤히 보이기 때문이었다. 연대 지휘 본부는 대원들이 전부 전투 중 사살당한 것처럼 양쪽 도랑에 엎어져 있기로 결정했다. 대원들은 모두 죽은 척 엎드려져 있었다.

6월 28일 아침 9시가 지나자 철정리 한계마을 쪽에서 11대의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병력을 가득태운 수십 대의 트럭을 몰고 진군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계 마을은 대접처럼 약간 들어간 분지형태의 마을이어서 제2연대 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진작부터 마을 북관을 향해 화력을 철저히 구성해 놓고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소총과 중화기 박격포의 제물이 되도록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린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전차 11대를 앞세우고 병력을 실은 트럭이 마을 한 북관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병력이 마을을 절반쯤 통과할 무렵에 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사격을 명령했다. 집중포화가 쏟아지자 마을 안은 유황불이 끓는 가마솥으로 변하여 미처 트럭에서 내리지 못한 인민군은 무수히 죽어갔다. 살아남은 인민군은 트럭에서 뛰어 내려 황급히 공격 대형을 펼치며 응전해 왔다. 북한군 보병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며 응사를 하는데 11대의 탱크는 그대로 전진하며 말고개로 향했다.

육탄11용사가 탱크를 맨몸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연대의 선제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탱크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던 적 보병의 발목을 묶어 탱크만 말고개로 올려 보냈기 때문이었다. 적의 전차11대가 캐터필러 바퀴 소리도 요란하게 고갯마루로 올라가고 있을 때 아군 대전차포 중대 이훈 중위의 지시에 따라 57mm 대전차포의 제1발과 제2발이 탱크에 명중했다. 그러나 적 탱크는 가벼운 충격을 받았을 뿐 계속해서 고개 쪽으로 올라갔다.



한국 전쟁 당시 국군이 보유한 57mm 대전차포의 모습, 적의 전차에 명중을 시켜도 타격을 줄 수 없었던 탓에 뒤에는 육탄돌격을 지원하는 정도로 쓰였다.

애당초 대전차포는 탱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모든 장병들의 얼굴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한편 S자형으로 구부러진 말고개 밑의 좁은 길가에는 11명의 육탄용사들이 가슴에 수류탄을 안고 사살당한 시체처럼 여기저기 엎어져 있었다. 대낮인 데다가 은폐물도 없어 길가의 얇은 배수로에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으니 완전히 노출되어 위협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용사들의 목숨은 적의 전차에 맡긴 상태였다. 드디어 전차의 굉음이 땅을 진동하면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6 · 25전쟁 회고 (3)

굉음과 함께 11대의 전차는 50m 전방에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 계곡에 숨어있던 제2연대 대전차 중대에서 마침내 철갑탄을 쏘아 날렸다. 11명의 용사들의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다. 탱크는 육탄용사 1번조인 조달진 일병 앞으로 굉음을 울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엎드린 채 조달진 일병이 가만히 눈을 떠서 훑쳐보니 거대한 탱크가 바로 눈앞을 지나고 있었다. '아' 하고 조일병은 숨을 막았다. 탱크의 포신이 빙그르 돌며 조달진 일병이 있는 쪽을 향했던 것이다. 조달진 일병은 후에 이때를 회

상하며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잘못하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했다.

바로 이때 건너편에서 김학두 일등중사가 쏜 대전차포 철갑탄이 1번 전차의 옆구리에 명중했다. 제1호 탱크는 제2연대 포 중대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멈칫하면서 섰다. “이때다!” 조일병은 같은 조의 김일병의 옆구리를 찔렀다. 김일병이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이미 안전핀을 뽑은 81mm 박격포탄을 전차의 바퀴 밑에 굴러 넣었다. 두 병사들은 찢어지는 듯한 폭음소리가 울리더니 1번 전차가 들썩하면서 멈춰 섰다. 조달진 일병이 몸을 일으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는 비호처럼 탱크 위로 뛰어 올라가 해치 손잡이를 열어 수류탄을 넣었다. 그런 다음 조일병은 탱크위에서 몸을 날려 멀리 뒹굴었다. “꽁!” 하면서 1번 탱크 안에서 폭음이 울리더니 불길에 휩싸였다. 1번 탱크는 파괴되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1번 선두 전차가 파괴되어 움직이지 못하자 나머지 10대의 탱크도 일제히 멈추게 되었다. 2번 탱크가 1번 탱크를 밀어서 치우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맨 뒤의 11번째 탱크 해치가 열리더니 군관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탱크 뒤에 쫓은 깃발로 보아 대대장인 듯했다. 그 순간 계곡에서 날아 온 아군 기관총탄에 머리를 맞은 장교는 뒤로 쓰러져 버렸다. 육탄용사 11번 조인 이하사가 벌떡 일어나 탱크위로 재빨리 올라가 해치 안에다 수류탄을 넣었다. 탱크가 폭발되며 불기둥이 솟았다. 나머지 9대의 탱크는 앞으로 전진도 할 수 없고 뒤로 후진도 할 수 없이 갇혀 버렸다.



말고개 입구에서 전차 특공조에게 섬멸된 북한 T-34전차와 사살당한 북한 전차병들
(사진출처: 다음 백과)



국군의 명예를 회복한 6사단 전사들
(사진출처: 국가기록원)

여기저기에서 탱크 해치가 열리고 대체 어찌된 일인지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 북한 군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아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어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거나 탱크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죽어 갔다. 육탄 용사들은 마음 놓고 나머지 탱크의 해치 안에 수류탄을 넣어 11대의 전차를 폭파시켰다. 전 장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며 만세를 불렀다. 실로 통쾌한 순간이었다.



육탄용사전적비: 1950년6월25일 새벽 4시를 기해 전면 남침한 북한군에 맞서기 위해 제2, 7사단을 흥천에 투입했다. 이 부대는 이천과 수원으로 우회, 국군의 주력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삼일작전” 으로 명명되었다.

6.25전쟁 초기는 물론 북한군 전차가 한 장소에서 11대나 파괴된 기록은 6.25전쟁을 통틀어 없었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육탄용사들이 탱크를 폭파시키는 장면들은 흥천 말고개전투를 모델로 한 것이다.

6사단 2연대, 7연대, 9연대의 사기는 충전됐다. 말고개로 진출하려던 인민군은 그렇게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6 · 25전쟁 회고 (4)

나는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는 생각으로 능선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온 산하에서 피의 혈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맥아더 장군은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아군첩보 부대원을 월미도에 상륙시켜 북한군의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상륙작전에 투입된 함정 261척이 인천항에 정박하여 함포 사격으로 집중 폭격 후 9월 15일 인천을 탈환하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했다. 이로써 인민군 퇴로와 보급로가 봉쇄되면서 전선이 무너지게 되고 국군의 사기는 더없이 높았다, 9월 16일 국군의 총반격으로 인민군병력은 60%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6사단 7연대는 의성에서 예천-풍기-단양-원주-횡성-홍천을 거쳐 진격하였고 10월 2일에 춘천을 탈환한 후 계속 북진하였다. 춘천 38선을 지나 북진을 거듭하여 화천-금화-평강-원산까지 진격하였다. 원산에서 양덕-북창-덕천으로 계속 북진했다. 청천강을 지나 희천-고장에 이르렀다. 고장에 연대본부 지휘부를 두고 연대 수색중대장이대용 중위는 초산을 경유하여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이 때 7연대 헌병대 소속인 나는 헌병 3명을 인솔하고 초산에 파견되었다. 초산으로 파견되어 삼거리에 주둔한 아군과 주민들의 교통 안내를 하고 있던 26일 밤 9시경 연대 본부로부터 즉시 귀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6일 밤9시 50분경 연대본부 op전면에서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7연대 전선은 중공군에게 고립되어 있었다. 중공군의 존재를 알지 못한 국군 1개 연대가 중공군에 완전히 포위된 것이다. 연대 op에 도착해 보니 연대 op를 중심으로 주변에 일부 병력이 배치되고 있었다.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오늘밤 내로 중공군 전선을 뚫고 나아 갈 것이니 단단히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라” 고 명령하였다.

공군은 연대 op를 확인한 후 집중 공격을 해왔다.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던 연대 지휘본부가 풍지 박산 되었다. 7연대 헌병들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헌병은 1개 연대에 13명이 있었지만 이때의 전투에서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헌병은 나를 포함해 불과 3명이었다. 내가 인솔했던 헌병 3명중 1명은 행방불명되어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헌병2명을 인솔하고 오던 길 북쪽 200m밖으로 후진 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10월 26일, 이 날은 밝은 달밤이어서 시야를 확인하기 좋았다. 좌우에 있는 산은 약간 경사로, 우측 산 고지는 높은 편이었다. 고지로 향해 도착해보니 중공군이 주둔하였다. 이동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고지에서 약 400m가 넘는 지점이 중공군 전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5만분의 1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다. 청천강을 건너 덕천을 향해 가기로 결정하고 산 능선을 넘기 시작했다. 산을 넘고 넘어 2일 만에 산중턱에서 다래 열매를 발견했다. 10월이었지만 북쪽지방이어서 바람은 찬데 먹을 것도 없이 쉬지 않고 능선을 타고 걸었던 터라 다래열매와 물로 허기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6월 28일 평안북도 운산을 지나 능선에 도착한 때는 밤 8시50분경이었다. 능선에서 내려다보니 외딴집 등불이 보였다. 능선을 내려가 무어라도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헌병 2명을 인솔하고 산을 내려가 등불이 켜진 외딴 집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로 했다.

“안됩니다. 그러다가 인민군이나 중공군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장이 신고라도 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부하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먼 길을 걸어온 상태였기 때문이다.

‘가야할 길은 멀다.’

나는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는 생각으로 능선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6 · 25전쟁 회고 (5)

“계십니까”

산을 내려가 마당에 들어선 나는 주인을 찾았다.

“누구요? ‘

방문이 열리며 70세가 넘는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우리는 국방군입니다. 낙오가 되어 요기 좀 하고자 들렀습니다.”

공손히 인사드리고 사정을 설명했다. 노인장께서는 “날씨도 찬데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 고 하였다. 방에 들어간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던 노인장은 “젊은이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여기 이 젊은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와라” 그제야 다른 식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였다.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에는 바가지에 담은 밥과 대접에는 총각무 김치가 올려져 있었다. 우리들은 노인장께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날 이 밥상은 내 생애 잊지 못할 행복한 밥상이었다. 밥을 굶어본 사람만이 배고픔의 처절한 고통을 안다. 그날 바가지에 담긴 밥은 첩첩 산중에 어울리지 않게 하얀 색이었다. 흰 쌀밥으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 찰옥수수 밥이라고 했다. 우리 일행에게는 찰옥수수 밥이 아니라 흰쌀밥이었다. 정신없이 밥을 먹고 나니 감사한 마음을 무어라도 전하고 싶었다. 마침 본인은 원산에서 전우가 북한 돈 100원짜리를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주었던 5,000원을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 국방군은 북한 돈이 필요치 않으니 노인장께서 필요하실 때 쓰십시오.”

5,000원 전부를 감사의 뜻으로 내놓았다.

깜짝 놀란 노인장이 “70평생을 살면서 100원 화폐를 보지 못했다.” 하여 북한의 어려운 생활수준을 알 수 있었다.

노인장이 “중공군 전선을 피해 가야할 터인데 어느 방향으로 갈 계획이냐” 고 묻기에 청천강을 건너 덕천으로 갈 계획이라고 하니 노인장은 잘 생각하였다고 하며 길을 잘 아는 노인장이 직접 길안내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지금 출발해도 중공군 전선을 피해 가자면 내일 먼동이 틀 때야 청천강에 도달할 것이니 어서 길을 나서야한다” 며 노인장이 우리를 재촉하였다. 깊은 산 속에서 평생을 살아서인지 나이가 많은 데도 노인의 발걸음은 무척 빨랐다. 노인장을 따라 쉬지 않고 능선을 넘고 넘기를 5시간가량 했을 무렵, “지금 지나는 곳이 평안북도 향산” 이라고 노인장이 알려주었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가다보니 서서히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저기 보이는 강이 청천강이요.”

노인장이 가리키는 곳에 강이 보였다. 청천강을 건너 덕천으로 가야하는데 노인장

말로는 청천강 우측 능선에 중공군 대군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다. 노인장은 강을 건너려면 지금 입고 있는 군복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저 앞에 보이는 민가에 가서 피난민 옷으로 갈아입고 강을 건너가라고 당부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나는 부하 헌병 두 명을 데리고 민가에 들어가서 한복 세벌을 얻어 갈아입었다. 국방색 군복은 보자기로 둘둘 말아 각자 어깨에 둘러맸다. 옷을 갈아입고 민가를 나올 때 세 명의 국군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와 같은 국방군 낙오병들이었다.

“우리는 11연대 군인입니다. 중공군 때문에 도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와 같이 도하하기를 요청해왔다. 나는 지금 민가에 가서 우리 일행처럼 피난민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했다.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들 여섯명은 차례대로 강을 건너기로 했다. 앞사람과 20m 간격을 두고 건너기로 하고 우리가 먼저 출발했다. 강기슭에 도착해보니 강폭은 약 150m 되었다.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다고는 하지만 사방이 흰히 트인 강이라 중공군에게 들키지 않고 강을 건널 수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



평안도를 가로지르는 청천강 모습 : 남쪽의 아군과 합류하기 위해 중공군을 피해 이 강을 10월 하순의 찬 수온을 무릅쓰고 걸어 건넜다.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강의 중간쯤 가니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초겨울 추운 날씨에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추위로 사시나무 떨 듯이 떨리는 몸으로 일행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자마자 민가에 들어가 젖은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6 · 25전쟁 회고 (6)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어려운 어둠 속, 치열한 육박전으로 횡성을 탈환했지만 원주시가지 진입을 눈앞에 두고 결국 봉산교를 폭파해야했다.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흘렀다. 전쟁에 참여했던 당시의 젊은이들은 지금 90세를 훌쩍 넘었고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6.25전쟁 그리고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들에 대해 다양한 잣대가 존재한다. 이 회고록은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아니다. 6.25를 경험한 한 개인이 전하는 전쟁기간 삶의 궤적이다. 횡성이라는 이름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횡성인들의 삶을 통해 오늘 그리고 내일의 횡성을 함께 고민하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홍천 말고개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아군 2연대, 19연대는 29일 밤 큰말고개 방어선을 포기하고 원주를 경유하여 신림 제천을 전선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7연대는 홍천과 삼마치에서 전선을 유지하다가 29일 밤 9시에 홍천 전선에서 횡성으로 진출하였다. 밤10시경 횡성교를 지나 횡성 시가지로 진입하니 인민군 역시 횡성 시가지로 진입하고 있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어려운 밤이었다. 횡성 시가지에서 맞닥뜨린 아군과 인민군은 결국 육박전을 벌이게 되었다. 육박전에서 상대가 삭발머리인가를 기준으로 인민군인지를 판별할 수밖에 없었다. 1시간여 동안 횡성 시가지에서의 치열한 혈전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인민군은 홍천 서석 방향으로 도망쳤다.

횡성을 탈환한 7연대는 원주 소초면 산악지대와 원주 의관리 오산까지 전선을 유지했다. 이 때 2연대, 19연대는 원주를 경유하여 신림과 제천 경계에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7연대는 30일 소초면과 의관리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이며 원주시가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원주 시가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헌병대로부터 헌병 3명을 자원하여 원주시내 외곽의 제천 충주 간 삼거리에서 헌병을 배치하여 아군 병력의 이동에 만전을 기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아군이 신림과 제천 전선 등 충주 전선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었던 당시 원주시가지와 봉산동 능선에는 인민군 박격포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이때 사단공병대 상사1명과 사병5명이 헌병 초소에 도착하여 봉산교를 폭파하라

는 사단장 지시를 받고 왔다. 인민군 탱크 진입을 막기 위해 봉산동 봉산교를 폭파하라는 지시에 따라 아군이 모두 안전하게 이동한 후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공병대원과 낙오병, 피난민들과 함께 충주를 향해 질주했다. 안전하게 달래강을 건넌 뒤 피난민들을 충주시내에 내려주고 군인들은 소속 부대로 귀대시켰다.

우리가 연대본부 헌병대로 도착해보니 1개 대대는 문경재로 이미 진출하였고 1개 대대는 괴산을 향해 진출하고 있어 우리 헌병 3명도 같이 괴산으로 향했다. 괴산 소재지를 지날 무렵까지 인민군과 간간히 격전을 벌여야했다.

한편 문경재로 진출한 아군이 인민군과 옥녀봉에서 격렬한 전투 끝에 아군 1소대장 한도선 중위와 사병 5명이 전사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해 왔다. 6사단 7연대 역시 함장과 상주에서 격전을 치르고 이동하여 낙동강을 지나 의성과 군위군 전선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혈전으로 ‘피의능선’의 흔적을 능선마다 볼 수 있었다.

7연대가 이동한 신령에서 의성으로 통하는 고갯길 우측 능선은 팔공산 정상이 바로 남쪽 정면으로 보이는 최후의 방어선 최북단이다. 이 곳에서 벌어진 치열한 혈전으로 아군 전사자와 중상자, 부상자가 수없이 발생했다. 우리 헌병은 아군 중상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신념으로 수송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우리 지역 그 때, 거기, 그 사람

1951년 5월부터 인민군과 중공군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공군 54만 명과 인민군 24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5, 6차 공세를 감행했다. 중공군은 5월 18일 홍천강을 건너와 전략적 요충지였던 용문산 지구에 공격을 시도했다.

중공군은 우리 6사단의 10배가 넘는 병력이었지만 6사단 2연대는 용문산에 전면 방어 진지를 구축해 강력한 공세를 감행하여 중공군을 격퇴시켰다. 2연대는 5월 20일 진지에서 나와 중공군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감행했고 6사단 19연대 7연대는 배후를 차단해 중공군을 역 포위하는 새벽 기습 공격을 21일에 감행하니 당황한 중공군은 북한강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후퇴하는 중공군 3개 사단은 화천 구만리 발전소(현 화천발전소) 장악을 목표로 이동해 갔다. 아군은 중공군의 퇴로를 봉쇄하며 강력한 총공세를 하여 중공군 2만5

천여 명의 전력을 전멸시켰다. 6·25전쟁 사상 단일사단 전투에서는 최대의 전과였다. 이 전선에서 헌병상사였던 나는 헌병 세 명을 인솔하고 용문산 용두리, 삼거리에 배치되어 아군진입로 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중부전선 화천 구만리 발전소를 장악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공군을 상대로 전선이 오르내리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아군의 강력한 봉쇄에 중공군은 많은 병력 손실을 입고 화천 사방거리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즈음 휴전이 될지 모르니 한 치라도 더 앞으로 진격해야한다는 명령이 내려왔고 아군은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혈전을 중공군과 치러야했다. 한국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계속된 전투로 아군 병력을 계속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천에서 병력보충의 임무를 맡아 중공군을 상대하던 중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한반도에서의 포성은 일단 멈추어지게 되었다.

휴전 후 헌병 일등상사였던 나는 헌병 3명을 인솔하고 북한강 최북단 38선(DMZ)에 파견되어 근무했다. 북한군과 서로 말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제대로 된 철조망도 없이 노란 줄을 쳐놓은 것이 당시 38선의 모습이었다. 이후 제 1헌병대 3과에서 근무하며 헌병학교 21기 범죄수사반에 입교하여 수료한 뒤에 6사단 7연대 헌병대와 5사단을 거쳐 예편하였다.

6·25 포성이 멎은 지 70년이 지났다. 종전이 아닌 전쟁이 멈춘 휴전 상태로 분단되어 있는 세계유일의 국가로 전선을 가운데 두고 24시간 총성 없는 대기 상태로 70여년을 흘려보냈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중공군의 공격으로 후퇴하던 도중 포로로 잡혀 구사일생 탈출했던 일, 휴전직후 남북 간 유골교환의 임무를 맡았던 일 등 가슴엔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부족하나마 이 회고록이 전후세대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

이 생명 조국을 위해

호국노병 김명수

6·25 피에 맺은 전우여 오직 조국을 위해
낙엽위에 쓰러진 전우가 우리를 기다린다
전우의 가슴에는 아직도 맥박이 고동치며
더운 피가 솟아 나온다.

장마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향기여!

내 청춘을 바친 운명의 갈림길이

이별일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사라진 전우를 부둥켜안고 피눈물 흘리며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여 잘 있거라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여

나는 즐거이 내 나라 내 땅에 한줌 흙이 되길

소원했노라.

남편 연규부의 6·25전쟁 참전기

나의 남편은 34년 전인 57세 때 세상을 떠났다. 1958년 평창 계촌에서 18세 때 11세 연상인 29세 연규부씨와 결혼, 함께하면서 들려주었던 참혹한 6·25전쟁 참전 이야기가 잊혀 지지 않는다. 지리산 공비토벌에 투입, 허리까지 쌓여있는 눈을 뚫고 적을 수색하던 중 앞서 가던 전우가 적의 총탄에 이마를 맞고 전사하였다. 남편도 포탄이 앞에 떨어져 팔 뒤통치를 다치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간신히 적 영역을 빠져나와 부대에 복귀, 전투원을 증원 현장에 갔더니 전사한 전우의 개인 화기는 물론 옷도 군화도 적군이 다 벗겨가 버렸다. 그 후에도 악조건 속에서 지리산 전투는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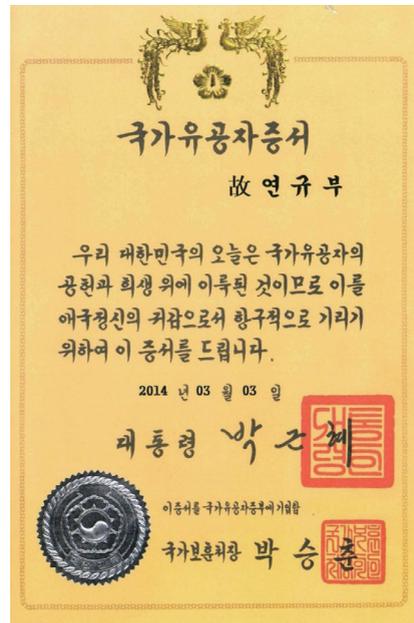
지리산 전투를 마치고 다시 진격 명령이 내려져 중부전선에서 중공군과 공방전을 벌였으나 포위되고 말았다. 굶주림과 갈증 속에 도토리도 주워 먹어 보았으나 결국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방공호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가 굶주림 끝에 중공군이 준 땅콩죽을 먹고 토사로 실신하고 말았는데 아편 삶은 물을 주어 겨우 살아났다. 북한 평양 수용소에 힘든 포로생활 중 포로를 교환한다며 남으로 갈사람 손들라고 하였다. 손들면 죽일 것 같았으나 그렇지만 손을 번쩍 들었다. 이렇게 하여 그리운 조국, 내 고향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게 되었다고 손을 붙들고 이야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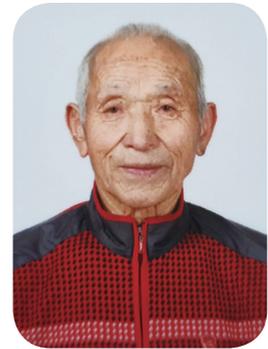
김 명 숙 (형성읍)



김명숙의 남편 연규부



김영배의 6·25참전기



김영배

나는 황성군 우천면 정금1리 쇠깎 마을에서 태어나, 고난의 일제말기 유소년 시절을 보내며 먹고살기조차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누구나 할 것 업이 어려운 살림이지만 스물세 살이 되던 1950년 정월 결혼도 하여 부모님 모시고 꿈결 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은 6·25의 발발로 산산 조각이 났다.

6·25가 나고 며칠 후 나는 황성지역에서 맨 처음으로 군대 징집영장을 받아 사랑하는 가족의 눈물 환송을 받으며 트럭에 몸을 싣고 집결지 포항으로 떠나 군번 9118807을 받고 제주도로 이송되었다.

나는 제주도 9연대 192중대에서 96일간의 고된 훈련을 받고 1950년 10월 부산을 걸쳐 창설된 56연대에 배속, 트럭으로 전라도 지리산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1주일 분량의 식량, 실탄 등 전투용 보급품이 개별적으로 지급되었고 식량 담요, 실탄, 취사도구, 그 외 필요한 물품을 수급하여 등에 짊어지고 하루 종일 지리산을 향하여 행군을 하였다. 여기서 고향전우 하사 김기홍, 일병 김병기, 이등상사 김상래, 일병 김승경, 일병 김기환과 만났으며 마을에 공비가 출몰, 전투에 참여했다.

지리산에서 분대별로 나뉘 5사단과 합동작전으로 산을 오르내리며 수 없이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다.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면 새로 보충하며 사흘을 밤낮없이 기습과 방어를 반복하며 싸웠다. 지리산에서는 늘 고되고 최악의 극한 상황이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지리산을 뒤흔으며 싸우는 일은 사랑하는 가족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고되고 힘들어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만 생각되었다.

반찬이라야 소금, 밥도 부대원들과 흙을 파서 솥을 올려놓고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같이 해 먹었으나 늘 배가 고팠다. 추운 겨울이고 산속에 물이 없어 철모로 눈 녹인 물로 밥을 해 먹고 혹독한 추위에 잠도 못 잤다. 이러한 와중에 형겁으로 만든 신

발이 눈에 젖어 동상에 걸린 전우가 많았으며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생사를 넘나들며 싸우던 중 뱀사골에서 적군에 포위되어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다. 옆에서 전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수습할 즈음 함께 입대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한 황성 갑천의 강용빈도 전사하였다.

나도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고 여수 제 15육군병원에서 약 1개월 치료 후 원대복귀 구례지구 전투에도 참전하였다.

지리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56연대는 해산되었으며 춘천 보충대를 거쳐 철원 주둔 수도사단에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1955년 6월 22일 제대가 되어 고향으로 올 수 있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동상에 걸렸던 발이 허물을 벗고 통증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영환의 6.25 전쟁 참전기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했다.



김영환

어느 날 밤
청년방위군 소집이 왔다.
난 부랴 부랴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정금에서 청년방위군 장교가 우리를 인솔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황성읍 대동여자중학교에 집결해 중대편성이 되고 우리들은 박성호 장교의 인솔
하에 기나긴 행군이 시작 됐다.

원주 금대리를 거쳐 제천으로 다시 도담삼봉을 지나 단양시장에서 잠을 잤다.
이어 죽령을 넘어가려 길을 나섰는데 느닷없이 적들이 나타나 요란하게 따발총을
쏘며 공격을 감행 해 우리들은 충주로 우회 해 소백산쪽을 포기하고 문경 새재를 넘
었다. 경상도 상주를 지나 청도로 다시 밀양까지 가서 무슨 연유인지 청년방위군은
해산이 됐다. 이때 일부는 군복을 입고 훈련소로 갔고 남은 사람들은 각자 해산 해
집으로 향했다.

발길 닿는 대로 얻어먹으며 며칠을 걸어서 마침내 원주대수리재를 넘어오니 곳곳
에는 폭격을 맞아 죽은 인민군 시체들이 즐비했다.

장양리를 다다르니 고향마을에는 아직 인민군이 남아 있다고 하여 나는 부득이 미
군부대를 들어갔다.

거기서 며칠을 보내다 인민군이 모두 후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고향 마을 우천면
하궁리 268번지 우리집에 도착했다.

1952년 전쟁 막바지

입영통지서가 나왔다.
횡성에서 모여 우리들은 군인차를 타고 양구 7사단 훈련소에 도착했다.
양구 문득리에 위치한 3연대 1대대 군속으로 편입돼 나는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에 참가 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막바지 전투가 밤낮없이 전개됐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에서 나는 싸우고 또 싸웠다.
그리고 드디어 6.25 전쟁은 휴전을 맞이하게 되고 난 그해 겨울 12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왔다.

전쟁이 끝나고 다음 해
1954년
다시 또 징집 영장이 나와 이번에는 논산훈련소로 향했다.
훈련소 군번 10019780
29대대 1중대 행도를 맡았다.
훈련을 마치고 나는 광주 통신학교 유선정비과에서 12주 교육을 받는 도중 통신학교 교장 감시 근무를 했다.
12주 교육을 수료하고 춘천 3보충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봉암리에 있는 20사단 통신중대에서 20개월을 근무했다.
그 후 사단이 해체되어 8사단으로 옮겨 통신정비를 했다.
이어 포천 6군단 사령부에 배치 돼 통신근무를 하다 37개월 만기로 제대를 했다.
자랑스런 육군 병장으로.

항공 관측장교로 빛낸 나의 6.25 참전기

1. 6·25 전쟁의 발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한다.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지금도 지구상에는 중·소 규모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전쟁이란 말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전쟁은 서로 다른 정치 집단이나 주권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을 각기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해결하는 극한적인 군사적 대결을 일컫는다.

그러한 전쟁은 한반도에서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한반도 북쪽(38도선 이북)의 김일성(金日成)이 정치적 야욕(공산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중공의 마오쩌둥(毛澤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세 차례에 걸쳐 소련의 스탈린(Joseph Stalin)을 만났을 때는 남침하면 10만의 원군(援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그제야 승리할 수만 있다면 남침하라는 승인을 얻어냈다.

마침내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여명(黎明, 04시)을 기해 이학구(李學九) 대좌(大佐)가 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 들고 “폭풍(暴風)”이란 말을 쏟아놓자, 전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일제히 불법 기습 남침 작전을 벌인 것이다. 이때 갑작스런 전쟁으로 남한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이었다. 피난민들의 발길이 남쪽으로 부산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북한군의 탱크는 계속해서 남으로 굴러가고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었다.



김태호

(육군포병학교 30기)

2. 임관 후 1주일 만에 제96포병대대 첫 부임

북한 인민군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벌어진 전쟁에서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을 때였다. 1952년 4월, 나는 민간인 제4차 갑종간부후보생 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그때 신입소위들을 가리켜 ‘하루살이 소위’ 나 ‘소모(消耗) 소위’ 나 하는 말들이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었지만 그런 말에 휩쓸리지 않았다. 생사문제는 오로지 하늘에 맡기는 것이었다. 이처럼 전세(戰勢)가 어려운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아랑곳없이 1952년 5월 1일부터 육군 제2훈련소에서 3개월 15일 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뒤, 육군보병학교(37기)를 수료하고 1953년 1월 31일 육군포병학교(30기) 졸업과 동시 현역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한 것이다. 목숨을 걸고(for my life)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무찌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나의 신성한 목표였다.

첫 부임은 제96포병대대(대대장, 김 준 소령) 찰리포대(Charlie Battery) 전포대장 보좌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찰리포대는 철원군 세현리에 배치되어 있었다.

3. 제6보병사단 2연대 2대대 지상(교암산▲770)관측장교로 근무

그 후, 봄이지만 한겨울처럼 눈이 펄펄 쏟아지는 4월 1일(수요일). 세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어렵게 고지에 올라갔다. 그 고지에 서서 멀리 가까이 바라보면 온통 눈의 세계가 되어 백설의 고지만 눈 안에 들어왔다, 강원도 철원군 금성(金城 CT 793525) 앞 동남쪽 교암산(驕岩山 770m, CT 848486) 고지에는 보병 제6사단(사단장, 백인엽 소장)의 제2연대(연대장, 고백규 대령) 2대대(대대장, 김두일 중령)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제96포병대대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보병부대를 위해 화력지원해 주기 위해서였다.

낮선 고지 주변을 살펴보니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면 영락없이 죽을 것만 같아서 나는 묘지(墓地) 같은 숙소(宿所)가 있는 고지에 단정히 서서 고향을 향해 고개를 수그리고 기도를 했다. ‘전투가 벌어지면 무사하게 해달라고, 또 반드시 승리하는 전투로 이끌어 달라’ 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다. 갑자기 전지(戰地)에 서니 마음이 무척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교암산에서 북으로 눈길을 보내면 ‘금성’ 과 ‘돌산’ 은 바로 눈앞에 있지만, 금성천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흔히 자정(12시)무렵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연

대 작전 주임장교로부터 포 지원 자격 요청을 해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가차 없이 금성천 너머에 포탄을 퍼부어 적을 완전히 제압 및 괴멸시키곤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신성한 임무였다.

4. 미제5포병단 종합비행대 파견근무

미제5포병단 종합비행대(Fifth Artillery Group Aviation Section A-38) 안의 항공관측학교(Air Observer School)에서 2주일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다. 교관은 미군 장교 우데키(David A. Woodeky)중위와 윈델스(H. D. Windeles) 소위가 있었다. 그 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꼭 일주일이 흘러갔다. 항공관측학교에서의 교육은 비교적 재미가 있었다. 적진 정찰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오늘은 피교육 장교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순차적으로 정찰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영어로 직접 말하는 순서가 다가온 것이었다. 그 사이에 여러 피교육 장교들이 배운 것을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포병학교에서도 후보생 시절 다 배운 것이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다가왔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적진을 정찰하면서 발견한 표적에 대하여 포병대대 FDC에 자격을 요청하고, 자격이 끝날 때까지의 자격 결과를 보고하고, 날씨, 무전기 교신 등 전반에 걸친 사항 등을 죄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교관은 미군 장교 우데키(David A. Woodeky) 중위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관이,

“잠깐…! 김 소위…, 학교는 어딜 나왔나 물어 보시오.”

하고 통역장교 서보영(徐輔英) 중위를 쳐다보며 물어 보라고 말하지 않은가. 그때 서보영 중위가 나에게 다시 물었다. 서보영 중위는 서울 배재중학교(구제 6년제 중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알려진 유망한 청년 장교였다.

“김 소위, 학교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지금은 고등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만, 전 6년제 중학교(구제)를 나오고 대학 영문과 1학년 재학 중에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솔직히 털어놓자 통역장교 서보영 중위가 교관 우데키 중위에게 그대로 알려 주었다. 그때 동기생을 포함한 조종사와 관측장교들은 “대학 나왔다고 하라!” 고 종용하기도 했지만..., 양심상 나오지 않은 대학을 나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 동료 장교들도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때 동료 장교들은 한바탕 낮은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영어는 주로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물어 보시오.”

교관 우데키 중위가 또 이런 질문을 그에게 보내 왔다. 서보영 중위는 다시 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은가.

“영어는 주로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강의실 안은 그 순간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 대신 피교육 장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교관과 통역장교 그리고 나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네, 주로 한국인 교사에게서 배웠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공보원에서 미 공군 상사로부터 회화 지도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씩 중학교 고급학년생(중학교 4학년생 이상)만 대상으로 실시한 회화 강좌(Conversation Class)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한국인 교사에게서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듯 말하자 우데키 중위는 참으로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흘리면서 영어 발음을 아주 정확히 잘한다고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김 소위.”

교관 우데키 중위는 이렇게 말하면서 활짝 핀 한 송이 빨간 꽃처럼 웃음을 나에게 보냈다.

“감사합니다. 교관님.”

내가 답례하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보냈다.

그때 실내의 피교육 장교들까지도 자랑스러운 웃음꽃을 얼굴에 매달고 있었다. 한마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강의실 가득히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럼, 얼마 동안이나 받았는지 물어보시오.”

우테끼 중위는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지 또 물었다.

“얼마 동안 강의를 받았지요?”

서보영 중위가 다시 나에게 또 물었다.

“네, 정확히 5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서보영 중위는 여기까지 묻고 나서 교관 우테끼 중위에게 전하자 그는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말 한 마디는 했다. 그냥 무심하게 입을 닫아버릴 수가 없기도 하지만, 결말을 지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영어를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미국인에게 배웠거든가, 아니면 대화는 많이 나누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1948년 5월 미국공보원에서 실시하는 학생 영어 웅변대회에 참여한 적은 한번 있었습니다. 연제(演題)는 「민주주의 학원생활(Democracy School life)」로 발표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뒤늦게야 결심하고 원고를 영역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하고 대회에서 어떻게 웅변을 하는가를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나는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여기서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을 볼 게 있다고 남을 속여야 되겠는가.

“아, 그랬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교관 우테끼 중위는 무엇인가 장하고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매달면서 일단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 잠시 마음속으로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발음뿐만 아니라, 말할 때의 어조도 매우 중요한데... 그 어조도 듣기에 매우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그뿐이 아니요. 액센트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pronunciation, accent, intonation, speaking 등이 아주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보영 중위가 활짝 웃으면서 교관 우테끼 중위를 쳐다보며 동감한다는 듯이 말했다.

‘한국인으로서 어찌면 그렇게도 발음이 정확할까? 타고난 소질도 소질이지만,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마치 조개 속에서 진주를 캐낸

것 같은 기분이군.’

그 순간, 우데끼 중위가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이렇게 속으로만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에 대한 질문 때문에 수업은 약 25분 동안 중단되는 결과를 빚은 것이었다. 어쨌든 싫지 않은 일이었다. 나의 영어 실력에 대해 뜻밖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을 계기로 하여 나는 앞으로 더욱 더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의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이 같은 뜻밖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교관 우데끼 중위는 나에게 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는 듯 하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매달면서 다시 수업을 이어 나가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수업은 쉬지 않고 연일 이어졌다. 드디어 수업의 마지막 날인 5월 13일 오전 08시, 교관 우데끼 중위는 나의 선배와 교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중근무 적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자신의 항공기에 태우고 첫 번째로 기지를 이륙했다. 적진 상공에서 실시한 다양한 형식의 시험 비행(Test Fly)에서도 무난히 통과함으로써 당당하게 ‘항공 관측장교’로 근무하게 되었다.

종합비행대 작전상황실에서는 5월 14일인 바로 오늘부터 한 회 정찰 비행시간은 2시간으로 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시행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5월 25일부터는 한 회 비행시간은 3시간으로 한 시간 연장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5. 통역장교 역할을 하다

그 뒤, 작전상황실에서는 한국군 비행대로 전화를 걸어 나를 찾았다. 전화를 받고 보니 나에게 통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엄연히 통역장교가 있고 또 군무원 통역사가 있는데도 굳이 나에게까지 통역을 부탁한 것이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 부탁해 왔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 흔쾌히 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날부터 작전상황실에 가서 필요할 때마다 통역을 했다. 혼치는 않지만 주로 한국군 조종사들의 실

수라든가 혹 의문이 생기면 미군 작전상황실 작전장교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었다. 특히 휴전 이후에는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선을 넘었다는 첩보가 들어오면 으레 나를 불러 작전상황실 요원들 앞에서 조종사와 대질심문하여 분명히 선(MDL)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해명해 주곤 했다.

6. 사격 중인 적 야포 완전 괴멸

1953년 5월 27일(수요일)은 쾌청한 아침이었다. 나는 조종사 김영복(金永福) 소위와 함께 아침 두 번째 임무인 정각 07시, 화천에 기지를 둔 미 제5포병단 종합비행대에서 항공기(L-19)로 기지를 이륙하여 성난 독수리처럼 철원군 금성 적진을 향해 내달았다. 적진 속의 평강 동쪽 탐거리 상공에서 동쪽(금강산)을 향해 정찰하고 있을 때, 왼쪽(북쪽)에서 강렬한 불빛(閃光)을 내뿜고 있는 광경을 육감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때 나는 재빨리 그 쪽(불빛을 내뿜는 북쪽)으로 총을 쏘듯 눈길을 보냈다.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힘차게 내뿜는 화염을 발견하는 순간 그만 놀라고 말았다.

“아니, 저게 뭐야! 탱크? 아니면 야포?”

그 순간, 사격 중인 화포의 힘차게 토해 내는 커다란 화염을 분명히 확인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격 중인 화포는 호(壕) 속에 숨어 있는 곡사포(Howitzer)로부터 날아오는 포탄이었다. 그 순간, 마구 치솟는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가지고 있던 작전 지도에서 그 화포의 위치를 급히 찾아냈다. 그때, 그 포탄의 낙하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눈길을 재빨리 남으로 던지고 잔뜩 긴장한 채 숨을 죽이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테 그 포탄이 떨어진 곳은 바로 나의 원대인 제96포병대대 C포대(장, 김봉길 대위) 정문 앞 산 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또 한 번 놀라 증오심이 분수처럼 치솟고 말았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7시에서 10분 사이에 어김없이 C포대 정문 앞 40m 거리의 산 밑에 포탄이 떨어지곤 했으니까. 그때마다 대대 측지반(測地班)에서 지체 없이 그 탄착 지점으로 달려와 탄흔분석(彈痕分析)을 하곤 했다. 그러나 방향만 알

왔지 정확한 포의 위치는 알아내지 못했다. 그런 야포의 위치까지 당장에 확인할 수 있게 되다니 참으로 감격적인 행운의 순간이 나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즉각 무전기를 통해 원대(原隊)인 제96포병대대 FDC(사격지휘본부, 작전주임장교 김일수 대위)에 포대 2발(12발)의 사격을 요청했다. 포탄은 지체 없이 날아왔다. 그 결과 4발은 명중시키고 나머지 8발은 바로 야포의 1~2m 주변에 떨어졌다. 완전 괴멸시키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그때 호 밖으로 뛰쳐나오는 적병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대로 몰살당한 것이 분명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나는 절로 신명이 나서 사격 결과를 FDC에 즉각 보고하려고 무전기의 송수화기를 얼른 집어 들었다.

“Round cap(제96포병대대 FDC) 14! This is nut cargo 7.(여기는 낮카고우 세븐.) 첫 번째 2발은 명중(target), 두 번째도 2발 명중이다! 적 포 완전 괴멸됐다! 수고했다! 사격 멈춰 임무 끝!(Cease firing end of mission!)”

“수고했다! 아주 장하다! 무공훈장을 상신하겠다!”

FDC 보좌관 장흥기 소위의 흥분해 달아오른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그의 귓구멍으로 신나게, 아니 환호성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아니다! 포병이 포를 쏘서 적의 야포를 파괴했는데 무슨 훈장인가! 훈장을 타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네 개는 신청했을 것이다. 우린 오로지 적을 쳐부수고 물리쳐 나라를 지킬 뿐이다. 나는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7. 전단 살포

6월 12일 두 번째(오전 7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전상황실에 들르자 민간인 통역사 박경식 씨가 나에게 중공군(中共軍)을 상대로 한 전단(傳單, bill) 한 뭉치(10,000)를 내주면서 적진에 요령 있게 뿌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받아 들고 항공기에 싣고 적진에 들어가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지상 가까이서 흩어져 떨어지도록 요령 있게 봉지를 뜯어 아래로 내던졌다. 그 뒤, 7월 13일 중공군의 인해(人海) 공격 이후부터는 전단을 뿌리는데 극심한 통신 교란으로 요지경 속이었다.

우리말, 북한 말, 영어, 중공군의 말, 게다가 처음으로 일본어로 교신하는 소리가 등장했다. 그 때문에 유·무선의 교신 상태가 혼선(混線)을 빚기 시작했다. 혼신(渾身)을 다해 싸우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다.

아무튼 휴전 직전까지 이렇게 전단을 수차례에 걸쳐 뿌리곤 했다. 뿌릴 때마다 그림과 함께 내용이 다른 전단이었다. 그 요지는 투항하여 죽음에서 벗어나 젊은 나이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를 하지 말고 한시바빠 투항하라는 권고 전단이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용병으로 끼어들어 귀한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투항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너무도 당연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8. '7.13 중공군의 인해(人海) 공격'

내가 전면전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날(7월 11일)부터 12일이 지나고 13일 마침내 전면전은 아니지만, 중공군(Communist Chinese Force)은 한국군 7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금성(金城)돌출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최대 규모의 병력인 이른바 5개 군(군단)으로 편성된 중공군의 최후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7.13 전투”, 또는 “중공군의 7월 공세”라 일컬었다. 공격 목표는 화천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 그때 2군단 휘하의 제3, 제5, 제6, 제7, 제8, 제11의 6개 사단과 미제 9군단 휘하의 수도(首都), 제9의 2개 사단이 중공군의 대공세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모두가 우리 국군 사단이었다.

지난 7월 11일 오전 07:10쯤에 군수품을 만재한 다섯 대 중의 네 대의 트럭을 파괴하려고 사격 요청을 했지만, 미제5포병단 종합비행대 작전상황실에서는 ‘일일 소모 기준량’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사격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는 분명한 어조로 2~3일 내에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었는데, 그 비극적인 상황이 하루가 지난 13일 오후 21시에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벌어졌다. 참으로 원망스러운 것은 미제5포병단이나 종합비행대 작전상황실에서도 전투가 벌

어지리라고는 감히 예상치 못한 어리석은 장교들이었다. 밤낮없이 적진을 정찰하면 서도 국부적이지만 대전투를 예상하지 못한 미군이나 한국군의 관측장교와 조종사 들... 더구나 짐을 만재한 트럭 5대의 좋은 표적을 무엇 때문에 외면하고 사격을 거 절했을까?

미군들은 혹시라도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 스럽기만 했다. 어떻게 이른 새벽부터 ‘일일 소모 기준량’ 이 다 소모되었다는 말 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차라리 오늘은 일체 사격하지 말고 그냥 정찰 만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야 옳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른바 「6·25 남침전쟁」 의 어 두운 한 단면(斷面)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였다.

하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을 보면 휴전을 앞두고 적이 원하는 대로 땅 을 양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진짜 속셈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 이 여기에 미치자 또다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확 치밀었지만, 끝까지 참아야만 했다.

사격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내가 크게 반발하니까 작전상황실에서는 할 수 없이 강릉 미제5공군에 연락하여 목표물을 파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잠시 후, 무전 이 날아왔다. 지금 목표물 상공에서 벗어나라. 공군기가 폭격하러 간다고 했다. 그 제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놓았다. 목표물인 적 차량 5대가 동쪽 의 어느 산자락에 개구리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곧 이어 내가 비행하고 있는 서쪽의 어느 고지인데, 네 대의 항공기(편대)가 날아와 동쪽을 외면하고 엉뚱하게 바로 앞 의 또 다른 고지 8부 능선에다 폭탄을 던지고 달아난 것을 보고 나는 순간적으로 실 망과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저 눈먼 전폭기들! 이제는 더 이상 포사격을 요청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적의 다섯 대의 차량과 병력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예상외로 행운을 타고난 것들이었다.

9. 7.13전투 기간 중 인명 피해 상황

7·13전투기간 중, 한국군은 14,373 명(전사 2,689, 부상 7,548, 실종 4,136)의 사 상자 및 실종자를 내었으며, 중공군도 확인된 손실 27,412 명(사살 27,216, 포로 196)

과 추정살상 약 38,700 명을 합하여 총 66,000여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10. 항공기 추락 사고(墜落 事故)

7월 20일 오전 5시. 나는 평소 5시에 일어나 철봉에 매달려 운동을 하고 평행봉도 하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현 철모에 물을 가득 담아 세수를 하려고 두 손바닥에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로 막 가져가려고 할 때였다. 누군가의 외치는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를 깨고 시원한 공기를 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내 귓구멍을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일까?’ 나는 다시 한 번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비행기가 떨어졌다! 비행기 떨어졌다!”

누군가 계류장 쪽에서 힘껏 지르는 소리였다.

“무슨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거야?!”

나는 그 순간 깜작 놀라 소리 나는 쪽으로 향해 힘껏 소리쳤다.

“비행기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치는 목소리를 듣고 보니 정비병이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비행기가 떨어졌다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다.

“누가 탄 비행기가 떨어진 거야?!”

나는 더 힘껏 소리쳤다.

“네, 김영복(충남 보령) 소위님과 김정기(전북 김제)소위님 두 분이 탄 비행기입니다.”

감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비행기가 떨어졌다니 경악과 함께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최대의 비보였다. 나는 그 길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장교 숙소로 달려가서 아직도 잠에 취해 있는 장교들을 향해,

“비행기 떨어졌다! 기상! 빨리 기상! 비행기 떨어졌다!”

하고 마구 소리쳤다. 그때까지 잠에 취해 있던 장교들은 놀라 하나 둘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무슨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거야?!”

장교들은 하나같이 놀라 두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김영복, 김정기 두 소위가 첫 번째(04시) 임무를 뜨려고 이륙했는데, 그만 활주로 북단 약 80m지점에서 추락한 거야! 자, 작전상황실 뒤쪽 하천(河川)에 떨어졌어요.”

나는 들은 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래? 야, 큰 일 났구나! 이런 비극이 어디 있나!”

그때 장교들은 일제히 활주로 북단 옆에 있는 작전상황실 앞으로 헐레벌떡 단숨에 달려갔다.

그 북한강 세류에는 벌써 미제5포병단에서 5~6명의 조사관들이 사고 현장에 나와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다. 정비 불량인지, 엔진 고장인지, 조종사 과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항공기는 벌써 다 타고 시골 초가집 굴뚝에서 새어나오는 연기처럼 솔솔 피어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 광경이 너무도 처참하고 허망해서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다.

실로 참혹한 것은 작전상황실 앞에 스리쿼터(3/4) 차가 멎어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김영복, 김정기 두 소위의 시신이 실려 있는데 담요(毛布)로 덮여 있었다. 너무도 참혹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목불인견(目不忍見)이란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켜 쓰는 것 같았다.

“참, 불행한 친구들이군!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나는 그 두 친구들의 주검을 보는 순간 너무도 참혹하여 메말라버린 줄로만 알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들이 어쩜 이렇게까지 비참한 주검이 되었을까. 더는 볼 수가 없어 돌아서서 남자답지 않게, 아니 군인답지 않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다보니 동기생 전정일(全正一) 소위였다.

“어쩜 일이야?”

“어서 2번 비행기 타야지 않나? 지금 비행대장님이 널 찾고 계신다. 어서 가 보라!”

“그래? 알았다. 가야지.”

나는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 숙소 겸 대기실인 한국군 비행대로 쫓싸게 달려갔다. 서둘러 정찰할 준비를 했다. 권총과 작전 지도, 쌍안경 등을 챙겨 가지고 항공기 계류장으로 달려가니 비행대장 박명웅 소령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오라! 2번기가 정찰해야 한다. 잠시라도 전선을 비워 놓으면 안 되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조종사와 관측장교가 한 순간에 목숨을 잃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보장이 없는 군인으로서 오직 허망하고 또 허무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항공기가 활주로 남단으로 굴러가서 작전상황실과 교신한 뒤 북쪽(전선)을 향해 힘차게 달리다가 활주로를 박차고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항공기는 활주로 북단을 지나 떨어져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 항공기 위를 날아갈 때는 마치 불에 타버린 항공기가 마구 잡아당기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아니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전방 깊숙이 들어가려는데, 도중에 고사포 탄이 항공기를 향해 무수히 날아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 작전 지도에서 그 고사포의 위치를 확인했다. 금성 앞 ‘경과’ 의 어느 산 밑에서 고사포 탄이 거세게 날아오고 있었다.

그때 즉각 제96포병대대 FDC에 좌표를 알려주고 포대 2발(열두 발)을 사격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탄은 곧 날아와 순식간에 그 고사포를 파괴해 버렸다. 사격할 때마다 실수 없이 명중시켰다. 나는 적 포의 위치만 찾아내면 언제나 백발백중으로 명중시켜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것이었다. 그때 비행대장 박명웅 소령은 놀라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

“김 소위는 역시 명관측장교야!”

“과찬이십니다. 관측장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만큼 하기가 쉽나? 표적에 제대로 명중시키는 경우가 흔치 않단 말이야. 지금까지 수많은 관측장교들을 겪어 보았지만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지. 괜히 칭찬한 게 아니란 걸 알라.”

비행대장 박명웅 소령은 그의 뜨거운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던 평소의 소감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었다.

11. 휴전협정(休戰協定)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맞았다. 정확히 말하면 3년 1개월 2일 18시간에 걸친 전쟁이었다. 전쟁 기간 중 심신이 너무 지쳐 있는 국군 장병들은 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후방 국민들은 휴전 반대 운동을 범국민적 조직적으로 전개했지만, 그동안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물의 손실이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해 보면 휴전은 불가피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쟁의 참화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국가 재건에 힘써야만 할 때가 된 것이다.

종합비행대에서는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관측장교들은 정찰하다 적을 발견하면 공격하는 작전 활동은 7월 27일 휴전 되는 날 정오(12시)까지만 허용되었다. 그 이후에는 적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적진을 감시 비행만 하게 되었다. 다만 적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북한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의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대로 진행되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세계 속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조상이었다고 칭찬하리라고 믿는다.

12. 훈장 수여식

9월 3일 오전 10시, 사방거리에서 왼쪽으로 쪽 들어가면 금화 미쳐 못 가서 왼쪽 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미제300포병대대 연병장에서 전쟁 기간 중에 공적을 세운 장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은 미제8군사령관을 비

롯하여 한·미 고위 장성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거행할 때 머리 위에서는 항공기가 편대로 축하비행을 하고…。 지상에서는 군악대가 축하 연주를 함으로써 한껏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과연 시상식다운 훌륭한 시상식이었다. 그런 만큼 감격과 자긍심이 가슴 속에서 절로 솟는 것 같았다.

여기서 나는 비행훈장(Air Medal)을 받았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전쟁 기간 중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적진 깊숙한 곳(회양)까지 들어가 그곳의 상공에서 적의 동태를 정찰·감시하고, 그 이남으로 내려와서는 야포, 고사포, 기관포, 탱크 등 9대를 비롯한 적의 병력, 차량, 보급품 저장소 같은 표적을 공격하여 완전 괴멸한 것은 아직도 혁혁한 전과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자랑스러운 전과는 죽는 그 날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념비적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것은 내 인생을 대변해 주는 기념물(Remembrance)이라 생각한다.

13. 원대 복귀

그새 세월이 시냇물처럼 소리 없이 빨리도 흘러갔다. 나는 1953년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원대 복귀하라는 제96포병대대(장. 박영제 중령)의 지시에 따라 후배 장교와 교대하고 그새 정들었던 종합비행대를 떠나 부대로 복귀했다. 종합비행대 생활이 자유롭고 편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적진 정찰 활동을 아무 탈 없이 마친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고 편하게 지냈던 비행장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만 여덟 달 동안의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이 새삼스럽게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한편 비정하고 참혹하기 짝이 없는 전장에서 적정을 감시하고 적의 야포·고사포·기관포·시설물·차량·병력(兵力)등을 괴멸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린 비행대 생활. 장교들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춘천시 중앙동에 있는 ‘아리랑회관’에 가서 사기 진작을 위해 미회

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머리에 앞 다투어 속속 떠올랐다. 그 아름다운 젊은 날의 전사적(戰史的), 기념비적인 추억들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아 때 없이 그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회상에 잠길 수 있는 감상적인 존재가 바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 같다.

원대 복귀 후에는 제96포병대대 C포대 전포대장으로 보임되어 연일 이어지는 자체 교육, 부대 정비 등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힘들수록 내 머리 속에서는 그 비행장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을 어떻게 뿌리칠 것인가. 이제는 두 번 다시 비행대 생활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없이 눈물겹도록 그 시절이 절절히 그리워지는 것을 어찌하라. 어찌면 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도 지워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14. 6.25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상황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유엔군 전사 57,933 명, 전상 및 실종 482,202 명, 포로 5,773 명이다. 한국군 전사 137,899 명, 전상 450,742 명, 실종 19,392 명이다. 한국군은 이 밖에도 게릴라 토벌 등에 종군한 경찰관 전사 3,131 명, 부상 6,760 명, 납치 403 명, 실종 7,084 명이다. 또 청년단 피해도 적지 않다. 청년단 전사 628 명, 부상 672 명, 납치 134 명, 실종 222 명이다. 전국 인명 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 244,663 명, 학살 128,936 명, 부상 229,625 명, 납치 84,532 명, 행불 303,212 명으로, 총 합계를 보면 990,968 명에 달한다.

북한군 인적 피해 상황은 아래와 같다.

사망 508,797 명, 실종/포로 98,599 명,

중공군 피해 현황은 사망 135,600 명, 부상 208,400 명, 실종 3,900 명, 포로 21,700 명으로 이를 합하면 피해는 369,600 명이다. 여기에 비전투 손실의 경우 사망

13,000, 부상 590,000명이다. 이 피해를 종합하면, 무려 972,600명에 달한다. 실로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생명들이 허무하게 쓰러져 간 것이었다. 이 지구상에서 두 번 다시 이 같은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참전 용사 박종남의 6·25전쟁 증언

나는 1925년 10월 5일 횡성읍 정암리 398번지에서 박응석, 장원출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일제의 사슬에서 광복이 되었지만 남북이 분단되어 어수선하던 1949년 8월 9일 24세 때 국방경비대에 지원하였다. 원주에서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그해 서울수도사단 대전차 공격대대에 배속되어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음해 6·25전쟁이 발발하자 치열한 미아리 전투에서 서울을 사수하



박종남

려 목숨을 걸고 공산군과 전투를 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경주 안강으로 후퇴, 치열한 격전을 거듭하며 사수를 하였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호전되고 인천상륙작전 성공, 서울탈환의 여세를 몰아 우리 사단도 공산군을 격퇴시키며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였다.

나도 수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적군을 몰아내는데 선봉에 섰다.

이렇게 통일을 눈앞에 두는듯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혹독한 엄동설한에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며 후퇴를 하게 되었다.

1·4후퇴로 밀고 밀리는 전선에서 수많은 전사자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전투는 계속되었다.

나는 트럭을 타고 작전지로 이동 중 적의 공습에 트럭이 전복 중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으나 제대 후 평생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다.

치열한 격전을 겪으며 육군상사(선임하사)로 진급되어 6·25전쟁 내내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벌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1950년 화랑무공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1955년 9월 10일 6년 동안의 군 복무를 마치고 육군 상사로 예편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와 부인 이금순과의 슬하에 2남 4녀를 두고 극한의 참혹한 전쟁을 이겨낸 저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힘든 농사일도 마음만은 행복했다.

생사를 넘나드는 격전의 전선에서 살아 돌아온 것도 복인데 2남 4녀가 훌륭하게 잘 자라 준 것은 고맙고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70년이 흐른 6·25전쟁!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픈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 당시 군가가 상징하듯 민족의 비극 참혹한 전쟁에서 참전용사들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다.

후세인들이 그에 대한 최선의 보답은 6·25를 기억하고 또 있을지도 모를 위기에 대응하는 길이라 믿는다.

내가 겪은 6.25 전쟁



백 범 세

내가 사는 경남 고성군에 인민군이 나타난 건 전쟁이 발발하고 1개월 후 였다.

고성군 상리면 북포리 오토바이를 탄 인민군이 우리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 상리면 쪽으로 도망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비로소 전쟁이 난 것을 실감했고.

3일 후 인민군 대대 병력이 2백 여호 되는 우리 마을에 들어 와 한집에 4-5명씩 분산 배치 됐다.

그리고는 그날 밤 통영시를 점령했다.

그 해 음력 8월 11일

UN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인민군은 고성을 지나 진주쪽으로 후퇴를 했고 일부는 지리산으로 숨어 들었다.

그때 나는 인민군 패잔병들에 의해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1950년 11월 내게 입영통지서가 나왔다.

나는 입영통지서를 들고 고성초등학교 연방장으로 향해 그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허나 몸이 약했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귀가를 했다.

그리고 1953년 2차 징집영장이 나와 마산을 가서 기차를 타고 경북 포항에서 20일 대기하고 있다가 신체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이번에는 합격.

거기서 2일 간 머무르다 우리들은 LST를 타고 제주 훈련소로 향했다.

제주 신병훈련소 9연대 192 중대.

그곳에서 120일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휴전 소식이 들려왔다.

1953년 7월 27일.

훈련을 다 마치고 우리들은 다시 배를 타고 부산 동래국민학교에 집결 해 부대배치를 기다렸다. 같이 간 고향친구들은 방한복을 지급받고 강원도 최전방으로 떠났고 나는 3일을 그곳에서 대기하다 김해에 있는 공병학교를 갔다

8주간의 공병교육을 마치고 다시 1205 건설 공병단 212 건설공병대대에서 4주 창설교육을 받고 통영시에 우리 대대는 주둔했고 우리 중대는 인근 거제포로 수용소에 가 수용소 철수 작업을 했다.

실제 가 보니 포로수용소 시설이 어마어마 했다.

포로수용소 철수 작업을 마치고 우리부대는 대구 성당동 상이군인 주택 150동, 대신동 강명원 주택 150동을 건설하고 경주 시내에 있는 18 육군병원을 건설했다.

그때 나는 이등 상사로 진급을 했다.

그 후 전후방 부대 교체가 있어 춘천보충대를 거쳐 황성 공근에 있던 101 야공단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원주 태장동 215 건설 공병대대에서 20일 정도 머물렀다.

운천에서 신철원 가는 한탄강 교량건설에 참여했고, 1107 야공단 103대대 2중대 3소대 선임하사로 황성 뒷내다리를 건설했다.

그날 뒷내다리 교량 준공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해 준공 테프를 절단했다.

지금도

뒷내다리를 바라보면 그때 장면이 떠올라 감회가 남다르다.

그 후

우리 부대는 황성을 목계리 102 대대 자리에 주둔했다.

석광운의 6·25 전쟁 참전기



석 광 운

횡성 전투는 1951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횡성 일대에서 국군 제3·제5·8사단, 미 제2사단·제7사단, 네덜란드 대대 등이 중공군 제39·제40·제42·제66군, 북한군 제3·제5군단과 전투를 벌인 격전지이다. 내가 살던 횡성 공근면 초원리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나는 이 곳에서 아내와 아들 (석인국 4세) 가족을 돌보며 혹독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다.

6·25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며 휴전을 앞두고 피아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했던 1953년 1월 나는 26세로 국군에 입대 기초 훈련을 마치고 중부 전선에 투입되었다.

휴전을 목전에 두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철원 평야를 사이에 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또는 더 이상 안 빼앗기려고. 중공군과의 전투는 치열했다.

주인이 수없이 바뀌는 중부전선 철원 금성산 칼 능선! 수 없이 빼앗기고 뺏기는 과정에서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하고 그 공백을 보충병들이 계속 채워나갔다. 나도 전사자들 대체 병력으로 중공군과 싸우기 위하여 금성산 밑에 대기하였다.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군악대의 군가 연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싸우라는 부대장의 당부와 함께 독한 위스키를 직접 따라주며 무운을 빌었다.

배낭, 모포 등 전투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전투를 하기 위한 개인 장비 없이 수류탄만 두 개씩 지급되고 그 외의 것은 고지의 주인 잃은 전투 장비가 많으니 모포, 배낭, 소총 등 그를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포복으로 고지에 진입하니 전사자의 시체가 수없이 흩어져 있고 주인 잃은 장비도 많았다. 전선은 적막감이 들도록 조용하고 호 속에서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밤이 깊어 기분 나쁜 쾅거리 소리와 피리 소리가 밤의 적막을 깨뜨렸다.

적의 돌격 명령이 내려진 모양이다. 소총사격을 가해 보지만 적은 계속 올라왔다.

이제는 가까이 오는 적에게 수류탄을 1발 던지고 또 안전핀을 뽑으려는 순간 오른 손이 적의 총알에 관통되었다.

나는 순간 호 속을 얼른 빠져나와 비탈로 굴러 고목 뒤에 몸을 숨겼다. 이 때 고지는 중공군이 완전 점령, 고립되어 발각되기는 시간 문제였다.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시체더미 속에 들어가 죽은 척 하였다. 이렇게 사흘을 보내는데 관통상을 입은 손은 출혈과 함께 저러오고 굽주림과 총상의 고통 속에 신음하였다. 중공군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주변이 조용해짐으로 시체더미 속을 헤치고 겨우 기어 나왔다. 고향의 처자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정신력이 나를 지탱하게 하였나 보다. 기력의 쇠잔으로 비틀대며 적 영역을 벗어날 때 총성을 입고 쓰러져 있던 초원리 마을 친구인 입대 동기 오길전과 마주쳤다. 생사를 같이하며 적과 싸운 친구였다. 그는 아직 의식이 있지만 중상을 입어 몸이 말을 안 들었다. 친구는 살려달라고 애원, 함께 가자고,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나 스스로의 육신도 추스르기 힘든 상황에서 친구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얼싸안았을 뿐이었다. 나는 울부짖는 친구를 뒤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구사일생 부대로 귀환 그만 정신을 잃었다.

그 후 국군병원에서 부상을 회복, 1953년 11월 전역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금성화랑무공훈장 수훈과 상이 5급

손호익의 6.25전쟁 참전기



손 호 익

국민방위군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악화되어 가는 전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 해 12월 17일 < 제2 국민 병 소집령 > 을 발동, 약 50만 명의 장정들을 전국 각지의 51개 교육연대에 분산 수용, 국민방위군을 편성하였다.

당시 동양공과전문대학교(동양미래대학교의 전신)의 학생이었던 나는 국민방위군에 소집이 되어 마산방위군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1951년 초 '1·4후퇴' 를 당하여 서울과 각지의 방위군은 부산까지 약 15일간에 걸쳐 도보로 후퇴하였다.

보급품도 없이 하루에 주먹밥 한 덩어리로 배를 채우고 가마니로 이불을 삼는 참상 속에서, 아사자·동사자·병사가 수 만 명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후 뜻있는 사람들은 군이나 경찰에 입대하였는데, 나 또한 1951년 3월 21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으며, 훈련 후 강원도 인제 현리부군에 주둔하고 있던 9사단 30연대에 배치되었다.

그 때만해도 나는 6.25 전투 중에서도 가장 참담한 패배를 한 전투, 그 전투가 바로 현리에서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다. 현리전투는 1951년 5월16일부터 22일까지 현리지구에서 우리군 3, 5, 7, 9사단이 중공군과 북한군 4군단을 맞아 싸웠던 전투였다. 중공군은 우리의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하고 당시 국군 3군단의 퇴로였던 오마치고개 (한국전쟁당시에는 후방 보급로상의 중요한 거점이며, 지금도 홍천, 횡성, 정선을 잇는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도로이다) 를 차단, 우리군 5연대가 현리로 집결, 서로 뒤섞이는 혼란을 겪으며 그 주변일대가 완전히 포위되어 꼼작 못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군은 군단하나가 완전하게 전투력을 상실하였으며, 지휘 체계를 잃은 병력은 중대. 소대 단위에서 10명 규모로 뿔뿔이 흩어졌다.

소총을 버린 병사도 부지기수였으며, 일부 장교들은 계급장도 떼고 도망하기에 바

뻘다. 악전고투속에 중공군에게 겨 도주하면서 사살된 한국군이 너무 많았으며 살아남은 군인 수천 명은 대부분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고, 육군3군단은 병력 60%를 잃고 부대가 해체되는 치욕을 겪게 되었다.

나 역시도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모진 고난을 겪게 되었으며, 배고픔과 탈진으로 죽어간 많은 전우들의 참혹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공군은 포로가 된 국군을 25세 이상과 미만으로 분류하여 25세 미만은 금강산 뒤로 이동시켜 재교육, 재무장을 통해 인민군으로 만들었으며, 25세 이상은 후방으로 인솔한 후 실탄이나 양곡을 전방까지 운반하는 수송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포로군인들을 낮에는 나무그늘에서 잠을 재우고, 밤에만 이동을 하게 하였다.

당시 25세 미만이었던 나는 인민군이 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중공군의 눈을 속이고 25세 이상의 대열에 합류, 금강산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포로생활을 계속 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인지라, 같이 포로생활을 하며 알게 된(지금은 이름도 기억해 낼 수가 없게 되었지만) 육군중위 한명과, 하사 한 사람과 함께 야밤을 틈타 허술해진 중공군의 경계를 뚫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하였다. 간신히 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도주에 성공, 산속에 숨어들었으며, 기회를 엿보아 후방 쪽으로 내려가기위해 몸을 숨기던 중, 중공군의 적진지인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미군 한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미군은 물을 찾아 나왔는지 수통을 여러 개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잘못하여 길을 잃은 듯 해보였고, 이를 발견한 우리 세 사람이 그 미군에 접근하려하자 여기저기 숨어있던 국군 열 명 정도가 동시에 뛰어나와 그 미군을 구하려했다.

아마 우리처럼 포로에서 탈출한 국군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해 목숨을 건진 미군이 우리 일행들을 미 해병대 본부로 안내하여 천만다행으로 적군의 수중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미 해병대 본부에 도착 후 여러 차례 그간의 행적들에 대한 심문을 마친 그들은 우리를 원주에 있는 낙오자수용소로 보냈으며, 원주 낙오자수용소에서 며칠을 보낸 후 다시 자진입대를 희망하여 제5경비대대에 배치를 받게 되었다.

한국전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이 총 반격으로 북진을 계속하자 남

한에 남아있던 낙오된 2만5,000여명의 북한군은 후방에서 국군을 교란하는 공작을 펼쳤다.

이를 토벌하기 위해 국군은 군. 경 합동으로 1950. 10. 4.~ 1953. 5. 1일까지 대대적인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내가 속한 제5경비대대는 당시 경상북도 일월산 및 태백산, 소백산을 중심으로 공비토벌을 도맡아 했던 부대였으며, 부대원들은 새벽4시부터 밤10시까지 도보로 움직이며 공비들을 추적하고 다녔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던 제5경비대 제3중대장이 나를 자신의 연락병으로 삼아 데리고 다니며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여 그 전쟁와중에도 중대장에게 틈틈이 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던 선친께서 일본 순사 대에 끌려가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겪었고 풀려나신 후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도피를 하셨다. 그곳에서 태어난 나는 현지인 학교에서 중학교를 다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었다.

해방 후 선친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인천을 통해 귀국, 지금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자연스레 중국어를 할 줄 알았던 나는 현리 전투 당시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불려 다니며 중국어 통역을 하였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중대장은 육군군사정보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였고, 육군군사정보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대구방직(조선방직)의 정보부대본부 직할중대 통역과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 후 포천에 있는 제2군단사령부 부속 정보부대로 전근하여 1955년 5월 9일 일등중사(하사)로 제대를 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방위군을 거쳐 육군에 자원입대 한 후 4년 이상을 군복무에 충실하며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던 젊은 시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수호한 내 조국! 그때야 말로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였던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횡성군 갑천면 외갑천로에 살고 있는 나는 어려웠던 지난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오지 않고 후세들이 번영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강화도에서 특공대원으로 싸운 안효명씨



안 효 명

내가 살던 강화도는 개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제일 먼저 총성과 포성을 들을 수 있었다.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으로 강화도에 있던 국군은 적에 맞서 용감히 싸웠으나 워낙 열세라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군 치하에 든 마을에서는 전쟁을 치를만한 젊은이들은 의용군으로 끌려가 마을에는 노인과 아녀자만 남게 되었다. 인민군들은 밤낮으로 마을 사람들을 끌어내 사상 교육을 시키고 북측 찬양교육에 열을 올렸다. 또한 공무원이나 남측에 협조적인 사람들을 끌어다 인민재판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학살을 감행했다.

그때 강화도 특공대 대장이었던 최종식 씨는 마을에 남아있는 애국 청년들을 규합해 특공대를 조직하고 서부전선에 있던 미군에게서 무기와 탄약을 구해 와 특공대원들에게 사격과 전투 훈련을 시킨 뒤 해안경계 근무를 주로 하며 적과 많은 전투를 치렀다. 나도 그 특공대 대원으로 참가해 밤낮으로 해안가에 참호를 파고 매복을 해 해안으로 침투하는 인민군과 많은 전투를 했다.

그렇게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조직된 특공대는 휴전이 될 때까지 맹활약을 펼쳤다. 그야말로 군번도 없이 오직 나라를 구하고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자 특공대는 자동 해산이 됐다.

휴전이 되고 1960년 6월 2일 나이가 두 살 줄어 다른 친구들보다 2년 늦게 군에 입대를 했다.

논산 훈련소 25대대 6중대 2소대.

그리고 1군단 통신대대에 가서 8주 동안 통신교육을 받고 12사단 37연대 3대대 본부중대 통신병으로 근무를 하다 1963년 3월 16일 전역을 했다.

오봉도의 6·25참전기



오 봉 도

나는 황성군 읍하 6리 진명빌라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6·25 참전용사로서 처절했던 전선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서울 삼육고등학교 2학년 때 6·25가 발발하였고 그 때 내 나이 열일곱 살이었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어차피 나가 싸워야할 피치 못할 운명! 1950년 12월 15일 어린 나이지만 나는 주저 없이 서울 비원에서 자원입대하였다.

대구 8교육대(대구 농림학교)에서 15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0179393 군번호 받아 대한민국 국군용사가 되었다.

6사단 19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소속으로 압록강까지 진격 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 작전 중, 이북 덕천 낙오병 대기소에서 낙오병과 함께 부대가 재편성되어 전력을 가다듬었다.

그 후 중공군과 교전하면서 북창으로 후퇴 2일간 격전,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다시 순천으로 후퇴 전선을 유지하며 3일간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제 2전선으로 평양 모란봉과 평양시내에서 2일간 전투를 벌였으나 중공군의 인해전술과 아군의 사기 저하로 신계까지 밀려 2일간 격전, 다시 경기도 전곡까지 후퇴 3일간 격전, 동두천을 거쳐 의정부까지 후퇴 격전이 이어졌다.

전투식량은 소금 바른 주먹밥. 그것도 딱딱하게 얼어붙어 그냥 뜯어 먹기도 하고 불에 던져 재 묻은 밥을 그냥 먹었다. 식수는 투구에 눈 녹인 물을 먹으며 중공군의 대병력에 양평, 용문산까지 밀려 악조건 속에서도 전투는 계속되었다.

1951년 1월 경기도 이천까지 후퇴 516고지 탈환전은 아주 치열하였다. 우리 부대의 타격도 컸지만 목숨을 건 이 전투에서 중공군 200여명을 사살하고 따발총 150정, 수류탄 500여발을 노획하였다.

나도 이 전투에서 분대원과 같이 중공군 5명 사살, 따발총2정, 수류탄 5발 등을 노획하였다.

나는 다시 3일 후 516고지 탈환을 위해 516고지 능선으로 돌격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중공군의 따발총에 내 M1총이 맞아 두 동강이 나며 오른쪽 팔 총상을 입었다.

다시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어 이천 미군 야전병원에서 응급 치료 후 부산 제3 육군 병원에 비행기로 후송 치료를 받았다.

그 후 839부대로 소속되었다가 1951년 7월 15일 명예 제대, 삼육고등학교 3학년에 복학 하였다.

유원선의 6 · 25참전기

유 원 선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은 무방비 상태의 대한민국을 불법 남침, 평화스러운 조국 강산을 짓밟았다. 그러나 우리의 용감한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을 압록강까지 몰아내고 꿈에도 그리던 통일을 눈앞에 두었다. 그러나 엄청난 중공군의 침략으로 우리 국군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당시 청년 방위대원으로 다른 대원들과 함께 원주를 거쳐 단양, 충주를 거쳐 안동으로 가게 되었다.

동난 피난길은 길이 꼭 막혔고 아주 비참했다. 우리는 단양까지 가서 죽령재 밑 대각면에서 자게 되었는데 새벽 4시경 난데없는 총성이 나기 시작 천지가 발칵 뒤집히듯 하였다.

우리 자는 방에는 총알에 뚫리어 먼지가 자욱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얼마 후 총성이 나는 산에서 피리 소리와 노래 소리가 요란 하였다. 총성이 요란할 적에 뛰어나간 사람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산더미처럼 쌓였다.

아이쿠 인민군에 포위되었구나 생각하며 단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우리 길을 막으며 단양으로 가면 죽는다 이 길로 가라하며 산골짜기로 유인하였다. 우리 170여명이 산골짜기로 들어가 보니 인민군 일개 여단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숫자였다.

그 이튿날 우리는 그들에게 심사를 당하며 고초를 겪었다. 그들은 우리를 1개 소대로 편성 시켰는데 나는 2분대가 되었다. 분대장은 이수영이라는 사람이 뽑혔다. 그는 피난민이라고 칭하며 우리 동네에 방을 빌려 약 2개월 살다가 우리 대열에 끼어 있던 자인데 알고 보니 남로당 출신이었다.

우리는 아시보 장총과 썰가리 같은 단창이 달린 뼈아리 총을 멘 두 놈에게 감시를

당하며 어느 민가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안 노인 한 분이 나오더니 인민군을 보고 당신네가 백성을 살린다더니 식량을 모조리 빼앗고 짐승 하나 안 남기니 우린 어찌 살란 말이요! 하면서 통곡을 하니 까 인민군은 노발대발 사정없이 총을 쏘아댔다.

저녁 잠 자리에든 우리는 놈들 옷에 우글대는 이를 잡아주며 모든 지혜를 짜내 안심 시켰다. 그리하여 놈들이 잠든 사이에 옆구리를 쿡쿡 찢러 가며 탈출에 성공하였다. 나는 갖은 고생과 고초를 겪으며 포로가 되었다 탈출, 황성 서원면 유현리 집에 와서 52년 7월에 국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나는 1952년 6월16일 백마마크가 선명한 9사단 29연대 3대대 3중대 2소대에 배치되어 적군과 싸우게 되었다.

휴전설이 자자하니까 쌍방에서 한 치라도 더 빼앗으려고 매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1953년 6월 29일 소대 전원 집합하더니 장교들이 직접 위스키를 따라주면서 전방 출동이니 실컷들 마시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라 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름도 백마고지 바깥 밑에다 하차하여 보행으로 또는 포복으로 주 저항선에 도착하였다. 적에게 빼앗다, 빼앗겼다 ;를 수십 차례! 전날 밤에는 제1소대가 적에게 고지를 빼앗겼다.

17시 30분이 교대 시간이라 전초 고지 바위 밑에서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그 때 옆에서 팡하며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 바람에 우리 부대 위생병이 즉사하고 말았다. 우리 부대에는 약 20분 동안 고지를 향하여 포사격을 가하여 짓이겼다.

잠시 후 돌격 명령이 내려져 올라갔는데 서로간의 수류탄이 비 오듯 하였다. 놈들은 급하여 후퇴를 하면서도 한 초소에 한두 명씩 죽을 놈으로 남겨두고 싸우게 하였다. 그 어마어마한 사이 올라가서 완전히 탈환하는데 약 한 시간 반이 걸렸다.

고지 길이가 50M 가량의 암석이지만 포탄으로 짓이겨져 시체와 배합되어 발목이 푹푹 빠지며 이루 말 할 수 없는 처참한 정경이었다.

낮은 포복을 하느라 나의 엠원 소총 약실에는 흙이 들어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에이 알 소총을 가지고 적 방향을 응시 수비 하는데 낭떠러지기 저 쪽 중공군 진지는 마치 불개미 떼를 건드려 놓은 것 같았다.

밤은 깊어 어느덧 20시 경이 되었고 우리 조는 바위굴에 재배치되어 적과 싸우게 되었다. 비에이 알조는 4명인데 사수, 부사수, 탄약수, 소총수 이렇게 1개 조가 되어 나는 사수로서 온 몸을 바위굴 속에 넣고 머리만 적면에 내놓고 연속 사격을 가하였다. 그런데 적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직사포 사격을 가해 왔다. 그리하여 굴 밖에 있던 부사수, 탄약수, 소총수는 포탄에 다 날아가고 말았다.

갑자기 주위는 적막하고 4명이 있다 혼자 남고 보니 나는 몹시 초조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바위굴 밖을 나와 주위를 살피고 다시 들어가는 찰나 또 적의 직사포탄이 떨어졌고 내 팔은 떨어지고 총은 온데 간대 없어졌다. 그래서 소대 본부에 기어와 쓰러졌는데 또 옆에 포탄이 떨어져 궁둥이가 다 헤어졌다.

청주가 고향인 김 선임하사가 와서 부축을 하여 일으키는데 팔이 다 부서져 한쪽 가죽만 남아 팔이 없다고 찾았다.

김 선임하사가 압박 붕대로 부상 처를 동여매고 바위 밑에 가만히 엎드려 있으라고 하였다.

이를 악물고 엎드려 있는데 30일 새벽 4시에야 노무자들이 보급품을 짊어지고 왔다. 그 고지는 일일 보급이 새벽 4시 한번 뿐이다.

보급품을 분배하며 소집을 하고 보니 일개 소대가 겨우 6명밖에 없었다. 나는 노무자들에 의해 어렵게 후송되어 몇 개월 국군병원 병상에 있다 병장으로 명예 제대 상이 2급 판정을 받았다.

이병만의 6.25전쟁 증언



이 병 만

나는 황성 우천면 두곡리 출신으로 1950년 19세 때 국군에 입대, 6300330 군번을 부여받고 제 7사단 제 3연대 제 1대대 육군 직할 51통신대대에 소속되어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다.

개전 초기 공산군에 밀려 후퇴를 거,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겼지만 전세를 가다듬어 적군을 몰아냈다. 나도 통신병으로 복진을 계속하던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비호산 지구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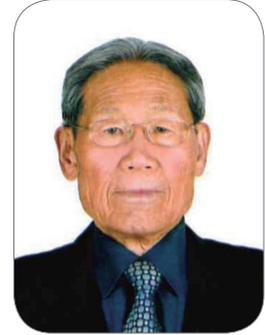
1950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공군 제 38군 112 · 113 · 114사단과의 전투였는데 나는 육군 직할 51통신대대 소속으로 7사단 3연대 1대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지만 밀리고 밀려 개천에서 후퇴하면서 설상가상 인민군의 기습으로 대대병력의 2/3가 큰 피해를 입어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많은 희생을 치루며 영월까지 후퇴 1951년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6일간 영월읍 일대에서 7사단과 북한군 제2군단과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특히 야간에 육박전이 전개되었는데 야간에 피아를 구별할 수 없어 어깨를 만져보고 금속 장식이 있으면 아군이었고 없으면 적군으로 판단하여 치열한 육박전이었으며 이러한 전투에 참여하면 대부분이 전사였다.

이 전투가 끝나고 봉평에서 황성으로 넘어 오는 산에는 인민군 진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전사가 많았는데 나는 천운으로 살아남았다.

정수경 일병 6.25 참전기



정수경

1953년 1월 10일.

전쟁 막바지

38선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그야말로 고지 하나를 두고 수십 번씩 주인이 바뀌며 뺏고 뺏기는 피나는 전투가 계속 되었다.

나는 보병 1사단 12연대 포병 제 17대대 B포대 전방 관측병으로 전투에 참가 했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곳리 전방 노리 고지를 탈환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

얼음이 언 한탄강에는 적의 시체들이 달빛아래 즐비했다.

적은 배수진을 치고 우리를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해왔다. 나는 카빈 소총을 메고 사격을 가하며 마침내 적진을 관측 해 포대 FDC에 보고했다.

‘Time on target’

한 목표위에 포탄을 집중 해 날리는 사격 형태이다.

내가 정확한 적의 위치를 포대에 보고하자

곧이어 우리 포대에서는 TOT 포격이 시작 됐다.

그 포격으로 적의 진지는 초토화 됐다.

나는 1952년 4월 16일 입대 해 12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1963년 8월 31일 전역했다.

전역 당시 내 소속은 포병 제 333관측 대대. 중위로 전역.

정위철의 6.25 전쟁 참전기

나는 황성군 우천면 문암리 출생으로 19세 때인 1949년 7월12일 입대하여 8사단 21연대 2대대 8중대 1소대에 배속 되었다.

161cm의 단신으로 M1 소총을 들고 힘겹게 훈련을 지켜보던 인자한 전만수 상사는 통신병이 될 것을 권하며 이를 주선하여 주셨다. 이렇게 하여 육군통신학교 무선과를 1949년 12월 2일 7기를 졸업하고 통신병이 되었다.



정 위 철



육군통신학교 무선과 7기 졸업기념 (1949.12.2)

나는 6.25전쟁의 아침을 강원도 강릉에 주둔한 제8사단 통신 중대 무선소대 수신소에서 맞이했다. 이날은 일요일이라 외박도 나가고 농번기 일손 돕기 휴가를 가서 영내는 조용했고 아주 평화스러운 아침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령부 정문 앞 연병장에는 50포병대대 105mm곡사포가 총 동원되어 주문진 방향으로 쏘고 있었다.

무슨 포사격 훈련을 하필이면 공휴일에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침 10시 경에 육군본부의 전문을 받아보고 북한군이 오늘 새벽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요즘 일부 세력들은 우리 군이 북한을 먼저 공격해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6.25 전쟁 산증인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왜 이따위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8사단 사령부는 1950. 6. 26 대관령으로 후퇴하였으나 며칠 못 견디고 또 후퇴를 했다. 강릉이 벌써 인민군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우리 사단은 제천, 영주, 안동, 영천, 대구가 멀지 않은 화양까지 후퇴하였다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1950. 9. 15 전진하기 시작, 1950년 10월 2일 황성을 경유하게 되었다.

시가지는 폭격으로 대부분 전소되었고 그때까지 꺼지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도 있었다.

우리 누님집도 전소되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서원면 골짜기에서 패잔병의 기습도 받았지만 무사히 서울에 입성하였다. 1950년 10월 9일 38선을 돌파하고 계속 전진했다.

황해도 곡산, 평남, 양덕, 강동, 성천, 가창을 지나 1950년 10월26일 압록강이 얼마 남지 않은 평북 희천까지 진격했다.

이곳은 많은 주민들이 피난도 안가고 있었으며 거리에 나와 만세를 부르며 환영해주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사라지기 전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우리는 눈물을 삼키며 후퇴를 하게 되었다. 전쟁기간 중 최전방에서 전투는 하지 않았지만 전투가 치열할 때에는 사단사령부 병력도 최전방에 투입되어 실탄, 포탄, 식사등을 운반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했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들도 있었다.

끝없는 후퇴로 모두 사기가 저하되어 힘든 상태에서 50년 11월 30일 후방 부대가 부사단장 지휘 하에 후퇴하다가 평북성천 어느 협곡에서 패잔병의 기습을 받고 포위되었다. 맨 앞차인 통신차량 스리쿼터 기사가 전사하는 바람에 모든 차량이 멈췄다. 내가 타고 있는 통신참모 지프차도 GMC 앞차를 들이 받고 멈췄다.



정 위 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나는 지프차 앞 유리를 들이 받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앞 유리가 박살이 났다. 철모가 나를 살려준 것이다. 적탄은 비오듯이 날아와 철모와 꺾전을 스쳐갔다. 전진도 후퇴도 못하고 독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모두 깊지도 않은 배수로에 엎드려 적탄을 피해보았지만 주위에선 적탄이 꽃히는 소리가 팍팍 팍팍 나며 먼지를 일으켰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위철 어머니 전주 이씨

당시 식당 등에는 민간인이 많이 있었다. 내 뒤에는 어느 아주머니가 엎드려 있었는데 내 군화를 잡아당기기에 뒤돌아보니 실탄을 맞고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 하염없는 눈물만 흐르고 입술만 타들어갔다.

주위에는 많은 지폐가 널려 있었다. 경리참모부에서 장병들 봉급을 줄 돈인 모양이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적탄은 쉴 새 없이 날아왔지만 도로에 차들이 가로막아 정조준을 못하는 것 같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탱크소리가 나고 탱크 포 쏘는 소리가 나더니 패잔병들의 총성이 멎었다.

그 틈을 타서 우리들은 포위망을 벗어나올 수가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동행하던 미군 고문관들이 주위에 있는 탱크부대에 연락하여 우리를 살렸다. 우리 후방부대는 전투 병력이 없어 대항도 못했다. 더우기 지리상으로 불리했다.

패잔병들은 도로 좌측 산에 있었으며 우리는 도로 우편 배수로에 은신하여 있었기 때문에 적과 대항 하려면 차들이 서있는 도로를 건너 도로 좌측배수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적에게 100% 노출되어 당해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살아서 탈출한 것이 천운으로 생각했다.



강원 금화 격전지에서 정위철



양구 원당리에서 정위철과 전우들

1950년 12월 2일 평북 흑농이란 곳에서 잠시 주둔했다가 다시 후퇴하게 되었는데 주위에서는 패잔병들의 박격포 쏘는 소리가 우리를 긴장시켰다.

가끔 주위에서는 포탄이 떨어져 급하게 후퇴 준비를 마치고 통신무선 차량에 4명이 탑승했고 휘발유도 한 드럼 실었다. 박격포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금속성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휘발유 드럼에서 휘발유가 수돗물처럼 쏟아졌다. 박격포 파편이 휘발유통을 관통한 것이다. 우리는 재빨리 드럼통을 차에서 내려굴러 화재를 면했다.

이러한 조치를 빨리 못했으면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을 텐데 하나님의 도움이었는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휴전 당시 정위철



양구 천도리에서 정위철과 전우 왼쪽 고성태, 오른쪽 정위철

우리 사단은 후퇴가 계속되었다. 평남, 황해도 신계를 거쳐 1950년 12월 10일 눈물로 3·8선을 넘어 경기 연천 땅에 도착했다.

며칠만 더 전진했으면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남북통일의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을 텐데 통탄스러웠다. 우리 사단은 후퇴를 계속하고 있었다.

날씨는 매섭게 춥고 눈은 3,4일전부터 계속 내렸다. 천지를 진동하는 포성은 그칠 줄 몰랐다.

또다시 피난 보파리를 싸야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어찌 보라!

1950년 12월 30일 나는 통신참모님(박경태 소령)을 따라 육군본부가 있는 대구로 출장을 갔다. 참모님의 전속 통신병으로 지프차에 무전기를 설치하고 사단과 교신을 했다. 대구의 모습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지 유흥가는 흥청거리고 긴장감이 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1951년 1월 9일 우리 사단은 충북 목계리까지 후퇴하였다가 다시 1951년 2월 7일 내 고향 횡성으로 전진하였다. 오래간만에 맞보는 전진이다.

다 타버린 횡성 벌판에는 쓸쓸한 바람결에 무심한 재 가루만 나를 맞아 주었다.

누님소식이 궁금했는데 우연히 누님 이웃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에 정신이 아찔하였다. 누님의 행방은 모르고 조카 승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메였다.

1951년 2월 11일 통신참모님과 내 고향 횡성 우천면 문암리를 갔다. 동네주민은 아무도 없었고 집들은 온전한데 군인들만 북적였으며 부모님과 형님 내외분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1951년 2월 12일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아주 많은 병력 손실을 입고 사단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부대 재편성을 하기 위해 눈물의 후퇴를 했다. 당도한 곳은 대구 삼덕동 초등학교였다.

1951년 3월 26일 신병을 보충 받아 1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시가행진 사열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우리 사단은 일



육군 통신학교 간부 후보생 31기 (1953.12.12)

선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호남지역 공비토벌 임무를 받고 전북 전주로 이동했다. 나는 사단장 (최영희 준장)전속 통신병으로 차출되어 사단장 지프차로 전주 까지 이동했다. 우리 사단은 11개월 동안 호남지역에서 양민을 학살, 납치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공비들과 전투를 벌였으나 각처에 산재해 있는 공비를 완전 소탕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1952년 2월 7일 우리 부대는 다시 전방지역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나는 1952년 9월 1일 이등 상사로 진급 고급 하사관이 되었으며 우리 소대에는 진급 후보자가 많았는데 나 혼자 진급되어 부담스러웠다. 전선의 전투는 큰 변화 없이 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였다.

1952년 4월 16일 육군 본부로 부터 창설 사단인 20사단으로 특명이 났다.

임지에 도착하여 보니 8사단에서 전속통신병으로 있을 때 모시던 박경태 중령님이 통신 참모로 계셨다. 참모님도 무척 반가워하셨다.

나는 통신참모부 서무계로 보직을 받았는데 이 직책은 사단통신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요직이었다.

사단 내 통신병의 인사권도 행사하는 자리로 행정이라고는 첫 경험인데 부담이 컸지만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강원도 양구군 천도리에서 맞았다. 이날은 역사상 가슴 아팠던 날이다 피투성이 전투도 오늘로서 멈췄다.

온 국민이 통일을 바라며 휴전 반대를 외쳤지만 삼천만의 숙원인 통일을 보지 못하고 이 강산이 다시 휴전선이 그어졌다. 오후10시 정각 총성은 멎었다. 전선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무심한 매미 소리만 요란했다.

그 후 나는 육군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사관 능력고시에 합격하여 53년 12월 12일 육군 통신학교 간부후보생 31기로 입교 16주 교육을 마치고 대구 63통신대대 무선중대 무선 소대장으로 보직 되었다.



김위철

최경근의 6·25전쟁 참전기

- 북한 평양에서

1950년 6월25일 북한의 수도 평양시 안흥리 496번지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모란봉 을밀대 너머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날이 시작되었다.

일요일이라 며칠 남지 않은 학기말 시험(북한은 9월 학제)인지라 시험공부도 하고 할머니의 심부름도 하면서....



최 경 근

6월26일 월요일 모란봉 만수대에 있는 평양제일고급중학교(고등학교)로 등교하고 있을 때 칠성문 옆 전차길 전봇대 확장기에서 행진곡이 갑자기 멈추더니 아나운서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급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3·8선 전 지역에서 남조선 괴뢰군이 북조선으로 침범!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감무쌍한 우리 인민군이 잘 방어 하고 있으니 놀라지 말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십시오. 이러한 긴급뉴스를 듣는 순간 떨리는 소리로 ‘전쟁이 났구나’ 하고 빠른 걸음으로 학교에 갔다.(지금도 북한은 남조선이 먼저 전쟁 도발을 했다고 선전 하고 있다.)

조회 시간에 이학 교장선생님이 손가락을 하늘 높이 들면서 “괴뢰군이 전쟁을 도발했다.” 고 20여분 열변을 토했다.

교실로 들어 온 학생들은 의자에 앉거나 책상에 걸터 앉아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것 봐! 전쟁이 날 것 같았다니까.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동안 보통 벌논, 밭에서 군사훈련을 시킨거야!”

다음날부터 거리에 벽보판이 등장했고 거기에 남조선 지도를 붙이고 인민군이 점령한 곳을 화살표와 함께 인공기를 붙였는데 2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는 인공기가 성루에 붙여졌다.

7월 중순경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 날 전교생을 체육관 강당에 집합시켜놓고 선생님 몇 분과 청년단 열성 학생들이 “남조선을 압제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면서 인민군 지원서를 나누어 주었다. 운동장에 나와 보니 인민군 트럭이 몇 대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변소에 가는척하고 대열에서 빠져나와 북쪽 기림리쪽 내리막길로 뛰어들어 도망쳐 집으로 와 숨었다.

그날 B29 두 대가 평양 상공에 와서 동 평양에 있는 병기창(따발총 생산 공장)에 싸이렌이 울리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진동했다.

며칠 후 우리 집에서 5~6백미터 떨어진 전차과, 그리고 고무신 공장에 폭탄이 떨어져 그 폭풍으로 동네집들이 무너졌다. 우리 집 한옥지붕의 기왓장이 날라 가고 벽이 무너져 기둥들만 앙상히 남았는데 우리는 방공호에 들어가 화를 면했다. 동네 이곳 저 곳에서는 신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몇 시간 끊이지를 않았다.

며칠 후 강서군 성태면에 사시는 외삼촌이 소달구지 2대를 끌고 와서 할머니, 누나 어린동생 다섯 명을 태우고 평양을 벗어났다. 나와 형님은 앞산 외삼촌네 큰 밤나무 위에 새끼줄로 엮어 자리를 만들고 낮에는 그 위에서 인민군 소집을 피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인민군은 대구 북쪽 팔공산, 남쪽으로는 전라남도를 전부 장악하고 낙동강까지 진격하며 승승장구 며칠만 있으면 남한 전부를 점령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유엔 결의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참전하여 전세는 역전, 인민군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9월15일 유엔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해 아직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들은 항복해 포로가 되었고 일부 패잔병들은 지리산으로 올라가 공비가 되었다. 일부 인민군들은 후퇴하면서 양민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죽창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한 국군은 파죽지세로 압록강까지 진출했을 때 나도 피난에서 돌아와 보니 우리 집에 국군 보급부대원 몇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10월 중순경 폭격으로 무너진 벽을 수리하고 지붕도 고치면서 제자리를 잡을 즈음 집에 머물고 있던 육군대위가 아버지에게 전황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중공군이 참전하여 인해전술 공격으로 평양근방까지 왔다면서 39도선 (대동강)까지는 후퇴할 것이니 잠시 대

동강 건너 남쪽으로 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12월 3일 저녁 형님과 나 그리고 옆집의 학수형은 국군보급부대가 후퇴하는 트럭 뒤에 숨겨주어 도강을 해 장진리에 있는 사촌형님네 집으로 갔다.

12월 5일 평양철수 명령으로 시민들이 일부는 끊어진 대동강다리 아치를 건너 도강했고 일부는 대동강 상류로 올라가 그 추운 겨울에 빨가벗고 강을 건너기도 하면서 피난길에 나섰다. 아버지도 강을 건너와 우리 형제와 합류했다.

우리 식구는 모두 11명, 83세 고령인 할머니, 어머니, 누님, 누이동생, 쌍둥이 형제, 쌍둥이 남매 이렇게 여덟 명은 대동강을 건널 수가 없어 아버지, 형,나만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당분간 피해 있다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중공군이 전진하고 국군이 계속 후퇴하는 틈바구니 전선에 갇힐 수가 없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도 피난민 행렬에 밀려갔다. 서울로 오는 도중 개성에서 학수형 어머니를 만나 일행이 여섯 명이 되었다. 떨어진 신발을 실로 꿰매고 다시 걸으면 발바닥에 피가 나는 고생 끝에 20여일이 지나서야 서울 광화문 옆 당주동 고모네 집에 도착했다.

-대한민국에서의 국민 방위군 생활

하루를 자고 의논 끝에 나와 형님들 세분은 국군에 입대하기로 해 광화문 파출소로 찾아가 지원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때 지원병이 우리 네 명밖에 없어 국민방위병에 편입시켰다. 12교육대 16대대 대대장 방위군 대위 박일성에 편입되어 비원을 출발해 20여 일간을 보급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민가의 피해를 입히면서 도착한 곳이 서울에서 1000여리 떨어진 김해 주천면 주천초등학교였다.

추운 겨울 창문도 하나 없는 교실에 가마니를 깔고 덮고 병영생활이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보급품도 없이 못 먹고 병에 걸린 병사가 쓰러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은 두 명 매일 한두 명씩 죽었다. 관도 없이 가마니에 싸서 전우들을 뒷산에 묻었는데 박일성 대장이 고가(故歌:죽음을 애도해서 부른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나를 비롯한 여섯 명에게 합창을 시키면서 앞장서 행진하도록 하였는데

주천에 자리하고
고히 잠든 전우야
한뜻에 같이 가자
맹세코 나선 길에
너 혼자 먼저 가니
이 어이 될소냐
슬프다 떠나고 보니
잡을 길이 없구나.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 방위군 사건, 이로 인하여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해임되고 김윤근 방위사령관은 사형되었다.

- 국군 정규군이 되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제주도 모슬포의 제일훈련소 (소장 백인엽)에 입소 1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군번 0191798을 받고 정규군 경기관총 사수로 훈련을 마치고 부산 동래 보충대로 갔다. ‘이제는 일선에 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신상명세서를 보고 4명 모두 육군보병학교에 배속되어 교도대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 때가 51년 봄!

그해 겨울에 전남 광산군 송정리에 있는 상무대로 이전 했는데 지금도 생생히 생각나는 것은 미군 K·M·A·G(미 군사 고문단) 대원들이 물을 떠다 주면서 C레이 손 박스를 트럭에 싣고 와 환영을 해 주었다.

내무반 배정을 받고 첫날밤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나팔소리에 M1총을 지급하면서 광주에 공비가 나타나 파출소를 습격했다면서 트럭에 탑승시켰다. (아 이래서 미군들이 우리를 극진히 환영했구나) 공비들이 전선을 끊어 칠흑같이 캄캄한 광주시내를 거쳐 기갑학교 장갑차를 선두로 무등산에 포진해 방어태세와 공격태세로 진격했는데 공비는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방 좌익분자들이 광주시내에서 집에 숨겨둔 총들을 들고 나와 정전을 시키고 파출소를 공격하고는 감쪽같이 집으로 사라져 소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 보병에서 위생병과로

몇 달 후 나는 같은 상무대에 있는 77육군병원(병원장 육군대령 군의관 최경란) 행정과(행정과장 의정장교 대위 김창서) 수발계로 전속되어 행정업무를 시작했다.

그 후 병원장 명으로 대구에 있는 행정학교 육군고급부관학교에 입소, 파견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육·해·공군 선임하사들(상사, 특무상사)들이었으며 나는 나이가 제일 어린 19세였으므로 식사당번을 도맡아, 공부할 시간이 짧아 취침시간에 촛불을 몰래 켜놓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 결과 25기 57명 중에서 1등으로 졸업. 성적표를 들고 귀대했더니 이등중사로 진급과 함께 행정과 서무계로 발령을 내 주었다.

- 나를 휴전회담장소 판문점으로 파견

1953년 3월 육군본부에서 명령서가 하달되었는데

“명. 육군 이등중사 0191798 최명근 판문점 소재 제5 이동 외과병원”

육군본부 차출명령서와 출장 증을 들고 일선을 거쳐 휴전회담 장소인 판문점에 도착했다.

선임하사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던 육군고급부관학교 25기 동기생인 유명구 특무상사였고 각 부대 행정과 서무계 몇 명과 25기 동기생 몇 명이 같은 내무반에 배속되었다.

선임하사의 설명인즉 북한에 포로가 되었던 전상자 포로를 교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었다.

* 국방장관 신태영

* 휴전회담 한국 측 대표 육군소장 최덕신

(예편후 천도교 교령을 지냈고 미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망명)

* UN군 한국 측 연락장교 육군대령 이수영(예편후 프랑스 대사 역임)

이 때에는 휴전회담 장소인 판문점만 중립지대였고 휴전 후 전선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싸움은 격렬해 포 소리, 기관총 소리, 북한의 따발총소리가 밤낮없이 고막을 흔들어들었다.

첫 앰브란스가 도착했다. 16개국 참전국은 물론 세계 각 국의 기자들이 후레쉬(마그네슘 전구)소리와 샷타 소리가 끊일 줄 모르는 가운데 목발을 짚은 부상자들이 내려오면서 “대한민국만세” 를 외치는가 하면 대성통곡을 하는 병사도 있어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첫 테이블에 앉아 부상 장병들이 목에 걸고 온 명판을 보고 계급, 군번, 성명, 전 소속, 부상부위 등을 기록하고 부상당한 장소를 질문하여 기록하였다. 대부분 전투에서 부상당했지만 어떤 장교는 북한군이 고문하면서 눈을 찢어 한 눈이 실명된 분도 있었다.

장병들은 중공군들의 누비옷과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국군복장으로 갈아입히고 우유, 국수, 음료수를 지급하고 부상부위를 전부 소독 붕대를 감거나 기브스를 새로 하고 헬리콥터에 태워 서울 경복궁 옆 삼청동에 있는 육군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방법으로 며칠간 계속하다 임무를 마치고 5월 하순 부대에 복귀하였다.

- 휴전협정 체결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해 휴전협정 조인하는 날 7월27일 한국대표 최덕신 소장을 퇴장시켜 조인을 하지 않아 지금도 북한은 휴전 조인국 미국만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대부분 장병들은 환호하였고 나를 비롯한 이북출신 장병들은 결사반대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7월 하순 육군본부에서 군의학교 교육생 2명을 보내라는 통지가 와서 나는 마산에 있는 육군 군의학교 파견교육생으로 선정되어 내 조수였던 일 계급 위인 일등중사 이인식에게 서무계를 인계하고 마산으로 가 병리시험실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곳에서도 1등을 해 육군군의학교 교장 정희섭 대령(예편 후 보사부장관 역임)의 상신에 의해 군의학교로 진출, 병리시험실 하사관 교관으로 임명되어 후배들을 교

육시키고 사병들 문맹퇴치교육도 담당하였다.

54년부터 만기제대가 허락되어 첫 번째로 신청했지만 하사관 교관이 없다하여 12월 25일 3차에 제대하였다.

- 노병들이여 지금 늙었다고 기죽지 말자.

1950년 6월25일로부터 인민군 소집을 피하기 위하여 피난생활! 평양에서 서울까지 들고 돌아 걸어서 900여리! 서울에서 국민방위군에 입대 굶주림과 병마에 수 없이 죽어가는 전우들! 그 틈에서 살아남아 경남 김해까지 1,000여리 길을 도보로!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 훈련소에 입대 제대할 때까지의 군 생활! 책으로 엮으면 대하소설인데 몇 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가?

악랄한 북한군과 중공군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지키는 참전 유공자들이여! 일제시대의 핍박, 광복, 국토분단, 동족상잔의 6·25, 4·19, 5·16 등 혹독한 현대사의 혹독한 격동기를 온 몸으로 부딪치며 새마을 운동 주역으로, 서독 광부·간호사로, 월남 참전용사로, 후손에 대한 교육열로, 산업 역군으로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주역이 우리세대가 아닌가?

6·25 참전용사들이여! 후손들에게는 물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니 인생 종착역이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창정의 6·25전쟁 증언



최 창 정

나는 횡성 입석리에서 아버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던 중 1949년 6월 19세의 나이로 국군에 입대하였다.

군번 2902509을 부여받고 제6사단 제8연대에 소속되어 6·25 전쟁을 맞이하였다. 이후 제3사단 제 18연대로 전속되어 전쟁 시작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생과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다. 적군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은 전세를 가다듬어 북한 공산군을 몰아냈으며 나도 앞장서서 청진까지 진격하였다. 이렇게 되어 통일이 눈앞에 오는 듯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 1·4후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 북녘 땅에서 격전이 계속되었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며 수많은 전우가 죽어갔다. 나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 청진에서 배로 후퇴를 하게 되었다. 후퇴 후에도 홍천북방 어론리 지역 전투가 치열했다. 이 전투에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전사자는 현지에 묻거나 방치한 채 후퇴를 하였다.

1950년 12월 23일 적군이 홍천고개 부근으로 진출 자은리를 위협하자 제3사단 18연대 제1대대를 긴급히 자은리로 투입 제8사단 제 10연대와 협동작전으로 714고지 부근에서 적을 격퇴시켰다. 다음 날 주저항선 일대에 적의 선제공격과 연대규모의 적이 홍천고개로 진출해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려 하였으나 격퇴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후퇴, 18연대는 인제-홍천 도로 좌측에, 제22연대는 우측에 배치되었다. 상수내리에 배치되어 있던 제 18연대 제3대대는 26일 오전 어론리를 통과하면서 적의 포위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12월 27일 새벽 사단은 공격을 개시 어론리 남쪽과 721고지 부근까지 진출 적을 소양강 북쪽으로 몰아냈다.

이후 휴전이 될 때까지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였고 1954년 1등 중사로 예편하였다.

탁연숙의 6.25참전기



탁 연 숙

문혀있는 옛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황성 3·1운동 당시 황성 감리교회 교인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큰 아버지(탁영재)를 보필 1919년 4월 1일 황성 장날 만세운동에 활약 하셨으며, 어머니는 독립운동으로 일경에 의하여 만삭의 몸인데도 밧줄에 발목을 묶인 채 미루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의식을 잃으셨던 분이시다.

나는 이렇게 항일·애국심이 투철하셨던 가정에서 1927년 2월 17일 황성읍 읍하리에서 태어났다. 1945년 광복되던 해 18세에 황성 옥동리 19세 신재희와 결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녀를 두었었다.

이렇게 가장으로 황성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에 근무하며 의료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넓힐 수 있었다. 평양 출신인 의사(김경인)는 친절하게 여러 의료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이러한 연유로 도립 병원을 거쳐 영월 도립병원 초대 약국장도 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방위군에 입대 훈련을 받게 되었다. 교육훈련 도중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춘천 방위군 대대와 같이 삼천포로 후퇴명령을 받았다.

한편 고난의 피난길에 어린 딸 세 명 중 장녀를 제외한 두 딸을 잃었다는 소식도 접했지만 나는 전장에 있는 몸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후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굶주리며 며칠을 노숙, 걷고 또 걸어 목적지인 삼천포에 도착 국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병과는 의무였다.

며칠 후 파견되어 배를 타고 이동, 섬 초등학교에 자리 잡아 주둔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전염병인 장티프스 환자가 500명이 수용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간호, 치료, 급식 등 임무수행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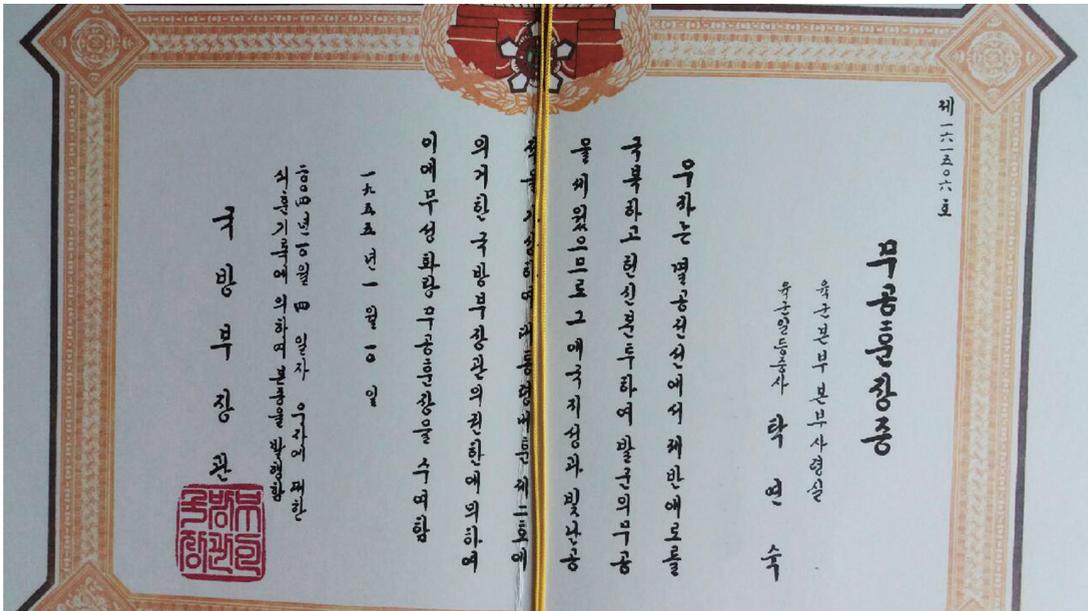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망자가 수 십 명 발생되어 동네 이장이 배를 갖고 와 다른 섬으로 운구 매장하고 말뚝에 성명을 기록하였다.

이곳에서 임무를 마치고 본부로 원대 복귀되어 부대를 따라 다니며 부상병들 구조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미 8군 야전병원에서 복무하게 되었는데 전방에서 부상병이 헬기로 이송되면 의무병들이 들것으로 운반 병실로 가서 우선 지혈하고 수혈 주사, 진통제 주사 후 입원 시키는 임무 수행을 하였다. 어느 날 부상병을 싣고 온 헬기가 착륙지점을 찾지 못하고 착륙을 계속 시도 하였다. 그 이유는 지뢰 매설지역이라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들것을 들고 내 앞에 가던 위생병이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 후 제주도 제1훈련소에 가서 의무병으로 교육 훈련을 받았다. 그 때 장병들이 거의 전염성 눈병에 감염되어 아주 괴로웠으나 의료 환경이 아주 열악한 때라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나는 밤을 새워가며 소독약으로 눈을 닦아주고 약을 투약하며 200여명의 눈병을 고쳐주었다. 교육 훈련을 마치고 대구 육군본부 사령실 시험에 합격 육군본부에서 치료 계장으로 명을 받아 부상병 치료에 온 정성을 기울이다 전역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로 다음과 같은 무성 화랑무공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무공훈장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훈장증

육군본부 본부사령실

육군1등중사탁 연 숙

우 자는 멸공전선에서 제반 애로를 극복하고 헌신 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세웠으므로 그 애국지성과 빛난 공적을 기념하여 대통령 내훈 제 2호에 의거하여 이에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함.

1955년 1월 10일

2004년 10월 4일자 우자에 대한 서훈기록에 의하여 본증을 발행함.

국방부장관

그 후 나는 6·25가 끝나고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횡성에서 후생약방을 개설 군민 건강증진에 힘써왔다.

한봉희의 6.25전쟁 회고



한 봉 희

나는 황성 읍하리에서 할아버지, 부모님, 형과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6·25전쟁이 터졌다. 그 때 내 나이 20세.

1950년 6월 27일 어머니는 우천면 범주리 누님 댁으로 피난가시고 나는 아버지, 형, 매형, 사돈어른(매형 부친)과 함께 여러 날을 걸어 충남 공주 마곡사로 피난을 갔다.

도착해 보니 이미 인민군이 점령 그곳에는 인민군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니 갈 곳도 없고 하여 뒤돌아 다시 황성을 향해 걸어오다 충북 음성에 도착, 인민군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이때 매형 친구가 인민군이어서 도움을 청해 풀려나 황성까지 왔다.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고 우천면 범주리로 가 땅굴을 파고 숨어 있었다.

고향 황성이 수복되고 1951년 초 민방위 5교육대에 입대, 교육을 마치고 경남 삼천포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5교육대는 곧 해산되어 다시 황성으로 귀향하였다.

나는 국군 입대를 위하여 1952년 10월 7일 황성을 출발 포항 집결, 그 곳에서 군함으로 10월 11일 제주도 훈련소에 도착하였다.

300명씩 한 막사에서 훈련을 받고 육군 수송학교로 배속 4주간의 운전교육을 수료하고 부산 보충대에서 대기하다 춘천 103보충대로 전출 되었다.

이 곳에서 철원 동송 주둔 2사단 노도부대 포병대대로 6명이 차출되어 본인 포함 3명은 63대대로 다른 3명은 62대대로 갔다.

이 부대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철원지구 전투에서 포병 사수로 적군에게 치열한 포사격 임무를 수행하다 휴전이 되고 이곳에서 계속 복무 1955년 9월 1일 군번 9248490 육군하사로 예편하였다.

함유덕 씨가 겪은 6.25



함 유 덕

1933년 5월 25일

황성군 우천면 용둔리 542번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 나는 온종일 친구네 밭밭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그때 내 나이 17살.

난데없이 포 소리가 났다.

이상히 생각하여 집에 오니 집안 식구들은 피난을 가야 한다며 피난 보따리를 싸고 있었다.

어린 동생 넷을 데리고 우리 식구는 부랴부랴 피난길에 나섰다.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던 터라 걸어서.

그러나 원주 무실동에 도착하니 벌써 인민군이 앞질러 있지 않은가.

할 수 없이 우리 식구들은 고향집으로 발길을 되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지난한 삶이 시작됐다.

인민군은 이제 대구만 남았느니 부산만 남았느니 선전을 해 댔지만 맥아더 원수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 우리 국군은 북진을 거듭했다는 기쁜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 국군은 눈물을 머금고 1.4 후퇴를.

나는 청년방위군 제2국민병 제18 대대에 편입 되었다.

그 당시 구대장님은 백우사장 사장님이셨다.

우리는 구대장님의 인솔하에 남으로 남으로 내려갔다.

우리들은 각자 먹거리를 해결해야 했으며 충청북도 제천 어떤 집에 다다르니 마침 그 집은 부모님 기일이라 우리들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오랜만에 따순방을 얻어먹고 그 집에서 하루밤 신세를 졌다.

다음날 단양역에 도착하니 기차에는 화물칸에는 탱크만 싣고 출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게 웬 횡재냐 싶어 나는 사촌 형님 두 분과 친구 이렇게 넷이 화물 기차를 탔다.

그런데 이게 웬일, 죽령재에 다다르자 인민군 패잔병들이 따발총을 쏘며 기차를 공격해 기차는 할 수 없이 단양역으로 후진. 우리들은 기차에서 내려 충주를 거쳐 문경 새재를 넘고 안동을 지나 경산을 거쳐 밀양에 도착했다.

우리들 목적지는 삼천포였는데 어디에서도 우리들을 받아 주는 데가 없었다.

그러다가 경산군 왜촌면 상대동에 자리를 잡고 할 거라곤 머슴살이 밖에 없어 그곳 농가에서 농사일을 하는 머슴노릇을 했다.

그렇게 고생 고생 던 중 왜촌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이 고향을 갈 수 있는 귀향증을 끊어 주어 그리던 고향땅을 다시 밟았다.

1953년 3월.

고향에는 부모형제가 무탈히 잘 살고 계셨다.

그러다 그해 7월 영장이 나와 원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입대 길에 올랐다.

멀리 포항에 도착해 신체검사를 받고 비로소 군번을 받고 새 군복을 갈아 입고 신병 훈련소가 있는 제주를 향했다.

배가 얼마나 큰지 1500명이 승선을 했다.

제1 훈련소 8연 대 158중대에 배속돼 신병 훈련이 시작됐다.

1953년 7월 17일.

그때만 해도 훈련소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기 전이라 밤만 되면 지급된 관물을 도난 당하는 사례가 빈번 했었다.

수통 피, 띠띠를 도난당해 농구화 끈으로 관물들을 붙들어 매고 훈련에 임했다.

그러다 7월 27일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 없었지만 한편으로 전선에 나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마는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다.

96일 신병 훈련을 다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 동래보충대에서 대기를 하다 기차를 타고 춘천 3 보충대에 도착 했다.

그리고는 다시 군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달려가 차에서 내려 천막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비로소 부대배치를 받게 되었다.

난 27사단 8 연대 3 대대 3 중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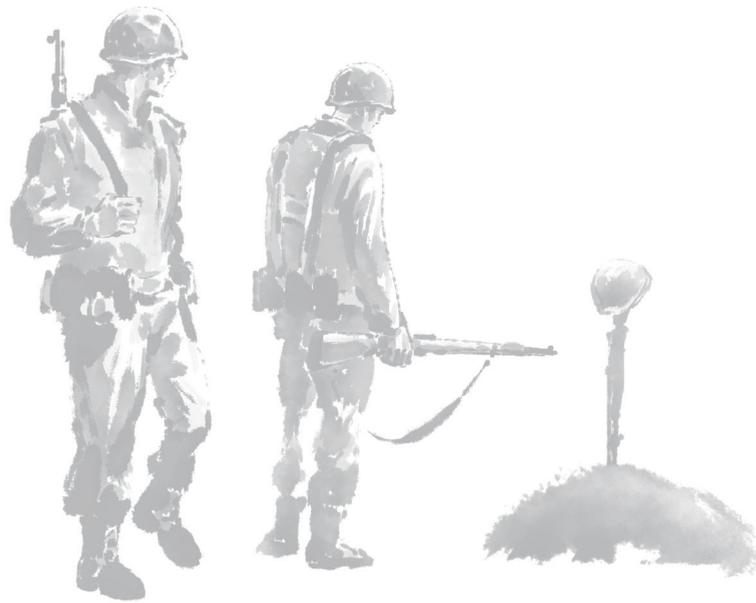
양양에 위치한 창설 사단이라 어려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산을 파 방공호를 만들고, 순전히 야전삽과 곡괭이로 막사를 짓고 그야말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때론 탈영 하고픈 욕망도 생기고, 교육을 나갈 때는 물이 없어 눈을 퍼부어 밥을 항고에 했는데 쌀만 타고 밥이 안 돼 탄밥을 먹기도 했고 설악산에서 받았던 교육은 정말 어렵기만 했다.

양양에서 화천 사방거리 또 철원 김화 심지어 충청도 37사단 창설도 우리 3대대 몫이었다.

그 후 최전방 간성 대대 OP 관측소에서 근무를 하다 57년 11월 16일 전역을 했다. 5년여 군 생활이었다. 지금은 참전유공자로 횡성군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펜대신 2장 학도병으로

- ◆ 김원한, 김현태, 도광태, 박순욱, 유관종
- ◆ 황성 중 · 고 동문 학도병 참전 현황

내가 겪은 6.25 전쟁 회고

입대하기 전 겪은 6·25

나는 1946년 10월 15일 결혼 1950년 딸을 낳았으며 부모님, 처자, 동생들과 황성 개전리에 살며 황성농업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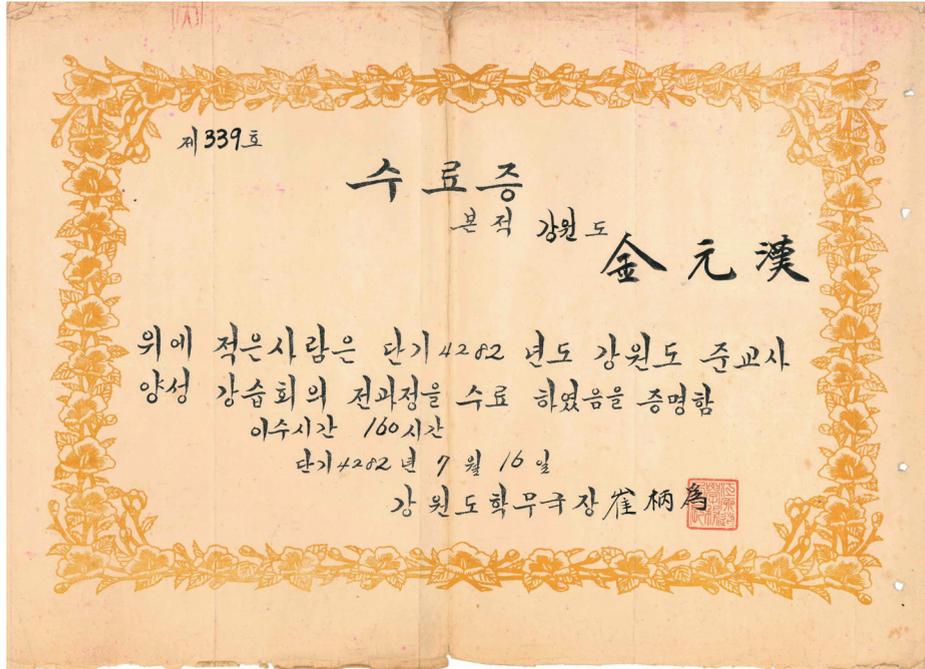


김 원 한



1949년 3월 27일 촬영. 황성농업중학교3학2반 (남자22명, 여자38명 계60명 중 남학생들과 김병렬 담임선생님 송별기념 사진. 뒤 왼쪽 두 번째 김원한)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으로 학교에 근무하던 일본인 교사들이 물러가자 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준교사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던 때였다.



강원도 준교사 양성 강습회수료증(1949년 7월16일)

나도 횡성농업중학교 (지금의 횡성고등학교) 재학 중에 강원도 학무국에서 시행하는 국민학교 준교사 채용고시에 응시하였다.

합격 후 1949년 7월 16일 한 달간의 강습을 수료, 1949년 9월 30일자 횡성 옥동리에 있는 성동국민학교에 발령받았다.

해방 직후 신설학교라 건물도 없이 옥동리 공회당 건물 두 동에, 선생님은 권병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김병시, 박건주, 김의갑, 나와 다섯 명이었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었다.

그러나 교실이 없어 1,2학년은 옥동리 공회당, 3학년은 영영포리 공회당, 4학년은 개전리 공회당 또는 신재원씨 다락방에서 수업을 하였다.

전체 조회는 월요일에만 옥동리 공회당 마당에 모여 실시한 후 3, 4학년은 각각 영영포리, 개전리 공회당으로 돌아가 수업에 임했다.

옥동리 공회당에는 책·결상이 있었다. 이곳에서 교장선생님이 1학년, 나는 2학년을 담임했고 3, 4학년은 책결상이 없어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수업을 했었다.



성동국민학교 직원 일동: 1950년 4월 1일 촬영.

앞줄 왼쪽 기성회장 위창래, 오른쪽 교장 권병두. 뒤에 보이는 것은 학교 신축을 위해 6·25전에 준비된 목재. 전쟁이 끝난 다음 이 자재로 학교 신축.

뒷줄 왼쪽부터 교사 김병시, 김의갑, 김원한, 오상근(6·25 사변 전 홍천으로 전출 되고 박건주 부임)

1919년 횡성 3·1운동 추진은 영영포리 441번지 신재근씨(당시 천도교 봉훈)집에서 주로 계획되었으며 영영포리 구장이었던 위창래씨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1972년 조동걸 저 횡성과 3·1운동 참조)



성동국민학교 2, 3학년 남학생 : 1950년 4월 1일 촬영

왼쪽 사진: 위 왼쪽부터 교사 김원한, 오상근, 교장 권병두, 교사 김의갑, 김병시.
(앞줄 오른쪽 최서현 어린이)



성동국민학교 3,4학년 여학생 : 1950년 4월 1일 촬영

왼쪽 사진: 위 왼쪽부터 교사 김병시, 김원한, 김의갑, 오상근, 교장 권병두
옥동리 공회당 벽이 넘어갈까봐 낙엽송 기둥을 받쳐놓았다. (오른쪽 사진 앞줄 오른쪽 어린이 최서현 누나)

1950년 6·25가 발발했음에도 당시에는 라디오가 없어 뉴스를 듣지 못해 6월 28일 까지도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흥천군 서석면 쪽에서 피란민들이 피란 봇짐을 지고 학교 부근을 지나면서 흥천에는 벌써 인민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피란을 가야지 아직도 공부만 하

고 있느냐 하였다.

피란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 긴급회의 후 전쟁 상황이 급함을 학생들에게 설명, 피란을 잘 하고 전쟁이 끝나면 학교에 다시 나오라 한 다음 학생들을 급히 집으로 돌려보냈다.

학적부와 직인, 중요장부들을 잘 감추어 놓고 직원들은 서로 피란을 잘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 후 우리 가족들은 옛날 전쟁 생각만 하고 갑천면 상대리로 피란을 갔다가 식량이 떨어지고 집이 궁급해 1주일 후 황성읍 개전리 집으로 돌아왔다.

황성경찰서에서는 6.25전쟁이 나기 전부터 각 동리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파악해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늘 활동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이 공산군에게 아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적행위를 할까봐 이들을 불러 모아 조곡리와 추동리 경계인 고네미재로 끌고 가 총살했다 하는데 일부 시체는 가족들이 찾아 가마니로 들것을 만들어 옮기는 것을 개전리에서 목격했다.

탱크를 앞세우고 6월 28일 홍천 점령, 황성에는 7월 1일 공산군이 들어왔다. 이들은 소련제 아시보 장총이나 다발총으로 무장, 시가전에 대비해 삼륜 오토바이에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 교사였기에 1950년 7월 1일 공산군이 황성에 들어와 9월 30일 물러갈 때까지 해를 당할까봐 늘 근심 속에서 살았다.

동리에는 인민위원회와 민주청년동맹이 조직되고 군에는 군 인민 위원회와 공산당 군 당 본부가 옛 농촌지도소 자리에 차려졌다.

이곳에서는 당 열성분자들을 교육하고 학교어린이회 간부들을 불러 모아 사상교육, 김일성장군 노래 등을 지도하며 공산당 인사법을 가르쳤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김일성을 비판하면 군당 본부에 신고하도록 교육도 시켰다.

하루는 동리 공회당에서 회의가 있으니 빠지지 말고 꼭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

빠지면 반동분자라고 할까봐 회의에 갔더니 공회당 앞뒤 문에 내무서원(지금의 경

찰) 두 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군당에서 왔다는 한 사람이 나와 지금 경북 안동까지 해방이 되었는데 앞으로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해방시킬 것이라 하였다.

미국에서 탱크를 배에 싣고 와도 탱크를 들어 올릴 기중기가 부산항에 없으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용군을 모집하러 왔으니 지원하겠다고 서명을 하라며 6.25전 쟁 전에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터라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 학교 선생님을 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빨리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라면서 가라고 해 의용군에는 안 끌려가게 되었다.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공습을 위해 떼를 지어 왔다 갔다 하니 겁이나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학교에는 공산당이 새로 임명한 교사 두 명이 부임했는데 겁이나 이들과 인사는 했으나 마음에 있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서로 쳐다 보기만 하였다.

또 학교 건물이 공회당이고 숙직실이 없어 지금까지 숙직을 하지 않았는데 숙직실이 없어도 여름이니 사무실 책상을 모아 놓고 숙직은 꼭 하라기에 할 수 없이 집에서 여름이불을 가지고 가서 숙직을 하였다.

또한 황성군 교육청에서 강습이 있으니 각 학교에서 한명씩 오라는데 나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교육청 문 앞에는 인민군 한명이 장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다.

교육을 위해 북한에서 만든 사회책을 한권씩 나누어 주었는데 책 내용은 노예 사회주의 시대의 고려 등 공산주의와 결부된 내용이었다.

강의하는 시간에 비행기가 날아와 앞내다리를 끊으려고 비행기에서 폭탄 여러 발을 투하 했는데 폭탄 터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폭풍이 얼마나 센지 교육청 강의실 유리창들이 막 흔들리고 깨질 정도였다. 나는 폭음에 놀라, 뒤 언덕을 넘어 뒷내다리 쪽으로 몸을 피했다가 냇가를 따라 북천리 쪽으로 올라가 산을 넘어 집으로 갔다.

다음날 폭탄이 떨어진 앞내다리에 가보니 다리는 안 끊어지고 다리 아래쪽과 입석리 쪽, 교항리 쪽에 한발씩 폭탄이 떨어진 자리는 5m깊이의 웅덩이가 생긴 것을 보

니 폭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산치하 때 학교에 근무를 했다고 한 달 치 월급 7,000원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 정부에서 받은 월급과 같았다.

9월말이 되자 공산군들이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패잔병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소로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해칠까봐 겁이나 패잔병을 피해 감자를 찌고 먹을 것을 준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이 잘 내려다보이는 국사봉에 올라가 피신을 하였다.

국군이 들어오자 10월 1일 시장에 내려와 보니 집들이 다 불에 타고 연기만 나고 있었다.

국군이 북진, 황성군도 차차 질서가 회복되면서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미처 남쪽으로 피난가지 못하고 어쩔 수없이 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황성국민학교에 모이게 한 후 8절지 한쪽 등사된 종이를 나누어 주고 써 내라고 했다.

그 내용은 공산 치하에서 근무한 기관의 이름, 직위, 받은 월급, 취급한 업무 내용 등이었는데 이때 남쪽으로 피란을 못가고 있던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 달 간 경찰관은 동네에 다니면서 부역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11월 1일자로 다시 발령을 받은 사람만 근무하게 되어 나도 다시 성동국민학교에 출근하게 되었다.

방위군 · 국군입대

- 제8사단 의무대대 위생병으로 참전 -

나는 12월 20일경 향토방위를 위해 조직된 청년 방위군 5단 2지대에 들어가 관공서를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1.4후퇴로 청년 방위군이 피란길을 떠나 나도 가족과 헤어져 대열에 합류했다.

1월 7일에 경북 상주군 함창에 도착 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 했는데 교육 장소는 이안면 이안국민학교였다.

소대를 편성 내무반 생활, 그곳은 교실로 유리창은 전부 깨지고 찬바람 속에, 교실 바닥에 가마니를 뜯어 깔고 덮고 잤다. 방위군에 지급되는 보급품은 거의 전무였다.

군복이 없어 집에서 입고 간 옷을 한 달 가까이 입었는데 목욕과 세탁은 할 수도 없으며 학교 앞 작은 시냇물에서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는 정도였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총기를 다루는데 손이 곱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해 몸이 몹시 가려웠다. 이가 많아 전염병이 퍼질까봐 가끔씩 DDT 분말을 몸속에 뿌려 주었다.

교육은 1주일 정도 받았는데 제식 훈련과 M1소총 다루기 자격장이 없어 실탄 자격은 못하고 서서 쏘, 무릎 쏘, 앉아 쏘 등 사격자세와 실탄 장전법을 배웠다. 포복하기 철조망 통과요령도 새끼줄에 솔까지를 꽂아 놓고 철조망을 대신 하였다. 진내 사격고지 공격 연습과 방어, 수냉식 기관총으로 대공사격 연습 등을 하였다.

어느 날 훈련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학교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쉬는데 빨리 집합 하라는 소리에 운동장에 모였다.

사단 의무대대에 근무하는 인사장교와 인사계 특무상사 등 두 명이 위생병을 뽑으러 왔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포함 40명이 뽑혀 트럭을 타고 문경새재(조령)를 넘어 도착한 곳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에 주둔하고 있는 8사단 의무대대 본부였다. 이곳에서 각자 신상명세서를 써 내고 저녁 식사 후 또 차를 타고 한참 가서 내린 곳이 지금의 충주시에 있는 어떤 여관집 앞에 내렸다. 그곳이 바로 의무대대 치료중대였다.

40명의 신병들은 이곳에서 위생병으로서 알아야 할 응급처치법과 붕대 감는 법, 부목 쓰는 법, 환자 운반 법, 응급처치표 기록법 등 교육을 받았다. 그 후 횡성, 원주 지구 전투에서 발생한 부상자가 트럭에 실려 오면 환자들을 부축하거나 들것에 치료실로 옮겨 경환자는 임시 병실로 옮겨 돌보고 중환자는 응급처치 후 신속하게 육군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을 하였다.

신병 교육이 끝난 후 정식으로 근무할 부서가 정해졌는데 나는 본부중대 행정과 일보계 조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우리 의무대대는 2월 5일경 야간에 이동,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원주역 근처 학성동이었다. 8사단 의무대대 휘하 본부중대, 치료중대는 후방인 원주 학성동에 주둔하였고 수용중대(부상병을 모아 본부·치료중대로 후송하는 임무)는 전방인 횡성향교에 주둔하였다

이때가 음력 설 때인데 특히 황성군 공근면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해 많은 군인들이 적에게 포로로 잡히고 사상자도 많이 생겼다.(2월 12일경 전사자 국군9,844명, 유엔군2,018명 전사) 부상자가 우리 병원으로 실려 오면 당시는 엠브란스가 없어 트럭으로 환자를 후송하느라 애로가 많았다.



환자 후송 (김원한)



동복입은 모습(왼쪽 김원한)

병원에 와서 사망한 사람은 병참중대(병참중대에는 영현등록반이 있었다) 에서 파견 나와 매장 위치 지도 작성 등 매·화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매장을 하였는데 땅이 얼고 눈이 많아 땅을 파지 못해 눈을 파고 눈 속에 묻기도 하였다.

황성지역 전투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과 포위작전으로 인해 많은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고 10연대 권태순 연대장이 전사하는 등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 부대가 전투력을 상실하고 와해되는 바람에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

원주에서 충주 쪽으로 후퇴하는 길은 국군, 유엔군 피난민 등 엄청나게 혼잡하여 유엔군은 원주에서 바로 충주로, 한국군은 원주에서 신림, 봉양, 제천으로 우회하여 가도록 되었다.

우리 부대는 2월 16일 밤늦게 제천시 봉양면 주포리 삼거리에 도착, 너무 추워 소먹이 풀 가리에 불을 놓고 쪼이며 밤을 새우다 충주시로 후퇴, 낙오자 집결소를 설치 5일간 기다렸다. 찾아 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부대가 작전 능력을 잃어 병력을 보

충 받고 부대 재편성을 위해 8사단 전체가 대구로 이동 하였다.

우리 의무대대는 트럭에 짐을 싣고 짐 위에 타고 2월 21일 충주를 떠나 죽령을 넘고 안동을 거쳐 밤늦게 대구 칠성동 방직공장에 도착해 1박하였다.

다음 날 삼덕국민학교에 도착해 보니 본관 건물에는 사단 사령부 (사단장 최영희 준장)가 위치하고 직할 부대들은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주둔 하였다.

밤에는 정신교육으로 전훈(戰訓)을 외우게 했는데 내용은 “적에게 포로가 되어 포로라는 더러운 이름을 자손만대에 남기지 않을 것을 명심한다.” 는 내용이었다.

전쟁에서 전사 후 시체를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유물봉투에 머리카락, 손톱과 발톱을 조금씩 깎아 넣고, 사진이나 유언이 있으면 써 넣으라고 하니 곧 죽는 것만 같아 마음이 이상했다.

각 연대는 경산을 비롯한 월배 등 시외에 주둔 하였는데 우리 부대는 이들의 훈련을 지원하고 방역업무에 주력 하였다.

학교 운동장 밖에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 쓰는 두레우물이 있었는데 식사 당번이 되어 밥그릇을 씻으러 가면 각 부대 당번들이 모여들어 밥그릇을 씻었다.

우물 옆 시멘트 바닥에 밥풀이 모이면 이것을 손으로 쓸어 모아 씻어서 먹는 사람도 있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부대 재편성을 마치고 3월 한 달간 훈련을 마친 전 장병들은 대구소방서 2층에 마련된 사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신승모 국방장관이 참관하는 가운데 완전 무장하고 12열중대로 시가행진과 사열을 마쳤다.

그 후 4월 3일 지리산 공비 토벌을 위해 사단 사령부는 전주 전북 중학교에 주둔하고 10연대는 전남 광주에, 16연대는 경남 진주에, 21연대는 대전에 주둔 했다.

우리 의무대대 본부중대와 치료중대는 전주 도립 병원에, 수용중대는 남원 도립병원에 주둔 하였다.

나는 봉급 계를 맡아 사단사령부 경리부에 가서 봉급을 수령해 각 중대 서무 담당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당시 이등병 봉급은 3,000원, 일등병은 3,600원이었다.

군대 식사는 쌀밥에 콩나물국을 먹었는데 하루는 돼지고기가 나와 오래간만에 조금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나서 가려워 펍 고생을 한 적도 있었다.

또한 위병소에서는 석탄 난로를 놓고 토탄을 연료로 사용 했는데 이는 석탄보다 화력이 약하고 흙이 많이 섞여 있어 불을 꺼트리기 일 수였다.

5월 3일경 인제군 기린면 현리 전투에서 미 10군단이 적에게 포위 되었으니 전방으로 이동하라는 작전 명령에 따라 차량들은 짐을 싣고 충북 제천으로 떠났다.

병사들은 전주 역에서 화물열차에 타고 대전 경유 대구 역에 도착하니 부인회원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 나누어 주니 고맙게 받아먹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영천을 거쳐 제천 역에 도착, 화물열차를 타고 오랫동안 가다 보니 화장실이 없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육로로 먼저 도착해 있던 트럭에 승차,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도착 1박 후 속사리에서 20일간 주둔했을 때 진부면에 넘어가 보았다.

중공군이 민가에 들어가 숲에 감자를 삶아 먹다가 급히 후퇴 하느라 남겨 놓고 갔다. 감자가 식지 않은 것을 보니 꽤 급했던 모양이었다.

운두령을 넘을 때는 중공군과 그들이 타고 온 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냄새가 너무 심해 썩을 뜯어 코를 틀어막고 입을 벌리고 넘을 정도로 지독했었다.

운두령을 넘어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한 달 정도 주둔 했다. 수색대대원들이 부상 당해 낙오된 부상병을 찾아내 데리고 왔는데 다리를 다쳐 상처에 파리가 쉬를 쓰러 구더기가 버글버글해 마취제를 뿌려 구더기를 죽인 뒤 핀셋으로 구더기를 집어내고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했다.

영양제 주사를 놓아 치료하니 상처가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는 사람도 보았다.

이때 전투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여기서 고향이 가까우니 1주일간 고향에 다녀오라고 중대장님이 휴가를 보내 주셨다.

철모를 쓰고 칼빈소총까지 휴대한 횡성 사람 7명을 차에 태워 횡성까지 보내 주었으니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휴가(1951년 6월 22일 ~ 6월 28일) 1주일 전시에 이렇게 휴가를 보내준 것은 사단장의 지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6·25사변이 발생하고 1·4후퇴 당시 우리 가족은 부모님, 동생 다섯 명, 일꾼 총 각 한명, 내 처와 생후 10개월 된 딸, 나까지 열 한명이 살고 있었다.

나는 청년방위군에 입대해 단체 행동을 해야 하기에 가족들과 헤어져 따로 피난을

나가 소식을 몰랐는데 휴가를 와서 가족들을 만나 그간의 피난이야기를 들었다.

겨울이라 날씨도 춥고 업고 갈 사람도 없어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은 피난을 나가 지 못하고 이웃에 사는 큰댁에 가서 큰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며 피난을 했다.

우리 집은 중공군이 들어와 기거하거나 식량을 가져갈까봐 어머니가 부엌을 파 곡식을 넣은 항아리를 묻고 나뭇가지를 덮었다.

그 다음 떡메로 벽을 여기 저기 때려 부수어 묻어 놓은 것을 찾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는 식량도 잘 지켜주고 고향에서 어린 두 동생과 피난을 잘하시고 가족들과 재회하셨다.

한편 10개월 된 딸 등 일곱 사람은 피란 목적지가 전라북도 남원으로 정해졌으니 그리로 가라는 연락을 받고 이불 한 채와 냄비, 수저, 깨소금, 식량으로 쌀 세말을 나누어지고 제천까지 걸어갔다.

제천역에서 마지막 떠나는 화물열차를 타려는데 사람들이 지붕까지 올라 앉아 도저히 탈 수가 없어 포기했다. 할 수 없이 방을 얻어 자고 식량도 떨어져 마을에 돌아다니며 밥 동냥을 해 큰 바가지 하나 얻어다 담아 놓고 깨소금을 발라 먹었다.

피난민이 넘쳐 방 얻기가 힘들어 각지우리에 들어가 명석을 깔고 자기도 했다.

난리 때인데도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면 불쌍하다고 쌀을 한말씩 퍼주어 피란 잘 하고 가라는 사람도 있었다. 자루가 없어 양복바지를 동여 매 자루를 만들어 곡식을 얻기도 하였다.

집에 한 장으로 된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퍼 보고 남원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충주, 옥천, 무주, 장수를 거쳐 남원까지 가는데 동냥을 해 얻어 먹으며 가느라 한 달이 걸렸다.

남원에 가서는 방을 얻어 놓고 피난민 식량 배급을 받고 동생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와 따뜻하게 살았으며 마을에 홍역이 돌아 죽어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으나 우리 일곱 식구는 모두 건강하게 피난을 잘 하고 4월에 황성으로 돌아왔다.

그 무렵 보리가 막 패기 시작하였으며 피난 잘 하고 모든 식구가 한데 모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휴가가 참 보람 있었다.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니 7월 초에 부대는 인제군 기린면 현리로 이동 주둔 하고 각 부대들을 지원 하였다.

7월 중순에는 더 북진하여 인제군 북면 원통리 주둔, 8월 초에는 월학리, 천도리, 수곡리, 서화리 등지로 이동 했다.

8월 중순 부터는 965고지, 1031고지 등 고지대에서 전투가 차차 심해지면서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하게 되자 비상이 걸려 직할부대는 최소한의 근무 인원만 남겨 놓고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우리들은 새벽 4시경 점심으로 주먹밥 한 덩어리 씹 받아 허리에 차고 탄약고에 가서 포탄을 받아 지고 8km 되는 숲길을 걸어 21연대 7중대에 갖다 주었다.

그리고 인수증을 받아 탄약고에 갖다 주었는데 도중에 아무 곳이나 버리고 올라봐 그러는 모양이었다. 여름이라 비는 오고 얼마나 고지를 올라 내렸는지 미끄러워 올라 갈 때는 풀포기를 잡고 엉금엉금 기고 내려올 때는 미끄럼을 탔는데 정말 힘들었다.

노전평지구 전투는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격전이었는데 그중에서도 9월 중순 경 854고지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

우리 의무대를 거쳐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병이 하루에 382명으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은 통계를 작성하면서 처음 보았다.

노전평지구 전투 때 우리 부대는 서화면 수곡리 중배양 마을 개고개에 주둔하고 있었다. 전투가 심해지자 적군이 엠브란스까지 공격,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의 적십자 표시에 진흙을 발라 먼 곳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운행을 하였다.

우리 의무부대 옆 언덕에는 미군 써치라이트차가 배치돼 해가지면 저녁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2km의 최전방 전투지역을 향해 지름이 2m정도 되는 큰 전등이 밝은 불빛을 여러 곳에서 비추어 적들이 불빛에 눈이 부셔 아군 쪽을 바라 볼 수 없도록 했다. 낮이면 전등을 정비하고 밤이면 불빛을 비추어 주었는데 불빛이 너무 밝아 아군 차들도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 하였다.

이 전투의 6.25 전쟁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권 P.348 - p.362에 따르면 아군 전사자 540명/ 부상자 2464명/ 실종자 124명 / 적군 사살 4324명 / 포로 256명에 달하는 치열한 전투였다.

전투가 소강상태에 들자 10월 말 우리 부대는 공비 토벌을 위해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면 서천리로 이동 했다.

이곳은 황성의 둔내, 안흥면 처럼 지대가 높고 지리산 밑이라 공비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라 3일간 머물다가 남원도립병원으로 이동 했다.

2개월 후 광주시를 거쳐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넘어 가는 도중 노릿재 고개라는 높은 재가 있는데 이곳을 지나다 보니 공비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 낚싯대 길이의 긴 죽창을 엮어 고개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방위군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를 보니 얼마나 공비들의 습격이 심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화순군 화순읍 훈리에 있는 농업중학교에 3일간 주둔 했다가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로 옮겨 1개월 정도 주둔 했다.

이곳에서 나는 뇌척수막염이란 병에 걸려 군의관님이 잘 치료해주시고 나를 위해 개인집의 방 하나를 얻어 위생병 한명까지 배치해 간병 하도록 해 주셔서 병이 완쾌되었으니 그 감사한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전라북도 순창군청이 공비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대는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로 이동, 주둔하자 이곳은 공비들의 활동이 잠잠 해졌다.

멀리 떨어진 쌍치면에서는 이들이 마을로 내려와 곡식이나 옷가지 등을 빼앗아 갔다. 사복을 입고 활동을 하고 밥을 지을 때도 연기가 날까봐 동굴 속에 숨어 쌀이나 무를 때서 밥을 지어 먹고 동상을 막기 위해 담배 잎으로 발을 싸서 신발을 신고 옷 속에 무기를 숨기고 다녔다. 이들은 밤에 차가 다니는 다리 근처에 숨어 있다가 군용차가 다가오면 차바퀴를 공격, 차가 멈추면 식량이나 탄약 등 보급품을 탈취 산속으로 달아나곤 하였으므로 나중엔 단독 운행은 피하고 여러 대의 차량이 모여 함께 타고 이동 하였다.

쌍치면은 전라북도 정읍시와 경계를 이루는 노령산맥에 속하는 산골로 공비들이 많아 비행기로 투항을 권고하는 전단을 뿌리며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비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복을 빼앗아 입고 가짜 경찰이 진짜 인양 양민들을 공비들이 있는 곳을 안전지대라고 속여 그곳으로 안내하여 양인들 때문에 군인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1952년 2월경에는 부대가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로 이동 했다. 날이 춥다고 장화 같이 생긴 방한화를 지급 받았다. 발 시리다고 솜을 넣고 누빈 신발이라 종일 신고 있으면 신발 속에 습기가 차 양말이 젖고 동상이 걸렸다. 자갈을 주어다 난로 불에 달구어 신발 속에 넣어도 잘 마르지 않아 무척 고생을 하였다.

3월이 되자 부대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선돌마을에 주둔 했고 얼마 후 방산면 금악리로 옮겼는데 전쟁은 소강상태였다.

9월에는 부대가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로 이동, 전투 부대들은 김화군 근남면 대성산 부근에서 전투가 매우 심하였으며 1953년 봄에는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에 주둔 했다. 전투 부대들이 주파령을 넘어 김화군 원동면 지역에 주둔하고 있을 때 휴전 이야기가 슬슬 나오자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전쟁은 점점 치열해 졌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 했다.

각 전투 부대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 진지를 튼튼하게 구축 하느라 산에 터널을 파고 탄광처럼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갱목을 바쳐야 했다.

이러한 갱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직할 부대에 배정해 준비 하도록 했다.

말구 30cm 길이 150cm의 갱목 7,000개가 우리 의무중대에 배정 되었다. 이를 20일 안에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다 전선줄로 묶어 차 길 닿는데 까지 끌어내려 4인1조로 목도를 해서 차에 실어 공사 현장까지 실어다 주어야 했다.

공병대가 쓰는 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끌어 내리고 운반하느라 지금도 목덜미에 목도 할 때 생긴 굳은살이 70년이 되는데도 아직껏 남아 있다.

이때 휴전을 앞두고 전투는 점점 치열해 지는데 비는 매일 쏟아지고 적의 포탄은 후방에 있는 우리 부대 근처까지 날아왔다.

화천읍 풍산리에 주둔해 있던 2군단 사령부가 춘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우리 의무중대는 2군단사령부가 있던 풍산리로 이동 했다.

전투가 치열한 만큼 살기 위해 자기 몸을 자기가 다치게 하는 자해자도 더러 발생 했다. 자해로 상처가 생겼을 만한 환자는 헌병대와 특무대에서 나와 조사하고 자백을 받아 자해자로 확인되면 헌병대로 넘어가 처벌 받는 환자도 속출 하였다.

휴전은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를 기해 ‘전 전선에서 전투가 중지 된다’ 며

각 부대 장병들은 라디오 시보에 시계를 맞추어 오후 10시에 전투행위를 멈추라고 상부에서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날 밤 10시가 지나자 전 전선에 걸쳐 포성이 멈추고 조용해지니 이제는 살았구나 하며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다음날 아침 10시경이 되니 짚차 안테나에 흰색 깃발을 단 중립국 감시위원들이 휴전선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모두 나와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였다.



휴전직전 약제실 앞(김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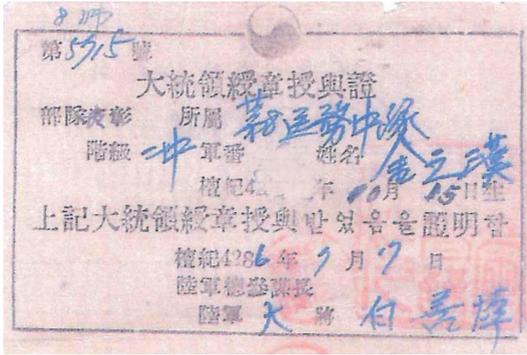


남원 도립병원에서(김원한오른쪽 첫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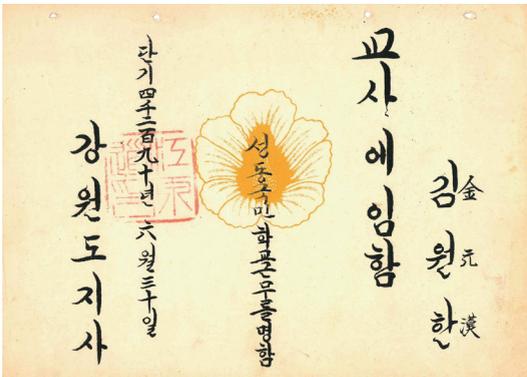
휴전된 후 의무중대는 화천읍 상리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전쟁이 멈추니 교육도 없었다. 우리 의무중대는 1954년 4월 1일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로 이동해 천막을 치고 매일 진흙으로 벽돌을 찍어 햇볕에 말려 막사를 짓고 입주, 부대원들은 재교육을 실시하며 한가한 시간에는 운동을 즐겼다.

나는 일등중사인 1954년 9월 재교육에 차출되어 경남 마산시에 있는 육군군의학 교에서 제19기로 12주간 내과기술하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부대에 복귀했다.

우리부대는 1956년 4월 1사단과 교대하여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장탄리에 주둔, 이곳에서 군 생활 5년 6개월만에 육특 을293호에 의거 이등상사로 1956년 6월 30일자로 만기 제대 했는데 제대 발령 공문이 늦게 도착 7월 10일에야 부대에서 나왔다.



왼쪽:대통령수장수여증 제8사단 의무중대 2등중사 김원한 1953년 7월7일 (육군대장 백선엽)
 오른쪽:6·25사변 중군기장 수여 증 제8사단 의무중대 김원한 1952년 10월15일(국방부장관)



제대 후 1957년 2월 제대교원 전형검정고시를 거쳐 그 해 6월 30일자로 성동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2020년 8월 6일 촬영. 오른쪽 김원한 선생님과 왼쪽 제자 최서현(당시 2학년)

6·25가 터졌어도 소식을 몰라 옥동리 공회당에서 1950년 8월 28일까지 2학년을 가르치다 서둘러 피난을 갔다. 선생님과 제자는 명가명품 식당에서 만나 71년 전 사진 속 주인공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나의 6.25 전쟁에 참여 학도병 참전기

고 2회 (당시 황성농업중학교 4학년1반)



김 현 태

한참 공부할 나이 17세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민군이 5일 만에 황성에 도착하니, 나는 우선 고향인 청일면 고시리 자택으로 갔다.

여름에 산에서 숨어 지내다 아군이 북진 한다는 소식에 학교에 나오다 유평리서 인민군에게 잡혀 태기산 쪽으로 끌려갔다.

인민장교가 불러서가니 신발도 벗기고 6km되는 집에 가서 40명분 밥을 지어 오라며 2명의 경비병을 같이 보내어 집에 오니 가족은 뒷산으로 피난가고 어머니가 계셔 말씀드려 식사 준비 중, 나는 뒷문 쪽으로 피신을 하였다.

당시 아군의 폭격(유엔군)으로 청일면 소재지가 불타고 있었다.

고장의 많은 청년은 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당시 나는 황성 마산리 중학교에 다니 3,4,5,6학년이 모여 별동대를 조직, 자체훈련(군에 대한)을 수 일간 받았다..

어느 날 오후 국군의 북진 소식을 들은 황성 중학생이 많이 모여 사거리서 만세를 부르며 환영 하는 중 학도병 모집을 하는 군인이 다가왔다.

우리 별동대서 훈련 받은 일부 학생 8명이 지원하고 춘천사범학교, 춘중, 황중 3개 학교 학생 30명이 모여 1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하루가 지나서 가평 목동으로 이동했고 2사단 31연대에서 경비를 하며 교육 근무 중 인민군의 습격으로 군31연대 3대대 군과 우리 학도병은 분산되며 후퇴하게 되었다. M1소총 지급, 옷은 미군 군복으로 갈아입고 근무 중 나는 주방 병 식사 당번이어서 밥을 배당 받던 중 내무반도 못가고 다급하게 후퇴를 하게 되었다.

후퇴 중 용감한 연대경비병이 기관총으로 차에서 적에 사격 후퇴를 도와, 하천으로 숨어 헌병대 인솔 하에 청평 역에 모여 야간에 후퇴한 경위 심사를 받았다.

무사히 통과한 나는 31연대 3대대 11중대 2소대 소총병으로서 근무지시를 받았다. 우리 31연대는 도보로 후퇴시켜서 청평 경유 충주, 문경, 용궁을 거쳐서 안동역에 도착 훈련에 들어갔다.

그 후 1·4 후퇴가 시작되어 중공군,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서울로 진군하는 불행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 후 소식을 들었더니 황성도 중공군에 침탈되었다고 했다.

안동서 재편성 중에 확인하니 나와 같이 입대한 학생 김응배, 김영청과 춘천서 온 학생 7명 등 총 9명이 후퇴 시 전사되었다는 소식을 알았다.

슬픈 소식에 우리는 더 열이나 인민군에 복수를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훈련 중, 날은 추어지고 있으며 전라도에서 미처 후퇴 하지 못한 인민군 1개 사단 규모가 안동에 도착하니 우리 31연대는 소천계곡 일월산 위치까지 진을 치고서 인민군의 도착과 동시 전투가 주·야간 벌어졌다.

우리 11중대는 큰 산 높은 일월산에서 적을 대항했다. 일대는 산돼지가 떼를 지어서 지나가고 있으며, 모포 1장으로 몸을 감싸고 적과 싸우는데 일주일간 식사도 보급이 늦어서 굶다가 비행기가 산속에 고사리 넣은 깡통 밥을 보급 받아먹으며 연일 전투, 인민군을 강원도 쪽으로 밀어냈다.

일월산고지서 내려오니 우리3대대장이(김홍열중령) 전사하고 우리 선배 (특1회 전우택)가 전사(당시대대장 연락병 본부 CP), 군인 17명이 전사당하고 신발, 옷, 총 등 전부 벗겨 가져갔다.

끔찍한 것들은 우리 31연대 박노주 대령이 분노, 미처 못가고 있는 인민군을 생포하라는 지시 속에 야간 전투에서 연대장님이 지휘 중, 전사하는 불행한 슬픈 사건이 발생하고서 2사단 장병이 소천국민학교에 집결하여 사단장님(함병선 준장) 지시 속에 경상도 죽령고개를 중심, 경비 중에 황성에서 온 동창 김현주의 부친을 뵈게 되었다.

특1회 이구연 선배가 경찰이 되어 중령서 도로를 경비 하고 있었으며 북진하는 유엔군차에 한상국 동창생이 군속으로 미군 차에서 손을 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특1회 조영선은 학도병으로서 8사단 포병 근무 시 갑천 청일애다 포를 쏘고 후퇴했다고 고향부모님 걱정을 했다. 그 후 우리 2사단은 북진을 계속 청평강 부근서 중공군과 전투가 시작됐다.

미군의 공격을 받은 중공군과 인민군의 사망자, 전차 등이 청평강 부근에 널려 있었다. 우리 31연대 11중대는 겨 가는 중공군을 밀어내며 금화 땅 부근에 이르니 많은 피난민과 중공군 시체가 계곡을 메워 냄새가 극심했다. 중공군 장비와 파괴된 전차를 버리고 간 높은 하오고개 철원 (입구 쪽)서 진을 치고 우리 연대 전투를 시작했다. 일제 공격 명령으로써 야야 소리를 지르며 하오고개에서 계속 2시간 정도 전투를 치루면서 우리 김병훈 11중대장과 중위가 부상을 입고 수송되고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많은 중공군을 격멸 하고 고지 탈환을 위하여 우리 2소대는 별동대로서 수류탄으로 무장 중공군 호를 공격 수류탄을 호에 집어넣으며 육박전 속에 중공군의 방방이 수류탄이 날아와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악전고투 속에 하오고개 높은 산 고지를 점령하니 중공군이 호 속에서 손을 들고 나와 수십 명의 포로를 잡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 아군의 기관총 60mm박격포 지원과 비행기 지원 폭격으로 바위 굴 속에서 때 이르게 뱀 (구렁이)가 나와 전투 중에도 무서움을 느꼈다.

몸은 포사적으로 흙 범벅이 되고 갈증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전투는 멈추고 저녁 식사 보급, 밥은 주먹밥에다 새우젓을 넣어서 먹었다.

중공군은 철원 넓은 땅을 지나서 금성이 보이는 높은 오성산 쪽, 중공군 지휘소 쪽으로 후퇴 하였다. 이곳에는 공산당 청사가 있고 많은 지하 땅굴이 보였다.

철원민이 인삼 재배 한 것을 뽑아 배낭에 담고 북진하면서 중공군이 버린 백알 박스와 개구리 통조림을 주어 전우 간에 나누어 먹다가 상관에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휴식시간에 인삼도 나누어 먹고 방어진지 구축 경비하며 수일이 지나 새벽에 중공군의피리소리가 나며 총격이 시작되었다.

미국 유엔군의 지시로 작전상 4km을 후퇴 하였으며, 이후 유엔군 150mm야포 박격포 전투기가 폭격하며 미군 전차가 전진하기 시작했다.

중공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며 장비도 버리고 후퇴 했으며 우리 2사단 31연대는 총공격으로 높은 오성산을 바라보고 북진 했다.

오성산 뒤엔 중공군 사령부가 있다고 하였으며 당시 중공군은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전투장비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음날 전투에선 중공군 자수자가 많았고 자수자는 중국 장개석 총통장군의 계열이라 하며 대만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우리 2소대장인 이태윤 소위가 좌측가슴에 총탄을 맞아 연락병인 나와 의무병이 교대로 업고서 cp까지 후송시켜 부대 병원에 보내니 김일병 살아서 가라고 했다.

천막 속엔 부상자의 신음소리에 나는 무척 괴로움을 느꼈으며 전선은 잔잔 해오고 1951년 여름은 가고 있었다. 당시 미고문단 소령이 순찰 중 나의 나이를 물으며 어린 군인이 용감하다고 해서 학도병이라 했더니 격려해 주었다.

그 후 전선은 잔잔한데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2대대 근무하는 남규성 후배가 전사하고 동기생인 조수원 친구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학도병이며 같이 입대한 횡중 학생이 5명이 전사 했으며 그 중 같이 간 3명이 생존한 상태였다는 슬픈 소식으로 지내야 했으며 고향소식이 궁금해 졌다.

그 후 가끔 중공군 침범에 나는 척후병으로 갔다 경사지역에서 굴러 오른손 중지 인 손가락이 접질려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 우비 한 장과 모포 한 장으로 산중 근무는 무척 추웠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한참 성장기에 크지도 못하고 눈비를 맞으며 산 속에서 적과 싸우며 지낸지 일 년이 지나갔다.

중부전선에서 8군사령관인 팬프리트 대장은 철의 삼각지 중공군을 무너뜨리는 명령으로서 유엔군 3, 7, 24, 25 사단 배치, 우리국군은 수도사단, 2, 3, 5, 6, 7, 8, 9, 11 사단이 배치를 받았으며, 당시 중공군 병력은 11개 군단에 26개 사단 규모이고 당시 오성산을 바라보며 금성쪽 우리 2사단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

우리의 승리 속에 유엔군 국군은 피해 전사자 24,000명이고 중공군의 패전 속에 전사자 부상자 등 합계 92,000여명 이라고 하였다.

그 후 전투 속에 우리 2사단 병력은 3사단과 교대해서 화천군 사창리에서 재편성과 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2사단서 하사관 입교명령으로 1952년 효창공원 초등학교에서 40일간 교육 받으면서 3.1절 행사 웅변대회에 참가, 손병희 선생 및 33인의 정신으로 원고를 작성, 김구 선생 묘소 옆에서 소리치며 연습한 결과 2등을 받으니 고향 특별 휴가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1주일 휴가로 고향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살아왔다고 좋아하시나 옆 동네에서는 남규성 후배가 전사한 소식에 규성 부모님께서 슬퍼하심을 목격하게 되었다.

당시 청일면 고시리에서 군에 입대한 학생 중 5명이 전사 하였다. 슬픈 소식을 듣고 제2사단에 복귀한 나는 사단장님 지시로 사단 내 20명 학도병에게 11기 4년제 육군사관학교 시험에 응시 교육을 시키며 서류 준비 하라고 했다. 횡성 고향에 내려오니 횡성중학교선 6학년 졸업장을 발급할 수 없다고 했고 춘천지역 학도병은 각 학교마다 발급해주어 제출할 수 있었다.

슬픔에 횡성중학교가 보기도 싫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육군 헌병학교 시험에 합격 대구 헌병학교에 입교, 준비 중에 중대장 강대위가 반대해 괴로워하던 중, 중대 부관 중위가 김현태 중사는 우리 2사단 군인이고 육군 참모총장 명령에 의거하여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근무 시 나를 어리다고 반겨 보살피 주던 홍천 출신 심은섭 상사 선임 하사관에 감사함을 전하고 중대장실에 배낭을 메고 신고 차 들어가니 그 간 미안했다 우리 서로 연락하자며 잘 가라고 금일봉을 주어 받고 헌병학교 입교를 했다.

교육 중 주말엔 우리 횡성 중 배속 장교인 황교운 대위가 보충 중대장으로 대구 시내에 계셔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횡성 고향 소식도 전해 드렸다.

어느 날 주말에 대구 역에서 신승호(횡성학도대장이던) 가 특1회 소위로 입관 전선으로 배치 가는 것도 전송하며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부산에 있는 외4촌 형님과 팔공면에 있는 외4촌 형님 댁도 방문 2개월간 헌병학교서 죄인 체포, 도주, 방, 조사 사항 공부를 마치고 논산 제2훈련소에 기간요원으로 252헌병대에 배속되었다.

서병숙 헌병 중령 부장님께 신고하니 헌병학교 나온 헌병은 파견근무에 임하라고 하여 부여군 부여 읍을 중심 위암면 홍섬등 지방에 순찰 및 도망병체포 도망병 자수 및 불순분자 색출 등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계엄시라 부여서장에게 상황 보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본부 훈련소 부소장 심언봉 준장님께서 오라고 하더니 금향감사(군납부정행위근절)조장에 임명, 임무교육을 받고 민간, 형사, 군, 관찰 등 4개 조 특별 근무도 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공주 쪽 모성면 검문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당시 나의 부인도 사귀게 되었고 근무 시 20개월간 사귀 수송 장교가 원주 수송부대 235대대 소장 시는 휴가 때에 2륜 차도 빌려주어 타고 고향도 다녀왔다. 우리 황중 선생님 김모진 은사가 우리 동창생 임옥희 양을 사귀어 결혼한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집에 가는 중에 포동리 내천을 지날 때 갑천까지 태워 주었는데 김모진 선생님과 결혼한 임옥희는 매우 수줍어하는 모습이었다.

군산 훈련소서 근무 시에는 우선 도망병 체포와 자수시키는 근무가 막중했다.

도망했다고 연락받고 2지역 경찰 협조 하에 그곳에 있으니 도망병은 일단 가족에 연락하러 오게 되며 도망병을 체포해 연행 시에는 부모님의 눈물어린 사정과 부탁에 자수한 것으로 작성 처리 해주었다.

다시 교육받기로 하고 처벌받으면 일생에 죄인이니까. 그래서 당시 많은 도망 훈련병을 자수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 휴가 장병 상담소장도 하곤 했으며, 파견 근무 시에 큰 사건이 났다. 손가락을 자른 사건인데 총 쏘는 손가락을 자르면 싸움터 전투병에 안 간다는 내용 이였고 제대 시킨다고 하면서 11명이 교대로서 칼을 이용 손가락을 자른 것이다.

상부지시로 사형시키라고 하는데 훈련소장이 다시생각 광주 교도서 수감 중인 사형수를 데려다가 많은 훈련병을 모아 놓고 도망하든가 자해하면 사형시킨다고 여군 아나운서가 방송하면서 사형수를 대신 총살 시킨 것 이다. 그러니 도망도 줄고 자해 사건도 줄게 되었다.

남자로 태어나서 국가에 충성치 못하고 죽는다고요(방송)

논산훈련소에서 근무 시 내가 근무하던 2사단 군인이 오성산 삼각지 철원지역서 전투는 승리, 고지는 점령 했으나 많은 희생자가 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나

를 어리다고 동생같이 여기던 홍천출신인 선임상사가 부상, 비행기로 긴급 후송중 전사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당시 헌병사령부 명령으로 전남 광주시에 1헌병대대 3중대에 근무지시 속에 광주로 부임하니 전쟁터 일선근무지가 되었다.

3중대 조사과에서 정보담당으로서 최연용 계장과 문관(경찰근무한 경험자)를 한 조가 되어 특별 근무 했으며, 무등산엔 아침에 빨치산 인민군기를 달고 낮엔 아군이 올라가서 회수도 하였으며 당시 검문소장이던 최상사가 빨치산 외파이에게 습격당 하여 전사를 했다.

그 후 전방 근무 명령으로써 3군단 2헌병 중대 창설에 부관인 이병운 중위와 발령을 받고 강원도 양구 3군단에 오게 되었다.

황성중학교가 마산리에서 시내로 학교가 이전되면서 학교에서 수료증(4년간)을 우리 집에 전달 해주었다.(당시 춘천지역 학도병은 6년 졸업장 수여) 학교 다닌 기간만 수료증을 받으니 섭섭하게 나는 부대로 복귀 했다.

양구지역 순찰 중에 동창생 도광태 소위를 만나니 너무 반가웠으며 나는 미24사단 헌병부대에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식사는 좋았으며 과일도 주고 24사단에서 대우가 좋았다. 못 먹은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춘천 내평리서 양구까지 순찰임무를 수행 하게 되었다.

그 후 특별 근무로 이승만대통령 경호근무에 양구 7성 별장서 휴식하며 3군단 강문봉 장군 초청으로 이승만 대통령 휴전반대에 관한 훈시가 있었다.

7성별장서 양구 댐으로 이동 배를 타시고 이동시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님 경호 시에는 잘 근무하고 고향 가서 잘 살고 하라며 격려도 해주셨다. 그 후 헌병대 현덕진 대장 지시로 불순분자(적색) 감금소에 파견 근무하며 양구에 인민군 묘지 수백 명의 적군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니 6.25전쟁이 소름 끼치기도 했다.

그 후 3군단장 강문봉 장군과 송요찬 장군이 3군단장 교대 하면서 인제군 관대리 1군 사령부자리로 옮기고 1군사령부는 원주로 이동했다.

양구 근무 시는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가 버젓이 군납 공장에서 채소 콩나물을 납품 하는 것을 본 나는 무척 불쾌함을 어찌 할 수 없었다.



부여근무지에서

관대리에서 사단 에루나이텐 비행정찰기가 월북하는 사건이 있어서 송요찬 3군단장이 각 사단장에 기합을 주었다.

사령관 송요찬 장군이 사단장을 일제히 구보로서 군 기강을 세우려 할 때 확 훈련소장이던 이성이 소장이 사단장인데 나를 보는 순간 훈련소서 본 기억난다고 기뻐하며 진급이 되지 않고 소장이 원수다. 라고 하며 반겨 주었다.

나는 군단 순찰비행장 파견 근무 때에는 조종사와 같이 강릉 비행장으로 2번 이동하면서 전방을 바라보고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기회도 있었다.

조종사와 강릉시내서 바다회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 근무지는 각 검문소, 춘천지역 내평, 홍천지역 신내 내촌 검문소 인제 원통 검문소 속초 검문소 38선 양양검문소 순찰소대장에 임명받고서 백차4대와 헌병인원 12명을 데리고 전방근무에서 군기확립과 위반 차량단속과 군복 착용자 훈계 등 업

무에 임하며 관대리 강다리 대교 옆 콘세트에 본부를 두고 근무 했다.

특히 생각나는 것은 논산 훈련소 근무 시는 이승만 대통령 명령으로서 (논산서 수용소 포로) 애국 포로 석방에 협조하고 광주 근무 시는 정보계 근무 시 적색분자 색출에 노력한 기억과 전방 강원 일부를 순찰하며 특별근무 한 것도 보람이었다.

양양군에서 사동욱 선생님이 교감으로 승진 양양중학교에 부임, 시내서 뵈고 차도 대접하고 선생님들께 내 제자라 하시며 소개도 하셨으며, 무척 반가워하셨다. 황성중서 무서웠던 사동욱 선생님이었다.

그 후엔 헌병부장 전이호 대령 지시로서 송요찬 사령관 호위병으로서 서울도 같이 다니게 되었다.

부대 급양 급식 후생사업책임자로서 대전 서울 등 다니며 부식을 구입 조달 했으며 나와 부인이 대전서 공부 할 때, 군단 죄수를 대전 형무소로 후송도 맡아서 하며 대전 가서 약혼 할 부인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다. 사고 없이 잘 근무한 나는 1956년 4월 10일 부로 제대 하게 되었다. 8명이 입대해서 5명이 전사 3명이 살아왔는데 황성중 1차 학도병으로서 황성중학교 70여명 학생이 군에서 특별 복무 하면서 북한을 원망하게 되었다.

황성 읍상리 55번지에 집을 짓고서 결혼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사업도 원주서 운수업을 시작하고 잘 지내며 황성 고향 생각이 나서 모임에 자주 참여했다. (현재주소 원주시 소초면 범골길52)



김현태 당시 모습

도광태의 6·25 참전기

1. 펜을 놓고 총을 메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비극 6·25사변 발발로 6월 28일경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 친구들은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뿔뿔이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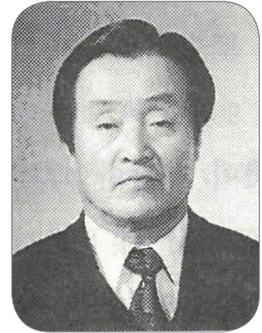
피난행렬은 남으로 남으로 이어졌고 1950년 7월 2일 우리 횡성은 적 수중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50년 9월 26일 추석 전날 미군기에 의한 대폭격으로 폐허화 된 채 한국군과 미군의 진주와 함께 수복되었다. 연합군은 계속 북진, 압록강에 당도했다는 소식으로 남북통일이 눈앞에 닥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깐 중공군 개입, UN군은 후퇴를 거듭하고 1·4후퇴로 이어져 수도서울이 적 수중으로 들어가는 사태에 이르렀다.

우리 횡성에는 1950년 12월 29일경 민간 철수 령이 내려졌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할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청장년들은 제2 국민병으로 소집되어 현 횡성교육청 위치에 집결, 최종 목적지인 경남 삼천포를 향해 속속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횡성농업학교 학생 100여명은 별도로 편성 횡성을 등지고 고향을 출발하였다.



도 광 태

2. 남으로 남으로

전장으로 나가는 학생들은 교복에 이불, 쌀을 짊어지고 피난민 행렬에 끼어 원주를 거쳐 도보로 남하하기 시작, 원주시 흥업면 남송부락에서 첫 밤을 맞이했다.

고향을 떠난 학생들은 부모를 처음 헤어지고 말로만 듣던 난리를 난데없이 당하게 되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사 문제, 잠자리 문제, 건강문제 등 최악의 조건 속에 기약 없는 남쪽으로의 피난길, 전방상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무거운 발길을 옮기며 당장 하루 세끼의 식사문제가 급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피난보따리를 지고 신작로를 따라 충주행 양안치 고개를 넘고 있었다. 유엔군의 후퇴 차량, 피난민대열과의 범벅으로 걷는 속도는 느리기만 했다.

다음날은 충주 목계, 다음날 충주 남쪽 마을, 수안보, 연풍, 이화령 고개를 넘어 문경에 도착했다. 유명한 문경새재, 미군의 후퇴차량대열, 천지를 진동하는 대포소리, 하늘에는 미군 비행기의 귀를 찌는 듯한 소리를 들으며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 문경의 어느 촌락에 도착했다. 쌀을 내놓고 식사를 부탁하고 조금 있으니 저녁밥이 나왔다. 반찬은 간장 하나였다. 많은 피난민에 시달리니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다음 날 행군은 계속되었다. 학생 100여명의 행렬은 그 때 유행하던 노래 “서울의 거리는 희망의 거리...” 를 흥얼거리며 점촌을 거쳐 상주 군위 창면에 도착했다.

3. 학도병으로 군 입대

우리 학생 대열은 야음에 몇몇 군인들의 인솔로 학교운동장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 허기진 배를 부대 식사로 해결하고 바로 이어서 군모포가 지급되고 부대 소개가 있었다.

“여기는 8사단 신병교육대이고 위치는 함창면 이안국민학교다.” 이제 여러분은 희망, 불 희망에 관계없이 이 부대에 학도병으로 입대시키니 그리 알아라.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되어 열심히 싸워 달라는 짙막한 명령조의 인사말이었다.

내무반으로 쓰고 있는 교실로 인솔되어 소대, 분대편성이 되었고 군영 내에서의 첫 밤을 맞이했다.

이 날이 고향을 떠난지 열흘이 되는 1951년 1월 8일이였다. 다음날 군복, 내의, 군화, 그리고 M1소총과 개인 장비가 지급되었고 간단한 입대식이 있는 후 신병교육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일조점호,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기상, 구보, 아침식사, 오전 화기학, 군사학, 오후

각개전투, 분대전투, 소대전투, 야간수색정찰, 야간사격, 눈 코 뜰 새 없는 강훈련이 계속되었다.

고향생각, 가족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겨울 혹한을 이겨내며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을 밟았다.

군번을 받고 정식군인이 되니 이제 명령만 내리면 일선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훈련은 1951년 2월 초까지 1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4. 횡성으로의 이동

1951년 2월초의 전세는 우리가 훈련받던 8사단 신병교육대가 일선부대로 개편되어 전방에 투입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조국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전황은 다시 밀리기 시작하여 1·4후퇴라는 전란을 겪어야만 했다.

1·4후퇴 직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은 강원도 남서부에 위치한 제1의 요충지인 원주를 비롯해서 횡성지방이었다. 홍천과 원주 사이에 위치한 강원도 남중부의 횡성군은 특히 중공군의 2월 공세 때 2개 군의 중공군 대병력이 홍천방면으로 진출 중에 있던 국군 8사단을 겹겹이 포위하여 악전고투를 겪게 했던 쓰라린 전쟁터였다.

우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이곳에 투입되었던 용맹스런 네델란드군 대대장병들이 노도같이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처절한 공방전을 벌였던 혈전장이었다. 그 혈전 속에서 대대장 오우텐중령과 그의 진중에 함께 있던 수명의 재일교포출신 학도의용군이 국군을 가장한 한 무리의 중공군에 의해 무참하게 사살당한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고을이기도 하다. 중공군의 2월 공세가 있기 1주일 전부터였다.

미 10군단은 당시 춘천까지 남하했다가 행방불명이 된 중공군 19병단의 행방을 탐색코자 전방지역에 대한 수색전을 펴고 있었다. 이때 종군단에 배속되어 있던 우리 8사단은 5번 도로를 따라 횡성-홍천 용두리로 진출하기 위해 주포리와 능우리 및 주민리로 부터 예하 연대를 약진시키고 있었다.

아군의 이와 같은 위력수색전은 2월10일부터 적의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하다가 11일 오음산~상창봉선과 상유동~도원리선 및 도원리~풍암리선 까지 진출 방어하고

있던 중 12일 미명을 기한 중공군의 대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중공군66군은 삼마치의 21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40군은 갈기 산 너머 16연대의 정면과 좌측방으로, 39군은 미2사단 23연대의 정면인 지평리를 공격함으로써 마침내 전세는 순식간에 급변하여 국군 8사단의 전방부대는 도처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사면초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리하여 아군은 휴대가 가능한 장비이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고자 사력을 다했으나 유기적인 철수가 불가능해 21연대의 경우는 2일간, 10연대의 경우는 1주일간의 포위망 속에 갇힌 채 적과 흑한과 굶주림과 싸워야했다.

이날 새벽 일선부대가 돌파 된지 3시간 후에는 미2사단의 화력지원부대까지 적의 기습을 받아 붕괴되는 등 전세가 악화되자 군단장은 모든 부대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나는 8사단 21연대 제1대대 제2중대 소총병으로 배속되었으며 우리부대는 일선 투입을 위해 훈련받던 이안초등학교를 떠나 강원도 횡성으로 도보 이동하는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군의 차량 사정은 전방상황이 더 급해서 전방투입 부대까지 수송할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다. M1소총에 실탄 탄대 5~6개(400~180발)를 양어깨에 메고 비상식량(건빵), 모포, 배낭 등 완전무장한 군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뛰어가야 하는 상태의 강행군이다. 행군종대로 출발 대대규모의 병력은 점촌, 문경, 이화령 고개를 넘어 중간 기착지 충북 황강리(충주동방)에 도착한 시간은 캄캄한 밤중자정이었다. 부대는 이곳에서 2일간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전투투입 준비 및 점검시간이었다. 전투준비가 끝난 우리 부대는 황강리에서 횡성까지는 야간 차량 행군이었다.

NISSAN 차로서 바람막이도 없는 차량에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 속을 목적지 횡성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차량에 탑승한 군인들은 추위를 견디며 장차 전개될 상황을 예상하며 싸움터 횡성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제천을 통과할 때 시내는 폭격과 화재로 폐허가 되어있었으며 원주 통과 시는 주민은 전혀 없고 폐허화된 도시에 미군 MP만이 불을 지펴놓고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차량행렬은 능머루버딩(현 공군부대 위치)을 통과하고 있었다.

5. 횡성지구 전투

우리 부대 차량은 목적지 횡성에 자정에 도착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 그러나 집에는 갈 수 없는 상황! 가족의 생사도 알 수 없는 격전지의 횡성 땅! 착잡한 마음 어디에 비교할 수 없었다.

칠혹 같은 하늘에는 조명탄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었고 대포소리는 밤하늘을 진동하며 고막을 찢는 듯 했다. 내 고향 횡성은 격전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당시 8사단 사령부는 횡성군청 자리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최영희 장군이 사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작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재반격 작전 제1단계(38선까지)

1월 15일 유엔군이 서부 오산지구에서 돌연 공격을 하자 16일에는 수원을 재탈환하고 원주에 돌입하였다. 1월 15일부터 유엔군 작전은 적의 도륙작전이었다.

전선은 일진일퇴를 계속하였으나 이 공격은 소규모였을망정 후퇴작전의 종지부였으며 반격전의 서전이었다. 동부전선의 제1군단 수도사단은 20일 강릉을 일시 포기하였다. 중동부 산악지구에 배치된 제3군단은 영월지구에서의 적의 강력한 압력을 저지하고 중동부전선을 안정시키는데 큰 위훈을 세웠다.

21일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영월을 탈환한 제7사단 3연대를 표창하였다. 2월 4일 수도사단은 적3개 대대를 강릉지구에서 격파하였으며 서부의 제1사단은 수원 서남방에서 적의 반격을 격퇴, 주요고지를 탈환하였다.

중부전선의 제2군단은 38선 35마일까지 접근하고 횡성 북방에 진출하였다. 적은 7일 중부전선에서 총 퇴각을 개시하였다. 8일 제 8군단은 평창북방 12마일의 지점에 진출하였다고 9일에는 미 제25사단 소속 한국군이 서울시에 돌입, 중공군과 시가전을 전개하였다. 10일에 시청에 태극기를 휘날리고 인천을 탈환하였다.

적은 제2, 3군단 정면에서 완강히 저항, 지평 및 횡성북방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적의 야간 역습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적은 11일 자정을 기하여 횡성지구에서 6만의 병력으로 맹렬한 반격을 개시하고 아군 진지에 침투, 제3, 8사단에 타격을 주므로써 아군 1개 연대를 포위하였다.

아군은 13일 횡성을 철수하고 포위된 1개 연대는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은 11일 38선을 돌파하고 양양을 탈환하였다가 12일 38선 이남으로 귀환하였다. 적은 16일 제천과 강릉 북방에서 반격을 개시하자 수도사단은 강릉에서 철수하였으며, 제천에 침투한 적 제5군단 약 2만은 제천 3마일까지 침투하였다.

수도사단은 전선정리의 필요상 19일 강릉을 철수하였다. 중부전선의 제2군단은 21일 퇴각중인 적에 대하여 총 공격을 개시, 횡성 5마일 내에 진출하였다. 23일 아군은 평창을 탈환하였다. 적은 방림지구에서 반격을 기도하므로 27일 제2군단은 적의 반격기도를 완전히 분쇄하고 횡성에 돌입하였다. 3월1일 아군은 유엔군과 협동하여 횡성을 중심으로 25마일 전선에서 총 공격을 개시 산악지대에 돌입하였다.

4일 제3사단은 10시간 교전 후 횡성동남 지점의 고지를 점령하고, 5일 제7사단은 38선에서 25마일인 하진도에 도달하였다가, 7일 적의 압력으로 아미동 근방에서 35마일 후퇴하였다. 적은 아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13일 전선에서 전면적 후퇴를 개시하였다. 제1사단은 14일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을 재탈환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계속하여 17일에는 서울북방 교외로 진출하고 적은 38선 이북으로 퇴각을 개시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은 21일 38선 8마일까지 진출하고 27일에는 양양북방에 도달하였다.

제1사단은 고랑포 방면으로 진격, 31일 문산 전면의 임진강을 도하하였다. 중동부 전선의 제2사단은 횡성~춘천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반격하여 적의 38선 이남의 최후 거점인 춘천지구에서 일대 격전 끝에 4월4일 소양강을 도하 적을 38선 이북으로 추격하였다.

군사학대사전(1964. 4.30)1100P

사령부에 도착한 우리 부대는 휴식할 시간도 없이 전투편성을 하고 사령부 경계임무를 받고 현 횡성31공원 뒷산 경계초소에 배치되었다. 내가 맡은 구역에 참호를 파고 경계에 돌입했다. 공근면 방면 밤하늘에는 조명탄이 계속 올라가고 대포소리는 밤새워 울리고 총성도 들려오는 최전선의 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다음날 새벽 여명, 적 부대규모 미상의 병력이 우리 진지에 대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해 온 것이다. 먼동이 흰히 터오고 침침한 전방에서 총성이 울리고 일제히 적의 사격을 받고 우리 부대는 적을 사살 및 격퇴시킨 작전이었다. 적과 교전은 군 입대 후 처음 맞는 상황으로서 긴장되었었고 미 증원부대가 배치될 때 껌을 씹으며 기관총을 응사하던 용감한 흑인 병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이날 적은 몇몇 구의 시체를 남기고 퇴각하였다. 군인으로서 처음 쌓은 실전경험 뿐 아니라 고향을 지키는 전투였기에 생을 통하여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6. 다시 횡성을 뒤로

사단사령부가 적의 기습을 받을 정도로 주저항선이 뚫린 상황은 여간 긴박한 사태가 아니었다.

임무를 교대한 우리 부대는 정렬한 철수가 아닌 각개행동으로서 지정된 집결지에 모이도록 명령이 하달되었다. M1총 앞의 총 자세 구보로서 지금의 성북초등학교까지 단숨에 달렸다. 바로 앞의 고개는 내가 살던 읍상리 향교마을이 아닌가? 들려볼까 망설였으나 그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물론 인적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단념하고 지시된 장소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각개행동으로 모인 부대원은 모두 집결하였고 바로 부대를 횡성에서 원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이다.

하늘에는 전투기 몇 대가 날며 쇠판이산, 남산, 우천면의 전재, 영영포리 국사봉, 공근면 학곡리 쪽을 향하여 기총소사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공회당 마당에서는 미군의 4.2인치 박격포가 포신을 거의 직각으로 설치한 채 적 방향을 향하여 발사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철수명령을 받은 우리부대는 도보로 이동을 개시, 횡성시가지를 벗어나 원주 방향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도로는 후퇴하는 미군차량, 철수하는 각 부대 행렬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횡성읍 교항리를 통과하는데 미군 병사들이 라이터를 들고 초가집에 불을 질러 동네가 온통 불바다였다. 우리 부대는 전쟁터 고향을 뒤로하고 행렬은 남으로 향하고 있었다.

능머루 버덩을 지나는데 철수하는 부대는 행군을 멈추고 도로 옆 고지로 전투대형으로 산개 배치되었다. 강 건너 산에는 중공군으로 보이는 병력의 이동이 눈에 띠일 정도로 사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은 철수부대의 퇴로는 차단하지 않고 나갈 길을 터주는 것 같았다.

상황은 늦은 심야에 원주에서 숙영하는 것을 허락치 않고 부대는 다시 출발을 개시 도보행군으로 다음날 여명에 신림에 도착했다. 이날이 1951년 12월의 일이었으며 상황요지는 다음과 같다.

- 네델란드군의 횡성 전투

특히 참전 중 네델란드 육군의 전투 중 횡성전투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전사로 길이 남는다.

횡성전투에서 M·P 에이덴 오우덴중령(대령추서) 휘하의 부대원들이 활약했는데 북진을 위해 횡성 북천리 인근 야산에 진을 치고 있던 이 부대는 1951년 2월 12일 대규모 북한군 및 중공군 병력과 맞붙어 일대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들간의 처절하고 치열한 공방전에서 네델란드군은 용감무쌍하게 싸웠으나 소규모 병력으로 대병력의 적을 대적하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이들간의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네델란드군은 일단 후퇴하여 횡성읍 읍상리 횡성감리교회로 피신했다.

그들은 아무리 포악 공산주의자들일지라도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야 총격전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인도주의적 생각에서였었다.

그러나 잔인무도한 공산군은 성역을 무시한 채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교전을 지원하는양 교회에 접근, 교회를 향하여 무차별 맹공격을 가하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거의 전 병력이 전사하거나 급한 길에 아궁이 굴뚝 등으로 은신한 소수의 병사만이 심한 중상을 입음으로써 공산집단의 잔악성을 실감케 했다.

이 전투에서 산화한 M·P 에이덴 오우덴중령을 비롯한 이국 젊은이들의 뜻을 기리고 명복을 기리기 위해 횡성3·1공원에 충혼비와 영동고속도로 새말인터체인지에 이들을 추모하기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7. 제천 의림지 석기암고지 전투

우리 부대는 제천 봉양 주포리에 집결 부대를 재편성, 도보로 일선 부대에 재투입되었다. 당시제천북방 방어진지는 높은 고지였으며 의림지 뒷산에 전진 배치되었다. 투입은 심야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밤중에 텅 빈 마을을 통과하였다. 피난을 같이 가지 못한 개들은 인적을 듣고 짖어댔으며 조명탄이 올라갈 때는 긴급 대피하며 은밀성을 도모하였다. 적 방향을 향하여 쏘는 대포소리는 밤하늘을 밤새워 진동하는 가운데 우리는 방어진지에 투입되었다.

실탄이 지급되었다. 실탄은 허리에 맨 탄대 외에도 실탄 탄창 8개들이 어깨탄대(64발)가 8~10줄이 어깨에 메어졌다. 개인장구의 확인이 있는 다음 바로 석기암 고지에 올라 방어진지에 배치되어 각 초소가 정해졌다. 야전삽이 지급되지 않아 M1개머리관으로 눈을 헤쳐서 개인은폐를 할 수 있도록 적진을 향해 총을 겨누고 경계에 들어갔다. 바로 앞의 적 상황은 조용하였고 아전 포소리만 심야의 적막을 깨뜨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심야 멀리 영월방면에서는 적과 아군이 교전하는 예광탄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올라왔다. 보국대원 아저씨들이 등짐으로 지고 올라온 식사로 각 초소에 공급되었다. 식사라고는 하나 주먹밥 덩어리에 소금이 묻혀있었고 물과 반찬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나마 얼어서 얼음덩어리였으나 입으로 녹히면서 한 끼를 때웠다.

하지만 보국대원이나 노무자 아저씨들이 포탄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 끼는 굶어야했다. 산이 높은 진지에서 낮에 적의 활동은 잘 관측되었다. 이동상황은 가끔 보였으나 공격 징후는 없었다. 밤이 어두우면 적은 공격해 올라왔다.

우리 진지 앞에서 공격해 온 적을 격퇴하곤 했다. 올라오는 적병은 포병의 지원 사격과 우리 초소의 사격으로 적은 번번이 격퇴되었다. 며칠 밤을 새워 병력을 취침시켜야 하나 휴식할 장소가 없었다. 너무 지친 병사들에게는 앞에서 적과 교전하고 바로 뒤 계곡에서는 언 땅에 모포를 덮고 잠을 청하는 날이 많았다.

이러한 전투는 5~6일여 계속되었으며 우리 전선은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하여 적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8. 즉결처분 현장을 보고

고지에서 초소근무 중 전달이 왔다. 수색대원 모집의 소식이었다. 나는 얼른 응모했다. 고지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수색대 근무의 위험성은 생각지 않은 채 우선 고지를 내려오고 싶었다.

연대본부에 집결된 수색대원인 우리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 놀랐다. 주먹밥이 아니었고 현장에서 도살된 쇠고기로 별식도 판판이었다. 취침도 노숙이 아닌 민간 빈집이라 최전방 치고는 호강스러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적의 공세로 아군진지가 무너져 전투원이 마구 쏟아져 내려오지 않는가? 명령 없는 후퇴였던 것이다. 헌병부대의 독전 소리가 밤하늘의 적막을 깨고 있었다. 지휘관은 다시 전방으로 전진하도록 명령을 하달하고 위반자는 총살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급기야 지휘관(연대장이라고 기억함)에 적발된 두 병사가 있었다. 이들은 진지이탈 명령불복종으로 총살대상이었다. 지휘관이 직접 거총사격에 의하여 총살이 집행되었다. 당시 전시의 분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는 전투 중 무단이탈이나 명령불복종 시에는 군법회의 절차 없이도 총살할 수 있는 즉결처분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지금도 그 상황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전쟁의 처절함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그날 밤 부대는 재공격을 개시 잃었던 고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탈환하였다. 내가 소속해 있던 보병 제 8사단은 횡성전투에서 큰 타격을 받고도 제천전투에서 10여일 격전으로 전투력이 더 약화 재편성차 후방으로의 이동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단은 진지를 다른 부대에 인계하고 1951년 2월 하순 경북 경산으로 이동 재편성에 들어갔으며 내가 속해있는 제21연대 제1대대는 경산군 자인면에 자인초등학교로 이동 부대정비 및 훈련에 들어갔다.

나는 그 후 계속 8사단에서 사병으로 인제북방 노전평 854고지 전투에 참여했고 이 전투에서 함께 입대한 친구 몇이 전사하였다.

다음 양구 백석산 전투, 호남지구 공비토벌, 수도고지전투를 거쳐 1953년 9월26일 육군보병학교 갑종간부 제58기 교육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중대장, 대대장, 월남전참전, 육군대학교관, 사령부참모를 거쳐 1979년 6월 30일 육군중령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1951년 1월 8일 입대 이래 군 복무를 28년 만에 마감했다.

군 30년간의 군 생활은 시간상으로는 반평생이나 홍안소년의 나이였으니 사실상 평생을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근무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1975년 10월 15일 보국훈장 3·1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군인 연금법에 의거 연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국가 유사시에 적은 힘이나마 국가안위에 이바지 하였다고 자부하며 긍지를 느낀다.

박순욱의 6·25전쟁 참전기

나는 1945년 해방되던 해 황성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설립 된 황성중학교에 1회로 입학하여 6·25직전까지 다녔다.

졸업반인 6학년 재학 중 6·25전쟁이 터졌다. 당시 지방 좌익들은 기세등등하여 젊은이들을 의용군으로 붙잡아갔다. 나도 이 소식을 듣고 친구와 부모도 몰래 산중으로 피난 은신하였다. 산 속에 숨어 지내는 생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이었다.

밤중에 동네에 내려와서 된장을 훔치고 풋고추를 따다 먹고 목숨을 유지하였는데 새옹이라는 그릇에 밥을 짓고 반찬이라고는 된장에 풋고추가 전부였다. 다닌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뒷걸음으로 올라온 길을 손으로 지워 놓고는 하였다.

그렇게 피난 도피생활을 하던 중 마을에 인공기는 사라지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보고 고향인 황성읍 가담리로 내려와 오랜만에 늙으신 부모님과 재회를 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났는지 1·4후퇴로 북쪽에서 피난민 행렬이 줄을 이어 남하하고 있었다. 이 때 학우 몇이 모여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니 함께 피난가자고 한 것이 이 심전심 여러 명이 되었다. 도보로 원주를 거쳐 경북 함창까지 가는데 후퇴하는 UN군의 차량이 길을 메웠다.

이미 8사단은 후퇴하여 모병을 하고 있었다. 나와 학우들은 1951년 1월 8일 학생모 쓰고 공산군과 싸워야 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학도병에 입대하게 되었다. 처음 간 곳이 이안초등학교 교실인데 바닥에 가마니를 깔아 놓았다. 그 때 대대 편성을 하는데 고향 학우와 떨어져 제 3지구대(그 때는 소대를 구대로 칭하였음)로 소속되었다.

그 때 하루 저녁만 자고 일어나면 몇 사람씩 없어서 알고 보니 전선으로 차출되어 갔다는 소식이다. 군번도 받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서 희생될 것 같아 원수인 공산도



박 순 욱

배가 미웠다.

며칠 지난 후에 우리부대가 재편되었는데 부대 명칭이 8사단 전차공격대로 내 앞에 몇 사람은 790이란 군번을 받았고 나는 0713506으로 당시 사고자 군번이라고 조롱도 받았다.

이안초등학교에서 51년 3월 경 솜 누비 군복과 신발을 지급 받으니 그 때서야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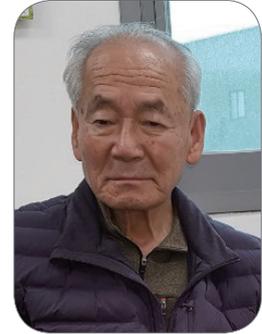
그 후 8사단은 황성전투에도 참가 하였는데 예상치 못했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8사단은 분산되어 제천 경유 전주까지 후퇴하여 전주 농림학교에 주둔 남원지구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때 부대명은 사단교육대로 개칭되었다. 그 때 전투 중 나는 총상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을 잃은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뇌리에는 좌경세력들이 나의 원수로 각인되었다.

부상을 당하여 전주에 있는 이동외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밀양육군 병원을 거쳐 구포에 있는 육군 839부대로 전속되었다. 나는 그 해 1952년 4월 30일 전상으로 인한 명예제대 특명을 받아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보훈병원에서 전상 심의를 거쳐 7급 판정을 받아 번호 23-220890으로 상이 군인이 되었다.

꽃다운 젊은 몸을 나라에 바쳐 장애인이 된 90이 넘는 늙은 몸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다만 통일된 대한민국, 참다운 민주국가가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유관종의 6·25 전쟁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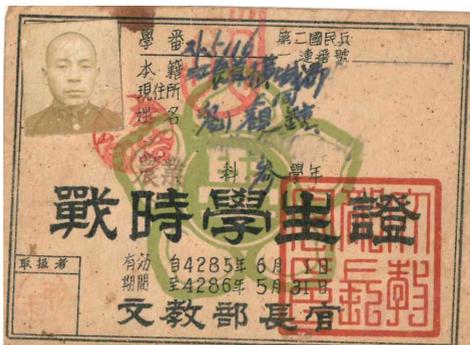
6. 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상태이다. 길이길이 조국을 지켜야 할 후세들에게 6·25의 교훈과 경각심을 심어, 다시는 참상이 되풀이 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당시를 회고 한다.



유 관 종

1950年 6월 28일(음 5.13) 수요일

종전과 같이 학교에 등교를 하였다. 시간이 되어도 조회, 수업을 하지 않으니 교실은 매우 시끄럽고 아수라장이다. 잠시 후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시더니 무기한 휴교(休校)를 하니 돌아들 가라 하신다. 영문도 모르고 가방을 챙겨 돌아오는데 흥천방면에서 이상한 소리가 천둥치듯 났다. 휴교로 공부하기 싫던 차에 집에 오니 왜 공부 안하고 일찍 왔느냐며 이상하게 여기셨다.



6.25 당시 유관종 학생증

1950年 6월 29일(음 5. 14) 목요일

당시 나는 중학교 4학년 19세의 미성년이였다. 병환 중의 아버지와 어머니만 집에 남아 계시고 우리 4남매와 4촌과 여섯 명이 붓짐과 밥술을 싸가지고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났다.

겨우 원주 치악산 산중에 은신하고 있노라니 원주 며 황성에는 인민군이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이다. 어쩔 수 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되돌아 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치안대 (인민경찰)는 우리를 안위시키느라 “남조선 동무들이여 반갑수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양키로부터 해방시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지상낙원(地上樂園)으로 만들어 줄 터이니 불안 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잘 따르라하며 인민위원장(이장.반장) 조직, 인민학교 개설 등 약 3개월 정도 인민통치 자리에 꼼짝없이 놓이게 되었다.

1950年 6월 30일 (음 5. 15) 금요일

무방비 상태였다. 얼마나 다급하면 약 오백 명의 비상학도대를 조직하였을까?

1950年 7월 10일 (음 5. 25) 월요일

선배인 이재영이 학교가 개학되었으니 학교를 가자하여 억지로 따라갔다. 수업은 하지 아니하고 인민군 노래를 부르고 인민공화국을 선전하는 극단을 조직하여 연극을 꾸몄다.

다음 날 학교에 안 갔더니 선배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또 억지로 따라갔다. 역시 전일과 같은 반복이다.

다음날 선배를 피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일찍 마치고 승지골이라 하는 산중으로 피신을 했다. 선배는 나를 찾다 돌아갔다 한다. 이제 인민군보다 선배가 더 두렵다. 며칠 피신을 하였더니 다시는 선배가 찾아오질 않아 안심이었다.

8월 20일 경 (7. 7) 일요일

이재영 선배가 또 찾아왔다. 어디에 잠깐 가자기에 따라 나섰다. 우항까지 가보니 이선배의 사상이 의심이 났다.

인민군 대열에 합세하여 쌀 1말 정도 되는 쌀자루를 메고 전하고 오라기에 가다보니 안흥까지 갔는데도 더 갈 태세다.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대열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나 궁리 중에 좋은 묘안이 났다. 안흥시장을 조금 지나니 독방이 있는데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며 휴식이다. 여기서 더 따라가면 안 되겠기에 쌀자루를 발로 살살 밀어 물에다 보이지 않게 빠뜨리고 동네 아이들과 합세하여 물놀이를 하며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다.

쌀자루도 보이지 않으니 인원점검도 안하고 떠나 버렸다. 나는 이제 살아나서 전채를 넘어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 집에 오니 집에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당시 어떻게 그런 좋은 묘안이 생각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당시 동네 선배들과 외삼촌, 승태 삼촌 등 동네 분들이 인민의용군으로 끌려갔다. 나는 어리다고 데려가지 않았다. 당시 자원하여 입대한 李○○는 지금껏 종무소식이 없고 의용군으로 끌려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종무소식이다.

9月 28日 (음 8. 17) 목요일

하나님께서 무심치 않으셨는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9.28 수도 서울이 수복되고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는 기쁨을 맞이했다.

중앙청에는 다시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우리 국군은 북진에 북진을 거듭하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점령했다. 이리하여 북한공산당이 완전히 패망하여 남북통일이 되나 했건만 또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 군은 후퇴하여 다시 쓰라림을 겪게 되었다.

12月 27日 (음 11. 19) 수요일

우리 횡성에서도 청방대를 조직하여 나도 그들 대원과 같이 방향도 모르고 남으로 남로 내려갔다. 당시 내 나이 겨우 19세 중학교 학생이었다. 아직 철부지라 나라의 형편을 잘 모르고 사회의 움직임도 잘 모르는 미성년이었다.

1951年 1月 1日 (음 11. 24) 월요일

오늘은 매폰에서 기차로 갈까하여 일찍부터 서둘렀건만 공비들의 습격으로 죽령재가 막혀 되돌아서 삼곡리로 왔다. 오는 도중 삼곡리에서 유엔군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를 공산군으로 오인을 하고 총살을 시도하려는 모양이다. 영어도 모르는 대원 중 한사람이 “오케이 오케이” 하니 정말 오인을 해서 었드리라한다. 나도 영어엔 백지지만 “Oh! NO! My Middle Schoolboy” 하며 교복을 가리키니 나의 의도를 이해하고 가라고 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1951年 1月 10日 (음 12. 3) 수요일

15일 만에 경산에 도착 극장에 숙소를 정하고 짚북데기를 침구 삼아 하루 밤을 지내고 거기서 함께 간 정대영과 김기준과 헤어졌다.

김기준은 이내 종무소식이고 인민군에 끌려 간 모양이다. 정대영은 21살이어서 현역으로 모병이 되어 8사단에서 복무 중 총상을 입어 원주 야전군병원 입원 중 집으로 탈영, 후에 다시 영장이 나와 재 입대하게 되어 군번이 이중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세 친구가 같이 가다 각각 헤어져 나 혼자 대구 월배 초등학교에 주둔중인 27교육대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다.

1951年 1月 25日 (음 12. 18) 목요일

교육 중 신체검사를 받으니 갑종합격 판정을 받았다. 같이 간 동내 어른인 정낙영 씨와 신범수씨는 불합격, 이용우 선배도 어떻게 피를 써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1951年 1月 30日 (음 12. 23) 화요일

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결과는 역시 갑종합격 판정이었다. 함께 갔던 세 분은 역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모두 귀향하니 나만 홀로 남게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1951年 2月 6日 (음 1. 1) 화요일

음력 명절이라며 아침점호 시 고향을 향해 세배를 올리고 음식도 특식이라며 쇠고기 국이 배식되었지만 고기가 목욕을 한 국물에 지나지 않았다.

특별히 훈련도 없이 휴식이다. 점심식사도 반찬이 푸짐했고 술까지 먹고 오락 시

간도 배풀어져 즐거웠다. 밖을 보니 동네사람들은 한복에 두루마기에 세배를 다니는 모습을 보니 집 생각이 더욱 났다.

1951年 2月 10日 (음 1. 5) 토요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불합격자는 다 귀향하였고 나 혼자 합격해서 남게 되었다. 남은 사람들은 거의가 학생들이었다. 각처에서 온 30여 명이 함께 트럭에 태워져 어디로인지 이송이다. 밤이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월배초등학교에 있는 교육대훈련소는 마치 피난민 수용소 겸 청방훈련 대기소와 같았다.

1951年 2月 11日 (음 1. 6) 일요일

우리는 총을 받아 산중 호 속에 배치되니 또 다시 밥 생각 뿐, 너무도 춥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굶주린 나는 더 이상 움직일 기력도 없었다.

겉에 질린 나는 얼음덩이 같은 주먹밥 한 덩이를 받아 게 눈 감추듯 먹고 그 날 밤을 그곳에서 지새우게 되니 배고프고 지친 몸이라 추위도 모르고 잠에 취했다.

잠시 후 어디서인지 총성이 나기 시작했다. 겉에 질린 나는 호 속에서 영문도 모르고 긴장해서 실수로 방아쇠를 건드려 총탄이 발사되어 총개머리가 나의 오른 쪽 턱을 사정없이 후려쳐 정신이 아찔 혼비백산이었다.

바로 이 총이 M1 구제 총이다. 무겁기도 하고 기장도 길어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총이다.

그 때 우리와 맞선 적군은 공산군 패잔병이라. 저들은 오랫동안 산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자들이라 정신력과 마음의 무장이 철저하게 준비된 정예군이다.

저토록 굳게 다져진 적과 대치하려니 전투는 몹시 치열했다. 암호도 불통이고 칠흑 같은 밤이라 누가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었다. 저들은 우리와 싸우기보다 밤이면 민가에 내려와 식량을 구해 허기와 추위를 달래려는 목적으로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면 민가에 내려와 주민들을 괴롭히는 패잔병들이었다.

새벽에 날이 새려는데 이게 무슨 놀랍고 끔찍한 일인가! 황당하기가 그지없었다.

같은 호에서 밤을 지내고 날이 새서 보니 적군인 인민군이였다. 약간의 대화를 해 보니 북한출신이며 나보다 나이 어린 17세 학생이란다. 피차 군복이 아니고 사복이어서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황당하기가 그지없었지만 우리는 협상을 했다.

서로 개죽음을 하지 말자며 너나 나나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겠니? 그러니 서로 총을 쏘지 말고 뒷걸음질을 하며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조심조심 뒷걸음질하며 서로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보장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51年 2月 12日 (음 1. 7) 월요일

날이 흰히 새니 온천지가 고요하고 잠잠하다. 이런 산중 생활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밤이 되니 안절부절 겁에 질린 상태, 이 순간 어디서인지 기분 나쁜 따쿵 총소리가 들리고 계속 빗발치듯 날아오는 총탄을 피하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얼마 동안 요란스러웠던 총성은 멈추고 조용하니 온 천지가 잠자는 듯 고요하다. 철쭉 같은 밤이라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도 못한 채 표적도 없이 무턱대고 쏘아대는 총소리를 들으며 나도 방아쇠를 당기니 이는 어처구니 없고 꺾도 없는 철부지였다. 살펴보니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었다. 벌써 총에 맞은 부상자도 있었다. 이런 어려운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순간 어디서 난데없는 총성이며 수류탄도 날아왔다. 적이 가까이 접근했나 보다. 이 순간 나는 비운에 총탄과 파편으로 10여 곳에 큰 부상을 당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잠시 후 전우의 부축을 받고 일어서서 걸으려 했으나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동료의 등에 업혀 약간 으스스한 곳까지 가서 피신을 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정신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1951年 2月 18日 (음 1. 13) 화요일

나는 어디를 거쳐 어떻게 이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병원에 오니 나는 이미 죽어 전사 처리가 되었다 한다.

이 순간 집으로 유골(젯 봉지)이 이미 전달이 되었나 보다. 송장창고에서 나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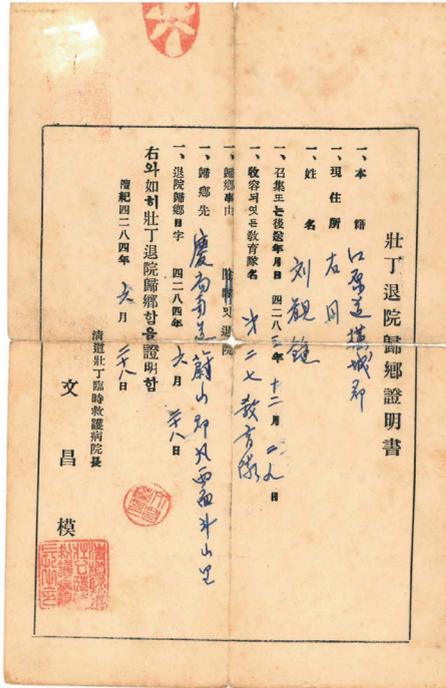
곳이 송장창고 인줄 모르고 평안한 상태에서 편히 지낸 것 같다.

깨어난 나는 목이 몹시 갈하여 인기척이 나기에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질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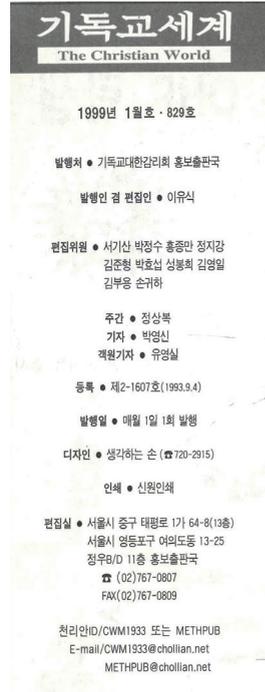
그러나 금세 인기척이 사라졌다. 어디로인지 가버린 모양이다. 잠시 후 다시 인기척이 나기에 이번에는 힘을 다해 다시 물을 좀 달라고 소리쳤건만 다시 도망을 치는 모양이다. 잠시 후 여러 사람이 다시 왔나 보다. 요란스럽게 문을 열며 나에게 접근하니 이들은 솜방망이 햇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를 찾나 보다. 어디서 소리가 나나 하고 다시 불러 본다. 그제야 나를 끌어내려 가마니에 묶인 나를 풀어 놓으며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내 귓전에 스쳤다. 나는 몹시도 궁금하였다. 왜 물을 달라는데 도망을 치고, 저리 수군거리며 왜 나를 쌀가마니에서 풀어 헤칠까? 매우 궁금하였지만 나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으니 모르고 평안하였음이 당연하였겠지. 그래서 나는 저들에게 다시 물어 보았다.

왜? 나를 이곳에 가마니에다 싸서 묶어 놓았느냐고 물으니 머뭇머뭇거리며 저들의 대답인 즉 네가 이미 며칠 전에 죽었기에 너를 이곳에 두었으며 여기가 송장창고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또 다시 궁금하고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 갖다 물을 것이지 왜 여기다 두었느냐고 물으니 날씨가 매우 추워서 날이 풀리면 묻으려고 기다리는 중이라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원주 기독교 병원에 문창모(文昌模) 장로님께서 쓰신 글 중 『기독교 세계: 1999년 1월호, 32-33쪽』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글에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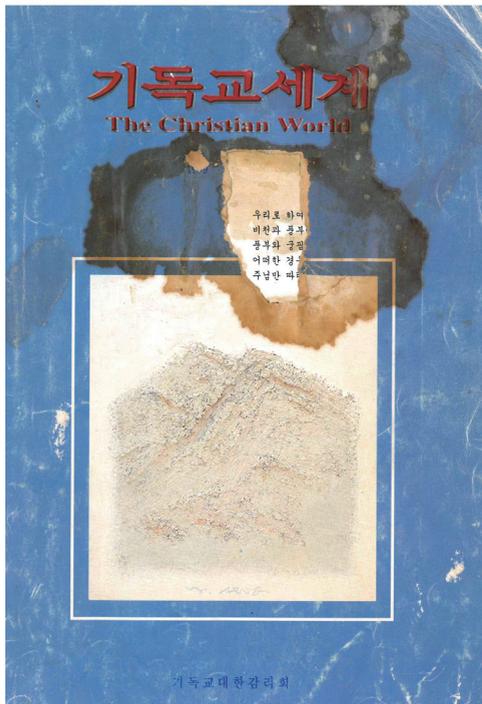
1951년 1월 4일 한강을 건너 경남 거제도로 가서 세브란스 병원을 개설하였다. 소위 방위병이라고 남하시켰던 부대 중 춥고 먹지 못해 죽게 된 환자 천여명과 시체 100구등 경북 청도초등학교에 세브란스 병원 부원이라고 명목을 받았다. 고생하던 중 20여일 지난 시체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 30여일 직접 정성껏 치료하여 다시 살리게 한 후 고향인 황성군 용둔리로 보냈다. 유관중이라는 분이데 지금까지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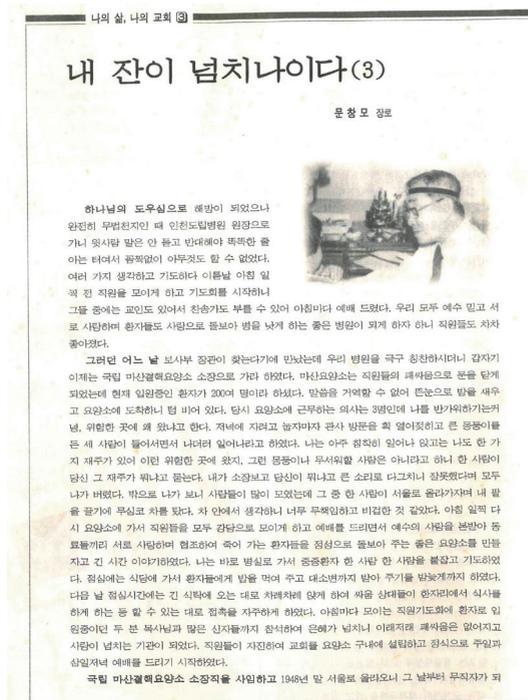
학도병 유관증 퇴원증명서



문창모 기독교병원장 기고문 속표지



“기독교 세계” 책 표지



문창모 기독교병원장의 유관증과 관련된 기고문

1951年 6月 28日 (음 5. 24) 목요일

그 후 나는 이 병원의 보살핌과 정성스러운 간호와 치료로 상처는 나날이 호전되어 4개월 후 쌍지팡이에 의지하여 걷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다. 나는 그 당시는 너무도 깊은 상처라 걷게 되기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에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밖에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겨우 20세의 어린 나이에 불구의 몸으로 남에게 신세나 질 생각을 하니 앞날이 아득하며 또 다시 정상으로 걸을 수 있으리란 희망이 없어서 매우 절망적이었다.

이러한 나를 정성스럽게 간호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천번만번 감사할 뿐이다. 겨우 걷게 되어 퇴원을 하여 경남 울산 친척 댁으로 가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집에 돌아와 다시 학교에 등록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 졸업하였다.

당시 고향의 온 마을은 잿더미가 된 상태이고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부친께서도 총상으로 돌아가시고 두 동생은 장질부사로 고통 중이며 어머니는 혼자 장례며 두 환자 간호에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나의 전사통지로 유골(젓봉지)이 와서 장사를 치렀다 하니 당시 저의 모친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아 암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이를 당해 본 당사자가 아니고는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었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뿐만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처지였다고 본다.

1955年 9月 1日

나는 53년 3월 25일 횡성고등학교를 졸업하여 55년 7월 26일 교사시험에 합격하였다. 그 해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다 5. 16 혁명이 나면서 병역 미필자 단속 중 병역 미필자라 해직을 당했다. 61년 6월 16일 해직을 당하고, 전쟁에서 많은 부상과 전사통지(유골)까지 받고 장사까지 지낸 나를 병역미필자라니 말이나 되느냐며 진술서를 갖고 교원인권옹호 상담소를 찾아가 호소를 하였다. 나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어 구제할 테이니 기다리라 하였다.

3년을 기다린 후인 64년 7월 1일 자로 다행히 복직이 되었다.

잠자고 있던 나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

나는 교직 재임 당시 불구자의 정체를 은폐하며 드러내기를 꺼렸다. 불구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 학부형들께서 싫어할까 두려워서였다.

그렇지만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 그 동안 잠자고 있었던 명예와 권익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보훈지청에 찾아가 진상을 밝히고 권익을 회복시켜주기를 간청하였지만 역시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회복의 방법이 없다면서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다.

군번을 제시하라 하니 주지 않은 군번을 어찌할 방법이 없으며 그러면 인후보증을 선접하라 하나 이 역시 당시 같이 복무한 분들이 다 사망하여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친구인 김진상의 아들 김철수군이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기에 이 사실을 말하니 방법을 알아 힘써보겠다고 자료를 준비하라기에 ① 참전 사실 확인서 ② 6·25 참전 인후보증서 ③ 참전 사실 확인서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앞으로 2003년 11월 중에 제출하였다.

서류심사 결과 1개월 후 참전 유공자증서(13-16-020413)가 나왔다. 서류심사의 결정적 자료는 인후보증서보다 장정퇴원증명서와 당시 병원장이신 문창모 장로님께서 쓰신 진술 자료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기독교세계: 1999년 1월호 32-33쪽』에 당시 나의 진상이 실렸다.

또 다시 국가 보훈청장 앞으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신청한바 1년의 조회 끝에 2004년 10월 국가유공자증명서(21-221673)가 나왔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면서 그 동안 잃었던 명예와 권익을 되찾아 상이군경회원(21-22-1673)이 되어 상이군 대우를 받게 되었다.

횡성중·고동문 학도병 참전현황

□ 전사자(13명)

- 6학년 남기태 전우택 정향균 한상준
- 5학년 권육면 안규홍 정상철
- 4학년 김성배 김영기 김응배 이병국
- 3학년 남규성 이창재

□ 생존자(66명)

- 6학년 고낙순 김기원 김정환 김준수 김한기 박상국
박순욱 박춘만 방희상 성기용 신승호 여송수
원종수 이병호 이상철 정관양 정병대 정병하
정세양 정지양 정태영 조영선 최호범 추성엽
탁희복 한상무 한필수 함재동 홍대석(29명)
- 5학년 고익현 김남선 김석배 김원한 민병철 박종단
박영선 유기홍 유현수 이동욱 이영재 이현기
이환구 정호범 탁연욱(15명)
- 4학년 김순렬 김옥규 김용대 김진혁 김현태 도광태
신영순 양재현 유관중 이병혁 장희덕 장태준
조수원 최상문 한광수 함기중 (16명)
- 3학년 김순택 도병옥 박은선 오영진 유재규 홍건표 (6명)





경찰관들의 3장 횡성사수 이야기

- ◆ 김문걸, 박광훈, 이원식, 전재곤,
정계향, 정병익, 최재우, 홍석규
- ◆ 태기산 경찰 전적비
- ◆ 횡성 강림지서 피습사건
- ◆ 횡성 태기산 전투
- ◆ 횡성 경찰관과 6.25 전쟁

갑천면 갑천지서 의용경찰 자치대장 김문걸

김 문 걸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 국토는 전쟁의 도가니로 명들었다.

이곳 갑천면 사람들도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먼 곳으로 혹은 깊은 산속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마침내 9월 28일 빼앗겼던 수도 서울이 되찾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정든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마을처럼 폐허가 된 고향을 찾았지만 살벌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가운데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가 날뛰고 태기산 깊은 산으로 은신한 채 미처 패주하지 못한 패잔병의 살인, 방화, 약탈의 만행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갑천면은 황성경찰서 갑천 지서의 순경 4명이 마을의 치안을 맡게 되었으나 겨우 4명의 경찰관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그해 10월 자발적으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의용경찰을 조직 해 마을자치대를 조직 해 활동을 했다.

그때 선봉에 서서 자치대를 조직하고 앞장서서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이 바로 신대리 살던 김문걸 대장(당시 31세)이었다.

1946년 함경남도 명천에 살고 있던 김문걸은 신대리로 시집 온 누이동생(김옥순)이 너무도 보고 싶어 고시리를 찾아왔다.

꿈에 그리던 남매는 행복한 해후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그때까지만 남과 북이 38선이 그어져 있어도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었지만 남북이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38선을 중심으로 왕래가 금지되었다.

김문걸 대장은 할 수 없이 여동생 남편(조인수)이 하던 목상일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4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6.25 전쟁이 발발했다.

김문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애국심이 충만한 마을 젊은이들을 규합 해 자치대를 조직하고 마을 지킴이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예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며 또한 완전한 경찰관도 아닌 오로지 향토애와 조국의 피 끓는 젊음으로 뭉친 8명의 애국청년이었을 뿐이었다.

이들은 군번 없는 군인으로 보수 없는 경찰로서 아무런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은 채 9.9식 소총과 패잔병에게서 노획한 무기로 비록 허약하게 무장했지만 불타는 젊음과 애국심으로 잔류한 패잔병을 소탕하고 부역자를 색출 검거하여 군에 이첩하는 등 활동하고 구리봉 어답산 전투에서 패잔병과 접전하여 일망 타진하는 등 많은 공훈을 세우며 이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인 10월 말 주간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야간순찰을 준비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저녁 무렵 태기산 일대에 도피 은신하다가 지리산의 공비들과 합류하기 위해 남하하던 숫자를 알 수 없는 북한군(주민들은 연대 이상의 병력으로 증언)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전을 벌였다.

비록 패잔병이지만 중무장한 엄청난 병력과 경찰을 포함한 30여 명 간의 교전은 처음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다. 1주야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지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상처가 아물던 시가지는 다시 시가전으로 불탔다.

본격적인 전투는 마을 앞 구리봉에서 시작되어 밤낮없이 삼거리와 전촌리까지 쫓고 쫓기는 전투에서 많은 적을 물리치고 어답산 전투를 끝으로 자치대원들은 날이 밝자 하산하여 횡성읍 쪽으로 향하던 중 다시 돌돌벌에서 북한군의 대규모 기습을 받고 응전하다 탄환이 부족하고, 1주일의 전투에서 많은 전투를 치른 뒤라 역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에서 김문걸을 비롯한 일곱 명의 자치대원들이 적의 손에 희생을 당하고 오직 홍석규 씨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그 당시 치열하기만 했던 전투를 증언해 주었다.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갑천면사무소에서는 갑천시장 길거리에 일곱명의 대

원을 상징하는 7층 충혼탑을 세웠다.

하지만 이 탑도 도로개설로 사라지고 현재 면사무소 뒤편에 새로이 충혼탑을 세우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을 기리고 있다.

김문걸은 고향을 떠나 신대리에 홀로 거주하던 터라 후손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값진 희생과 애국심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도 제대로 신청을 하지 못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의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 조성하(67세)는 외삼촌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을 보상받기 위해 나름 많은 애를 썼으나 아직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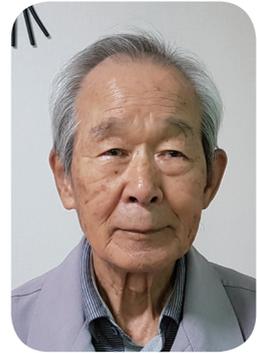
김문걸 대장의 묘소는 현재 갑천면 사무소 뒤편에 있으며 그의 공적을 기리는 비문이 세워져 있고 갑천면에서는 연고가 없는 그의 묘소를 매년 벌초하고 있다.



김문걸 수비대 대장 묘소

전쟁은 피하되 힘은 갖추워야

두 번 다시 뒤돌아 생각하기조차 싫은 6.25 한국전쟁.



박 광 훈

전6.25 참전 경찰전우회 횡성지회장

6.25 전쟁은 북한 공산집단의 반민족적 천인공노할 남침으로 인한 우리민족 골육상잔의 비극이었다.

1949년 2월

강원도 경찰학교 본과 과정을 졸업하고 홍천 경찰서 노천 지서 근무를 임명받고 경무주임께 신고를 하자

“노천은 지방 공산주의자들이 우익 인사를 도끼로 살해 한 곳이다.

도끼 들고 덤빈다고 총 버리고 도망치려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옷을 버리라” 라고 굳은 결의로 내게 말했다.

1945년 해방 후 남북이 분단 되기전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로 갈려 그 갈등이 극에 달했고 특히나 내가 근무하게 될 홍천 노천은 공산주의자 부두목이 살던 곳이기도 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전후해 수 없이 전투 부대나 무장간첩을 남과 해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1948년 인제군 남면 신남지구 침투 사건을 비롯해 1949년 홍천 공작산 사건, 1950년 홍천 내면 읍전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등이 내가 근무하는 홍천 인근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다.

6.25 전쟁 전 각 경찰서에는 공비 침투에 대비하여 본서에 1개 소대의 기동대와 무장공비 침투 우려 지역에 유동경찰대 1개 소대를 각각 배치 해 운영했고 각 서에는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 해 총탄이 뚫지 못하게 두꺼운 벽과 사격 창구를 구비 한 망루

를 설치했다.

그야말로 경찰 본연의 업무보다 공비 토벌이 그 당시 경찰들의 주 업무다 시피 했으니 그때 얼마나 많은 공비들이 출몰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 당시 경찰 장비로는 99식 38식 90년 식 등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쓰던 구식 소총들이었다. 그러니 전쟁 준비를 갖춘 북의 무기와는 비교가 되질 못했다.

1950년 6월 25일

북은 소련제 134형 탱크를 앞세우고 불시에 감행해 왔다.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라 우리 국군들은 휴가를 보내는 등 그야말로 한 가로운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나는 혼자서 노천 지서를 지키고 있었다.

횡성 태기산 지역에 출몰한 공비토벌에 홍천 관내 경찰들을 출동 한 상태였었다.

급히 본서인 홍천경찰서에서 북한이 남침했다는 전통신이 날아들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민심 소동이 없게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던 터라 나는 마을 이장 한천단장 그리고 마을 유지들에게만 조심스레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전세가 악화 되어 일시적 후퇴명령이 떨어져 나는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상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가족과 도중에 헤어지고 경찰직원들과 함께 행동을 했다.

우리는 후퇴를 하면서 안강, 기계, 포항 시가전을 치르면서 포항 시민과 섞여 어선을 타고 울산 방어진에 도착했다.

칠혹같이 어둠이 천지에 가득한 자정 무렵이었다.

우리는 무장을 한 채 어느 교회당을 들어섰다.

그러나 교회 관계자는

‘신성한 교회에 총을 들고 들어올 수 없다’고 우리를 제지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우리가 처한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 해주니 그제서야 고생 많다면 밤중에 사람들을 동원 해 저녁을 준비해 주고 그 교회에 잠자리를

제공해 줬다.

다음날 걸어서 울산에 들어가 홍천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합류했다.

그러나 8명의 경찰대원들은 끝내 오지를 앓았다.

파죽지세로 낙동강 까지 최후 방어선을 펼치고 다행스럽게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연합군의 도움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다시 수도 서울을 탈환 하고 북진을 거듭해 압록강, 두만강 까지 올라가 그야말로 통일이 코 앞에 도래하는 듯 했으나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경찰들은 지리산과 태백산에 경찰전투 사령부를 편성하고 패잔병과 무장공비 섬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곳은 산악지형이라 공비들이 은신해 게릴라전을 벌이는 바람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밤낮으로 피나는 전투가 지속됐다.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 되는 바람에 그곳 주민들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3년 동안의 동족상잔의 비극은 휴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0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흔은 90이 넘는 내게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온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나라의 힘인 국력을 튼튼하게 키우는 길만이 당위라고 난 생각한다.

전쟁의 후유증

남북 분단도 억울한데 3여 년 간의 동족상잔 6·25전쟁은 전국토를 잿더미로 만들

고 수많은 전사, 전상자, 이산가족, 고아가 발생하는 아비규환이었다.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흐르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그 후유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차열한 전선에서 부상을 입은 전상자는 고향에 아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산가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그 만날 날이 기약 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다.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 직후 불발탄에 의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명피해가 많았다.

처절한 전쟁 통에 운이 좋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어린이는 세대를 이어갈 기둥이기에 이 땅의 희망이었지만 전쟁이 끝났어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방에 널려있는 불발탄에 의한 것이었다. 별 놀이기구가 없던 시절 호기심으로 만지고, 분해하고, 두들기고, 불에 넣고 놀다 그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일이 흔했다. 혼자도 하지만 대부분 또래들이 모여 함께 갖고 놀다 폭발 사고가 빈발하였다.

경찰관으로 6.25 전쟁 참전 회고

내 고향은 경상도 의성.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었다.

그래서 어릴 적 아버지는 늘 일본놈들 감시하에 핍박을 받고 사셨었다.

일본놈들이 하도 못살게 구는 바람에 도저히 고향에서 살 수 없어 우리식구들은 야밤 도주 하듯 일본놈 눈을 피해 이역만리 강원도 둔내로 이사를 왔다.

그때 내 나이 아홉살.

그러다 고모부가 강원도경찰서에 근무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춘천으로 이사를 했고 난 고모부 덕분에 도청에 운전원으로 취직을 했다.

그리고 운전 특기로 순경 계급장을 달고 정식 경찰이 됐다.

꿈많은 20대 중반.



이 원 식

해방 후

남한 땅에는 공비들이 자주 출몰하던 터라 그때 경찰들 주 업무가 공비토벌이었다. 난 거의 매일 경찰 GMC 트럭에 경찰대원들을 태우고 공비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작전을 나갔다. 주로 공비들이 야간에 출몰했기에 주로 밤에 출동을 했다.

1950년 6월 24일

마침 그날은 토요일이라 많은 대원들이 휴가를 나가고 난 도경찰청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난데없이 화천 내평지서가 습격 당했다고 긴급 보고가 들어 와 도경에서는 서둘러 비상을 걸고 난 경찰 대원을 태우고 내평지서를 향했다.

그런데 그곳을 공격한 것은 공비가 아니라 정식 북한군인 인민군이었다.

다수의 인민군이 내평지서 언덕아래서 일제 사격을 하는통에 우리 대원들은 총 한 번 못 쏘 보고 일제히 후퇴를 하는 수 밖에 없었고 나는 라이트를 끄고 조심 조심 후퇴를 해 빨빨이 흩어진 대원들을 신고 춘천 도경으로 철수했다.

다음날(6월 25일)

우리대원 들은 소총 한 자루만 든 채 춘천 봉의산을 올랐다.

인민군은 소양교 건너 샘밭까지 다가와 있었다.

처음 보는 탱크에서 포를 발사 할 때마다 우리들은 제대로 대항 한 번 못하고 다시 철수, 본청으로 돌아오니 내게 도경에 근무하는 간부급 가족들을 서울로 급히 데리고 가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나는 집에다 서울 출장 다녀온다는 연락만을 겨우 한 채 차에다 경찰 간부 가족들을 가득 싣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은 이미 피난민들 행렬로 가득찼고 우리는 그 행렬을 따라 남으로 다시 길을 나섰다. 한강 다리에 다다르자 헌병이 제지했다

건널 수 없다는 거였다.

나는 흠을 찌운 차 안에 부상당한 경찰들이 있어 빨리 남하해야 한다고 헌병들에게 얘기하자 우리 차를 통과시켜줬고 한강 다리를 건너 얼마 못가 한강교가 폭파되는 폭발음을 들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 위에서 수장 될 뻔 했다.

피난민 행렬로 차는 거의 걷는 속도로 달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도중 경무과장 일곱살 짜리 딸을 잃어 버렸다.

아마도 그 아이 이름이 원자였던 거 같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찾아도 그 아이는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포기하고 다시 차를 출발하는데 피난민 행렬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잃어버렸던 그 아이 ‘원자’ 였다.

원자 어머니는 다시 찾은 딸을 부둥켜안고 펄펄 울었다.

한강이 폭파되고 우리 경찰대원들은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내려오다 경찰차를 발견하고 우리랑 합류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걸려 우리들은 대구까지 내려갔고 우리 대원들은 낙동강 전투에 배치돼 그야말로 혈전을 벌였다.

나는 그 대원들 전투현장으로 매일 차를 몰고 나섰고.

유엔군의 참전과 학도병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한 덕분에 낙동강에서 더 이상 밀리지를 앓았고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이 성공으로 다시전세는 역전되고 우리들도 북진하는 우리 군을 따라 다시 춘천까지 올라왔다.

경찰 간부 가족들과 대원들을 무사히 춘천에 내려주고 다시 도경찰청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던 10월 어느 날

내게 원주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하는 신입서장을 서울에서 데리고 오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난 혼자 차를 몰고 서울을 향했다.

밤길 운전이었다.

춘천을 벗어나 강촌 가파른 고갯길을 운행 하던중 갑자기 총성이 내 차를 향했다.

패주하는 인민군 패잔병들의 기습이었다.

수 많은 총탄 세례를 받은 내 차는 중심을 잃고 낭떠러지로 전복됐다.

몇 바퀴를 굴렀을 것이다.

난 순간 정신을 잃었고 육체를 떠난 내 혼이 날 일으켰다.

내 혼은 차에서 기어 나와 한없이 깜깜절벽 강변을 걸었다.

‘오던 길로 가야지

그냥 가면 객귀가 될텐데..’

허공중에서 그런 말들이 내 혼의 껍속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미군과 한국군이 들어서 있는 큰 사무실이 보이고 난데없이 돌아가신 큰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다.

“네가 왜 여길 왔니?” 라시며 걱정 어린 모습으로 내게 강아지 한 마리를 안겨주 시고는 얼른 가라고 손을 휘휘 내저으셨다.

정신이 돌아와 간신히 눈을 떠 보니 미군 병사들이 전복 된 차에서 나를 꺼내 들것을 싣고 나를 운반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중상 중의 중상이었다.

전복된 차에 끼어 내 턱은 세 조각으로 으스러져 있었다.

도경찰청 소속 경찰이라는 신분이 밝혀져 나는 미군 헬기에 태워 서울 미 8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한강 다리는 끊어진 채 그대로 있었다.

다시 한강 다리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워낙 부상이 심해 미군병원에서도 어찌해 볼 수 없다고 손을 놓는 바람에 나는 다시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 의사들이 내 상태를 보더니

“여태 살아있는거 용하네” 라며

자기네는 더 이상 손쓸수도 없고 가망이 없다고 판단 해 나를 쓰레기장으로 치워 버렸다.

며칠을 그곳 쓰레기장에서 보냈다.

그렇게 며칠 후 눈을 떠 보니 온통 눈앞에 하얀 시루떡이.

그래서 허겁지겁 입에 가져가 보니 이게 웬일 그건 떡이 아니라 피 묻은 솜뭉치들이었다. 헛것을 본 것이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나는 기다시피 해 쓰레기장을 벗어나 서울 어느 골목 밥집을 들어갔다.

턱이 으스러져 말을 할 수 없는 난 글씨로 밥 한술 달라고 간청을 하자

밥집 주인아줌마는 내가 측근 해 보였는지 송충 한 그릇을 내게 주었다.
 억지로 입을 벌리고 송충 몇 숟가락을 뜨자 정신이 번쩍 났다.
 난 고개를 조아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종로경찰서를 찾았다.
 그곳 수사과장을 알고 지냈던 터라 내가 찾아갈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말을 할 수 없었기에 필담으로 내가 다친 얘기를 들려주자
 수사과장은 날 알아보시고는 여비 조금 하고 사람을 딸려 차를 태워 주라고 부하
 직원에게 당부를 했다.
 난 됐다고 하며 동행하려는 직원을 되돌려 보내고는 가게방에 들러 날계란 세 개를
 사서 그릇에 깨 넣고는 입을 그릇에 대고 후루룩 마셨다.
 비록 계란 세 개에 불과했지만 식음을 전폐했던 내게는 최고의 영양식이었다.
 기운을 차린 나는 무조건 춘천쪽으로 가는 차를 막아서 세웠다.
 헌병 차가 한 대 나타나자 난 무조건 태워 달라고 간청을 했고 내 딱한 처지를 본
 헌병은 차에 태워 줘 춘천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춘천에는 전시라 가족이 모두 원주로 내려간 상태였었다.
 난 다시 중상의 몸을 이끌고 원주까지 내려 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원주경찰서 수
 사과장을 찾아갔다.
 나는 수사과장을 만나자마자 목을 꼭 끌어안고 놓지를 앓았다.
 나를 고쳐준다고 해야 목을 놓겠다면서..
 수사과장의 도움으로 원주에 와 있던 미 고문관 대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용산에
 있는 미 8군 병원에 입원했다.
 턱이 세 조각이 난 상태라 철사로 턱을 꿰매고 봉합 수술을 해도 상태는 쉬 호전되
 지 않았다.
 결국 다리뼈를 잘라 세 번째 대 수술을 하고서야 어느 정도 상태가 나아졌다.
 그곳에서 장장 2년 반을 그렇게 투병을 하며 지냈다.
 명이 길었는지 아니면 하늘이 도왔는지 나는 미8군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다시 도
 경찰청에 복직 돼 운전을 했다.
 그리고 이곳 횡성경찰서에서 정년 퇴직을 했다.

하지만 옛날 살기 어려워 공상처리를 하면 가족들 배급이 안 나온다기에 공상처리를 철저히 안타깝게도 아직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내 나이 구십 하고도 여섯.

벌써 70년도 더 넘은 오래전 일들인데 그때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인지 아직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때 일들이 뇌리에 떠오른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한 지 어느덧 70년.

결코 어떤 명분의 전쟁이던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에 더더욱 매진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모두,

태기산 전투의 증언

전 재 곤

(전 총경, 서울특별시 참전경찰 유공자회원)

이듬해 늦가을, 그러니까 제2관구 경찰청 총무과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1948년 11월 13일 토요일 오후였다. 평온한 일만 하던 본청 직원에게 대낮 비상소집이 걸렸다. 정복, 정모를 하고 응소를 하니 장비계 피복창고로 가란다.

김동호 경사가 오는 대로 줄을 서라며 일본 군용 털모자와 털외투 한 벌씩을 주었다. 또 무기고에서는 경사니까 칼빈총이라며 탄약 두 박스를 함께 주며 청 앞에 대기하고 있는 트럭에 올라타라고 했다.

이렇게 선착순으로 트럭 2대에 올라탄 본청 부대는 무엇 때문에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홍천 쪽으로 달렸다. 집에 남은 아내는 ‘잠깐 다녀올게’ 하고 나간 뒤 며칠을 안 돌아오는 나를 ‘오랜 비상소집도 다 있다’ 며 매일 기다렸을 것이다.

이때 제2관구 경찰청장은 훈사에서 ‘이놈들아, 무언 지시를 하면 꿈틀이라도 해라’ 며 호통 치는 똥보 송병섭 경무관, 전투경찰지휘관으로 임명된 보안과 권오철 경감은 일제강점기 보통 문관시험 출신으로 두 분 다 군인경험은 전무한 분들이었다. 지휘관인 권경감은 홍천, 평창, 횡성의 각 경찰서와 본청과 원주경찰서에서 차출된 2개 소대를 총 지휘하게 되었다.

우리 본청 소대의 소대장은 일경 출신의 용도주임 김국태 경위로, 물론 군 경험은 전무한 분이였다. 분대장은 고참 경사들이 지명되었고 나는 평대원의 한 사람이였다. 삼마치고개니, 홍천강이니, 또 무슨 고개인지 몇 개를 넘어 해가 질 무렵에야 횡성 둔내 지서라는 곳에 도착했다. 언뜻 보기에 고산준령에 둘러싸인 좁다란 분지 같았다. 이 날은 소재지의 농가에 각 분대별로 분숙 하게 되었는데 농가 뒷방에 분대 전원이 옷을 입은 채로 드러누우니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였다.

북한 집단은 동부38선에 접근한 양양 인민유격대에서 유격전에 대한 재훈련을 실

시 중인 강동정치학원 수업생 500명을 우선 남하 침투시킬 것을 결의하고 선발대로 약 180명을 무장시켜 38선을 불법으로 월경한 다음 태백산맥을 타고 오대산, 계방산, 회령봉, 흥정산을 통과하여 동 11월 14일 태기산(1261m)에 입산, 계속 남하를 기도했다.

그런데 이 유격대의 남침은 ‘북한집단의 군사적 후방 침투 공작 작전의 효시로서 적 유격전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유격대의 목적, 편성, 임무 등에 관해 진상을 전혀 파악할 길이 없었다’ 고 당시 경찰의 당혹스러움이 기록되어 있다.

쉽게 줄여 적는다면 내가 참가한 이 토벌전은 북쪽에서 38선 이남 남한에 내려 보낸 공비 침공 제1호에 대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우리 본청 소대와 흥천경찰서 소대는 이튿날 흥천군 서석면 생곡리 봉막골로 부터 구목령, 낙수대 방면의 수색을 마쳤다. 훑고 다닌 길은 오직 한 줄기의 산길로, 곳곳에 저들의 암호표시가 만들어져 있었다. 돌로 또는 나뭇가지로 표시된 그것들을 우리들은 행진을 멈추고 신기한 듯 구경을 했다. 날씨가 다소 차가웠지만 두터운 일본군 우의를 입고 쓰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어디다 맡길 수도 없어 걸치고 다니자니 굼벵이 같은 힘든 행군이였다. 대원인 내가 보아도 우리 부대는 적과 교전하러 나온 부대 같지가 않았다. 이렇게 규율이 없고 사기가 없어 보이고 투혼이 보이질 않는 부대가 어디에 있을까 싶었다. 하기가 어제까지 각 과나 계의 책상에서 사무나 보던 직원을 불시에 불러내어 산악전에 내 보낸 것이었으니 준비된 부대에 걸맞지 않음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다. 보일까 말까한 산길을 따라 그저 종대로 줄지어 걸어갔다. 전사에 의하면 1948년 11월 13일 작전명령에 의하여 강원경찰국 소대(김국태 경위)와 흥천경찰서 부대(김경비 주임)의 2개 소대는 흥천군 서석면 생곡리 봉막골로 부터 구목령, 낙수대를 경유하여 태기산에 입산한 적의 수색 및 추격을 담당하고, 평창경찰서부대(장재용 경위)는 평창군 용평면 면온리 안흥동으로 부터, 횡성경찰서 부대(조동하 경위)는 횡성군 갑천면 신대 방면으로부터, 원주경찰서부대(고광수 경위)는 태기산 연맥인 응봉으로부터 일제히 수색전을 마쳤는데 본청 소대는 둔내지서 소재지에서 대기 숙영했다.

이튿날인 11월 14일 지휘본부는 태기산 응봉 방면에 배치되어 있던 원주경찰서 부

대가 적의 척후대 약 60명과 조우, 교전 끝에 초전 개가를 올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면서 우리 두 소대에게 즉시 그 방향으로 수색 출동명령을 내렸다.

바짝 긴장한 우리 부대는 다행히 응봉에서 적이 유기하고 달아난 수류탄 50여개, 각종 소총 실탄 1,000여발을 노획해 태기산 기슭 화동에 이르렀다. 전황이 신변에 와 닿으니 비로소 나를 비롯한 우리 대원들의 외모와 행동거지가 전투원답게 변했다.

밤새도록 추적을 계속해 새벽이 오고 있을 때였다. ‘부대정지!’가 전달되어 왔다. 한기가 차고 칠혹 같은 하늘에서는 가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앞에서 나갔던 원주경찰서 부대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가 전해 왔다는 것이다. 척후로 내 보낸 두 사람의 아군이 적에게 붙잡혀 전사했다는 것이다. 적은 도망쳤다고 한다. 순간 주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우리 본청 부대가 정지하고 있던 지점에서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그 끔찍한 현상이었다. 묘소였던가. 잔디 깔린 좁은 평지에 고귀한 두 시신은 그 자신이 직무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포승줄에 묶여 누워있었다. 근접거리인데다 추격 병력이 들끓는 위기에 총성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한 줄의 소로 길을 따라 100여명의 부대가 모여 있는데도 기침소리 하나 안 들렸다. 불현 듯 이런 생각이 스쳤다. 아! 이 두 사람이 전투력이 갖춰지지 않은 우리 측의 위기의식을 높여주었구나 하고.

10~20분 지났을까. 부대장들이 모여 있을 전방에서 앞 부대는 전진, 맨 후미인 본청 소대 등은 두 시신 운구를 담당해 안흥지서까지 옮긴다는 명령이 전달되어 왔다.

곽형사는 곱슬머리에 당꼬바지 차림의 팔팔했던 일본군 남방 귀환용사였다. 원주경찰서에 근무할 때 초임 순경으로 면발치에서 눈여겨보던 선배였다. 형사 하는 사람들은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는 보아도 티가 보이게 마련인데도 이 사람에게서는 그런 게 풍기지를 않았다.

한편, 피아의 식별이 어려우니 다시.... 운운한 지휘관의 무지와 결단력 부족, 이 참변을 당한 다음에야 교훈을 얻었다는 경찰의 성급한 작전 확장.

급히 ‘들것’이 만들어졌고 시신을 엮은 다음 6인 1조가 되어 운구가 시작되었다. 진눈개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시야를 가렸다. 달은 밝았으나 무겁고 참담한 애도

의 행군이었다. 적에게 총 한 방 쏘아보지도 못하고 전우의 시신이 누운 ‘들겅’ 을 들고 내려가는 부대 모두의 심정은 비통뿐이었다.

이 날 태기산 일대의 다른 지역 우리 경찰과 군 합동토벌대는 이들 인민유격대 척후대로 보이는 60여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교전 끝에 적 4명을 사살했다.

이와 같이 경찰에 의한 태기산 전투를 통해서 적정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자, 원주에 주둔한 국군 6사단 제8연대 제3대대가 출동하여 경찰과 군 합동작전이 전개되었으며 이때 경찰은 적의 남하주요지점 차단 및 적을 수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태기산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군의 맹렬한 공격에 다수의 병력 손실과 사기가 저하된 적은 더 이상 계속하여 집단적으로 남하하는 것이 곤란함을 깨닫고 분산하여 흥정산, 보래령, 응봉 세 방향으로 남하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경찰은 지휘본부를 안흥으로 이동 설치하여 현재의 문재로부터 공격전을 전개하였으나 적 주력이 흥정산과 보래령 방향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되자 11월 20일 재차 지휘본부를 평창경찰서 관할 진부지서로 이동하고 적을 경강도로 이북에서 공격·섬멸하게 되었다.

한편 11월 18일 적 3명이 태기산에서 경찰과 군의 맹렬한 공격에 타격을 받고 분산·남하하고자 대미산에 입산하였으나 피로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4구 대미동 민가에 침입하여 식사를 강요하고, 의류를 약취하였다는 정보를 접한 운교지서 주임 김영수 경사는 김성열·김종환·박병자 순경을 현지에 출동케 하여 같은 날 오전 2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3명은 적정 수집과 아울러 적의 퇴로를 차단·압축하고 약 30분간의 교전 끝에 적 3명을 사살하고 99식 장총 5정·실탄 350발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적의 주력은 교묘히 경찰과 군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가리왕산, 치악산, 백덕산 방향으로 남하를 계속하였다.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11월 27일 영월지구에 계엄령을 선포, 제6여단장 유재홍 대령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제8연대를 투입, 경찰과 군이 토벌을 강행하여 약 1개월 만에 충북 제천에서의 섬멸전을 마지막으로 그 대부분을 소탕했다고 전사에 기록되어있다.

(강원지방경찰청, 2013, 「강원경찰전사」, 디자인맑음, 485~489쪽 참조)

정계항의 6·25 참전기



정 계 항

1950년 3월 12일 서울에서 청년방위대가 창립되었는데 황성군 청년방위대는 5단 2지대 1편대 제3구대 소속으로 편성되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4일 독립편대로 변경되어 편대장 이경찬, 구대장 박주병, 학생소대 소대장 조규천으로 재편성하였는데 나는 황성농업중학교 4학년 재학 중 1950년 10월 14일 황성경찰서 공근지서 청년방위대 학생소대에 입대하였다.

청년방위대는 1951년 1월 21일자로 전국이 청년방위군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1950년 10월 22일 새벽에 황성 청년방위대는 공근 경찰지서로부터 공근면 어둔리 오음산에 은거한 공비소탕작전 명령이 하달되어 오전 8시 구대장 박주병과 소대장 조규천은 소대를 인솔하여 출동하였다.

공근면 어둔리에 오전 12시에 도착하니 어제 밤(10월 21일)공비 열두 명이 마을을 습격, 마을사람 1명을 사살하고 이 마을 거주 태금만 집에서 식량과 부식, 식기 등을 탈취, 오음산 시계 골 쪽으로 도주 하였다는 태금만의 증언을 들었다.

우리 학생소대는 공비가 은거한 오음산(930고지)에 오후 1시 도착하여 참나무 숲과 다래덩굴이 짙 차있어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시계골에 잠복중인 것을 확인 집중 사격하여 공비 3명을 사살하고 도주하는 공비를 포위하기 위하여 좁혀 들어가는데 공비들의 총성이 났다.

나는 10m쯤 앞에 가던 김현태가 벼들 굴에 숨어있던 공비의 총격에 전사하는 것을 보고 바위에 은신 경계 방어를 하고 있던 중 앞으로 가던 김만수가 다래덩굴 밑에 숨어있던 공비의 총격에 중상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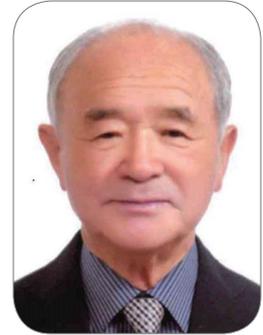
이 사실을 소대장에게 보고하니 계속 공격하라고 명령, 수색작전을 벌였으나 날이 어둡고 부상자 후송도 하여야 하므로 구대장 박주병은 하산 철수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라 나는 대원들과 같이 김만수를 교대로 업고 하산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10월 23일 나는 소대원과 함께 공비 수색과 전사한 김현태 시신을 찾기 위해 현장 출동하였으나 공비들은 밤에 도주하고 김현태 시신을 수거 공근면 창봉리 가족들에게 인계, 마을 청년방위대원들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

10월 28일 오음산 공비소탕작전 후 공근면 가곡리 금계천 수색 작전 중 나는 정병익, 김수열, 이상혁 등 7명이 강변에서 공비를 발견 총격전으로 공비 5명을 벽봉산 쪽으로 격퇴시켰다.

11월 초순에는 공근면 공근리 봉오재 권순민 집에 부상 공비가 있다는 신고가 있어 나는 대원들과 출동, 공비 1명을 생포하여 공근면사무소에 주둔한 군 부대에 인계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 후 우리 소대원 45명은 2개월간 공근면 잔류 공비 소탕작전을 마치고 해산되었다.

정병익의 6·25전쟁 참전기



정 병 익

1. 오음산 전투

나는 9.28 수복 직후 중학교 4학년 신분으로 공근면 창봉리 오음산에 있는 패잔병 소탕전에 참전하였다.

지역방위를 위해 편성된 방위대원은 40명 내외였으며 박주병을 소대장으로 추대하였다.

오음산 중턱에 있는 벼들 굴에 패잔병이 드나든다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각기 38소총과 40발의 총탄, 한 개의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적진을 향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며칠 전 공근면 가곡리에 패잔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권육면 춘사3년생과 양손에 막대기를 들고 달려갔던 용기를 되새기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공근 지서 직원의 인솔에 따라 오음산에 도착 벼들 굴을 포위하는 작전이 개시되었다. 칼바위와 우거진 참나무 숲, 그리고 다래나무 넝쿨이 엉킨 험준한 언덕과 계곡을 헤쳐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운 침묵이 흘렀다.

무엇이 전개될지?

용감한 대원들은 앞에서 현장(벼들굴)을 먼저 좁혀가고 남은 대원들은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얼마의 침묵이 흐른 후 웅성대는 말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김현태 대원의 우렁찬 목소리에 일제히 공격했다.

벼들 굴 앞에 도착하였으나 김현태 대원은 이미 전사하였고 패잔병 두 명을 사살, 굴 안에 숨어 있던 한명은 생포하는 전과를 이루었다. 도주한 패잔병의 자취는 알 수가 없었다.

2. 중공군의 반격

중공군의 반격으로 전세가 악화되자 1951년 1월29일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명령이 내려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1.4 후퇴가 확정되자 황성군민도 전라남도 남원군이 소개지로 지정되었다가 충북 보은군으로 변경되었다.

나는 변경사실을 모르고 남원으로 갔다가 1951년 2월 10일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산하 203부대에 애기순경으로 입대하였다.

이 부대는 이북 수복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대로 편성되어 평안남북도를 담당 평양까지 진출하였으나 중공군의 침략으로 전투계획이 무산되어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의 주력부대로 개편되었다.

나는 잠시 사령부 경비대로 근무하다가 남원군 운봉면에 주둔하고 있는 203부대 2대대 3중대로 배치되어 지방빨치산과 인민군 패잔병의 살인, 방화, 약탈에 맞서 싸우는 전선에 투입되었다.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후방 치안을 교란시켜 지리산의 평화 없이는 이 나라의 치안이 없을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수 만 명의 군경을 투입하게 되었다.

3. 지리산 뱀사골 전투

경상북도 출신인 이현상 빨치산 두목은 15,000명의 공비와 병참고까지 두고 지리산 전역(경상, 전라, 충청 13개 군)을 돌며 관공서를 불태우며 주민의 양식을 약탈하는 만행을 일삼아 지방치안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1951년 3월 공비토벌을 위해 새벽 4시경 우리중대는 남원군 운봉면을 출발 산내면 삼정산(1,156m)고지를 향해 수색작전을 하며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다.

눈덮힌 정상에 적막이 흘렀다.

숨을 돌리며 차가운 주먹밥으로 점심식사를 시작하는 순간 공비들의 기습으로 총성이 빗발쳤다. 중대부관의 민첩한 지휘로 대오를 정리하고 적과 대응하였으나 험난한 지형과 적설로 불리한 상황이 되자 부득이 철수하였다.

그런데 순간 나는 철수방향을 잃고 혼자 배꼽까지 빠지는 눈을 뚫고 부대를 찾아 헤맸으나 또다시 적은 나를 향해 사격을 해왔다. 이 순간 이제 나는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생포 될 것이란 전율이 온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적의 총탄은 나를 피하여 설상으로만 빗나갔다.

명은 하늘에 있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뱀사골 계곡에 이르자 지옥 같은 현상이 눈에 들어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체들이 얼어붙은 물속에 수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목불인견의 비극이었다.

어둡고 눈 덮인 험난한 뱀사골 계곡(빨치산 은거지)을 사력을 다해 내려가니 산내면 지서의 환한 등불이 나를 반겼다. 중대원 모두 안전하게 귀대하고 중대장과 부관님은 살아온 나를 뜨겁게 포옹해 주셨다.

4. 덕유산 전투(거창군 북산면 산수리)

녹음 짙은 6월 중순으로 기억된다.

이현상 빨치산 두목이 100여명의 잔당을 이끌고 덕유산에 나타났다는 정보에 따라 어두운 안개를 헤치며 북산면 산수리 입구에 이르렀을 때 양쪽산록에 잠복해 있던 무장공비들의 기습으로 치열한 소탕전이 벌어졌다,

적은 즉시 격퇴되었으나 아군의 희생이 심각했다. 7명의 전사와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체들을 들것에 옮겨 신고 나에게 안겼던 김순경은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무언의 표정을 남긴 채 눈을 감았다.

이렇게 지리산의 평화가 오기까지 5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고, 6,332명의 전몰자와 전상자를 냈다. 지리산 계곡에는 선혈이 흘렀고 고훈(孤魂)이 울며 백골이 뒹굴었다.

1951년 10월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의 강화를 위함인지 8개월만에 00사단병력과 우리 경찰대는 운봉면 진지에서 임무가 교체되자 대전경찰대로 편입되어 철도경비 업무를 맡게 되었다.

나는 충북 영동군 황강면에 위치한 황간역에서 2km 떨어진 기차 터널을 경비하게 되었다. 밤낮없이 군수품을 싣고 전선을 향하는 열차의 맨 끝 화물칸에 매달려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던 신병 (이른바 소모 소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어린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에 맡기고 피땀 흘려 싸운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1952년 6월 경찰직을 사직하고 2년 3개월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

1952년 8월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던 신현기씨의 소개로 미 극동사령부 산하 8240부대(일명 켈로부대) 입대하여 어두워진 서울을 출발 도착한 곳은 과도치는 속초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백여개가 넘어 보이는 군용 대·소형 천막이 들판을 메웠고 뒤에는 조물주가 아름다운 금강산을 만들려고 옮기던 울산바위가 아침햇살을 받아 절경을 이루었다.

나는 인상이 좋았던 김00 작전과장 밑에서 업무를 배우면서 보조에 임했다.

1952년 10월 나는 서울 가회동에 있는 극동 사령부 연수원에 입교하라는 명을 받고 생전 처음 타보는 군용비행기편으로 연수원에 도착 30일간의 연수에 들어갔다.

나에게는 수준 높았던 강의에 시간이 빨리 갔다. 특히 기억에 남는 강사는 오제도 특별검사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우리나라 반공의 기틀을 잡은 인물이었다. 교육의 핵심은 정훈(군인의 정신, 유격전, 시사 등) 교육이었다.

귀대 후 주 업무는 영내 이탈자와의 대담이었고 밤에는 헌병과 합동하여 몸과는 여인에게 모여드는 탈영자의 단속이었다. 얼마 후 나도 낙하산 점프 훈련을 받게 되었다. 점프훈련이 끝나고 실제 낙하훈련이 끝나면 언젠가는 적진의 후방에 투입되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가끔은 밤하늘의 영롱한 별빛을 바라보면 외로움과 그리움이 다가오기도 했다.

1953년 6월 어느날 저녁 전혀 예기치 못한 인민군 전투기의 공습으로 부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천막을 뛰쳐나가 보니 초연이 자욱하고 코는 매케한데 유지소이탄을 맞고 불덩어리가 된 채 아우성치는 몸부림은 목불인견이었다.

동료의 불길을 잡아보려고 접근하면 순식간에 그에게 불이 붙으므로 불을 끌 수 없

는 참상이었다. (소이탄 훈련이 없는 상태)

공포의 순간이 흘렀으나 다시는 적의 공습은 없었다. 사태가 잠잠해지자 사태수습이 끝나서보니 다행히 사상자는 많지 않았고 당시 북한의 공군력은 보잘 것 없었다.

그동안 북한에 투하된 용감한 많은 동료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은 채 전선의 포성은 주야로 멈추지 않았다.

1953년 7월 23일 휴전이 선포되자 우리 8240부대도 해체되었다.

최재우의 내지리 전투 회상

최 재 우

나는 1948년 12월 11일 순경으로 임명되어 횡성경찰서 사찰과에 근무하다가 6·25 전란을 당하여 전쟁 끝날 때까지 각종 전투에 참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9월 28일 수복과 더불어 유엔군과 한국군이 한만국경선으로 북진하자 살아남기에 급급하던 지방공비들이 1950년 11월 16일 중공군의 침공을 계기로 다시 지방지역을 위협 혼란케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공비 출몰 지역에는 “야간에는 북한 공산주의, 주간에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이 때 우리 경찰은 후방 치안을 위해 잔비들을 토벌하는 한편, 군경 합동작전으로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다.

수많은 전투 중에서, 횡성읍 내지리에서 동료 4명을 잃고 그 현장에서 싸우며 목격한 전투상황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민군이 재침략하여 오자 홍천군 이북에 주둔했던 국군과 주민들은 남쪽으로 후퇴 원주 이남으로 내려갔다.

횡성지역도 일부 주민은 피난길에 오를 무렵, 경찰관들만은 후퇴하지 않고 경찰서를 지키면서 남아있었다.

당시 우리 국군 주력부대는 횡성읍 소재지에 주둔하였고 북한군 5,000여명은 횡성읍을 점령하기 위하여 홍천 서석면을 경유 갑천면을 거쳐 횡성읍을 포위할 계획이었다. 한편 북한군 2,500여명은 갑천면 병지방리, 전촌리 삼거리를 거쳐 공근면 수백리, 학담리를 경유 횡성읍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일부 북한군은 횡성읍 마옥리를 거쳐 내지리를 통과 횡성읍을 협공해 오고 있었다.

당시 횡성경찰서는 군 지휘본부가 되었고 직원들은 별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당시 경비주임 김우기(金雨起)경위가 27명을 1개 소대로 편성, 구구식 장총에 방한외투, 방한모, 짚신 한 켤레 씌울 지급하고 횡성을 마옥리를 거쳐 대관대리 지서까지 도보로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적 5,000명이 청일, 갑천면 지역을 야간에 침입한다는 정보가 있어 27명의 경찰병력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 일몰 전에 후퇴, 횡성 마옥 뒷산까지 와서 매복 방어를 하고 있었다.

이 때에 피난민들은 계속 남하했고 정보에 의하면 북한군 5,000여명은 이미 갑천면 대관대리에 주둔하고 개, 돼지, 소를 잡아먹는가 하면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잔악무도한 짓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상황을 경찰서에 보고하니 유엔군과 국군이 횡성군 뒷산에 수백 명 배치되어 있으니 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이었다.

이 때는 이미 보급이 두절되어서 현지 민가에서 음식을 조달하고 있었을 때다. 바로 그 때 적이 우리가 매복해 있는 전방에서 사격을 가하면서 우리 쪽을 향해 침입해 왔다. 우리는 약 5분간 교전을 하다가 중과부적으로 내지리까지 후퇴하였다. 후퇴하는 도중 동네 거주 한 청년단원이 총상을 당하여 독립가옥에 이르러 절명하였고 집결하여 인원점검을 하니 전원이 이상 없었다.

이 상황을 전화로 경찰서에 보고하니 이상 없으면 계속 마옥리를 사수하라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아군기의 공중 폭격과 기총 사격으로 적의 전의가 상실한 틈을 타 재차 갑천 대관대리까지 진격하여 보니 마을은 전부 타 버리고 불탄 북한군의 시체 5, 6구가 흩어져 있었다. 석양 무렵 어디서인지 북한군 수천 명이 재침하여 내지리 고개까지 후퇴 매복 방어를 하였다.

그 다음날 독립가옥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로 유엔군 수천 명이 배치, 방어 중에 있으니 마옥리를 계속 사수하라고 하였다.

앞에는 적, 뒤에는 아군, 우리는 실로 진퇴양난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옥리를 향해 전진하던 중 경비주임인 김우기 경위가 인원 점검을 하였다. 그 결과 자기 4촌형 김창기 외 3명의 사찰계 형사가 없는 것을 발견, 사찰계 형사인 나에게 찾아오라고

명령,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당시 형사 김창기, 진태홍 등 4명은 낙오되어 내지리 민가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횡성에 주둔한 아군 수색대 1개 소대가 인민군을 가장하여 동 가옥 대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4명의 형사들은 총을 들고 뒷문을 통해 집 뒷산으로 도주, 아군 수색 척후병들은 적으로 오인, 집중사격으로 4명 모두 전사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 때 경비주임 김우기가 현장에 도착하니 소대장이 경찰로 위장한 적 4명을 사살하였으니 확인하자고 하여 확인한 결과 적이 아니라 횡성경찰서 직원 4명의 시체였다. 경찰 전투 병력은 적군과 아군의 틈바구니에서 피아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경비주임 김우기는 경찰서로 가서 사람을 보내 전사한 4명의 경찰관 시체를 한 자리에 매장하고 전세가 불리하여 원주로 후퇴하였다.

마옥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었기에 북천리까지 후퇴, 호 속에 있는 데 유엔군이 기관총을 겨누어 총에 태극기를 달고 적이 아님을 알렸다.

적으로 오인한 유엔군의 총에 사살 당 할 뻔한 급박한 순간이었다. 당시 김순경이 우리는 ‘횡성 폴리스 맨’ 이라고 하자 통과 시켜 경찰서로 와 보니 경찰관, 주민들은 모두 후퇴 횡성 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원주경찰서를 찾아가 보니 그곳에 흥천, 횡성 경찰서 직원들이 모두 집결해 있었다.

그 후 계속 후퇴하여 경북 상주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수복 귀향하여 죽은 경찰관 4명의 가족들과 함께 시체를 발굴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전사처리 하였다.

주민자치대원으로 6.25전쟁 참전 회고

홍 석 규

1950년 6월 25일 미명에 발발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란은 전 국토를 전쟁의 도가니로 명들게 하였고 이곳 갑천면 매일리 사람들도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먼 곳으로 혹은 깊은 산속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9월 28일 서울수복으로 고향에 다시 돌아왔다.

죽음의 마을처럼 폐허가 된 고향을 찾았지만 살벌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가운데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가 날뛰고 태기산 깊은 산으로 은신한 채 미처 패주하지 못한 패잔병의 살인, 방화, 약탈의 만행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갑천면 소재지이기도 한 이 마을의 치안유지는 당시 황성경찰서 갑천 지서의 순경 4명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를 4명의 경찰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자 주민들의 자율에 의한 치안의 유지가 필요하여 이해 10월 초에 의용경찰을 조직, 자위대를 발족하였다.

정예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며 또한 완전한 경찰관도 아닌 오로지 향토애와 조국의 피 끓는 젊음으로 몽친 8명의 애국청년이었을 뿐이었다. 이들은 김문걸을 대장으로 30명의 대원은 군번 없는 군인으로 보수 없는 경찰로서 아무런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은 채 9.9식 소총과 패잔병에게서 노획한 무기로 비록 허약하게 무장했지만 불타는 젊음과 애국심으로 잔류한 패잔병을 소탕하고 부역자를 색출 검거하여 군에 이첩하는 등 활동하고 구리봉 어답산 전투에서 패잔병과 접전하여 일망 타진하는 등 많은 공훈을 세우며 이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인 10월 말 주간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야간순찰을 준비하며 휴식을 취하

고 있을 저녁 무렵 태기산 일대에 도피 은신하다가 지리산의 공비들과 합류하기 위해 남하하던 숫자를 알 수 없는 북한군(주민들은 연대 이상의 병력으로 증언)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전을 벌였다.

비록 패잔병이지만 중무장한 엄청난 병력과 경찰을 포함한 30여 명 간의 교전은 처음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다.

1주야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지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상처가 아물던 시가지는 다시 시가전으로 불탔다. 본격적인 전투는 마을 앞 구리봉에서 시작되어 밤낮없이 삼거리와 전촌리까지 쫓고 쫓기는 전투에서 많은 적을 물리치고 어답산 전투를 끝으로 자치대원들은 날이 밝자 하산하여 황성읍 쪽으로 향하던 중 다시 돌돌벌에서 북한군의 대규모 기습을 받고 응전하다 탄환이 부족하고, 1주일의 전투에서 많은 전투를 치른 뒤라 역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에 참가 한 8명의 대원 중 자치대장 김문걸을 비롯해 대원 박준금(당시 20세 학생), 노성빈(당시 20세), 이인홍(당시 21세 학생), 신기묵(당시 19세), 박병국(당시 22세 농업), 홍주석(당시 22세) 등 7명이 순국하고 오직 홍석규 씨만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홍석규씨를 북한군은 확인 사살 차원에서 죽창으로 마구 치르고 도주했다.

아직 학생인 어린 아들을 그렇게 전쟁터에 내보내고 어머니는 매 때마다 아들 밥을 떠놓고 정한수 한 사발 놓고 천지신명께 무사귀환을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천 강 건너 사는 아줌머니한테서 아들 소식이 왔다.

구리봉 쪽에서 밤새 콩 볶듯 총소리 나고 이튿날 밖에 나가보니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가 보니 몹시 다친 학생이 누워 있더라는 거였다.

그래서 급히 들춰 업고 자기네 집으로 와 호박을 삶아 총상으로 구멍이 뚫린데 붙이고 응급조치를 취해 놓고 학생에게 어디 사는 누구인가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는 거였다.

하늘이 도왔던지 홍석규의 어머니가 춥다고 해 입힌 솜바지 저고리가 비에 흠뻑 젖어 방탄복 역할을 해 총탄이 치명적인 급소를 피해 간 것이었다.

홍석규 씨 부모는 코가 땅에 닿게 그 아줌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피투성이

아들을 돌이서 둘러 업고는 횡성읍에 있는 야전병원을 찾았다.

상처를 본 군의관은 총상입은 팔을 아무래도 절제 해야겠다고 했고 어머니 한사코 그건 안된다고 손사래를 치자 군의관은 절제 수술을 포기하고 상처입은 곳을 치료했다. 다행히 상처는 잘 아물고 지극한 모정으로 홍석규씨는 다시 살아났고 곁에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농협에 근무하다 춘천으로 이주해 여생을 보내다 작년도 고관절을 다치셔서 타계했다.

뒤늦게 2008년 국가보훈처에서는 홍석규씨의 공적을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었다. (증언/ 홍석규 씨 차녀 홍순자_1958년생-전직 중등학교 교사)

6·25 전쟁이 발발한 지 15년이 지난 1965년 12월 1일 당시 갑천면장과 면민들이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정성을 모아 순국자 1인을 1층으로 콘크리트 탑을 세웠고, 1984년 국도 확·포장공사로 이전하였다가 지금은 면사무소 옆에 대리석 충혼비로 단장해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있다.

태기산 경찰 전적비



해방 후 좌우의 대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48년~1949년 북한에서는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간지방에 출몰하여 관공서를 습격하고 약탈행위를 자행하였다. 당시 공비토벌 작전이 개시 되면서 둔내에서는 석문리 김형옥씨의 인솔 하에 청년 200여명이 동원되어 화동리에서 봉평 무이리까지 군수

품을 운반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한 바 있다.

이 전적비는 당시 태기산 일대에 출몰한 공비토벌을 위해 활동하다 전사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 6월 5일 세운 것이다.

비 문

우리민족은 8·15해방으로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도 채 가시기전에 38선을 경계로 국토와 민족은 양편으로 갈라져 역사는 또다시 분쟁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1948년 10월 강동정치학원 소속 무장공비 180명을 태백산맥을 이용 남파시켜 그중 일부가 태기산을 중심으로 산간지방에 출몰하여 관공서를 기습하고 양민학살과 약탈행위를 자행하였다.

1948년 11월 15일에 횡성경찰서 조동하경위 지휘하에 1개소대는 태기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무장공비 수색전 수행 중 장구목, 응봉 등지에서 무장공비와 치열한 전투를 하여 10여명을 사살하고 무기 다수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경감 곽윤춘과 경위 양명석이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1949년 7월 24일 치악산에 숨어있던 무장공비가 강림지서를 포위 기습하여 왔을 때는 경위 김우기 지휘로 경찰 5명이 즉시 응사하여 교전 중 2명을 사살하고 모두 격퇴시켰으나 경위 김한석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장렬하게 젊음을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살신성인의 경찰정신이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저 태기산 기슭에 전적비를 세우노니

호국의 영령이시어 비록 조국의 산하가 외세에 의하여 갈라졌으나 통일은 기필코 우리 손으로 이루겠으니 고이 잠드소서.

비는 정진규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의 희생정신을 길이 남기고저 하는 뜻에 따라 횡성경찰서 전직원의 정성어린 뜻을 모아 세운다.

1992년 6월 5일

횡성 강림지서 피습사건

횡성강림지서

북한 인민유격대 약 400명이 1949년 6월 1일에 오대산을 침투하였다가 대부분 섬멸되었는데, 그 일부가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까지 침투하여 지서를 습격하였다. 「영광의 서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태백산맥을 둘러싼 토벌전이 전개되어 경찰병력이 평창·정선·삼척지구로 집중되자 영서 치악산지구에서 준동 중이던 남침유격대의 일부 패잔공비는 경비력이 미약한 횡성경찰서 강림지서를 습격하였다.

강림지서는 횡성경찰서로 부터 동남방 28km 지점에 위치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뒤쪽 부분에 험준한 치악산맥을 끼고 있으며, 교통도 극히 불편하여 그들의 흥계달성에 가장 용이한 곳이었다.

1949년 7월 24일 오전 3시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가까운 거리도 분별하기 곤란한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약 30명의 공비는 치악산맥을 타고 남진, 강림리에 침입하여 경찰지서 전방 50m 지점까지 다가와 경찰지서에 일제사격을 가하여 왔다.

강림지서 정문과 후문의 입초병은 적의 습격을 알아채고, 즉시 적군에 대응하여 사격하였고 대기 중이던 지서 직원 4명도 각각 지서 전후의 진지를 이용하여 반격전을 가했다.

경찰의 맹렬한 화력에 당황한 적은 2명의 사체와 38식 소총 1정 및 실탄35발을 버려둔 채 백덕산 방면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러한 긴급한 보고를 받은 경찰서 응원부대가 도착하여 패주하여 도주하는 적군을 추격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우리 경찰은 김한석 순경이 전사하였다.

횡성 태기산 전투

북한은 6.25가 일어나기 2년 전부터 횡성, 홍천, 평창 3개 군계에 솟아있는 태기산에 유격대를 침투시켰다.

태백산맥의 준령을 타고 특히 강원도 지역에 많이 침투시켰는데, 국내 민심을 교란하고 남침을 위한 다양한 전략전술 차원에서 미리 6.25전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1948년 10월 초순 인민군복과 일제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강릉 서면 38선을 불법으로 넘은 다음 험준한 태백산맥의 준령을 타고 남하를 개시, 11월 14일 홍천, 평창, 횡성의 3개 군계에 우뚝 솟은 태기산(1261고지)에 입산하여 계속 남하를 기도하여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영광의 서곡(1954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태기산 응봉방면에 배치 중이던 경찰 전투 대원은 이동 중이던 척후대 약 60명을 발견하고 이들과 교전하여 적 4명을 사살함으로써 전투 초기에 큰 전과를 올렸으며 적은 경찰의 급습에 혼비백산하여 태기산으로 흩어져 도주하였다.



횡성경찰서 둔내지서 직원 (1948년)



1949년 경찰의 사격훈련 장면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둔내지서에서 대기 중이던 강원경찰국 소대와 홍천경찰서 대원은 급히 현지에 출동과 동시에 추격하여 응봉에 적이 버리고 간 배낭 30여개와 수류탄 50여개, 소총 실탄 1000여발을 노획하고 계속 추격하였으나 일몰로 인하여 추격하지 못하고 태기산록 화동리에서 잠복근무하였다.

한편 갑천면 (현 청일면) 신대리 방면에서 수색하던 횡성경찰서 대원은 갑천지서 주임으로부터 적이 공격에 당황하여 재차 태기산으로 입산하였다는 첩보를 받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11월 14일 오후 10시 행동을 개시하여 태기산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다음 날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 부대 전방을 수색하던 척후대 곽윤춘 경사, 양명석 순경이 태기산 장구목에서 불을 사르고 있는 적 주력부대를 발견하고 본대에 보고하였으나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확인하기 위해 재차 척후 활동을 하던 중 곽경사가 적에 포로가 되었고 양순경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실탄을 모두 소모한 대원들은 전투의지의 상실과 야간전투의 불리함으로 후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6명을 사살하고 99식 소총 6정 및 실탄 다수를 노획하였으나 경찰은 야간 전투의 미숙함은 물론 지휘관의 지휘능력 부족, 전투의식 미약, 야간 전초 경비 경계의 미숙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작전교육 방침의 확고한 수립과 토벌 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이후에도 북한 인민 유격대가 태기산으로 침투하였다. 「영광의 서곡」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9년 8월 7일 오전 3시 적은 원길리 백운동 흥정산과 태기산에 연결된 능선을 타고 완전히 태기산에 입산하였다.

8월 8일 오전 10시 작전명령을 받은 계촌 경찰대는 오일문 경사의 지휘 하에 오후 1시 계촌리를 출발 7시에 면온리에 도착, 석식을 준비하고자 면온리 양조장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대원들도 작전명령에 의한 안흥까지 4km 된다고 하며 전원 탈의하고 목욕을 하는 등 각자 식사 때까지 자유롭게 이탈 또는 취침하였고 대장 오일문 경사는 김진옥 순

경 외 1명에게 경비근무지를 지정하였으나 두 순경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근무에 임하지 않고 임의로 양조장 부근에 입초 근무를 서고 있었다.

이때 태기산에 입산하였던 적 일부 약 30명은 식량 약탈을 기도하여 하산, 안흥 등을 습격한 다음 면온리 양조장에 저장되어 있는 식량을 약탈하고자 납치한 주민을 앞세우고 면온리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경찰부대가 휴식 중이라는 것을 탐지하여 기습을 계획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입초경찰관에게 주민이라고 속인 다음 가까운 거리까지 포위·접근하여 일제히 공격을 가하였다.

입초근무 중이던 김진옥 순경 외 1명은 대응 사격을 시도하였으나 실내에서 휴식 중이던 대원들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분산하여 후퇴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적 2명을 사살하였으나 아군은 김응태, 김은철 두 순경이 납치당하고 그 외에 총기 6정, 배낭 7개, 철모 12개를 탈취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온리 한청 부단장이 피살되기도 하였다.

경찰에 의한 태기산 전투로 완전히 적정을 파악하게 되자 원주 주둔 국군 제00부대가 출동하여 군경 합동작전이 전개되었다.

태기산을 중심으로 군경의 맹렬한 공격에 다수의 병력이 소모되고 사기가 저하된 적은 집단으로 남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홍정산, 보래령, 응봉의 3방면으로 남하를 기도하였으나 경강도로 이북에서 궤멸시켰다.

횡성경찰관과 6·25전쟁

횡성경찰

6·25 발발 이후 경찰은 전투부대로 편성되어 독립부대로 참전하게 되거나 연합군 혹은 국군 부대에 배속되어 용맹을 떨쳤을 뿐 아니라 아군 병역의 공백상태를 보충하여 향토방위 및 지역 공비 소탕전을 벌임으로써 전란의 승리를 뒷받침하여 주었다.

당시 횡성경찰서 서장 경감 김영순(강원경찰 5대장중 제2대장)의 100여명은 국군과 합동작전으로 인민군 첩보장교 3명을 생포하는 전과 등을 올리며 횡성을 사수하다 인민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했다.

원주-충주-괴산 보은을 경유 대구로 집결하라는 작전명령을 받고 후퇴도중 대구 팔공산 전투에 참여, 북한군 사살 10명, 1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순경 심상욱이 전사하는 비운을 남겼다.

횡성경찰 장비는 일본군이 사용하던 구식 3·8소총과 칼빈 소총으로 당시 중무장한 북한군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하여 후퇴, 대구에서 집결 전투부대를 재편성하였다.

경북 청송에서 북한군과 교전, 역부족으로 다시 후퇴 중 노고령에서 인민군의 습격을 받아 대원들은 사망으로 분산되어 제 9대장 총경 김두용 소속으로 편성되었다.

이 시기에 경찰은 처음 미군으로부터 M1, CAR, HMG 박격포 등 7만 여정에 달하는 무기와 피복 등을 보급 받아 전력을 강화, UN군과 군부대에 배속 작전에 임했다.

횡성경찰서도 영천에서 M1 소총으로 무장하고 군경 합동 보현산 탈환 작전에 참전 치열한 전투를 벌여 탈환에 성공 북한군 100여명을 사살 1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횡성경찰서 대원들은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경사 신건부가 전사하고 순경 박치용, 이양환, 심도식, 박순혁, 조원남, 이정용, 함국섭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원들은 하루에 주먹밥 한 끼로 연명하며 전투를 벌였다.

각종 전투에 참전 악전고투하다가 9·28수복 후 횡성경찰서에 귀향 중 12월 20일

경 황성읍 내지리 전투에서 대원 4명이 사살 당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6·25전쟁에서 무계획 무질서, 무 조직으로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 경찰관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우리 경찰이 조직적으로 장비 보급만을 제대로 받았던들 피해는 줄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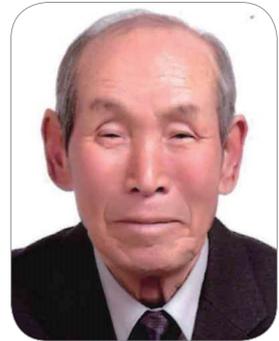




학살의 계곡, 4장 횡성전투

- ◆ 고락만, 고원재, 김월란, 박상호, 박순님
오종근, 원준희, 정두영, 정순택, 한상균
- ◆ 1.4 후퇴와 횡성
- ◆ 학살의 계곡이라 불리는 횡성전투
- ◆ 네덜란드대대의 지휘부가 있던 횡성감리교회
- ◆ 풍수원 성당
- ◆ 108연대 2대대 유해발굴 자료

열한 살 소년의 6·25 잔상



고 락 만

세끼 끼니를 해결하기조차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나는 한적한 농촌마을 황성군 공근면 초원리에서 태어나 열한 살이 되었을 때 6·25전쟁이 터졌다.

1950년 6월 말 우리도 피난을 갔다. 그곳은 원주 호저면 대덕리 외가,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어느 날 비행기가 폭격을 시작하는데 엄청난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아버지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고향 가서 죽자” 하시며 집으로 길을 떠났다. 얼마를 가다보니 썩썩이 비행기 두 대가 우리 앞에다 기관총을 쏘아대 빈집으로 뛰어 들어 갔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고 우리는 집으로 무사히 왔다.

아군들이 우리 동네에 진을 치고 있어 그 사연을 이야기 하니 피난민이 전투지역으로 못 들어오게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적 계기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탈환은 물론 압록강 부근까지 적군을 몰아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밀리고 밀려 중공군의 대 병력이 우리 마을까지 덮쳤다. 1951년 2월 초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더니 뒷산에 중공군이 나팔 불고 북치며 쳐 들어 온다고 하셨다. 그런데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나자 중공군이 숨었다가 마을로 진입했다.

여자들을 한데 모아 밥을 해달라고 시켰다. 쌀을 씻으려고 하니 그냥 하라고 했다. 감자를 갖고 와서 씻지도, 까지도 않고 국을 끓이라고 했다. 취사가 다 되니 밥은 가마니에 퍼붓고 감자국은 오줌통에다 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홍천에서 원주 사이 황성! 그 중에서 삼마치를 비롯하여 내 고향 공근면 초원리, 학곡리는 하루에 아군 만 여명의 전사자를 내고, 네덜란드군 대대장 오우덴 중령을 비롯하여 대대 장병이 전몰했던 치열한 격전지, 참혹한 전쟁터였다. 이 곳을 중국은

6·25 참전 중 최대의 승전지로 꼽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이곳에서 국군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식구 다섯 명과 큰집 식구 다섯 명이 같이 지냈다. 어느 날 한 밤중에 밖에서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나 국군인데 나 좀 살려 주세요 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 주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

난 군인장교요. 안심하고 밥을 좀 달라고 하면서 산에서 눈을 파고 그 안에서 사흘을 지냈다고 했다. 그러다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불빛을 보고 찾아왔으니 나를 좀 숨겨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칼을 가지고 가서 얼어붙은 밥덩이를 조금 뜯어다 주고 옛날 집 고미다락 꼭대기에 꼭꼭 숨기고 모포 한 장도 올려주었다.

그 날 또다시 중공군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외딴집으로 몰고 갔다. 며칠 후 중공군은 사라지고 조용해졌다.

군인을 숨겨 놓은 곳으로 가서, 살았소? 죽었소? 하니 나 살았어요. 그럼 빨리 나오시오. 해서 우리가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왔다.

새까만게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 국군 하는 말이 제일 죽겠는게 밥 냄새라고 하며, 오줌도 먹어보고, 흙도 먹어보고 하면서 중공군한테 손을 들고 내려갈까 몇 번을 망설이다 살려준 어른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밥을 끓여 죽을 먹이고 나니 나를 따라 피난을 잡시다 했다.

떠나려 하니 남자 군인 세 명, 여군 두 명 모두 다섯 명을 아버지 바지저고리, 어머니 치마저고리를 입혀가지고 피난을 떠났다.

1951년 2월 중순 공근면 장지고개를 넘어서 학곡리 하일 버덩에 도착하니 미군 전사자가 몇 백 명인지 어마아마하게 죽어있었다.

중공군들은 죽은 미군 신발을 벗기고 있었고 미군 주머니에서 볶은 콩을 꺼내 먹으면서 우리 보고 먹으라 했다.

차도 새빨갳게 탄 것도 많았다. 뒷내 다리도 끊기고 해서 개울 얼음판을 건너 구릿고개에 도착하니 참호 속에서 인민군이 총을 겨누며 어디 가는 사람이나 하여 국군 장교가 우린 피난 간다. 이 너머 친척집이라고 하니 가라고 했다.

계속 가다 보니 또 중공군이 못 가게하며 어떤 외딴 집으로 안내를 했다. 가 보니 피난민들이 30명은 되었다.

다시 밤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는 쌀 한 말 있던 것 몽땅 뺏기고 남자들은 몸수색을 하고 잠도 안 재웠다.

낮이 되었다. 중공군들이 간데 온데 없자 국군 장교가 ‘갑시다’ 해서 다시 길을 떠났다.

국군 장교가 자동차가 왔다 간 자리를 보고 아저씨! 우리는 이제 살았어요! 얼마 안 가면 아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거기가 원주 선배고개였다.

계속 가다 보니 논 바닥에 황덕 불을 해 놓고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우리 보고 오라고 해서 가니 장교가 미군하고 이야기를 하였다. 미군이 우리들에게 악수를 청했다. 국군을 구해 주어 고맙다는 뜻인가 보다. 지금 생각해 보니 거기가 원주 태장이었다.

조금 있다가 트럭 한 대가 오더니 군인들을 싣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국군 장교는 고맙다며 지금 빨리 제천까지 가라는 말을 남기고서...

밤중에 계속 가다 보니 철다리가 나타났는데 지금 생각하니 원주 행구동이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밤이라 더 갈 수가 없어서 어느 빈 집에 들어가 거기서 2개월 피난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곱 살배기가 기억하는 참혹한 6·25전쟁



고 원 재

1950년 6월 나는 조부모, 어머니, 두 분 삼촌의 보살핌 속에 누이동생, 그리고 4촌들과 황성 공근면 초원리에서 일곱 살 철부지로 근심 걱정 없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런데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어릴 때 겪었지만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전쟁! 정말 끔찍하고 생각조차 떠올리기 싫다.

피난길에 오르기 전 아버지 3형제 (경기도 이천 호국원에 안장)는 국군용사로 전쟁터에 싸우시러 나가셨다.

갑자기 전투기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독재봉 너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폭격을 시작했다. 조부모님을 비롯하여 대가족이 피난 할 곳을 찾아다녔다. 처음 피난처는 외진 곳 외가 부근인 서원면 창촌 마을 방공호였다. 이렇게 6·25 여름 전쟁은 집 근처에서 피난생활을 했다.

국군의 북진으로 평화가 오는 가 했더니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와 동란이 터진 것이다. 이제 피난처를 찾아 떠나야 했다.

황성사람들은 이불 붓짐을 지고 길을 나섰다. 우리도 할아버지가 우마차에 짐을 싣고 나, 여동생(옥재 2세), 사촌동생(명재)는 그 위에 얹혀 저 피난길에 올랐다. 충주를 향하여 가는데 전쟁터라 더 이상 마차로 갈 수가 없었다. 온 가족이 붓짐을 지고, 이고, 들고, 업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나는 너무 무서워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 없이 울면서 충주로 피난길을 재촉했다. 가다가 어느 과수원집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이튿날 사과 한 상자를 얻어 다시 피난길을 떠났다.

미군 지프가 서더니 갑자기 삼촌 (광만 16세)을 차에 태워(하우스 보이를 시키기 위하여) 어디론지 가버렸다. 수소문하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할아버지가 들

어가 얻은 사과를 주면서 사정하여 삼촌을 데리고 나오셨다.

다시 피난길을 가다가 충주 솔고개라는 곳에 빈집이 있어 하룻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다시 이곳저곳을 다니며 눈물의 피난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고난이 되풀이 되다가 후퇴하던 국군이 재 진격하면서 우리도 고향을 향해 국군 뒤를 따라붙었다.

오다보니 원주까지 왔다. 태장 갯바위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어른들은 붓짐을 지고 잠을 청하다 갑자기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앞집이 폭격에 맞아 불에 타고 있었다. 죽음을 면하고,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오니 폭탄 날아다니는 것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다. 온통 폭탄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요란스러웠다.

무서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원주 곳곳에 군인 부대가 배치되어 낮에는 잠잠하다가 밤이면 포 소리에 마음 조렸다. 아직 전투중인 것이었으니 너무 빨리 귀향을 서두른 것 같았다.

고향 횡성에 들어오니 폭격에 모두 타버리고 비참했다. 우리 가족은 초원리 집으로 가기 위해 또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뒷내다리가 완전히 파괴, 개울물을 건너서 큰골을 지나 쇠판이를 갔을 때이다. 군부대 입구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너무러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얼마만큼 건다보니 장지고개 정상에 왔을 때 도로 한 복판에 지프차가 서있고, 흑인 병사가 혼자 과자를 먹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였나 보다.

너엄발 이라는 마을에 도착하니 군인트럭이 불에 타 있었는데 차 위에 군인들이 죽어있었다. 처참한 것을 보며 고향마을에 도착하니 우리 마을 새원도 심한 전쟁터였다. 8사단 사령부가 우리 집 앞에 주둔하고 있었으니

마을 도로에는 타 버린 군용차량과 시체, 집은 몽땅 다 타버렸다. 피난길을 떠나며 곡식을 땅에 묻고 갔는데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잿더미로 변했다.

홍천, 횡성, 원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1·4후퇴 이후 중공군과의 최대격전지 내 고향, 이곳을 통과하며 전쟁직후 참혹한 모습들이 일곱 살 나의 뇌리에 박혀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1951년 2월 10일부터 접전이 시작되어 12일에는 중공군의 대공세가 시작,국군 8사단이 포위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8사단 장병과 엄호하던 5사단, 미2사단 23연대도

큰 손실을 입었다. 24시간 안에 만 여명 이상의 장병이 전사할 정도로.

특히 끝까지 남아 아군의 후퇴를 엄호하던 네델란드 대대는 횡성감리교회에서 대대장 M.P 에이덴 오우덴 중령을 비롯하여 많은 장병들이 전사했다.

65년이 흘러간 2015년 우리 동네 초원리 입벌에서 8사단 소속 연대장의 유해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우리 가족은 골말 이라는 동네 집으로 들어가 방공호에 머물러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풀(나물)을 뜯어다 쌀 몇 톨 넣고 끓여 겨우 연명을 하는 수준이었다. 나의 유일한 여동생 옥재는 장티프스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갔다.

그동안 전쟁으로 집안은 모두 축대밭이 되었고 전쟁직후라 포탄껍데기, 포탄, 불발탄 등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포탄을 장난감으로 갖고 놀았다. 전쟁 직후 불발탄을 두들기며 놀다 수많은 어린생명이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다. 하우스 보이로 붙들려 갈 뻔 했던 삼촌(당시 16세 광만)도 수류탄을 갖고 놀다 폭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려 할아버지께서 시신을 수습 농골에 묻어주셨다. 차라리 미군한테 나두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일곱 살이었지만 철이 일찍 들었나 보다. 70년이 흘러갔지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스러운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하니 어찌 잊으랴! 생생한 전쟁의 나날들을.

김월란이 겪은 6·25전쟁



김 월 란

나는 황성군 갑천면 유평리에서 1938년 3월에 태어나 다섯 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공근면 창봉리 하창봉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내 나이 열 세 살 되던 1950년 6월 24일 아버지 생신이었다. 삼마치로 출가한 언니도 생신 날 다녀갔다.

다음날인 6월 25일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푹! 푹! 소리가 나서 오빠와 산에 올라가 보았다. 수많은 사람이 하얀 앞치마 같은 것을 쓰고 어둔리로 해서 창봉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는 딱히 어디로 갈 곳도 없어 산골짜기로 피했다.

저녁에 아버지가 개밥을 주려고 하는데 국군 두 명이 그 개밥을 달라고 했다. (배가고파서) 아버지는 그 군인들을 집에 데려와서 밥을 해주고 재워 주었다. 민간인 복장이 필요하다하여 아버지 옷을 입혀 보내니 고맙다고 말하며 다시 꼭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런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 삼마치 고개에서 전사한 것 같다.

국토는 거의 인민군에 점령당하고 우리 마을도 수개월간 공산 치하가 되었다. 밤나무 밑에 돌을 방석처럼 깔고 앉아서 김일성 장군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좁살을 세어라 콩알을 세어라 하는 공산당 교육을 받았다. 동네에 유엔장(지금의 이장과 같은 역할)이 이들의 앞잡이를 하였다. 오빠도 인민군으로 잡아 보냈다. 유엔군과 국군의 진격으로 북한군은 후퇴하고 인민군으로 끌려간 오빠도 3·8선 근처에서 구사일생도 망쳐 왔다. 인민군은 패퇴하였으나 미처 후퇴 하지 못한 인민군이 사기점골과 심박골에 공비로 남아있었다. 경찰관인 김순경과 청년 대원이 경비를 서고 있을 때 인민군이 김순경을 납치 심박골로 가서 죽이려 할 때 바위를 굴러 탈출, 옷이 벗겨진 채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다. 잠시 후 인민군이 들이닥쳐 보았느냐고 해서 못 보았다고 했다. 만약에 들키면 우리 식구도 인민군한테 다 죽는다. 어머니는 위기를 모면

하러 국군이 곧 올 것 같으니 빨리 가라고 하며 고구마와 밥을 주었다. 인민군을 보내고 방문을 열고 보니 김순경이 없는 것이었다. 위험을 감지하고 다락에 올라가 숨었기 때문이다. 부상을 입어 내려오지를 못해 쪽방으로 옮겨 눕혔고 그 위에 씨래기 단을 쌓아 위장하였다. 얼마 후 공비 토벌을 나온 경찰관한테 김순경이 우리 집에 있다고 알려 주었다. 두 경찰관은 서로 부둥켜안고 살아있느냐고 하면서 막 울었다. 김순경에게 우리 아버지 옷을 입혀 보냈다. 그는 춘천 갔다 오다 한번 들린다 하더니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동란에 전사한 것 같다. 한편 공산 치하에서 인민군한테 빌붙어 괴롭히던 유엔장은 국군이 오면서 처형되었다.

중공군 개입에 의한 1·4후퇴로 인민군과 중공군이 다시 마을을 점령하였다. 두 오빠는 이미 청방에 갔고 남은 가족은 섬골로 피난을 갔다.

섬골 까지 가다 오빠 덕이 아기를 낳아 피난을 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왔다. 집에 온 다음날 친정으로 피난 온 언니가 또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공호에 있었다. 그 때 우리 식구는 아홉 명이였다.

땅을 파고 묻어 놓은 김칫독에 인민군이 대변을 보아 아까운 김치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중공군이 아버지 보고 길을 안내해 달라고 끌고 갔다. 서원면까지 가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인적은 없고 길에 널려 있는 시체를 지날 적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열기로 얼어 죽지 않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방공호 안에 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방공호 앞에 화롯불을 놓고 지키고 있었다. 오래 앉아있으니 발이 저려 화로 앞에서 떨어진 순간 총알이 날아와 화로를 깨뜨렸다. 발이 안 저려 옮겨 앉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뻔 했다.

땅에 묻어 놓은 곡식, 장, 간장도 모두 빼앗기고 집에서 3부능선을 지나 박쥐굴로 갔다. 숲가마에서 숲을 주어다 불을 피우고 하루 한 번씩 죽을 쑤어먹고 살았다. 산능선을 하나 넘어야 작은 샘물이 있는데 그 때는 물통도 물병도 없어 바가지 하나로 물을 갖다 먹었다. 겨우 죽으로 하루 한 끼로 연명을 하는데 중공군이 우리 가족을 굴 밖으로 내쫓고 조금 남은 쌀도 빼앗아 갔다.

'따 미 잇 쏘, 따 미 잇 쏘' (쌀 있어 라는 말) 하면서 빼앗아 갔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비행기의 기총사격을 피하여 마을로 내려가 중공군이 밥해 먹고 버린 탄 누룽지를 주워다 주시어 조금씩 먹고 살았다.

하루는 박쥐굴이 있는 산에 팡!팡! 포탄이 떨어져 불이 타올라 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 때 피리 소리가 막 나더니 조용해졌다. 밤에 웅웅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불덩이가 세군데 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신호탄이었나 보다. 날이 밝자 푹푹 소리를 내면서 국군 탱크가 진격해 왔다. 엄마는 추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입이 돌아갔다. 배개를 따뜻하게 데워서 불에다 대고 한참 있으니 입이 바로 돌아왔다. 국군 탱크가 질주하고 산 능성에는 국군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산 위에는 빨강게 큰 보를 펴놓고 잠자리 비행기가 보급품을 떨구고 있었다. 굶주리고 추운 박쥐굴에서 집에 오니 중공군이 말을 매 놓아서 집이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집 전체가 검불로 덮여있고 문짝도 다 떼어 없애고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구석에 숨겨놓은 메밀 싸라기로 죽을 조금 쑤어 먹었다.

설상가상 무서운 전염병인 장티프스가 돌았다. 그리고 나도 전염되었다. 아기 한 식구가 없어져도 몰랐다. 2개월도 되지 않은 언니의 딸이 죽어서 묻은 것도 몰랐으니. 아버지는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몸이 아파서 비틀비틀 하면서 중공군 죽은 시체를 지팡이로 때리면서 '요놈 따미, 요놈 따미'(쌀) 하시면서 시체를 두들겼다.

우리 동네에서 1차로 입대한 큰 오빠가 일선에서 전사를 하였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빠도 세 번째 오빠도 군인을 갔다. 내가 살던 삼마치 고개에서 창봉리는 치열하고 참혹한 격전지였으며 우리 마을은 이 중심지에 있었다.

6·25가 끝나고 나는 스무 살 때 하창봉에서 상창봉으로 시집을 갔다. 남편도 6·25 때 운전병으로 라이트도 못 켜고 산 능선을 넘고 넘어 보급품을 날랐다고 한다. 죽을 뻔한 위기를 수 없이 넘기며 그 증거로 팔에 총탄 맞은 상흔을 보여 주었다.

6·25 동란을 겪고 난 후유증으로 모든 것이 망가지고 파괴되어 너무 살기 힘든 세월을 보냈다. 허기진 몸으로 1960년대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마을 운동에 앞장섰던 일이 생각난다. 그래도 전쟁 중에 살아남아서 부인회장, 어머니회장, 새마을 지도자 책임을 맡고나니 그 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몸도 이제 늙고 병들어 과란만장했던 내 인생도 다 흘러가 버렸다.

내가 겪은 6.25전쟁

1950년 6월 나는 일곱 살로 황성 내지리에서 아버지(당시63세), 어머니, 여동생과 넷이 살았다. 철없던 어린 나이였지만 참혹했던 6·25전쟁은 나의 뇌리에서 가시지지 않는다.

1950년 6월 28일까지 황성초등학교 1학년 생으로 등교를 하던 중,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오늘부터 학교에 가지 말라는 당부를 하시고 산속으로 피신을 하셨다.

그날 오후 인민군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수색하며, 집에 누구와 살고 있느냐고 물어 아버지는 피난을 가시고 어머니, 나, 여동생 셋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인민군들은 수색을 마치고 읍내 쪽으로 갔다. 며칠 동안 산 속에 계시던 아버지는 7월20일 집으로 내려오다 인민군에게 붙들려 시내로 끌려가시고 말았다.

그 곳에는 수백 명이 붙들려 와 인민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 하나하나 본인과 성명을 확인 두 갈래로 분류시켰다.

아버지 차례가 되어 “당신이 내지리 구장인 박00인가?” “저는 구장일도 안한 흥00입니다” 라고 하니까 한참 바라보더니 오른쪽에 대기시켜, 종료 때까지 기다린 다음 가라고 해 바로 산속으로 피신하였다.

그 후 남아 있던 사람은 모두 합수머리(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총살 시켰다고 한다.

그 후 약 한달 뒤 아버지는 산에서 집으로 내려오다 또 인민군에게 잡혀 황성 읍내로 끌려가 또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날도 순서가 되어 재판장은 “당신이 내지리 구장 박00이요?” “저는 구장을 하지 않은 함00입니다” 라고 하니까 한참 바라보다, 왼쪽에 가서 있으라하였다. 재판이 끝날 무렵 왼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가라 하여 집에 들러 산속으로 다시 피신



박 상 호

(6·25참전 유공자회
황성군지회 사무국장)

하였다. 남아 있던 사람들은 추동리(고네미) 고개에서 총살 되었다고 한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9월말 낮, 내지리 고네베루 부근에서 총소리가 들려 그쪽을 보니, 수백 명을 모아 줄을 서게 하고 총을 쏘았다.

인민군들이 총살을 끝내고 우리 집 방향으로 오는 것을 보고 나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알리고 집에서 꼼짝 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군들은 우리 집을 지나 머지고개 방향, 북쪽으로 후퇴하여 갔다.

이날 초저녁 피투성이를 한 사람이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와 “누님 저예요” 확인하니 친척이었다.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옷으로 갈아입히고 밥을 주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어머니가 물었다.

친척은 며칠 전 시내에서 인민군에 체포되어 오늘 내지리로 오는 도중, 고네베루에서 줄을 세우고 한 줄 한 줄 앞으로 나오라고 하며 총을 쏘아 댔다고 하였다.

차례가 되어 나서는 순간 총소리와 함께 쓰러졌는데 계속 총살된 사람이 쓰러져 그 속에 묻혀 있다가 사망이 조용해져 시체를 제치고 나왔단다.

친척은 이날 야간에 개울을 따라 공근면 수백리 쪽으로 갔으며 그 후 학살의 현장은 악취가 지독 하여 사람들은 이 곳을 피하여 다녔다.

그해 10월 초 횡성에 국군이 다시 입성, 우리 식구들은 평안을 되찾던 중 “왜 그들이 아버지를 찾고 체포를 하려고 하느냐” 하고 여쭙니 아버지는 갈풍리와 내지리 구장을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다.

한편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하순경 압록강까지 진격, 곧 통일이 다가 올 듯 하였으나 중공군 개입으로 아군들은 남쪽으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51년 2월10일경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흥천군 동면 좌운리 까지 점령 할 즈음 우리 가족은 아침식사를 끝내고 있을 때 경찰대원 9명이 찾아왔다.

이 사람들은 내지리 산속에서 밤 새워 잠복근무를 하다가 철수하는 중 이라 말하고 아침식사를 요청, 어머니는 경찰 대원의 식사를 준비하였다.

경찰대원들은 식사를 하려고 총을 윗방에 모아놓고 식사가 끝난 다음 잠시 휴식을 취하느라고 자리에 누웠다.

이때 밖에서 꼼짝 하지 말라는 큰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리면서 따발총을 쏘며

중공군이 방으로 들어와 휴식을 취하던 경찰대원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포위된 상태에서 집안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9명의 경찰대원 모두 전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피난민 틈에 끼어 횡성시내 구리고개 형님 집에서 먼저 도착한 아버지를 만나 10일간 같이 살다가 2월 20일경 피난길에 올랐다.

복잡한 피난 행렬에 휩쓸려 부모님을 따라가던 나는 원주 장양리 고개 부근에서 집안 식구를 잊어버렸다.

헤매다 할 수 없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와 횡성읍내 구리고개 형님 집에 도착 하였으나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나를 보자 전쟁고아로 알고 트럭에 태우려고 하니까, 어떤 경찰관이 통역관에게 이 아이는 내 친구의 동생이라고 하며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였다.

통역관은 유엔군 장교에게 보고하니까 나를 경찰관과 같이 있도록 승낙 하여 나는 경찰관(김국제. 휴전 후 횡성경찰서 보안·경무과장 역임)과 함께 7일간 횡성지역 전투를 따라 다니면서 심부름과 주위 동향을 자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하며 함께 있었다.

한편 어머니는 미아를 찾아 애타게 헤매다 경찰관이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 나를 찾은 어머니는 보호해 준 김국제 경찰관에게 고맙다는 인사 후, 피난처인 충주 소태면으로 나를 데리고 가 가족과 합류하였다.

1951년 2월말 나와 여동생이 전염병에 걸려 가족들이 피난처를 옮기지 못했으나 며칠 후 전염병에서 회복 되어 다시 피난을 갔다. 강 위 얼음으로 충주 달래강를 건너 괴산에 도착할 무렵 이번에는 전염병이 악화 된 여동생(상숙)이 끝내 숨을 거두었다. 피눈물을 머금고 낮선 괴산 땅에 동생을 묻었다.

1951년 말까지 괴산에 정착, 피난을 하고 이듬해 1952년 초 음성읍으로 이사 하여 살다 그해 봄 3월 26일 남동생(상두)이 태어났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소식을 듣고 그해 가을 음성을 떠나 우리 식구들은 며칠간을 걸어서 횡성 내지리로 왔으나 집은 흔적도 없이 전소되어 있었다.

할 수없이 횡성시내 읍하리(구리고개) 형님 집에서 짐을 풀고 다시 나는 횡성초등

학교에 재입학, 이곳에서 1년을 살다가 읍내로 이사 하였다.

세월이 흘러 1967년 1월 22일 나는 육군하사로 월남전에 참전, 여러 위기를 넘기고 1968년 3월 8일 귀국 하였다.

그 후 15사단 수색중대 캣(CAT)소대 부 팀장으로 1968년 9월 28일 철원군 근남면 산 속에서 분계선을 넘어 온 적군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임무가 펼쳐졌다.

적 사살 7명으로 성공적 작전을 수행, 15일간의 보상휴가를 끝내고 귀대하니 비무장 지대 수색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다. 나는 적군을 격퇴하기 위한 임무수행 중 지뢰를 밟아 1968년 11월 16일 한 쪽 다리를 잃고 말았다.

박순님 할머니의 6.25 이야기

(1943.4.8. 공근면)

박 순 님

6.25 전쟁 중 박 할머니는 초원1리에 살고 있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1.4 후퇴를 맞아 피난길을 나서 횡성을 갈풍리에 사는 작은댁까지 갔으나 작은 할머니가 너댓 식구가 와서 양식을 축낸다고 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 섬강을 가로지른 뒷내다리에는 다리를 끊으려는지 인민군들이 셋노랑게 달라붙어 있었다.

초원리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인민군들이 닻새를 머무르고 어디론가 가 버렸다.

그리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나자 중공군들이 마을에 들어 닥쳤다.

그들은 낮에는 꿈쩍도 않고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집에 들어와 밥을 해 먹었다.

벼를 찧기는 했지만 그들은 밥을 지을 줄 몰라 대충 해 먹었으며 통감자를 그냥 먹기도 하고 똥오줌 바가지에 밥을 퍼 먹기도 했다.

집 마당에는 중공군 시신을 쌓아 놓았는데 시신이 썩어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 시체들을 밟듯 아무데나 파묻고는 했다.

밤이되면 그들은 꼭 군가를 힘차게 부르곤 했다.

또한 북한군이건 중공군이건 허리에는 전대를 꼭 차고다녔는데 그 속에는 옥수수 가루 같은 비상식량이 들어 있었다.

아무런 맛도 없었다. 대신 국군들이 주고 간 건빵은 정말 맛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시체들이 즐비 했는데 특히 덕고개(학담 넘어가는 고개)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전투가 끝나고 국군과 미군은 시신을 찾아가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한곳에 모아 묻었다.

오종근의 6·25 피난기

오종근

나는 1950년 6·25 당시 황성 학곡 1리 ‘뒤룬’ 마을에서 부모님, 형과 함께 네 식구가 오손 도손 살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고초를 겪게 되었다.

전쟁이 나자 우리 가족은 가까운 서원면으로 피난을 갔다가 아군의 공격으로 공산군이 쫓겨 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국군의 압록강까지 진격으로 통일이 눈앞에 온 것 같았으나 겨울철 대규모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은 계속 후퇴하여 황성도 다시 공산군이 점령, 우리 마을도 전쟁터가 되어 피난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지게에 이불보따리, 양식 등을 잔뜩 짊어지고, 어머니는 머리에 손에, 세 살 위인 형은 나 보다 더 무거운 짐을, 열한 살 나도 쌀 한 말을 지고 남쪽을 향해 정처 없이 피난길에 올랐다.

한편 큰댁에는 큰아버지 내외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나이 많은 부모님을 남겨놓고 갈 수 없다며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남기로 결정을 하셨다.

우리 가족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걷다가 날이 저물면 빈 집에서 자기를 거둬하며 달래장까지 도착하였다.

살얼음판 걷는 다는 말이 있듯이 조심조심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 충주를 거쳐 청주까지가 고통스러운 피난생활을 했다.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세를 가다듬어 공산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전쟁의 참화가 극심했다.

내가 사는 마을도 1951년 2월 중공군 대공세에 의한 황성전투 격전지로 네덜란드 대대가 아군 후퇴가 끝날 때까지 엄호임무를 수행했던 곳이다.

후퇴했던 아군은 다시 반격 공산군을 몰아냈다. 이 전투가 끝나고 우리는 학곡 1리 집으로 돌아왔지만 병사들의 시체가 아직 널려있어 처참한 광경이었다.

연로하신 조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피난을 못 가셨던 큰 아버지는 전쟁 통에 돌아

가서 토롱 (임시로 만든 무덤)을 해 놓은 상태였다.

학곡 1리 ‘뒤룬’ 마을은 승지봉 바로 밑에 위치해 있다. 승지봉은 300m의 오뚝 솟은 산으로 횡성시내, 뒷내다리, 춘천으로 가는 국도를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로 전쟁 때에는 주요 고지이다.

국군과 미군은 삼마치, 창봉, 초원, 도곡, 학곡리 등 춘천 간 국도를 중심으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였다.

우리 마을이 이러한 승지봉 밑에 있었으니 성할 리가 없었다. 열 채의 집 중 우리 집을 포함해 세 채만 남아있었다. 그것은 승지봉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승지봉은 네덜란드 대대가 아군 철수가 완료 될 때까지 엄호를 하던 고지이다.

집에 돌아와 보니 땅 속에 묻어놓았던 쌀은 거의 타 버렸다. 그렇지만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승지봉에 올라가 병사들이 먹다 버린 통조림 등을 주워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총상 입은 국군 장교를 살린 원준희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버리고 후퇴를 거듭했는데 1월 중에 황성에도 피난명령이 내려져 동네 젊은이들은 모두 피난을 떠났다. 남편도 국군에 입대 부대를 따라 어디론가 갔다.

나는 21세에 공근면 도곡리에 시집을 와서 이때가 25세였다. 가족은 시부모 내외와 시동생들, 시누이들, 둘도 안 지낸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피난길에 나섰다. 학담 공근지서에 다 달았을 때, 경찰이 “시동생을 두고 가면 일 보다가 피란 잘 시켰다가 데려다 주겠다” 고 하면서 두고 가라고 하여 지서에 두고 떠났다.

학담 큰골에서 자고 아침에 갈풍까지 갔는데, 인민군과 중공군이 들어와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오면서 장지고개를 보니까 폭격을 하여 신작로에 시체들이 널렸는데, 그 시신을 밟고 인민군과 중공군이 넘어오고 있었다.

큰골에서 장지고개를 넘어오려고 할 때, 아군의 폭격이 있어 솔밭에가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 장지고개를 넘었다. 고개를 넘어오는데 아이는 죽었는지 뺨뺨해져서 자꾸 흘러내렸다.

'어른들도 폭격에 기가 넘어가 죽겠는데, 앓던 아이가 죽으려하니 바늘이라도 찔러 보고 싶었다'고 하였지만 시부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연당골을 넘어오는데 자꾸 아이가 흘러내렸다. 당시 엄동설한의 눈길인데도 퍼대기가 없어 이불 뜯어 업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2012년 11월1일 촬영 오른쪽 원준희할머니
왼쪽 전 황성문화원 사무국장 홍성진 모친
두 분은 젊은 시절 공근면 도곡리에서
언니 동생 하며 살았다.

연당골을 넘어 집 가까이 올 때는 이미 등에서 축 처져서 자꾸 올려도 내려가고 자꾸 올려도 내려갈 정도로 이미 이 세상 아이가 아니었다. 집 주위에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옷방 옷묵에 눕혀 놓고 흑시나 하여 등 밑에 손을 넣어보았지만 차가웠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넣어 보아도 차가 와서 아이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시아버지는 거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를 돌돌 말아 가지고 나가더니 어디다가 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왔는지 금방 들어왔다. 이렇게 하여 세상 태어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참혹하고 추운 전쟁 중에 아들은 하늘로 간 것이었다.

2월 12일, 어제 저녁부터 밤이 깊도록 집의 뒷산 신부골에서 총소리가났다.

아마도 서로 총격전을 하는 모양이었다.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인민군과 중공군이 8사단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였다.

아침에 한 병사가 피투성이가 된 한 군인을 꺼들고 들어왔다. 부축 받고 온 병사는 “빨리 가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만나자 빨리 가서 너도 잘 살아야 한다” 고 하면서 보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는 천정을 찢러 군복을 감추고 나서 신발(위커)과 시계를 주면서 어디 갖다 버리라고 하였다.

산사람의 것이어서 차마 버릴 수 없어 부엌에 잘 감추어 두었다. 시계는 피가 묻지 않은 신발 속에 넣어두었다. 입을 옷을 달라고 하여 바지와 저고리를 주었다. 그리고 총알을 빼냈는데, 그 곳에서 피가 주루룩 흘렀다.

그리고는 호박을 긁어서 소금과 찢어 발라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호박을 긁어 소금을 섞어서 상처에 발랐다. 3일인지 5일 지나서인지 보았더니 그 구멍난 상처부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참 신기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부터는 바르지 않았다. 호박에 소금을 섞어 바르면 상처가 낫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발라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처는 치료되어 가고 있었다.

여기서 이 부상병은 어떻게 총상을 입었는지, 당사자인 윤성민 전국방부장관은 TV 인터뷰(2012.6.26. mbc 방영 ‘잊혀진 비극 황성전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길로 내려왔어요. 소로를 타고. 그런데 거기서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m

거리에서 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대원들이 산개해서 가지 않고 후퇴하다보니. 총탄이 여기 저기(발) 뚫고 나가는 거. 그 다음 여기(허벅지 4발). 손가락(여기는 달랑달랑했지). 여섯 발을 맞았는데, 심장이라던가, 복부를 맞았으면 못 살지. 총도 카빈총이야 적의 15m에서 맞으니까. 보통 총 같았으면 즉사하지.”

적군에게 15m 전방에서 저격을 받아 6발을 맞고 부하의 부축을 받아 아침에 신부골(예전에 신부가 살았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골짜기)로 내려와 피란에서 돌아온 우리 집으로 들어 온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란 간 외딴 집에 부상병이 들어온 그날 저녁 인민군과 중공군이 들이닥쳤다. 미군을 10여명 포로로 잡아왔는데,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아침에 보니, 미군 군복을 벗겨서 자기네들이 입고 자기네 옷을 그들에게 입혔는데 또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아마 죽였을 것이다.

중공군들과 인민군들은 거지였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다 입은 것도 거지 같이 입었다. 낮에는 아군 전투기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밤만 되면 저녁에 내려와 부엌에서 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 산으로 나르기도 하였다.

아마도 동료 인민군과 중공군에게 가지고 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오줌바가지에 죽을 담아 먹는 것이었다.

어디에서 쌀을 훔쳐다가 맷돌에 갈아 술 3개에다 죽을 쑤 먹었던 것이다. 당시 학담(면사무소 부근)에 벼 가마가 쌓여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먹지 못하도록 모두 불태워버렸다, 며칠 동안 탔다.

한편, 부상병은 옷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민군이 밟고 다녀도 꿈틀거리지 않았다. 밥은 조밥에 김치 한가지로 제공하였는데, 이것마저도 시부모가 밥 많이 줄까봐 야단이었다. “언제 봤다고 밥을 쳐 먹이나. 도대체 창지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하면서 구박을 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밥을 더 많이 주었다.

당시 안방에는 인민군 대장 혼자 큰 방에 혼자 누워있었고, 옷방에는 8명이 누워 잤다.

시부모와 시동생2명, 시누이3명, 윤중대장 등 8명이 잤다, 중공군과 인민군이 밤새도록 죽을 쑤느라 불을 때었기에 옷방까지 따뜻하여 비좁았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수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인민군 한 사람이 옷방을 쳐다보다가 들어와서 이불을 제끼면서 총을 겨누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본다.

윤성민 전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눈이 툭툭 붓고 얼굴도 부어서 호박을 붙이고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나는 지금 폭탄을 짊어지고 가다가 폭격을 받아서 지금 부상병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나를 흥천 포로수용소로 보내려고 그래. 아 이제 죽었구나” (MBC방송) 하고 당시 절박한 상황을 말하였다.

나는 신랑이라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들이라 그리고, 군인이니까 머리 깎은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군인 밥 날라주다가 총알 맞아 아파 못 일어나고 들어 누워있다’ 고 했다. 그러자 목에 다 총을 들어 댔다. 그래서 중공군들한테 단련을 많이 받았다.

내가 밥을 하러 들어가면 목에 총을 들이대요. 그래서 내가 ‘죽여라 죽여라. 나는 하루 시는 것이 열흘 시는 것보다 더 지겹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 새끼들아’ 아주 단호하고도 자신감 있게 욕까지 섞어가며 말하였다.

이렇게 저녁마다 중공군과 인민군들과 씨름하고 낮에는 시부모에게 구박받고 있었다. 남들은 며느리가 겁탈당할까 며느리를 틀어박고 시어머니가 밥을 한다는데, 반대로 시어머니는 죽어도 괜찮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 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보름정도 지났을 때, 중공군과 인민군이 물러가고 유엔군이 들어왔다. 이때 윤중대장은 천장위에 있는 군복을 꺼내 입고는 신발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버렸다고 하니, 그곳에 가보라고 하길래 부엌에 잘 감추어 놓은 신발과 시계를 건네주었다.

문을 열고 손을 들고 나갔지만 미군(해병 제3사단 수색중대)이 무서워 나가보지도 못하였다. 당시 미군은 여자만 보면 끝까지 달려가서 강탈하였다. 집집마다 남편들이 아내를 감추어 놓고 밥을 할 정도였다.

이후 윤중대장은 중국어를 잘하여 도움을 준 건너편 백영소씨 집에서 며칠 머물렀다. 그러나 두 내외가 젊은 관계로 다소 불편하여 옆집의 정양시 노부부 집에서 보름 정도 더 머물렀다고 한다.

27년이 지난 어느 9월에 콩을 떠는데, 한 병사가 와서는 “아주머니 난리 때 빨갱이 밥해 주었지요” 하는 것이 아닌가.

“빨갱이 하면 진절머리 나서 듣기도 싫어”

“아주머니 맥에서 빨갱이가 피란했다던데요”

“빨갱이가 아니고 윤백만(당시 윤중대장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윤백만이라 이름 사용)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식이 없다. 30년이 지났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다.”

또 한 병사가 다녀간 다음날 군인들이 집 주변을 둘러쌌다. 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았다.

그런데 신작로에서 걸어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6·25전쟁 때 총에 부상을 당한 그 중대장이었다. 달려 내려가서 기쁘게 맞이하였다. 방에 들어 온 두 사람은 그 때 그 감회를 마음껏 쏟아냈다. 나는 조밥에 김치하나 밖에 못해 준 것이 미안해 쌀밥을 해 주려고 하였고 윤성민 군단장은 시부모에게 구박을 받아 가면서 끝까지 정성껏 간호해 주고 따뜻한 조밥이라도 해 준 정성이 감사할 뿐이었다.

쌀밥보다는 조밥이 더 맛있다고 하면서 다음날을 기약하고 그날은 그냥 잤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성껏 간호하여 살린 그중대장이 훌륭한 군단장이 되어 나타난 것 자체가 꿈이었는데, 맥주 3박스, 통닭3박스 사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까지 다 먹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음날 군인들이 TV를 가지고 왔다. 뒷산에 안테나를 세우고 TV를 켜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함께 보았다. 고구마를 찌주면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보고 잤다.

이렇게 사는 것에 재미를 더해가고 있을 때 23평짜리 집을 지어 주었다. 윤 전 국방장관의 정성이 너무나 고마웠다.

횡성전투 특히 공근 도곡리 등에서 국군 8사단이 중공군, 인민군 연합군에 포위되어 큰 타격을 받았으며 당시 8사단 소속 윤성민 중대장은 여섯 발이나 총탄을 맞고 한 여인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국방장관을 역임 보은 하고자 노력하였다. 김동정 저 ‘횡성전투’ (2013.11.29. 횡성문화원 발행) 에서 참조

정두영이 기억하는 6·25

정 두 영

나는 1937년 9월 9일 서원면 거슬치에서 태어나 6·25전쟁 발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서원초등학교 물안분교에 다니고 있었다.

거슬치는 서원면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청운면 세 면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951년 2월 11일 오후 5시, 중공군이 횡성을 향해 총 반격을 개시하던 2차 공세가 시작된 곳이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피란을 가지 않았으나 1·4후퇴 때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재당숙 집으로 큰 댁 식구와 피란을 갔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중공군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 보다는 집에 가서 배불리 먹으면서 살자고 이튿날 다시 거슬치로 돌아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루는 8~9명 정도 되는 국군이 찾아왔다. 한 두명은 지팡이를 짚은 부상병이었는데 포위망을 빠져나왔다고 하며 방 좀 준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30m 떨어진 집 사랑방을 마련 해 주고 밥도 해 주었다. 우리 할머니는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피란 안간 동네 젊은 여자들 20여명과 함께 밥을 해 주었던 것이다. 이 때가 구정 밑인데 떡을 하였다. 떡을 할 때는 군인들이 떡메로 떡을 쳐 주었다.

어느 날 성한 사람들 몇 명이 나갔다 오더니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왔다. 고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처마 끝에 매달아 두었다.

하루는 물안 가기 전에 사는 최양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가 겨울이지만 마루에 8~9명의 국군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아들은 인민군으로 나갔다. 그런데 중공군과 연락이 되었는지 몰라도 다음날 새벽에 3,000여명의 중공군이 동네로 들어왔다. 말발굽 소리도 대단했고 울타리 부수는 소리도 났다. 마당에 중공군과 말 몇 마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울타리를 부수는 것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장교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다. 속으로 ‘이제 국군들과 우리는 모두 죽었구나!’ 생각하였다. 잠자고 있던 국군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모두 죽었을 것이라 추측했는데 두 집 건너 부근에서 2~3명이 오고 있었다.

국군이 우리 집에 들어오자 할머니가 의아해 하며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중공군들이 가만히 놔둬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떡을 구어 먹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갖다 주라고 싸 주었다.

그날 저녁 중공군들은 피리를 불며 난리를 피웠는데 아침에 보니 국군이 없었다. 이들이 지나 국군 몇 명이 오고 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따라갔는데 지키는 보초가 없어 부상자만 남기고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군이 원주에 있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원주방향으로 갔는데 그 이후 간 사람이나 포로가 된 사람에 대하여 생사를 알 수가 없다.

한편 중공군이 오던 날 인민군 통역 병이 연대본부로 써야 하니 방 한칸 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안방을 내주고 우리 식구는 옷방에 모여 있었는데, 무서워 나가지 못하였다. 당시 장교도 전대를 메고 다녔는데 전대에서 비상식량을 꺼내어 화롯불에 구워먹었다. 이 때 할머니가 떡을 노랗게 구워주었더니 고맙다고 하며 받아먹었다.

나가 보니 마른 흙벽에 제000연대 본부라고 한자로 써놓았다.

한편 증조할아버지는 한학선생이어서 고서가 많았다. 장교는 선반에서 「맹자」 한 권을 내려 들쳐서 보더니 ‘누가 보던거냐?’ 고 하길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더니 잘 두라고 하였다.

그 날 3,000여명이나 되는 중공군들이 대문을 다 뜯었다. 그것으로 방공호를 만들고 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배식할 때는 그릇이 없으니 물동이, 자배기, 오줌통도 사용하였다. 물동이가 깨지기라도 하면 인민폐를 주었다.

언 땅에 쌀과 곡식을 묻어 뒀는데 제대로 땅을 파지 않고 묻었으므로 죄다 헤집어 쉽게 찾아냈다.

우리 할머니가 아주 억센데 지개작대기로 누비웃을 입은 중공군을 두들겨 패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크게 아랑곳하지 않았다.

쌀을 묻을 때 태극기도 같이 묻었는데 발견이 되었다.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끄집어 낸 병사가 ‘이승만 만세’ 하면서 농담을 하며 장난을 쳤다. 쌀을 다 빼앗겼는데, 그 때 인민군 장교는 쌀을 가져간다는 증서를 써 주며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 고 하였다.

당시 우리 할머니가 참 지혜로웠다. 도정 안 한 벼를 보리밭에 부어 놓았는데 도정도 안 되고 돌이 섞여있으니 먹을 수도 없어 그냥 두고 갔다.

간 다음 모두 거두어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양식이 부족하였지만 우리 할머니덕분에 크게 굶지 않고 동란을 버틸 수 있었다.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해에는 도토리가 많이 열렸었다. 청년들은 의용군에 안 끌려가려고 산에 은신하였다.

이 때 산에서 도토리를 주어 밤마다 몇 말씩 지고 내려왔다. 밤이 되면 가족들이 불을 켜고 데리러 갔다.

집에 오면 흑시라도 몰라 신발을 신고 잘 정도였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일찍 밥 먹고 또 산에 올라가곤 하였다.

주워 온 도토리는 가루를 만들어 보관하였고 그것으로 묵을 만들어 먹으면서 살았다.

김동정 저 ‘횡성전투’ (2013. 11. 29 횡성문화원 발행)에서 참조

6·25동란 피난 이야기

나는 황성읍 청용에서 1948년 열다섯 살 때 공근면 초원리에 사는 열아홉 살 고평배씨와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4남 2녀 중 셋째로 결혼한 3형제가 분가하지 않아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열여섯 명이 한 지붕 밑에 사는 대가족이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2년이 흘러가고 내 나이 열일곱 살이 되던 해 6·25전쟁이 터졌다.

큰 시누이는 출가를 하였고 6·25전쟁이 난 후 남편3형제는 삼천포로 방위군(나중 국군 입대)에 소집되어 떠나 남은 가족은 열두 명이었다. 시아버지는 대 가족이 피난할 곳을 찾다 서원면 창촌 마을로 피난을 갔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며칠 있다가 다시 고향집으로 와 집 부근에서 피난생활을 하였다.

국군의 북진으로 통일이 오는 가 했더니 중공군의 남침으로 동란이 터져 진짜 피난처를 찾아 떠나야 했다.

모두 이불 붓짐과 식량을 챙겨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다. 시아버지는 소달구지에 짐 위에 아이를 엮고 대 가족을 인솔 안전지대로 생각되는 남쪽을 향해 고난의 피난길에 올랐다. 원주를 지나 신림고개 밑을 갔는데 남쪽으로 밀려가는 피난민, 후퇴하는 국군으로 혼잡, 더 이상 소달구지를 끌고 갈 수 없어 소달구지는 버리고 소만 끌고 갔다. 신림고개를 너머 한참 가다 날이 저물어 충주 땅 어느 빈 집에 들어가자고 다시 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중공군은 밀고 내려오고 아군은 후퇴, 그 사이에 끼여 위험을 느낀 시아버지는 충주에서 황성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 12명의 가족은 발길을 돌렸다.

원주 쪽에는 중공군이 있고 충주 쪽에는 아군이 있어 서로 포를 쏘대는 위험한 상



정 순 택



남편 고평배씨

황에서 산골길을 택해 걸었다.

위험하면 시아버지는 바가지 타래미를 흔들어서 피난민이라 소리쳐 피난민임을 알렸다. 길을 걷다 보면 머리 위로 포가 윙윙 소리치며 날아 다녔다. 원주를 지나 갓 바위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앞집, 뒷집에 포탄이 떨어져 불바다가 되어 더 머무를 수가 없었다. 밤에 아이를 업고 산 고개를 넘어 논밭길을 지나는데 폭탄이 밭에도 떨어지고 논에도 떨어졌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황골 동네에 오니 큰 양조장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 하룻밤을 새우고 밥도 못 해 먹고 황급히 고향집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다. 정암으로 돌아서 남산, 마산을 지나 횡성읍으로 들어서는데 군인들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횡성읍을 지나 큰골 하일 동네에는 길에 전사한 군인이 군용차에 치어 신작로가 피로 물들고 시체 안 밟으려고 요리저리 피해 걸었다. 옆에 논밭에도 시체가 쌓여 있었다.

그곳을 지나 장지고개를 올라서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흑인병사가 꺾을 씹고 있었다. 무수한 시체더미를 지나 초원리를 들어서니 폭격 맞은 차, 불에 탄 탱크, 그 속에 타 죽은 시체가 처참하였다.

처참한 광경을 보며 새원 집에 오니 집은 모두 폭격 맞아 잿더미가 되고 산 밑에 오막살이가 한 채 남아 거기서 열 두 식구가 지내게 되었다.

식량이 없어 가족이 굶게 되어 시아버지가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셨다.

군인이 밥통에 밥을 담아 먹으려다 전사, 그 주인 없는 그 밥그릇을 가져오셨다.

얼어붙은 밥을 녹여 죽을 쑀어 나눠먹고 살았다. 중공군이 득실대 낮에는 산에 숨어 있고 고난의 피난생활의 연속이었다.

우리 집 앞에는 8사단 19연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는 중공군의 대부대와 국군 8사단, 미2사단 23연대가 참패한 격전지의 중심 이었다.

남편은 수색대에서 전쟁을 하다 휴전이 되어 휴가를 왔다. 그 후 다시 귀대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참전하였다.

항구에 눈을 녹여 밥을 지어 먹으면서 지리산 뱀사골에서 6개월간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공비토벌을 하고 제대하였다.

남편 3형제는 6·25참전 용사로 경기도 이천 호국원에 안장되었다.

철부지가 겪은 6·25



한 상균

6·25가 나던 해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2km 떨어진 먼 학교에 가서 예쁜 여선생님을 만나 즐겁게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으니 학교에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학교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수업도 안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우리 동네에서는 라디오나 TV, 신문이 없던 시절이라 복한이 남침한 사실을 몰라 그래서 한동안은 동네가 평온했다.

어느 여름날 집 도랑가에서 칠팔바퀴로 송사리 잡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논에서 피사리를 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오시더니 조용히 하라면서 나를 업고 상재울 골짜기로 단숨에 뛰어가 덤불속으로 들어가 납작 엎드려 숨어 있었다. 아버지는 왜이러세요 하는 내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두려워하셨다. 잠시 뒤 낯선 사람들이 쫓아와 우리가 숨은 곳을 지나 골짜기로 올라가더니 얼마 뒤 다시 내려오면서 간나새끼들이 도망쳤다고 중얼거리면서 밤에 잡으러 오자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인민군이 동네의 요주의 인물들의 명단을 미리 작성하고 지방 좌익을 앞세워 검거에 나선 것이다. 아버지는 다행히 피하셔서 붙잡히지는 않으셨지만 그 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행방을 모른다. 그날 밤부터 주무시다가도 동네에 개짖는 소리가 들리면 뒷문으로 빠져나가 상재울 산에서 밤을 보내셨다. 나중에는 동네 뒷산에 방공호를 파고 동네 어른들과 함께 숨어 지내셨다. 어머니는 아침저녁으로 눈치를 보가며 밥을 지어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곤 하셨다. 가끔 어머니를 따라 동네 아저씨들이 숨어계시는 방공호에 가봤는데 습기도 차고 냄새도 심해 여간 불편한 곳이 아니었다.

며칠 후 학교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다. 처음 보는 분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투리로 새 세상이 왔으니까 새로운 노래를 배워야 한다면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지금은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이라는 구절만 생각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들은 신나게 노래공부를 하다가 다시 학교에 못가고 집에서 놀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잠결에 아버지 말소리가 들려 잠을 깨보니 어머니와 함께 집을 싸고 계셨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난다고 하시면서 새벽에 집을 나가셨다. 얼마 후 강 건너 신작로와 뒷산으로 공산군(중공군과 인민군)이 북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장교들은 말을 타고 사병들은 걸어갔다. 군복에 총을 메고 허리에 수류탄을 찬 모습 이었는데 중공군은 비상식량을 긴 자루에 넣어 어깨띠를 만들어 메고 다녔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비상식량은 주로 콩가루를 볶아서 만들었는데 얻어먹었던 기억도 난다. 집집마다 들려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갔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부상당한 공산군들은 집으로 들어와 안채의 안방과 윗방을 차지해서 나는 안방과 윗방 사이 문지방에 앉아 놀았던 기억이 난다. 무슨 말을 인민군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루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시는데 어린 인민군 하나가 어머니 옆에 앉아 엄마생각이 난다고 훌쩍훌쩍 울고 있는 모습도 기억이 난다. 참으로 불쌍하다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어린 인민군도 있었는데 총을 거꾸로 매면 총부리가 땅에 끌리는 인민군도 보았다. 중공군도 우리 집에서 머물렀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병어리처럼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셨다. 중공군은 보이는 그릇은 가리지 않고 음식을 담아먹다. 세숫대야는 물론 요강이나 오줌동이에도 음식을 담아 먹는다고 하시면서 더럽다고 혀를 차셨다.

마을에 난생 처음 보는 비행기가 나타났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비행기 왔다고 소리치면서 밖으로 뛰어 나가 비행기 구경하느라고 야단이었다. 그럴 때 마다 집에 있던 공산군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며 소리치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 행동이지만 아찔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먼 곳을 폭격하더니 나중에는 집 주위를 폭격해 나무도 뽑히고 논과 밭에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다. 그걸 보자 비행기가 오면 겁에 질려 온 가족이 안방에 숨기 시작했다. 어느 날 비행기 소리에 놀라 안방에서 온 식구가 이

불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귀청을 찢는 듯한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 기관총 소리가 멎자 ‘슈우웅 쾅’ 하는 대포알이 날아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쑹’ 하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 벽을 뚫고 대포알이 지나가는 소리였고 안방 벽에 커다란 구멍이 두 개가 생겼다. 다행히 발에 떨어진 대포알은 터지지 않아 우리 집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부터 비행기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시작하면 수분동안 계속되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사랑방 굴뚝 옆에서 숨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어 있었다. 나중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하였는데 자다가도 비행기 소리만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와 나는 집에 포탄이 떨어져 불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삼 백 미터 떨어진 상재울 골짜기 산으로 올라가 벌벌 떨며 폭격이 멈추길 기다리곤 했다. 훗날 어머니는 종종 그 얘기를 하시면서 상균이는 잠귀가 밝아 곤히 떨어져 자다가도 피난가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 앞장서곤 했다는 칭찬을 하셨다. 하루는 할아버지 친구들이 사랑방에 모여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다. 영수 할아버지가 하마터면 사람고기를 먹을 뻔했다고 하셨다. 외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있더라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말고기를 실컷 먹어야겠다고 생각 하시곤 옆집에 사는 동생과 함께 커다란 함지와 식칼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러 가셨다. 식칼로 고기를 썰려고 고기를 집어 들었는데 속에서 사람 다리가 나오더라는 것이었다. 얼마나 놀랐는지 다 팽개치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다고 하셨다. 인민군 장교가 탄 말이 폭격을 당한 모양이다.

얼마 후 학교에서 책보를 싸가지고 1반에 사는 영철네 집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 학교는 불에 타버리고 학년별로 개인집의 방을 얻어 맨땅에 앉아 수업을 했다. 나중에는 학교에 군용 천막을 치고 바닥에 깔 가마니 위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통나무를 잘라 반으로 쪼개 다음 임시로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주었다. 학교에 오가는 길에는 총알과 대포알, 수류탄이 널려 있었다. 긴 막대기를 들고 총이라고 입으로 뽕뽕 소리를 내며 전쟁놀이를 했다. 어른들은 안 터진 수류탄으로 물고기를 잡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당하고 죽기도 했다. 아이들도 호기심에 불발탄을 갖고 놀다 죽고 다치는 일이 많았다.

1.4 후퇴와 횡성

중공군의 개입으로 마침내 아군의 1.4 후퇴를 가져오게 했던 1951년의 전국은, 6월 23일에 유엔 소련 상임대표〈말리크〉에 의해 휴전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38선으로 진출하려는 아군의 반격과 적군의 역공세가 간단없이 되풀이됨으로써 불꽃 튀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조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전황은 다시 밀리기 시작하여 1.4 후퇴라는 전란을 겪어야만 했다. 1.4 후퇴 직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은 강원도 남서부에 위치 한 제 1의 요충지인 원주를 비롯하여 횡성지방이었다.

홍천과 원주 사이에 위치 한 강원도 남중부의 횡성군은 특히 중공군의 2월 공세 때 2개 군의 중공군 대병력이 홍천방면으로 진출중에 있던 국군 8사단을 겹겹이 포위하여 악전고투를 겪게 했던 쓰라린 전쟁터였다.

우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이곳에 투입되었던 용맹스런 네덜란드군 대대 장병들이 노도같이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처절한 공방전을 벌였던 혈전 장이었다.

그 혈전 속에서 대대장 오우덴 중령과 그의 진중에 함께 있던 수명의 재일교포 출신 학도의용군이 국군을 가장한 한 무리의 중공군에 의해 무참하게 사살 당한 슬픈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고을이기도 하다. 중공군의 2월 공세가 있기 1주일 전부터 서였다. 미 10군단은 당시 춘천까지 남하했다가 행방불명이 된 중공군 19병단의 행방을 탐색코자 전방지역에 대한 위력수색전을 펴고 있었다. 이때 동군단에 배속되어 있던 아군 8사단은 군단 좌익으로서 5번 도로를 따라 횡성~홍천~용두리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포리와 능우리 및 주만리로부터 예하 연대를 약진시키고 있었다.

횡성 이동을 담당하게 된 아군 5사단은 풍암리로부터 아군 8사단을 엄호케 돼 있었다. 아군의 이와 같은 위력수색전은 2월 10일부터 적의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하다가 11일 오음산~상창봉선과 상유동~도원리선 및 도원리~풍암리선까지 진출 방어하고 있던 중 12일 미명을 기한 중공군의 대공세에 직면케 되었다. 이때 중공군

66군은 삼마치의 21연대와 정면으로 직충하고 40군은 갈기산 너머 16연대의 정면과 좌측 방으로, 39군은 미2사단 23연대의 정면인 지평리를 직충함으로써 마침내 전세는 순식간에 급변하여 아군 8사단의 전방부대는 도처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사면초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리하여 아군은 휴대가 가능한 장비 이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적의 포위망을 돌파코자 사력을 다했으나 유기적인 철수가 불가능해 21연대의 경우는 2일간, 10연대의 경우는 1주일간의 포위망 속에 갇힌 채 적과 흑한과 굶주림과 싸워야 했다.

이날 새벽 일선 부대가 돌과 된 지 3시간 후에는 미2사단의 화력 지원부대까지 적의 기습을 받아 붕괴되는 등 전세가 악화 되자 군단장은 모든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네덜란드군 대대가 철수부대를 엄호하고 있는 황성쪽으로 도로와 계곡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1950년 11월 하순 청천강 남안의 군우리로부터 평양으로 철수하던 터키군 여단과 미2사단이 철수 도중 태형과도 같은 적의 혹독한 공격을 받은 끝에 수 천 명의 병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순천부근의 계곡을 <태형의 계곡>이라 명명했던 미군들은 그 후 아군이 황성으로 빠져나온 이 계곡을 <학살의 계곡>으로 명명했다. 당시 10군단장은 <새말>과 <학담리> 일대에 집결한 아군부대에 자력으로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인데 철수 부대들은 황성을 바로 지척에 둔 <큰골>교량 근처까지 당도했으나 이 교량을 차단하고 있는 적의 강력한 방벽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진퇴유곡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성읍의 북변을 동에서 서로 흐르는 뒷내 남쪽 언덕에 부채꼴 모양의 진지를 점령하여 황성 북쪽과 서북방 일대를 방어하는 한편 강력한 정찰대를 편성해서 서쪽과 서남방을 경계했다.

공격부대의 후방을 보호하고 있던 네덜란드군 대대는 전차 1개 소대와 보병1개 소대로 구성된 긴급지원대를 출동시켰으나 이 구조대는 황성교 건너 수백 미터도 진출하지 못한 지점에서 중공군 매복대의 기습을 받은 끝에 후퇴해 버렸다.

16시 경에는 크크대위가 지휘하는 검은 베레모의 미 187 공수연대 전투단의 G중대와 전차소대로 구성된 두 번째의 구원대가 황성교 건너 5번 국도를 따라 <큰골>

로 돌진하고 이와 함께 도로 양편의 능선을 따라 한국군 보병 1개 대대가 공군기의 지원하에 병진한 끝에 해질 무렵에 이르러선 드디어 <큰골>에서 적에게 포위당한 4천여 명의 우군과 합세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17시 경부터 20~30명씩 떼를 지은 철수부대 장병들이 네덜란드군 진지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 시각부터 돌과구 쪽으로 몰려드는 아군 철수부대 장병들은 악착같이 추격하는 적과 이들의 추격을 격퇴시키려는 미군 전차부대 및 야포부대 사이에 더욱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져 피아 간의 사상자는 격증하고 철수로의 혼란과 참상은 극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도로와 교량을 담당한 네덜란드군 대대의 A중대 진지 전면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했다. 사선을 돌파한 장병들과 사상자를 실어나르는 전차와 각종 차량 등이 뒤범벅되어 그 교량과 도로를 따라 그칠 사이 없이 몰려들었다. 이 같은 경황 속에서 철수부대를 엄호하고 있던 네덜란드군 부대 진중에선 해가 진 뒤로는 횡성 시가지에 대한 적의 침투공격이 차츰 본격화됨으로써 대대 본부의 피습과 대대장의 전사등 충격적인 사태가 빚어졌다.

이 무렵 횡성 시가지 일대에선 도처에서 총성이 들리고 있었고, 특히 전방의 소총중대 진지에서 진지로 육박해오는 적을 물리치느라 경황이 없었으므로 대대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중대장은 등 뒤쪽으로부터 날아오는 유탄이 신경에 걸려 대대 작전관에게 알리게 되었는데 그 통신연락을 받은 작전관이 천막을 나서다가 부상당한 끝에 다시 천막 속으로 기어들어와 A.B중대에 지휘소의 피습을 알리게 됨으로써 심상찮은 사태를 의식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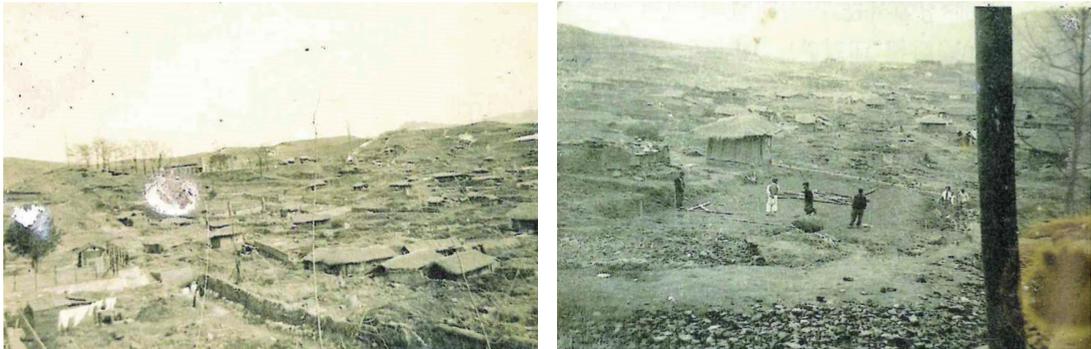
이때 화기중대의 박격포 소대 진지 근처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오케이> <오케이>하며 접근해 와서 수류탄을 투척하는 바람에 큰 혼란을 빚었으며 한쪽에서는 함성을 지르며 돌격을 감행하는 검은 그림자들도 있었으나 이들과 맞선 어느 용감한 네덜란드 병사는 그의 오른손이 부상 당하자 이빨로 안전핀을 빼내 수류탄을 왼손으로 집어 던지면서 검은 그림자들을 격퇴시키고 있었다. 전방의 A.B중대는 대대장을 대리한 화기중대장으로부터 긴급 통신 연락을 받고 21시경부터 철수를 개시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그 방향으로 철수한 전방 철수부대의 철수가 거의 완료된 상

태이다. 그리하여 22시경까지는 A중대가 뒷내 강을 건너 먼저 철수를 개시했고, 그 오른쪽 일대에 전개해 있던 B중대는 거리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었다.

한편 이 무렵에 이르기까지 횡성읍과 그 부근에는 2사단 38연대 본부와 4.2인치 중박격포 중대가 잔류하고 있었으나 22시 45분경 이들 지휘소와 화력지원부대가 후방으로 먼저 철수함에 따라 횡성읍에는 중화기 중대 및 전차부대만이 잔류하여 최종 철수부대인 B중대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제압하려는 전차포를 위시한 각종 중화기의 대응사격으로 인해 시가지는 온통 불바다가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후의 사선을 돌파하느라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앞내 강을 건너게 되었던 B중대는 그 시각으로부터 무려 4시간을 걸어서야 원주 비행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횡성 철수 엄호 작전에서 130여명의 인명손실을 보게 된 네덜란드군 대대는 이날(13일)부터 다시 원주 서측방의 325고지에서 혈전을 벌이게 되었다.

학살의 계곡이라 불리는 횡성 전투



6·25 때 횡성시가지

이 전투는 1951년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중동부 전선의 홍천, 횡성 일대에서 국군 제3·제5·제8사단, 미 제2사단·제7사단·네덜란드 대대가 중공군 제39·제40·제42·제66군, 북한군제3·제5군단과 격전을 벌인 전투이다.

특히 횡성전투는 2월 11일, 12일, 13일 3일간 학곡, 갈풍, 초원, 도곡, 신촌리, 거슬치 등에서 치열했으며 이 기간에 아군 사상자 12,000명, 적군 사상자 4,141명이 발생한 참혹한 전투였다.

11일 17:00를 기해 중공군이 서쪽 거슬치에서 동쪽 삼거리에 이르는 약 33km 지역에서 횡성 공격을 시작, 적 제66군 주력은 19시 국군 제8사단을 포위 화력을 집중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20시 중공군 제198사단이 국군 제21연대를 공격하자 연대를 철수시켰으며, 22시 중공군은 미 제21지원부대를 우회하여 교량 파괴 후 도로를 봉쇄 퇴로를 막았다.

이렇게 되자 2월 12일 미 제21연대가 미 전차소대를 선두로 철수를 시도, 05시중공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포위망을 헤치고 철수하였다.

10시 제503포대 A포대의 105mm를 제외한 전차 등 모든 화기를 버리고 철수를 시

도하였다. 중공군 제120사단은 국군 제10연대의 진지를 돌파하고 6번 도로를 폭파 하초원리와 5번 도로 사이를 차단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국군 제 50포병 대대와 제20포병대대 미 제21지원부대 A팀을 분산 시키고 적 포위망에 고립된 제50포병대대가 미 전차 엄호 하에 철수를 시도하였으나 도로가 차단되어 철수를 단념 제20포병대대만 엄호 하에 철수하였으며 제 10연 대장 권태순 대령이 전사하였다.

횡성은 철수하는 병력과 차량들로 큰 혼잡을 이루었으며 큰 피해를 입은 제8사단은 횡성-문막과 원주 제천에서 낙오자 선을 설치 병력을 재수습하였다.

2월 12일 국군 제3사단은 09:00경 중공군 제97사단을 향해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정면으로 진출한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1개 연대가 포위되자 횡성으로 퇴각, 제23연대와 제18연대가 사단과 미 제21지원부대를 엄호하였다.

국군 제3사단의 인접부대인 제5사단은 북한군 제5군단의 공격과 중공군의 후방 위협으로 정오 무렵 철수하였다.

네덜란드 A, B 중대는 끝까지 남아 승지봉 부근에서 아군 철수 엄호를 하고 있었으며 대대본부는 횡성감리교회에 지휘소를 차리고 있었다.

1951년 2월 12일 이른 아침 후퇴의 혼란 속에 국군으로 위장한 중공군 30여명이 네덜란드 대대본부를 급습, 대대장 M·P 에이텐 오우덴과 휘하 장병들이 전사하였다.

대대장은 전사하였지만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엄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원주 비행장으로 철수하였다.



네덜란드 지휘관의 작전모습(오른쪽 오우덴 중령) 부상병 후송(네덜란드 병사)

(자료출처: 잊혀진 비극 횡성전투, 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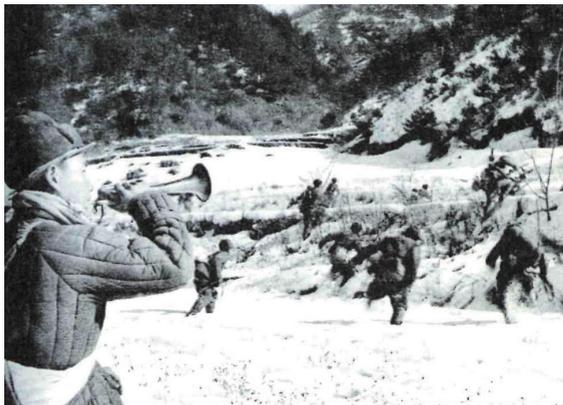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 엄호

2월 18일 미 7사단 제31연대가 투입되고 국군 제3군단이 북한군의 역습을 저지하고 반격작전을 개시한 결과 북한군 점령지역 대부분을 수복하였다. (관련 근거 : 6·25전쟁사 8권 P 290~P300,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중공군에 포위되어 후퇴를 시도하였으나 도로가 좁고 전차 등 차량이 얽혀 철수 중에도 많은 희생이 따랐다.

당시 주민 또는 목격자에 의하면 전투 직후, 미처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 부상자가 널려있어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리를 불며 공격하는 중공군



공군 초당교 부근에 뒤집혀진 미군 탱크

주민들이 전하는 횡성 전투의 참상

1·4후퇴 이후 횡성 지역에는 소개령이 내려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난을 떠나 당시 전투와 참상을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다. 있다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셨거나 너무 어려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참상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증언해 주신 분 중에 고락만, 고원재, 정두영, 정순택, 원준희, 박상호, 김월란, 박순남씨 등이 그 예이다.

고락만씨는 당시 11세로 부모님과 함께 원주 호저면 까지 피난 도중, 가는 곳 마다 적군이 있어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로 아예 공근면 초원리 고향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우리 마을은 격전지였다. 북치고 피리불고 몰려온 중공군 이 마을에 나타나 여자들을 모아 밥 짓기를 시켰던 일, 눈을 파고 사흘을 버티다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국군을 구출해 주었던 일, 학곡리 하일에서 목격한 수많은 미군전사자의 참혹한 모습 목격.

고원재씨는 당시 7세로 공근면 초원리에 살았으며 달래강을 건너 충주까지 피난가면서 어린 눈에 비쳐진 모습들은 처참했다.

고향집을 향해 전진하는 국군 뒤를 바짝 따라 오며 뒷내 개울을 건너 학곡리 거쳐 초원리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미처 수습되지 않은 수많은 전사자, 신음하는 중상자, 뒤엎힌 군용차량, 폐허가 된 고향마을 목격하였다.

정두영씨는 당시 서원국민학교 물안분교 6학년생 13세로 서원면 거슬치에 살았다. 거슬치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 청운면과 경계이다. 중공군은 서쪽 거슬치에서 동쪽 신촌 삼거리까지 약 33km에 이르는 곳으로 횡성을 공격 이 지역 모두가 격전지였으며 정두영씨 집은 중공군 연대본부가 차려졌었다.

중공군과 동거하면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국군을 구출해 준 일, 주둔했던 중공군과 국군에 대해 회고하였다.

정순택씨는 6·25전쟁을 17세 때 공근면 초원리 시택에서 겪었다. 남편 3형제는

전장에 나가고 시부모님과 충주까지 피난을 갔다.

공격하는 국군과 후퇴하는 중공군 사이에 끼어 고향 마을로 돌아오는 중 전투 직후라 미처 수습하지 못한 수많은 시신, 뒤엎힌 군용차량, 그 사이에서 신음하는 병사의 처참한 모습 목격.

집에 돌아왔는데 타버린 집 앞에는 8사단 19연대 본부가 있었다.

김월란씨는 13세 때 공근면 창봉리 하창봉에서 6·25전쟁을 겪었다. 공산군 치하에서 교육, 생활 모습,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국군, 전투경찰 구출, 장티푸스 전염병의 고통, 중공군의 식량 탈취와 굶주림의 고통, 폭격, 그리고 전투모습 등을 증언하였다.

원준희씨는 공근면 도곡리에서 6·25를 겪었으며 중공군 점령 하에 다섯발의 총을 맞은 국군 대위를 구출. 중공군에게 남편이라 속이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 살려냄. 그 분은 훗날 국방부 장관이 된 윤성민씨.

박상호씨는 황성읍 내지리에서 일곱 살 때 6·25를 맞았으며 여러 가지 참상을 목격하였다. 구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두 번씩이나 학살 당 할 뻔 한일, 자기 집에 경찰관 9명이 들어왔다 중공군 총격으로 전사 장면 목격, 피난가다 가족을 놓쳐 고아로 오인 미군 차에 실려 갈 뻔 한일 등.

한상균씨는 공근면 상동리에서 일곱 살 때 6·25를 겪었다. 인민군은 아버지를 체포하려 하고 이를 피해 산 속 굴속에 숨어 지내던 아버지의 모습, 인민군 치하에서의 교육, 수복 후의 학교 교육, 중공군, 인민군의 점령 하에서의 생활, 치열한 폭격 장면, 대피 등을 회고 하였다.

박순님씨는 6·25때 일곱 여덟 살로 초원 1리에서 전쟁을 겪었다. 인민군들이 뒷내 다리를 끊는 모습, 주둔하고 있는 중공군, 수많은 중공군과 아군의 전사자를 목격하였다.

도광태씨는 8사단 제21연대 제1대대 제2중대 소총수로 참전한 황성 전투를 증언하였다.

김원한씨는 8사단 의무중대 의무병으로 참전, 황성전투 부상병 치료, 후송 등을 증언하였다.

네덜란드대대의 지휘부가 있던 황성감리교회



이일영 장로 (전, 황성문화원장)

황성 전투는 1951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동부 전선의 황성 일대에서 국군 제3·제5·제8사단, 미군 제2사단·제7사단, 네덜란드 대대 등이 중공군 제39·제40·제42·제66군단, 북한군 제3·제5군단과 격전을 벌인 전투이다.

2월 11일 오후 5시 중공군의 2월 공세로 2월12일 하루 동안 국군 제8사단과 미군 제21지원부대가 포위되어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고 제5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미군 제7지원부대, 미군 제187공수연대 등도 뜻하지 않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하루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국군 9,844명, 미군과 유엔군 2,018명 등 모두 11,862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황성전투에서 네덜란드 대대는 국군과 미군이 후퇴할 수 있도록 엄호의 임무가 주어져 황성의 교량을 확보하고 끝까지 남아 철수하는 부대를 엄호하였다.

A·B 중대가 황성 뒷내 강에 진지편성을 완료한 네덜란드군은 1951년 2월 12일 중공군의 공격을 분산시킨지 얼마 후에 어둠이 깔리자, 대대는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51년 2월 12일 아침 9시부터 공격해 전진하던 아군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 한국군으로 위장한 중공군도 섞여 대열에 합류 30여명의 중공군은 네덜란드대

대 지휘소까지 접근 하였다. 대대지휘부가 있는 횡성감리교회로 다가오자 한국군 통역관이 눈치를 채고 대대장 오우텐에게 보고하였다. 오우텐 중령이 지휘소 병력을 뒤로 후퇴시키는 순간 수류탄이 그의 발아래 떨어져 터졌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그를 네 사람이 독 위로 끌어 올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 자리서 눈을 감았다.



횡성감리교회

대대장을 비롯하여 대대본부 요원들이 전사하였지만 부대대장 인솔 하에 새벽 1시까지 엄호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원주비행장으로 후퇴하였다.

전쟁은 끝났으나 교회 건물은 불에 타 없어져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제2사단 공병대의 협조를 얻어 예배당 건축을 서두르게 되었다.

공사는 미군 공병대가 맡았다. 예배당이 완공되었을 때 공사를 지휘하던 미군 군목(미군 제629 의무중대 중군목사 어프레이 스미드)이 예배당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예배당 앞에 붙일 글을 써 왔다.

이 글은 영어와 옛 철자법으로 쓴 한글로 예배당 이름과 함께 성구 그리고 ‘1951년 2월 12일~15일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한국전에서 전몰한 국제연합 화란군의 사령관 외 병사들 기념’ 이라고 쓰여 있으며 지금은 목양관 2층 벽에 부착되어 있다.



황성감리교회

황성읍 읍하리 3·1공원내에 있는 이 비는 6·25동란시에 평화의 십자군으로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12일 13일 황성전투에서 전몰한 네덜란드 부대장 마리누스·P·에이텐 오우텐 중령과 그 휘하 장병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6년 10월 12일 당시 제1군 사령관이 황성읍 시가지가 굽어 보이는 곳에 세운 높이 4M 암석으로 된 충혼탑이다.

비 문

단기 4284년 2월 12일 13일 황성지구전투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과감히 싸우다가 애석하게 전몰한 주한 네덜란드부대장 마리누스·피·에이텐·오우텐중령 이하 네덜란드 장병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현충비를 건립함.

1956. 10. 12

제1군사령관 육군대장 백선엽 세움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한국동란 참전국가에 대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건립한 네덜란드 참전기념비는 우천면 우항리 영동고속도로 새말 인터체인지에 소재한 횡성군의전적지 명소중의 하나이다.

이 비는 전국에 산재한 참전 16개 국가의 기념비 중 하나로 1975년 3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 국방부가 건립 제막하여 1975년 10월 29일 횡성군에 이관 횡성군이 관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거대한 풍차모양을 하고 있는 비를 이 곳에 세운 것은 네덜란드군이 횡성을 중심으로 가장 격렬하게 활약하였고 또한 횡성전투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룬바 있어서 그 의미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며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이 참배하고 네덜란드 관광객이 필히 참배하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 문

충성과 용기로서 신조로 삼는 “오렌지공”의 후예들 붉은 침략자와 싸우다가 피를 흘린 768명의 고귀한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

참전 역사

네덜란드 군은 1950년 정의 십자군으로 파한되어 용전 분투하다가 육군은 1954년 10월 18일, 해군은 1955년 1월 24일 각각 본국으로 개선한 군대이다.

여기 여러 유우엔 회원국 국민에게 그 뜻을 전하고자 그들이 남긴 찬란한 전력과 지휘관의 이름을 새긴다.

풍수원 성당



풍수원 성당의 마리아상

풍수원 성당은 서원면 유현리1097 번지에 위치해 있는 성당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건축된 강원도 유형지방문화재 69호로 지정되어 있는 유서 깊은 성당이다. 성당 안 전면 오른쪽 벽면에는 특별히, 한 마리아상이 모셔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인 병사가 이 성당에 엎드려 ‘제발 살아서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기도를 했는데, 그 병사는 안전하게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병사는 귀국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상을 보내 주었고 성당에서는 이곳에 지금까지 보존하여 전시하게 되었다.

108연대 2대대 유해발굴 자료

1) 발굴지역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덕갈고개 무명 530고지 (CG 96156 55189)

가) 기간 : 2017. 6. 5(월) ~ 6. 23(금)

나) 내용 : 발굴지역은 전사연구를 통해 유현리 덕갈고개 무명 530고지에서 전면 발굴을 실시하였으며, 유해 14구와 유품 292점 (M1 및 모시나칸트 탄류, 스냅단추 등)이 식별됨.



사단장 현장방문



노출 중

다) 발굴지역요도 : 유현리 덕갈고개 무명 530고지



[범례] ● '17년발굴지역 ● 발굴완료지역

2) 발굴지역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소구니봉 (DG 06133 57188)

가) 기 간 : 2018. 7. 2.(월) ~ 2018. 7. 26.(목)

나) 내 용 : 발굴지역은 전사연구를 통해 도곡리 소구니봉에서 전면발굴을 실시 하였으며, 유해 2구와 유품 1,084점(단추 및 M1 탄류 등)이 식별됨.



연대장 현장방문



임시봉안식

다) 발굴지역요도 : 도곡리 소구니봉



[범례] ● '18년 발굴지역 ● 호발굴 완료지역

3) 발굴지역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덕갈고개 (CG 96594 54917)

가) 기 간 : 2019. 3. 18.(월)~2019. 4. 26.(금)

나) 내 용 : 발굴지역은 전사연구를 통해 서원면 덕갈고개에서 전면발굴을 실시 하였으며, 유해 18구와 유품 1,106점(M1 탄류 등)이 식별됨.



20사단장 현장 방문



DPAA 현장 방문 및 감식

다) 발굴지역 요도 : 덕갈고개 일대



[범 레] ● 19년 발굴지역 ● 유해 식별지점

4) 발굴지역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무명 434고지 (DG 20127 47873)

가) 기 간 : 2019. 9. 23.(월)~2019. 11. 1.(금)

나) 내 용 : 발굴지역은 전사연구를 통해 무명 434고지에서 전면발굴을 실시하였으며 유해 13구와 유품 1725점(M1탄류, 전투화류 등)이 식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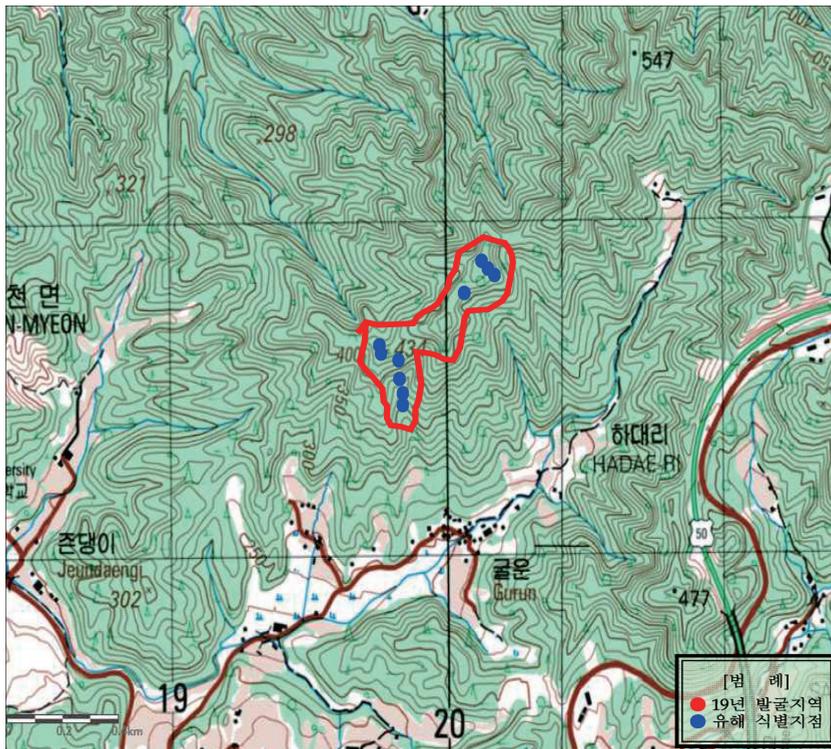


36사단장 현장방문



대안학교 현장방문

다) 발굴지역 요도 :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무명 434고지



[범 레] ●19년 발굴지역 ●유해 식별지점



내가 겪은 5장 6.25 전쟁 이야기

- ◆ 고락웅, 고병숙, 김철수,
박순남, 변석조, 심상철,
엄주한, 이기환, 이영구,
정영대, 최정옥

여섯 살 때의 기억 6·25 피난길



고 락 응

언제인가 외신기자에 의한 6·25전쟁의 피난행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남자어른은 무거운 이불보따리 위에 어린 아이를 엮어 지게에 지고, 혹은 소 등에 짐을 싣고.

여자 어른은 머리에 이고, 들고, 등에는 아기를 업거나 가로 안고 걸어가는 지친 모습.

울지도 못하고 대 여섯 살 아이가 정처 없는 먼 길, 어른 뒤를 따라 걷는 허기진 모습, 천리 길이 힘들어 기차 지붕에 매달려 가는 피난민 군상 등 등.

70년 전인 여섯 살 때 나도 이 영상속의 주인공과 같이 겹쳐진다. 새삼스럽게 나의 어린 시절을 어렴풋이 돌이켜보는 이유는 첫째, 국력이 약하면 힘없는 어린아이까지 무한대의 시련에 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절대적인 부모님 보호 속에 밥투정, 어리광만 피울 천진난만한 여섯 살 귀염둥이 아이, 삶의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그 아이도 수백리길, 천리 길을 밤 낮 없이 걸어야 했다. 그 길은 역경의 길이였다. 노숙, 굶주림, 가냘픈 어깨에 짊어진 식사도구, 병마(홍역)와의 싸움. 살려고 가는 피난길에 죽어간 어린 생명이 얼마나 많았던가!

둘째, 당시 내 또래의 지금 어린이들, 전후 세대들이 그 때 내가 겪었던 극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의지를 다진다면 앞에 닥친 소소한 난관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함이다.

나는 여섯 살 때인 1950년 3월 초 부모님 손을 잡고 횡성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3개월 후 6·25전쟁이 일어나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전쟁이란 뜻도 모른 채 부모님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정처 없이 정든 집을 떠나야 했다.

개전리에 살고 계시는 첫째, 둘째 형님, 형수 조카가 와서 합류, 어머니는 새로 태어난 막내 동생을 가로 안고 가장인 아버지를 선두로 가족들이 무작정 미지의 안전지

대를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이었다.

나는 9남1녀 중 여덟째이며 형수 두 명과 조카가 하나 있었으니 대 가족이었다.

학도병으로 나아간 셋째 형님을 제외하고 대가족이 부모님을 비롯 첫째 형님과 둘째형님 내외분 모두 열 네 명의 대식구가 피난길을 떠났는데 소 한 마리에 먹을 쌀과 간단한 가재도구를 싣고 밤낮 없이 남으로 남으로 걸어야만했다.

떠난지 이틀 되던 날 밤 배고픔을 달래려고 개전리 형수님께서 엿을 고아왔는데 그 엿을 한 조각씩 나누어 먹었다. 집 떠난지 며칠 안 되었는데 양식을 아끼려 하루 두 끼만 먹으면서 걸었다.

그러던 중 데리고 갔던 소는 먹이 구하기가 힘들어 소를 매각 처분, 소가 싣고 가던 짐을 식구들이 나누어 짊어지고 가는데 10남매 중 유일한 세 살짜리 여동생은 아버지께서 이부자리를 짊어지고 짐 위에 앉아 가게 되어 매우 고달픈 피난길이었다.

나는 여섯 살이지만 식구들이 식사를 하는 그릇을 짊어지고 떠났는데 처음에는 곧잘 걸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짐이 무거워져 걸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참고 걸어야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제천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때 하필이면 내가 홍역에 걸리고 말았다.

열이 나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몹시 아팠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역에서 남쪽으로 더 가기 위하여 기차에 오르게 되었다.

기차 지붕 위에 떨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탔는데 떠나기 직전 나의 병세가 악화, 부모님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판단 기차 지붕 위에서 내려와 어는 민가에 들어갔다.

이미 방에는 주인 식구와 그 친척들이 차지하고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집 디딜방앗간에 간신히 눈비만 피하여 집과 북대기를 깔고 하룻밤 지내도록 하였다.

이튿날 아침 남으로 남으로 걸음을 옮길 때 바위 뒤에 웬 하얀 쌀이 두되 가랑 있어 그 쌀이 아깝다고, 그러지 않아도 아프고 지친 나에게 엎어주었다.

홍역에 걸려 아픈 나는 정말 눈물 밖에 안 나왔다. 한참을 가다 나는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일어나지 못했다. 그 때 아버지가 쌀을 형에게 엎어 주어 다시 일어나 걸었다. 먹고 살아야 하는게 무엇인지 쌀 두 되박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낮에는 끝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길을 걸어야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때 해가 누엣누엣 넘어 갈 때쯤 취입보위의 징검다리를 건너갔을 때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서 건넌 것이 기적 같았다. 짐이 무거워 평지에서도 무척 힘들었으니 여기서 밭이라도 헐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며칠 몇 밤을 새우며 걸어서 상주에 도착 여정을 풀게 되었는데 개전리 두 형님과 형수님 조카가 중간에 헤어져서 상주까지 못 온 것 같다.

아마 두 형수님께서 만식이 되어 출산을 위해 중간에 헤어진 것 같다. 그러던 중 큰 형수와 작은 형수가 득남, 식구가 두 명이 더 늘어났다.

피난 생활 몇 개월째 먹을거리가 없어 일부 가지고 갔던 귀중품을 하나 둘씩 팔아 쌀과 보리쌀을 사서 끼니를 때우는데 너무 배가고파 두부 하는 집에서 콩비지를 사 보리밥에 반반씩 섞어 끼니를 해결하였다.

어느 날은 형님들이 남의 집에 가서 사정, 감 껍데기를 얻어다 배를 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감 껍데기를 말려서 먹었는데 달면서도 뚱어 먹기 어려웠지만 배고픈데 이것도 감지덕지였다.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피난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몇 달이 걸려 황성 집에 왔는데 인민군과 중공군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녔다.

어려운 피난살이를 하고 돌아 온 30대 후반의 큰 형님은 밤중에 속옷차림으로 인민군에 끌려갔다. 개전리 이장을 했다는 이유로.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종무소식. 학살되었을 것이 뻔하다.

우리는 마산리에 방을 얻어 지내면서 황성 원집에는 밤에만 잠깐 다녀오곤 하였다. 어느 날 폭격을 한다하여 송전리 근방 산 속에 숨어 황성 시내 폭격 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안타까워했다. 아마 우굴 대던 적군을 격퇴하기위한 폭격이었나 보다. 그 다음날 황성 시내는 완전히 재 바다가 되어 흔적조차 없었다. 며칠 후에는 마산리 피난한 집도 인민군들이 집에 불을 질러 놓고 먹을 것을 약탈해갔다.

전쟁이 끝나고 황성초등학교 1학년에 다시 입학 공부를 하는데 학교건물, 책걸상 모든 것이 불에 타 공부할 곳이 없었다.

북천리 용바위 위쪽 오리나무 숲에서 시냇가 둥글고 납작한 돌을 책상삼아 나무 그늘에서 공부를 한 것이 엇그제 같이 생각이 난다.

어쩌면 어린 생명부지도 어려웠던 고난의 피난길, 설상가상 홍역, 굶주림, 노숙, 그리고 세월이 흘러 60년대 중반 월남에 파병되어 위기를 넘기며 위험했던 순간들이 역사 속으로 묻혔다.

그러나 지난 세월 내가 겪었던 극한 상황 극복이 거친 세상을 헤쳐 나가는데 저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병숙의 6·25 참전 증언



고 병 숙

나는 황성 우천면 하궁리 황고개 아래 마을에서 1935년 3월 22일 출생하여 일제강점기 갑천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학교 다니는 것을 중단 하였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북분단이 된 상태에서 1950년 6·25전쟁 터져 농사일을 중단하고 쌀 한 말을 짊어지고 친척 등 또래 일꾼 명과 무작정 피난을 떠났다.

빈 집에서 때로는 담배 건조실, 헛간 등에서 잠을 자고 굶주리면서 뽕뽕 언 달래강을 건너 충북 괴산까지 갔다. 괴산에서 고생고생 피난살이를 하다 고향 수복 소식을 듣고 고향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돌아오던 중 1951년 2월 네 사람은 고향으로 가고 세 사람이 떨어져 원주 단구동에 주둔한 미군부대에서 심부름(하우스보이) 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치악산 밑 지금의 반곡역 부근에서 세 사람이 건빵을 등에 지고 치악산을 넘어 황성 강림 월현리까지 군인들에게 건빵을 인계해 주고 다시 원주로 왔는데 노무대의 역할을 한 것이다.

어린나이 16살에 결혼을 한 몸으로 3사단 18연대 2대대 8중대에 소속되어 당번병을 하게 되었다.

1951년 2월 15일경 원주에서 평창, 진부를 거쳐, 월정사 쪽으로 이동계곡 하천 주변에서 며칠을 보낸 다음 다시 흥천 내면을 통과 인제 현리까지 이동했다.

현리에서 아군 3군단이 중공군에 포위되어 그 때 연대장이 무선 교신 중 적의 총격으로 전사하였다.

1952년 4월 경에 18연대 병력은 후퇴하려고 아군의 자동차, 각종 보급품을 현지에 집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군 비행기가 장비 등 군수물자를 폭파 모사용 불능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만 후퇴하였다.

그 때 산악 전투 중 유탄이 철모에 맞아 철모가 돌아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진부로 후퇴 대관령을 넘어 강릉 외곽으로 이동 다시 주문진, 양양으로 이동 예비연대로 대기 중 1953년 중대장이 귀가증을 써 주어서 군용 트럭을 타고 고향 횡성으로 돌아왔다. 돌아보니 군번 없는 노무자 신분이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1951년 2월 3일 전쟁 중에 하궁리에서 총탄을 맞아 돌아가셨다.

6·25 전쟁 중에 최전선에서 죽을 고비도 수 없이 넘겼지만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5월에 영장이 나와 군에 입대 군번 974994번으로 1군 사령부 직할 105mm박격포 부대에서 동부전선 양구, 서부전선 문산에서 복무하다 1958년 5월경에 하사로 전역하였다.

6·25전쟁을 치루고 또 군에 재 입대해서 제대 후 세월이 흘러 예비군 창설과 동시 소대장으로 봉사를 하였다.

6·25 참전 공훈을 인정 받기 위하여 백방 노력하였으나 이후 보증을 못 받아 공적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당신은 6·25를 아시나요?



김철수

꽁! 꽁! 꽁! 꽁!

1950년 6월 26일 저녁이다. 횡성 가담리 우리 집에서도 포 소리가 계속 들렸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다. 무슨 소리냐고 형들에게 물었다. 형님들 말씀은 전쟁이 났다는 것.

나는 그 당시 여덟 살로,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그저 형님들의 보호 속에서 살아왔다.

6월 27일 아침이었다. 밤사이 어떤 가족회의를 했는지 이미 형님들은 집을 떠나고 없었다. 11세 된 형과 19세 고등학생인 형만 있었다. 그런데 고등학생 형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빨간 완장 찬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환태 형(가명)을 앞내 개울(전천 교)로 끌고 갔다.

살려 달라 애원하는 어머니를 꼭 붙들고 나도 개울(전천)쪽으로 따라갔다.

이미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 오고, 모두 옷고름 내지 다른 천으로 눈을 가리고 일렬로 묶여 있었고, 인민군들이 따발총으로 앞에 있는 사람부터 무조건 쏘기 시작하였다.

나의 형 환태를 비롯하여 모두 총에 맞고 쓰러졌다. 그 다음 인민군들이 하나씩 발로 차보고 황급히 달아났다.

맨 앞에 섰던 윤상씨라는 분은 어깨와 겨드랑사이로 많은 총알이 구멍을 뚫고 나가 피가 난자하였고 뒤에 섰던 많은 사람들도 처참하게 죽었다.

어머니가 앞으로 달려가 생사를 확인할 즈음 인민군이 갔다는 소리를 듣고 환태 형이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다. 이것이 바로 기적, 천운이며 구사일생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환태형은 살아났다.

형은 간단한 짐을 꾸려 살려면 도망쳐야 한다며 원주 쪽으로 달려 나갔다. 남은 가족에게도 피난을 권유, 눈물로 하직 인사를 하고.

1950년 6월 27일 포 소리, 총 소리가 가까워져 동네 구장(리장)이 앞장서서 피난을 가자고 서둘렀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 형수, 형, 나, 조카2명(3세, 5세)모두 6명이 구장을 따라 원주 역전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원주로 가면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지런히 걸어서 가담리 사람 35명가량이 오후 늦게 원주 역에 도착하였다.

기차는 화물칸 두 대가 서 있고 기관차는 없었다. 밤에 이 화물 열차도 끌고 간다는 소문이 번지자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화물칸에 경쟁적으로 올라타 자리를 잡고 기다렸으나 기관차는 오지 않았다.

기차위에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 모두 내려와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할 때 기적을 울리며 서울 쪽에서 기관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화물칸에 죽을힘을 다해 올라탔다.

그러자 역무원이 그 화물칸은 안 끌고 가니 기관차 뒤에 있는 화물칸에 오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내려 기관차가 달고 온 화물칸에 옮겨 탔다.

그런데 화물칸에는 통나무를 비롯한 여러 화물들이 실려 있어 공간 부족으로 통나무 사이나 또 다른 화물 위로 자리를 잡아 그 많은 사람들이 개미들 같이 화물차에 붙어 있었다.

그 때는 석탄을 태워 증기로 움직이는 화통이라는 기관차였다. 기차는 기적을 울리더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원주와 제천 간에는 지대 높이의 차가 많아 '파리굴'이라는 땅속 굴속에서 한 바퀴를 돌아 높은 지대를 오르는 구간이 있었다.

그런데 터널에서 기차가 멈추어 한 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않았다. 빨갱이들이 화물차를 점령하여 기차가 안 간다는 소리가 번지자 모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식구를 노치면 이산가족이 된다. 칠흑 같은 암흑의 굴속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차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 나오니 그곳이 신림이었다.

날이 저물어 구장이 동네 빈 집을 찾아 분배하다 보니 우리 마을 사람들은 빈집 두 채를 배정 받아 방, 마루, 부엌, 외양간, 창고 등에서 35명 가량 사람들이 잠을 잤다.

이튿날 6월 28일 경 포 소리와 총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니 그곳을 서둘러 떠나야 했다. 이제는 기억조차 아물거리지만 체천을 몇 km 앞두고 논둑길로 걷고 있는데 긴 피난민의 행렬에 썩썩이(전투 비행기)가 무조건 폭격을 가하고 기관총을 쏘아댔다. 피난민으로 가장한 적군으로 의심한가 보다.

부질없는 짓이지만 살고자 본능적으로 벼를 심은 논에 얼굴을 쳐 박고 었드렸다. 그렇게 폭격을 몇 번 반복하고 비행기가 사라졌다.

앞쪽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희생을 당하였다. 억울하게 죽은 많은 시신을 뒤로하고 희생당한 가족을 제외하고 피난민들이 뛰다시피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제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구장만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날이 저물면 또 빈 집을 얻어 그저 밤이슬만 피했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벼룩, 빈대, 이 등 각종 해충들이 우글거리고 가려워 긁어대니 상처가 나고 피와 고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땅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다. 어머니는 세 살 조카, 형수는 다섯 살 조카를 업고 열한 살 형은 이부자리를 하나 졌으니 나는 누구에게도 업힐 수도 없었다.

11세 형이 이불보따리에 나를 얹히고 몇 분가다 힘들어 견지 못하고 울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붙들고 계속 달래며 남쪽을 향해 걸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강이 있었고 정자각이 있던 것으로 보아 단양까지 걸어 내려온 곳 같았다.

가지고 온 식량이 바닥나 빈 집에 식구들을 머물게 하고 형수는 바가지를 들고 동네를 돌면서 밥 동냥을 하였다.

피난민들이 너무 많으니 그저 한집에서 한 숟가락 정도의 밥을 주니, 많은 집을 다니다 보면 만나절이 다 간다.

그렇게 30리 길을 걸어 동냥밥을 얻어오면 그것을 큰 냄비에 끓여 멸건 죽을 만들어 식구들이 허기진 배를 채웠다.

이러한 고생을 반복하면서 정처 없이 남쪽을 향해 가다 보니 시간이 흘러 12월 엄

동설한이 되었으며 도달한곳이 지금 생각하면 안동인 것 같다.

멋진 기와집이 많은데 방안에는 먼저 온 피난민들이 차지하고 우리는 넓은 마루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창고에 있는 명석을 꺼내 사방을 가리고 그래도 찬바람을 막으면 덜 추울 것이라 생각 쥘, 가마니 등을 주서다 사방을 가리고 그곳에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되었다.

더 이상 갈 곳도 모르고 갈 힘도 없었다. 추웠지만 안동은 서원들이 많아 잘 곳은 있었다. 그러나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밥 얻어먹는 것이 어렵다보니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굶어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더 이상 데려갈 수 없어 바위 밑에 이불로 싸서 버리고 간 아기들, 불쌍한 광경을 너무 많이 목격 전쟁이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있다.

1951년 겨울 인민군이 패망하여 도망간다는 소문이번지기 시작하니 피난민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얻어먹으며 고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1·4 후퇴 후 국군의 대 반격전이 전개되던 시기인 것 같다. 우리 동네 구장도 지리를 잘 모르니 많은 사람에게 물어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는 길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그 가르쳐준 사람도 지리를 잘 몰랐는지 안동에서 문경을 거쳐 위로 올라가면 횡성을 빨리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어 구장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문경으로 돌기 시작하였다.

그해 겨울은 왜 그렇게도 추운지 정말 얼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멀리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며칠을 걸어 문경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물으니 횡성 가려면 잘못 왔다는 것이다. 돌아갈 수도 없어 하느님께 기도하며 묻고 물어 문경새재를 넘어 충주에 도착하였다. 모든 집들은 폭격을 맞아 부서져 타고 길거리에는 미군 차만 왔다 갔다 하며 정말 모든 곳이 아비귀환이었다.

어딘지는 모르나 밥 동냥을 가면 먹을 만큼 주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집으로 오는 동안 죽은 사람, 고아, 부상자들의 아비귀환 세상을 보면서 1952년 봄 횡성 가담리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피난 갈 때 뒷밭에 묻었던 식량을 캐러가니 누가 벌써 모두 가져 가버렸다. 밭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고 논에는 방개이불이라는 풀이 있는데 밭을 파면 뿌리가 마치 콩처럼 생겨 흙에 묻혀있다.

그것을 삶으로 캐내어 물에 씻어 삶아 죽처럼 먹었다. 그리고 마른 옥수수대 껍질을 벗겨 속을 씹어 단물을 빨아 먹고 허기를 면하였다. 정말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삶이다.

그런데 어느 날 1950년 고등학생이었던 환태형(가명)이 1951년 1월 5일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서와 유골이 집에 배달되었다.

그 형은 앞내(전천)에서 인민군에 의한 학살 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분이였다. 어머니는 그 유골을 끌어안고 며칠을 통곡하였다. 돌아가실 때까지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군청에서 주관하는 현충일 행사에 늘 참석하시며 통곡하셨다.

6.25때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형, 전사한 형 등 나는 많은 가족을 잃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킨 북한공산당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지금도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 일부 젊은이들은 남한이 북침했다는 등 엉뚱한 주장을 믿고 있으니 정말 가슴 답답한 노릇이다. 정말 이들에게 꿈에서라도 그 참혹했던 전쟁을 경험해 주고 싶은 심정이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교훈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하다.

6·25 때 겨우 아홉 살이었던 나도 79세가 되었으니 참전용사들은 90을 넘어 이마 돌아가셨거나 살날이 얼마 안 남으셨고 70년이 흐르면서 6·25전쟁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가도 참혹했던 6·25전쟁을 기억,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박순남 소녀의 6·25이야기

소녀와 6·25



시인 박 순 남

나는 당시 평창군 대화면 시골 중학교 일학년. 공기맑은 시골 새벽 초가집 방을 밝혀주는 등잔을 새하얀 형짚으로 닦아주며 기도했다.

밝은 불빛이 내 영혼 되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꿈을 이루어다오. 등잔불 큰불 되어 이 나라를 밝혀다오. 새벽에 들려오는 쿵! 쿵! 소리, 공포에 떨며.

아침 일찍 등교. 종소리 울려 운동장에 집합하니 쿵! 쿵! 소리는 북한공산군이 쳐 내려오는 대포 소리니 빨리 집으로 가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었다.

피난길

우리 가족도 서둘러 피난을 갔다. 밤 되어 빈집 조그만 방 하나에 이십여 명이 무릎이 포개진 채 콩나물시루같이 앉아 하룻밤을 지새우고 험한 길을 또 걸었다.

피난민은 뒤엉켜 앞서거니 뒤서거니 피난길을 메웠다. 충북제천을 지나 날이 어두워져 빈 집에 들어가 밤을 새우는데 우리가 묵고 있는 집으로 인민군들이 들어왔다. 인민군대장이 어머니보고 쌀이 있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우리도 피난 와서 모르겠다' 하니 '모조리 뒤져 쌀을 찾아라' 하였다. 그런데 피난 간 빈집에는 쌀이 많았다. 인민군은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고 난 뒤 마당이고 방이고 누워 잠을 잤다. 우리는 무서워 벌벌 떨고 동이 트자 산을 넘어 이제는 갈 곳이 없으니 고향으로 다시 가는데 인민군이 안개 낀 산중턱에 서서 총을 들이댔다.

우리는 놀라, 피난민인데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니 보내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도 집에는 못 들어가고 시골 산골에 가 있었다. 하루는 시

내에 인민군이 있는지 국군이 돌아왔는지 궁금하다고 어른들이 이야기 하였다. 고등학교 이학년 오빠와 나는 가보고 오겠다고 하고 산을 넘어가는데 폭탄이 여기 저기 떨어져 구덩이가 파였다. 무서워 오빠와 손을 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조용해져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국군이 우리를 불렀다. '너희들 어디서 왔니?' '예 우리는 저산너머 피난 와 있는데 인민군이 있는지 국군이 있는지 알려고 왔어요.' 너희들이 명이 길다.' '지금 너희들이 넘어오는 길이 포사격장이다.' 거기서 살아왔으니 명이 길다 하였다.

너는 우리를 따라가서 무엇이랴도 도와달라며 오빠는 부대로 데려가고 나만 혼자 돌아왔다.

집에 와서 며칠 지나니 미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주둔하고 국군도 있었다.

밤이 되면 미군들이 가정집을 찾아다니며 여자를 찾았다. 어디 누가 미군에게 당했다며 공포 속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시골로 다시 갔다. 어린 것이 키는 왜 이렇게 커서 고생한다 하시며. 동네사람들이 지금 쇠로된 소주병만한 것을 주워가지고 와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썼다.

어디서 주워왔냐고 하니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에서 주웠단다. 병처럼 생긴 꼭 대기에 스위치가 있었다. 이것을 건드리니 무엇인지 모르는 물체가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집어던지고 언덕 밑에 뛰어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 그 액체가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다행이 쾡하고 폭발하는 게 아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것은 야전용 모기약이었다.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끝나고 정선 외할아버지 댁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외기는 경찰관 가족으로 멀리 피난가지 않으면 인민군에게 죽는다고 먼 남쪽으로 피난 가셨다 돌아오니 동네 청년들 열 두 명이 인민군 손에 죽었다한다.

작은 동네에는 곡식과 담배 농사지은 것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

청년들을 잡아다 노끈으로 손을 묶고 창고에 한 줄로 세워 놓았다.

칼을 든 인민군이 하나하나 세워놓고 칼로 몇 번을 찔러도 죽지 않으니 한사람 죽이는데 열 번 이상 찔러 바닥이 피가 고여 발이 빠졌다고 한다.

8촌 동생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힘이 센 장사였다고 한다. 그는 이래죽으나 칼에 찔려 죽으나 마찬가지로 하며 손목에 힘을 주어 노끈을 끊고 뛰쳐나가며 인민군 가슴을 돌려차기로 제압, 어두컴컴한 밤 산으로 치달아 굴에 들어가 목숨을 건졌다고 하였다. 그 후 그 마을은 열 두 집이 한 날 제삿날이라 하였다.

평화의 길을 염원하며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 피난길은 인생에서 다시 걷지 말아야 할 길, 걷고 싶지 않은 길이였다. 일제 강점기와 6·25를 겪고 살아온 우리 노인세대! 자식에게 이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될 일, 힘을 키워 후세들이 이길 걷지 않고 평화의 길이 이루어지기를, 6·25 때 소녀가 어느새 팔십 노파 되어 간절히 기도한다.

내가 겪은 6·25 피난기



변석조

영구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려는 일본이 일으킨 세계 제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세가 굳어지던 1945년을 전후해 연합국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래 전략을 짜하면서 별별 수를 다 쓰기 시작했다.

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의 분할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우리나라, 우리민족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던 남·북 분단의 문제가 바로 그들에 의해 대두되었다. 구소련 영토였던 흑해 연안의 알타에서 미·영·소 대표가 만나는 회담에 우리나라의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 분단과 신탁통치가 의제로 거론된 후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군정이 시작되면서 노골적으로 이념화 된 분단의 아픈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분단되면서 어지러웠던 남과 북은 각각 정치 이념의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화 되어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였고 1950년 6월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합의,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6월 25일 04시 「폭풍」이라는 암호가 발령되면서 38도선 전역에서 불법 남침이 발발한 것이 한국전쟁인 6·25동란이었다.

우리 집은 황성읍 개전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정으로 당시 누나는 초등학교 5학년, 나는 3학년인 10세의 어린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6월26일 월요일 평소처럼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북한군이 불법 남침하여 전쟁이 일어났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고 하셨다.

집에 돌아오니 소문을 들으신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걱정 근심으로 안절부절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도 없이 걱정만 하시더니 흥천이 곧 점령당할 것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원주 소초 교항리 밤나무정의 진외가 댁으로 피란을 가자고 하셨다.

간단한 짐을 꾸려 망백을 지나 진외가 댁으로 가는 것이 피난의 시작이었다.

진외가 댁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식량도 그렇고 아무래도 집으로 가야 하겠다고 하셔서 다시 집으로 오니 이미 인민군의 세상이 되었고 온 동네 어르신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윗마을 사람 중 북쪽 이념에 가까웠던 몇몇이 자기 세상을 만난 듯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눈에 거슬렸던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다.

힘든 지옥 같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해 9월15일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이어 9월26일부터 수도 탈환 전투가 시작된 사흘 후인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하면서 우리 고장에도 국군과 미군이 들어와 나름대로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앞잡이로 설치대던 윗마을 사람들 중 몇 사람은 북으로 따라갔고 일부는 곤혹을 치르고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은 강제로 끌려가는 등의 일들이 벌어졌다.

승승장구 맥아더 라인을 넘어 진격하던 국군과 유엔군이 장진호 또는 압록강 가까운 전선에서 30만을 시작으로 100만의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쳐들어와 1951년 1월 4일 우리 국군이 다시 서울을 철수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1·4후퇴」이다.

그해 1월 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장독대를 치우고 구덩이를 파시더니 큰 항아리들을 문으시고 쌀을 가득채운 후 다시 장독대를 놓으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난 보따리를 무겁게 지고이고, 나에게도 등에 쌀을 얹어 주시며 피난을 가자고 하셨다.

오늘은 원주 흥업 매지리 분지울의 친척집까지 가야 한다고 하셨다, 친척집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참 힘들었다. 늦은 저녁을 먹고 내일 일찍 떠난다고 하셨다.

그 이튿날 귀래를 지나 충주 달래강변 마을 빈집에서 쉬면서 아침 일찍 달래강을 건너기로 하고 잠을 이뤘다.

아침에 길을 떠나는데 아버지 말씀이 어제 저녁 마을의 어떤 사람의 얘기인데 “어제 짐을 많이 실은 소가 강을 건너다가 빠졌다” 고하셨다. 남쪽으로 갈려면 꼭 달래강을 건너야 했다. 달래강은 얼어붙었으며 자칫 얼음이 깨지면 얼음 밑 달래강에 수

장되는 것이다. 잔뜩 겁을 먹고 얼음 위로 달래강을 건너는데 소가 빠졌던 곳인지 도로 등글게 위험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서 맘 졸이며 강을 건넜다.

충주 능골의 빈집을 찾아 쉬는데 모두 힘들어했다. 지친 우리는 하루, 또 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나는 큰길 쪽으로 나갔다.

그곳에 진초록 국방색으로 예쁘게 칠한 목직한 것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놀 생각에 들고 만지작거리는데 어떤 어르신이 “애야, 그것은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란다.” 하시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셨다. “애야 이것은 폭탄이다. 터지면 큰일 난다.” 고 하셨다.

나는 무서워 겁에 질려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못하고 머물던 집으로 와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큰일 날 뻔 하였다.’ 하시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셨다. 그 어른이 아니었으면 “애 잃을 뻔했다.” 하시면서 하늘이 도왔다고 하셨다.

"며칠 새 북한군과 중공군이 들어왔단다. 이제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 고 하시면서 식량이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으니 차라리 고향으로 되돌아가야겠다고 하셨다.

이튿날 일찍 가벼워진 짐을 지고 오던 길로 돌아서 집으로 오는 중에 북한군과 중공군을 만날 때 마다 어디 가느냐고 했다. “고향 집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면 보내 줘서 1월20일쯤에 돌아왔다.

우리 마을엔 중공군이 주둔하여 있었고 밤과 아침에는 피리 소리도 자주 들리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들로 시끄러웠다.

그 해 2월3,4일에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횡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엄청난 육상과 공중 비행기 포사격을 하여 횡성 읍내는 잣더미로 폐허가 되고 북한군과 중공군은 패퇴하여 다시 국군이 탈환하였다. 어렵던 피난생활의 고통과 인민군에 점령당했을 때의 불안과 공포는 언제나 잊혀 지려나?

어설픈 일상이 시작되면서 숨겨 놓은 쌀도 꺼내고 농사일도 시작되고 4월 한참 지난 어느 날 학교에 나오라고 했다. 학교에 가보니 학교는 다 불에 타고 없었다.

학교에서는 누나를 영영포리 공회당, 나를 개전리 공회당에서 공부를 하라고 했다. 공회당에 출석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는 학교로 오라고해서 등교해보니 천막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부흥재건단의 지원으로 교실을 짓기 시작하더니 늦가을에는 새로 지어진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 그나마 참 좋았다.

이 시간도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곳곳 전선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을 무찌르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등 그야말로 자유수호통일을 위하여 사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1953년 6월이 되자 「휴전」이란 말이 나왔다.

「중전」이 아니라 「휴전」이란단. 말은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며. 결국 휴전협정 체결이 되어 총성·포성은 일단 멈추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예고되었다.

6·25가 발발한지 1129일 만인 1953년 7월 27일까지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은 인명, 재산 피해, 이산가족 등 참혹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물지 않고 미완으로 남아있다.

이데올로기 패권싸움과 북한의 적화야욕 결과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비참한 참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올해가 6.25 70주년의 해이다. 이제 참혹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세대는 7.80대 이상으로 노령화되어 생각과 기억조차 퇴색해 버렸다.

분단과 체제를 달리한 채로 70년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꼭 자유민주주의의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모두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노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심상철의 6.25 피난기



심 상 철

전세를 가다듬어 반격,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거듭하며 지역에서도 치열한 동절기 공방전이 벌어졌고 고난의 1·4 후퇴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내가 열 살 때 우리 마을도 적군이 곧 들어 온다는 소식에 피난민들이 우리 집 앞을 웅성대며 많이 지나갔다.

며칠 후 마을에는 노약자만 남았고 우리 가족도 부모님, 작은 누님과 같이 큰 누님이 사는 외딴 동네 봉우라는 마을로 피난을 갔다.

아래 마을 하궁리에서는 대포소리와 요란한 총격전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마을이 조용하기에 안흥면 소사리 아래 태오지에 있는 집에 와 보니 중공군과 인민군이 가득 차 있었다.

중공군들은 가마솥에 밥을 해서 식기가 부족한지 오줌바가지, 오줌통에 까지 밥을 떠 갖고 가느라 소란스러웠다. 이 삼 일 후에 하궁리 산(저고리 골)에서 대포소리와 총소리가 요란하더니 조용해졌다. 그것은 적군이 아군에 패하여 쫓겨 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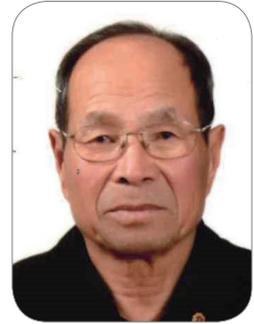
며칠이 지나서 미군들이 들어왔다. 지나가는 미군 한 명이 넘어져 부축을 해 주었더니 초콜렛, 과자, 껌을 주면서 땡 썬알라 썬알라 하였다. 그 때는 그렇게 들렸지만 지금생각해 보니 땡큐! 땡큐! 하는 소리였을 것이다.

며칠 후 국군이 들어왔으나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요란했다.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 잔당과 벌인 교전이였다. 그 때 총알에 맞을까 봐 얼마나 공포에 떨었던지 모른다.

70년이 지난 열 살 때의 일이지만 기억이 생생하다. 국력을 길러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해 본다.

엄주한의 6.25 이야기

(군번 9464922 상사로 1966.9.30. 전역)



엄 주 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했지만
사실 나는 전쟁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그때 나는 병석에 계신 아버님을 산중에서 모시고 있었기에.
식량이 떨어져 집을 내려가니 형님이
너 잘 왔다고 전쟁이 나서 빨리 피난을 가야 한다고 재촉하셨다.
그래서 쌀 두 말을 짊어지고 어머님과 조카를 집에 두고 형님과 같이 피난길에 올랐다. 수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청풍, 괴산을 거쳐 문경군 가은면 원북리 운상구씨댁에서 지난스런 피난살이를 했다.
그렇게 피난살이를 하는데 강원도 복구명령이 났다고 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순전히 걸어서 되돌아오는 길이기에 3일이 걸렸다.
집에 오니 아버님은 돌아가신 뒤 었다.

1953년 7월 14일

징집 영장을 받고 원주에 집결해 열차를 이용해 포항에 도착해 입대를 했다.
7월 17일 LST를 타고 제주에 도착해 8연대 배치 돼 훈련 중
장운갑 대위가 조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운수 대통이다 너희들은 드디어 휴전이 됐다”라고 말을 했다.
96일 동안 신병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양양의 27사단 96연대 1대대 2중대 2소대에 편입.

그해 12월 인제 원통으로 사단이 이동을 했다.

그후

금화 말고개, 포천 일동으로 홍천 북방으로 갔다가 화천 사방거리 100 검문소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그후

대구 2군 사령부 19 경비중대에 근무하던 중 월남전에 상사가 1명 부족 하다고 해 지원을 했는데 집사람이 울고불고 말리고 형님까지 말리는 통에 사단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철회를 해 주셨다.
군 생활 중 딸만 넷을 낳았고 제대해서 아들도 얻었다.

1966년 9월 30일

10여 년 군 생활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전역을 했다.

이기환의 6.25 피난기



이 기 환

나는 갑천면 매일리 절바위골 집 안 팍 채가 커다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집 옆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6·25 때 청방에 나갔다 돌아간 형과 80년 전 어릴 적 그 바위 위에 올라가 놀던 생각이 아련히 떠오른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 놓고 젊어서 세상을 떠 얼굴도 모른다. 술집색시와 지내다 집으로 데려오려는 것을 할아버지가 반대해 병이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와 고모에게서 들었다.

할아버지는 상심하시어 그곳 재산을 모두 처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안흥면 소사리로 이사를 오셨다고 한다.

해방이 되던 해 나의 나이는 10살. 초등학교 때부터 산에 가서 나무 해다 아궁이에 불 때며 별 걱정 없이 유년기를 보냈다.

일본의 압박 속에 시달리다 해방이 된 기쁨도 채 가시기전 5년 후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다.

나는 당시 15세로 할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와 안흥면 소사리에서 살고 있었다.

형은 청방대원으로 마을에서 보초서다 후퇴명령으로 작별의 인사도 없이 헤어지고 말았다. 안흥면에도 그 때 당시 청년조직인 청방대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공산군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청방대원은 모두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그 때 당시 가족은 할아버지, 형, 누님, 삼촌(행방불명이 됨) 이 살고 있었다.

아침햇살이 붉게 떠오를 때 할아버지는 며느리, 손자 불러놓고 피난가라고 하셨다.

나는 먹을 것을 챙겨 안흥 사람 몇 분과 살 곳을 찾아 피난길에 올랐다. 오두재를 넘어 영월 땅인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른들 가는대로 따라 가기만 하였다.

어느 마을을 지나며 하룻밤을 신세지고 이튿날도 남으로 남으로 정처 없이 가는데 인민군 세 명이 산에서 내려오며 총부리를 들이대고 ‘손들었!’ 하였다.

지혜를 발휘 위기를 넘기어 다시 걷는데 재봉대가리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 울며불며 엄마 찾는 아이 등 피난민행렬은 처절하였다.

피난민들은 먹을 것과 이부자리를 짊어지고 어린 아이 손을 잡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정처 없이 가다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리고, 잠 잘 곳이 없어 각지 광(소 먹이를 보관하는 헛간)에서 자며, 병에 걸려 죽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컸다.

흘린 밥풀 하나라도 주워 먹고 잠자리가 부족해 한 방에 콩나물 같이 앉아서 자며 말며 하룻밤을 지새우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강을 건너야 한다. 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하는데 마침 강가에 뱃사공이 있었다. 배를 태워 주고 한 사람당 10원씩 받았다. 지금 생각하니 그 곳이 달래강이었다.

겨울철에는 배 운항이 불가능하여 피난민이 무거운 짐을 이고지고 가족들과 얼음 위를 걸어 건너다 얼음이 깨져 슬픈 사연을 품고 있는 달래강!

충청도 괴산군 청천리면 도원리에 도착하여 잘 곳을 마련했다. 한 여름이라 논밭엔 곡식이 한창 자라 성스럽기까지 하였다.

6·25 이후 이곳에서 한 여름 피난생활을 하고 가을이 되어 고향을 향해 다시 먼 여정에 올랐다.

지나는 곳 마다 전투, 굶주림, 병으로 죽은 시체가 수 없이 흩어져 있었다. 집은 모두 불타 버리고, 참혹한 전쟁의 후유증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 평양까지 탈환하여 안심하고 1950년 가을 고향에 돌아와 보니 집은 폭격으로 다 타버렸고 가족은 온데간데없으며 전답은 묵어 쑥대밭이 되어 버렸다.

형과 같이 갔던 청년은 살아 돌아왔는데 나의 형만 돌아오지 못하고 타관 객지 땅에 묻혔다.

갈 때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갔는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는 슬프게도

형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었다.

살아 돌아 온 이웃 형이 어머니에게 석환이는 죽었다 말하자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였고 나도 슬픔이 복받쳐 따라 울었다.

열다섯 살 나는 가족을 다 잃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남아 살길을 찾으려 땀감을 마련하고 농사일에 열중하였다. 겨울에는 눈이 1미터 이상 쌓여 땀감 마련에 고생이 었다. 그러나 살려고 악착같이 노력했다..

낮에는 밭 갈고 씨 뿌려 열심히 일하며 밤에는 책 읽고.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다.

세월은 흘러 결혼하여 첫 딸을 낳고 20살에 영장이 나와 군에 입대하였다.

군 생활 중 아들을 낳았다고 아내한테서 편지가 왔다. 군복무를 마치고 1961년 봄 제대를 하였다.

나는 지금 아들 딸 7남매를 두었다. 잘 성장해 주었고, 잘 살고 있으니 고맙고 가문의 행운이다.

그러나 아들 3형제 중 자손을 둔 아들이 하나도 없어 아쉽고 요즈음 회자되는 인구 절벽이 실감난다.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면 감수해야 되겠지.

이영구의 6·25 피난생활 체험기

이 영 구

뒤 돌아 보고 싶지 않은 6·25참상.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던 동족상잔의 비극!
피와 눈물로 얼룩지게 만든 6·25당시 나는 열네 살 소녀였다.

원래 우리 가족은 황성 공근면 수백리에 살았는데 내가 다섯 살 때 원주 홍업면으로 이사를 와 살게 되었다. 이곳저곳에서 떠들썩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공산군이 남침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놀라 원주 홍업에 살고 있던 부모님, 작은 아버지 내외분, 나, 일곱 살짜리 동생, 둘 지난 동생을 비롯한 온 가족이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다.

남자들은 간단한 이부자리와 먹을 양식을 꾸러 등에 지고 그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여자들은 아기를 업고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남쪽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나 역시 네 살 된 동생을 등에 업고 확실한 목적지도 없이 문막을 지나 충주 쪽을 향해 피난대열에 끼니 이미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다.

때론 아이를 잃어버려 찾고, 부모를 잃어버려 울부짖는 아이들, 엄마 등에서 목숨을 잃는 갓난아이. 이로 인해 피난길은 무척 혼잡하였다. 그러면서 피난민 행렬에 밀려 닿은 곳이 달래강. 조급함과 무서운 마음이 가득한 채 간신히 얻어 탄 조각배에 몸을 싣고 강을 건너 충주 어느 마을에 도착, 작은 오막살이집에 들어가니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 함께 새우잠을 자게 되었다.

이 삼일이 지나고 모두 고향으로 간다는 말에 우리 가족도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를 넘긴 후 요란스런 총소리와 포탄소리가 들리며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방 안에

함께 있던 가족들은 공포에 떨며 벽 구석을 찾아 이리저리 붙어 앉아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조용해지자 우리 가족은 두 번째 피난길에 올라 문막에 도착, 잘 곳을 찾아 쉬려고 하는 순간 불쑥 공산군이 들이닥치며 외양간에 있는 소를 잡으라는 협박으로 공포에 떨며 어른들이 소를 잡아 주었다. 공산군은 배를 채웠는지 모두 사라지고 우리 가족도 피난길에 다시 올라 제천에 도착했다. 이 삼일을 묵고 또다시 고향집으로 오던 중 내 등에 업혀있던 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



아기 업은 피난민 소녀(국가기록원)



국군과 피난민 (국가기록원)

7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놀라고 끔찍한 일이었다. 내가 업고 있던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 팔 다리가 늘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저만치 앞서가는 어른들 따라 쫓아가기도 바쁘고 힘이 든지라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발길만 재촉 하였다.

뒤따라오시던 작은 어머니가 내가 업고 있던 동생이 이상하다는 말씀에 동생을 등위로 치켜 올리며 보니 몸이 뻣뻣이 굳어갔다. 작은 어머니는 애가 죽네! 죽네! 울면서 눈을 쓰다듬어 주셨다. 동생을 보고 기절초풍하며 소리를 지르니 돌 지난 동생을 업고 다리가 아파 뒤쳐져 오시던 어머니 그리고 앞서가던 가족들이 모두 한데 모였다. 당시 응급조치도 할 수 없었고 병원도 찾지 못하는 현실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개탄스러웠다.

사랑하는 귀여운 어린 동생을 잃고 말았다. 땅이 얼고 눈이 덮인 삭막한 겨울. 피 눈물을 흘리며 거적으로 뚝뚝 말아 눈 속에 파묻혔다.

엄마 등에 업혔던 돌 지난 동생은 피난생활을 접고 집에 돌아와서 또 저 세상으로 갔다. 어머니는 9남매를 나셨지만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자식을 땅에 묻어야 했다.

아버지는 피난길에 돌아오다 공산군에 노무자로 붙들려 황성 공근까지 갔다 화장실에 가는 척 기지를 발휘 탈출, 큰 아버지가 사시는 수백리로 피신, 화를 면하셨다.

그래도 나는 6·25 때 죽지 않고 21세 때 황성 우천면 하대리로 시집 와서 팔십이 넘도록 살고 있지만 가슴 아팠던 지난 일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남편 정금암의 6·25참전

남편 정금암은 65세에 세상을 떴지만 내가 피난생활을 하던 14세 때 이미 21세로 6·25 참전 용사였으며 공산군과 싸우던 무용담을 들려주곤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 정금암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큰형님 내외 밑에서 초등학교, 중학 시절을 보냈는데 형수님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학교생활을 잘 하게 되었으며 눈·비, 태풍 등 날씨가 궂으면 빠짐없이 학교로 마중 나와 우산을 받쳐주고 손을 잡아 주시고 1학년 때는 가끔 업고 등·하교를 해 주셨던 고마운 형수님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형수님의 심한 시집살이로 집안에 분란이 있곤 하였으며 이러한 가정사로 잠시 탈선을 하고 있을 때 큰형님으로부터 친척 되시는 한 분이 군장교로 복무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이를 수소문 친척집을 찾아 군 입대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가 적고 신장이 작은 관계로 입대 지원이 되지 않아 친척집 군 관사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몇 년을 지낸 어느 날 군에 정식 입대하여 통신병 병과를 받아 근무하던 얼마 후 6·25사변이 터졌다.

전쟁 준비가 되어있지 않던 우리 부대는 남으로 한없이 밀려가던 중 대구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시 북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에 북진 중, 철원지역 근처에 이름 없는 작은 산을 두

고 밤낮 없이 전투를 벌였으며 북한군이 후퇴를 하자 중대원은 방어진에서 진격 명령을 받고 돌격하였다.

무전기를 등에 지고 전화선 설치와 철거를 해야 하는 남편의 임무는 늘 다른 대원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통신 전선을 설치해야 하였기에 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힘이 들었다. 은혜와 매복을 하며 전력을 다해 진격을 하던 어느 날 앞섰던 부대원들이 압록강에 도착 물을 병에 담아 상부에 보고했다는 소식, 중공군이 대치하고 있어 더 이상 진격이 어렵다는 이야기, 미군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는다는 등 소문에 대한 말들이 오갔다.

소문이 현실이 되어 중공군이 개입, 부대가 다시 후퇴하던 중 북한군과 총격전이 벌어지던 그 때 우리 부대원은 수많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내고 있을 때 남편 역시 오른 팔과 뒷머리 쪽에 총탄에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다. 야전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게 된 남편은 전우들의 부축으로 병원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부상이 깊어 대구 소재 통합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 하에 제대하게 되었다

나는 서울 친척 집에 머물다 21세 때 7년 연상인 정금암씨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인 22세 때 언니가 살고 있는 황성군 우천면 하대리에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남편은 65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나는 피난생활의 고통 속에서 남편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선에서 참혹한 6·25전쟁을 겪었다.

내가 겪은 6.25 전쟁 이야기



정 영 대
(여. 1934년 생. 청일면)

그때 내 나이

열일곱.

꽃다운 나이였었다.

난

그 당시 7남매의 맏딸이었다(이후 6.25 이후 남 동생 셋 출생)

우리는

안매일 살고 있었다.

경찰 수비대로 전투를 하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홍석규 오빠네 바로 옆집으로 한 마당을 쓰고 있었다.

전쟁이 나자 면서기였던 아버지는 일찍 피난길에 오르셨고

남은 식구들만 집에 있다 1.4 후퇴 시 우리도 피난길에 올랐다.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머리에는 피난 보따리를 이고.

아직 열 살도 채 안 된 세 동생들 때문에 우리 피난 걸음은 느릴수 밖에 없었다.

중금리 지난 한치 고개에 이르자 그곳에는 이미 인민군과 중공군이 앞서 와 있었다.

할 수 없이 우리 식구들은 다시 발길을 돌려 안매일 집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집 비좁은 방에는 늘 인민군과 중공군이 들락거리며 잠을 자고 밥을 해 먹고 갔다.

매일리 그 치열한 전투.

50여 명이 전투에 나가면 나중에 살아 돌아오는 군인은 10명이 채 안 됐다,

동장자골, 신동골, 큰골에는 전투에서 죽은 시체들이 즐비했다.

하루는

많이 다친 국군(아마도 주한미군 소속으로 생각됨)이 우리집을 찾아 들었다.

전투에서 다친 온몸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인민군과 중공군 눈을 피해 근근덕신 그렇게 몸을 숨기고 있다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를 하고 이제 살았다며 진주한 우리 군에 합류했다.

이 은혜 꼭 잊지 않겠다며 살아서 꼭 돌아와 인사하러 온다는 말을 남긴채.

허나 전쟁이 끝나고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전쟁 중 전사한 것 같다.

어느 날

아침나절

미군 정찰기가 마을을 선회하며 정찰 비행을 다녀가더니 이내 전투기가 들이닥쳐 마을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우리 식구들은 너무 무서워 이불을 둘러쓴 채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그런데 난데없이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우리가 앉은 방 바로 뒤 봉당에 폭탄이 떨어졌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식구들은 30m 나 떨어진 신작로로 날아갔다.

그런데 살려고 그랬는지 우리 식구들은 찰과상만 조금씩 입었을 뿐 모두 멀쩡했다.

그때

놀라서 그랬던지

막내 둘(남동생, 여동생)이 그만 염병(장티프스)에 걸리고 말았다.

열이 40도씩 오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까무러쳤지만

그 당시 병원도, 약국도 없는 터라 그저 수건에 찬물을 적셔 아이들 몸에 대 주는 것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중에는 옥시기쌀 갈아 만든 미음죽도 채 받아먹지 못하고

두 동생은 그렇게 가고 말았다.

그 어린 것들을 건너편 산에 묻어주고 오는 우리 식구들은

그 통한의 슬픔에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다.

그렇게 3년 동안의 지옥 같은 전쟁은 끝이 났다.

최정옥 씨 6.25 이야기

최 정 옥

6.25

그 무서운 전쟁이 발발했다.

내가 살던 충청북도 단양군 금곡리 금곡국민학교가 미군에 의해 폭파되었다.

인민군이 숨어 들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때 내 나이 열 다섯.

하루도 쉴새 없이 대포소리가 들리고 피난길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둘 다 장티프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셔서 우리들만 피난길에 나섰다.

하늘에서는 연실 폭음을 내며 머리를 쓸고 지나갔다.

산밑 오두막집에 도착해 보니 방안에는 일곱 살 어린 딸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난 방 한 칸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

그때 방으로 큰 폭탄이 떨어지면서 일곱 살 아이는 그 자리에서 몸이 두 동강이 나
고 말았다.

딸 아버지는 피가 철철 흐르는 아이 시신을 붙들고

‘인숙아 인숙아’ 절규하며 어쩔 줄 몰라했고

난 너무 무서워 망연자실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파편을 맞았는지 내 머리에서도 피가 흥건히 흘렀다.

난 허둥지둥 눈길을 걸었다.

너무도 무서워서.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집에서 인민군들이 찰떡을 치면서

“학생 거기 피 나는데 숨 갔다가 붙잡아 매라요. 바람 들어가면 죽는대요”

라면서 걱정을 해 준다.

나는 시오리 눈길을 걸어 어느 방공호로 들어갔다.

하얀 눈위에는 새빨간 피가 스멀스멀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어떤 아주머니가 숨을 구해와 다친 부위에 부치고 치마끈으로 동여 주셨다.
그제서야 지혈이 되는 듯 했다.
머리가 깨지는 고통 속에 방공호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얼굴은 부어서 두 배로 커지고.

난

다시 고향집으로 올 수 밖에 없었다.
미군들이 총으로 사람들을 밀면서 빨리 피난을 가라고 강권했다.
거리에는 전사한 미군들 시체가 즐비했고 미군들은 동료들을 미국으로 보내기위
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야말로 눈 뜨고 못 볼 참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 식구들은 엄동설한에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십 여리 걸었을까 아는 집이 있어 들어가니 이미 그 집 식구들은 모두 다 피난을 떠
나고 빈집이었다.

짜짜이 양말을 주어 신고 우리들은 눈길을 걸었다.

피난길은 그야말로 고행의 연속이었다.

음력 12월 13일

우리들은 강가 모래바닥에서 노숙을 했다.

뼈를 깎아대는 모진 겨울바람 속에서

얼어죽지 않기 위해 식구들은 서로의 몸을 꼭 껴안고 그 지옥같은
겨울밤을 지새웠다.

그날이 열 다섯 내 생일날이었다.

장티프스 환자인 어머니 아버지는 그 모진 추위에 떨며 울고 계셨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환자인 부모님께 이불 두 채를 가져오셔서 덮어 주고 가신다.

나는 연실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우리의 겨울 피난길은 계속 되었으나 부모님 건강 때문에 더이상 갈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빈집을 들어서니 베개속에 무언가 들어있어 뜯어보니 녹두가 한가득 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로 녹두죽을 썬 드렸더니 환자인 부모님이 참 맛있게 드셨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건강이 회복 되셨고 피난길을 다시 갈 수 있었다.

그렇게 피난을 마치고 돌아 온 고향

고향집은 폭격으로 흔적도 없었다.

다행히 마을 외딴집 한 채가 건재해 그 집 방 한 칸을 얻어 우리 식구들은
지긋지긋한 전쟁을 겪으며 지난하기만 한 삶을 이어나갔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어느새 67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냥 두렵기만 하다.



6.25전쟁 6장
관련 황성조형물

1. 충혼탑



충혼탑

횡성읍 시가지와 유유히 흐르는 섬강이 굽어 보이는 횡성읍 읍하리 3·1 공원(현재는 보훈 공원)에 위치 한 충혼탑은 2013년 5월 21일 횡성군청 뒤 삼일 공원 부지 안에 ‘횡성보훈공원’ 완공되면서 새롭게 조성됐다.

충혼탑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조국의 평화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장렬하게 산화하신 횡성 출신 군·경·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68년 6월 6일 건립되었으나 규모가 작고 훼손 부분이 많아 보훈시설로서 상징성이 떨어지므로 기존의 탑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하였다.

이 탑의 형태는 사람인(人)자의 모습으로 호국의 념(念)을 사람 인(人)자와 햇불로 상징화 하여 호국 정신이 후대에 계승·발전됨을 표현하였고, 높이 6m 폭 1.95m이며 재료는 브론즈와 철재를 사용하였다.

위패실은 가로 12.35m 세로 7.30m 높이 2.85m로 재료는 고흥석, 유리를 사용하였다.

육·해·공군 및 경찰을 상징하는 4개의 동상이 있고 탑을 오르는 9개의 계단은 9

개 읍 · 면을 상징하며, 탑 앞쪽에는 한국전쟁 참전국의 국기를 게양하였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이곳에서는 새해 맞이 참배식이 열리며, 한식날에는 호국영령들을 위한 ‘무후제’ 가 위패실에서 치러지고 6월 6일 현충일에는 이곳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다.

「충혼탑」의 제지는 전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이은상 선생이 글과 김기승 화백이 글씨를 썼다.

〈비 문〉

바라볼수록 강산은 아름다운데
 민족의 고난은 어찌 그리 많던고.
 그러나 아무런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거기 넘어지지 아니한다.
 오직 조국을 위한 불타는 사랑과
 불의를 무찌르는 신념과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 왔었고
 또 그대로 영원히 이끌어 가리라
 1950년 6·25동란 이후로 월남의
 반공 전선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던져 피로써 항쟁한 이들
 그중에서 이 고을 군, 경, 청년들
 화랑의 후예다운 정열과 의기는
 이땅 겨레의 거룩한 전통이 되어
 천추만대에 사라지지 않으리니
 영령들이여 찬송을 받으옵소서.
 여기 편안히 쉬시옵소서.

1968년 6월 6일
 횡성군 충혼탑 건립위원회 세움



충혼탑 비문



충혼탑 건립 취지문

2. 마리누스P.에이덴 오우덴 중령 현충비



횡성읍 읍하리 3·1 공원(현재는 횡성 보훈공원) 내에 있는 이 비는 6·25 전쟁 시에 평화의 십자군으로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12일, 13일 횡성전투에서 전몰한 네델란드 부대장 마리누스 P.에이덴 오우덴 중령과 그 휘하의 장병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6년 10월 12일 당시 제1군 사령관이 횡성읍 시가지가 굽어 보이는 시가에 세운 높이 4m의 암석으로 돌로 된 충혼탑이다.



〈비문〉

단기 4284년 2월 12일, 13일 횡성지구 전투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과감히 싸우다 애석하게도 전몰한 주한 네델란드 부대장 마리누스.피.에이덴 오우덴 중령 이하 네델란드 장병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현충비를 건립함.

1956. 10. 12

제1군사령관 육군대장 백선엽 세움



현충비 이전 건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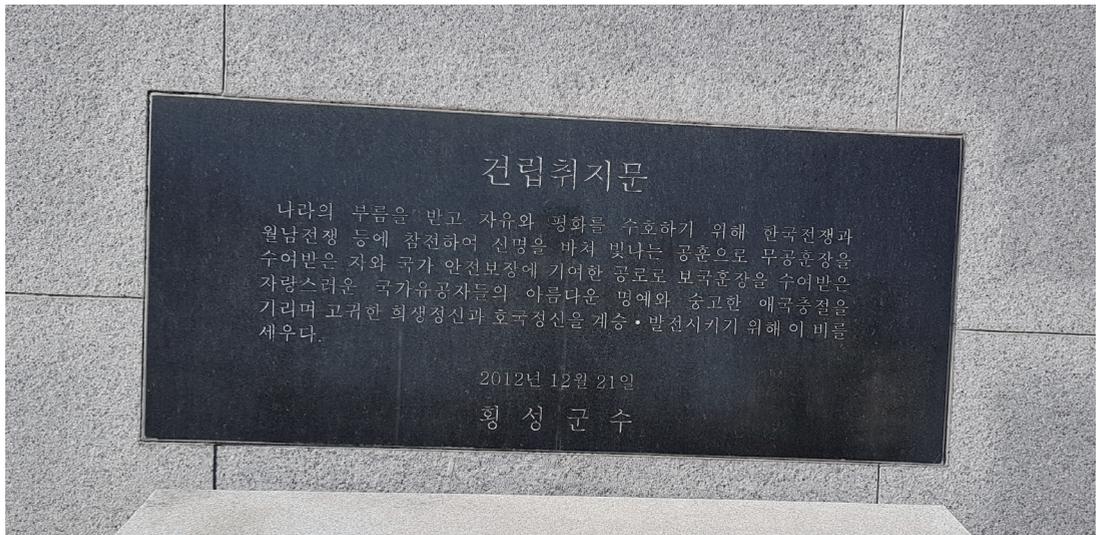
3.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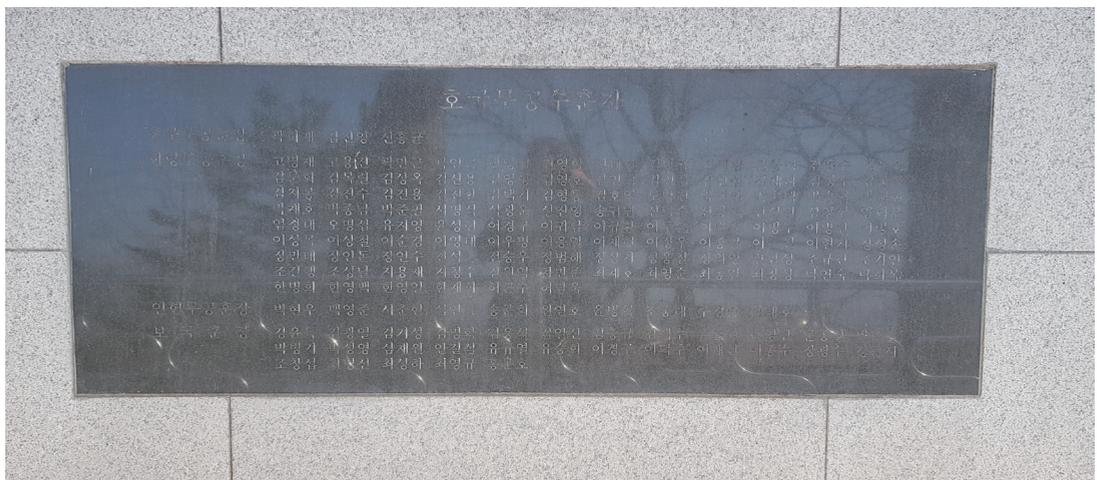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

횡성군청 뒤 보훈 공원에 위치 한 ‘호국 무공 수훈자 공적비’ 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신명을 바쳐 빛나는 공훈으로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자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들의 아름다운 명예와 숭고한 애국충절을 기리며 고귀한 희생 정신과 호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12월 21일 이 공적비를 세웠다.

공적비에는 훈장을 받은 분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취지문



호국무공 훈장 수훈자 명단

4. 매일리 충혼비(순국 8 용사 충혼비)



갑천면 매일리에 있는 충혼탑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의용경찰을 조직하여 마을 치안유지에 힘쓰던 중 패주하던 북한군과 접전하다 전사한 이 지방 젊은이 7명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1965년 10월 1일에 당시 갑천면장 한웅학(韓雄鶴)과 이곳 주민들이 뜻과 정성을 모아 순국자 1인을 1층으로 하는 7층의 콘크리트 탑을 세웠다.

매일리 주민들은 9·28수복 이후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왔으나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가 날뛰고 패잔병이 만행을 부리는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면 소재지인 이 마을의 치안유지는 당시 횡성경찰서 갑천 지서의 순경 4명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자 주민들은 자율적인 치안유지가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 젊은이들은 스스로 1950년 10월 초에 의용경찰을 조직하고 자치대를 발족하였다. 대장 김문걸(金文傑, 갑천면 유평리)과 대원 7명은 군번 없는 군인으로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은 채 99식 소총으로 비록 허약하게 무장했지만 불타는 젊음과 애국심으로 잔류한 패잔병을 색출하고 부역자를 검거하여 군에 이첩 하였고, 어답산(御踏山) 전투에서 패잔병과 접전을 벌여 일망타진하는 등 많은 공훈을 세웠다.

1950년 10월 말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밤 순찰 준비를 하던 저녁 무렵에 태기 산중에 도피 은신하다가 지리산 공비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남하하던 북

한군 병력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비록 패잔병이지만 중무장한 엄청난 병력과 경찰을 포함한 15명과의 교전에서 지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시가전을 벌이면서 갑천면 삼거리부터 전촌리까지 쫓고 쫓기는 전투에서 많은 적을 무찔렀으나 끝내 대장 김문걸(金文傑), 대원 박준금(朴準金), 노성빈(盧成彬), 이인홍, 신기묵(辛基默), 박병국(朴炳國), 홍주석 7명이 전사하고, 홍석규는 중상을 입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문〉

6·25사변을 도발한 북괴의 횡포가 극심하여 그 피해가 너무나 많은 지라 여기 고이 잠든 학병들은 사랑하는 고향을 지키고자 봉기하여 일어섰다. 연일 계속되는 격전 속에 수많은 적을 물리쳤으나 중과부족으로 패색의 짙음에도 오히려 꽃다운 소년들로 구성된 학병들의 의분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적진에 뛰어들어 많은 북괴군을 무찌르고 그 어린 녀은 의로운 절개를 지켜 산화하였다. 그들은 고향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몸과 뜻을 바치었으니 그 거룩한 정신을 천추만대에 두고 길이 명복을 빌고 노래하리라

그 후 이 충혼탑은 횡성-서석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철거되었다가 1983년 12월 1일 계천이 내려다보이는 갑천면사무소 앞 언덕에 대리석으로 다시 세워졌다.

〈비문〉

6·25동란 중 북한 괴뢰군이 이 고장을 침범하였을 때에 이 고장 출신 젊은 이들이 스스로 자치대를 조직 괴뢰군과 용감히 싸우다 장열히 순국한 젊은 녀을 추모하고자 서기 1965년 12월 1일 충혼탑을 건립하였으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로 이곳에 옮겨 건립하다.

순국자 명단 - 김문걸, 이인홍, 박준금, 노성빈, 신기묵, 박병국, 홍주석, 이상묵

서기 1983년 12월 1일 갑천면민 일동



매일리 충혼비 비문

5. 경찰 전적비



둔내면 삼교리 양구두미재 위에 세워져 있다. 해방 후 좌우의 대립으로 큰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48년~1949년 북한에서는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간지방에 출몰하여 관공서를 습격하고 약탈행위를 자행하였다. 당시 공비토벌 작전이 개시되면서 둔내에서는 석문리 김형옥 씨의 인솔하에 청년 200 여명이 동원되어 화동리에서 봉평 무이리까지 군수품을 운반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한 바도 있다. 이 전적비는 당시 태기산 일대에 출몰한 공비토벌을 위해 활동하

다 전사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 6월 5일 세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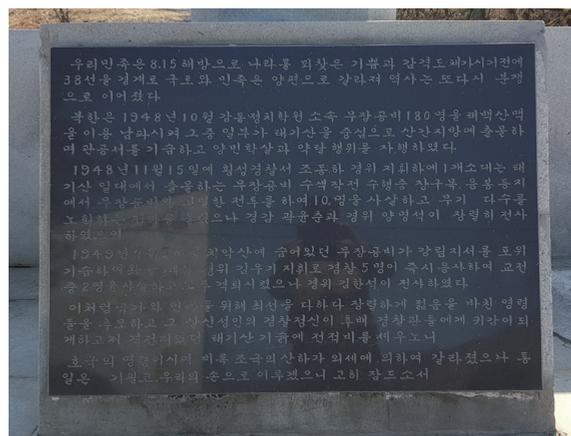
〈비문〉

우리 민족은 8·15해방으로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도 채 가시기 전에 38선을 경계로 국토와 민족은 양편으로 갈라져 역사는 또다시 분쟁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1948년 10월 강동정치학원 소속 무장공비 180명을 태백산맥을 이용 남파시켜 그중 일부가 태기산을 중심으로 산간지방에 출몰하여 관공서를 기습하고 양민학살과 약탈행위를 자행하였다.

1948년 11월 15일에 횡성경찰서 조동하 경위 지휘하에 1개소대는 태기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무장공비 수색작전 수행 중 장구목, 응봉 등지에서 무장공비와 치열한 전투를 하여 10명을 사살하고 무기 다수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경감 곽윤춘과 경위 양명석이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1949년 7월 24일 치악산에 숨어있던 무장공비가 강림지서를 포위 기습하여 왔을 때는 경위 김우기 지휘로 경찰 5명이 즉시 응사하여 교전 중 2명을 사살하고 모두 격퇴시켰으나 경위 김한석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장렬하게 젊음을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살신성인의 경찰 정신이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저 격전지였던 태기산 기슭에 전적비를 세우노니 호국의 영령이시여 비록 조국의 산하가 외세에 의하여 갈라졌으나 통일 은 기필코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니 고히 잠드소서



6. 6·25 전몰장병 위령비



공근면 도곡리 마을 앞 길가에 세워진 이 위령비는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적인 결의에 따라 자유대만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미군 보병 제2사단이 국군 8사단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1년 2월 12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대공세로 학살의 계곡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9,900여위(餘威) 미군 2,400여위(餘威) 명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횡성군민이 세워 이들의 충혼을 추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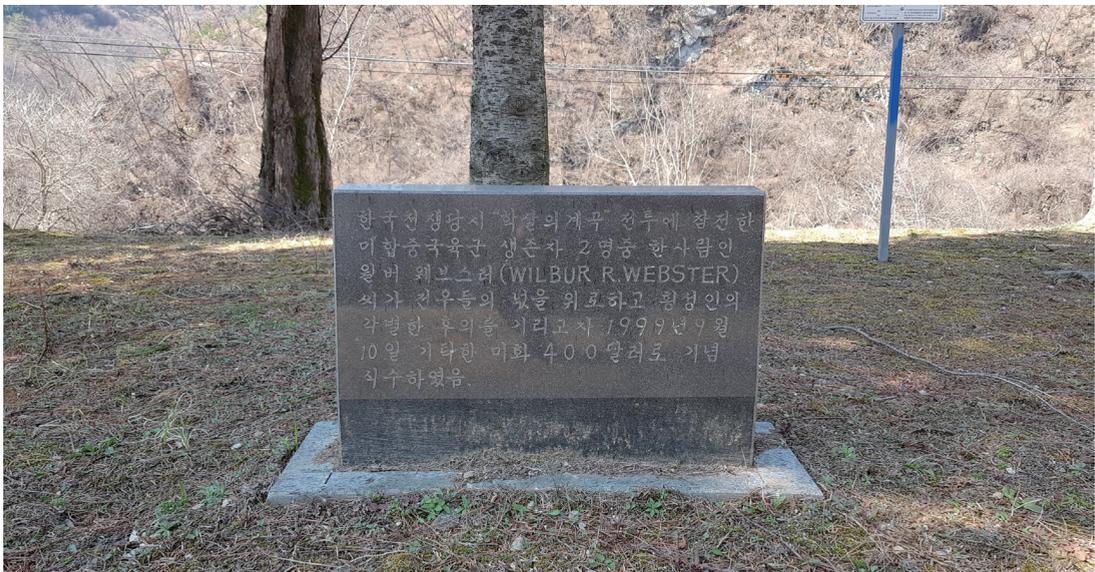
전몰장병 위령비 비문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적인 결의에 따라 자유대만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미군 보병 제2사단이 국군 8사단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1년 2월 12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대공세로 학살의 계곡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9,900여위(餘威) 미군 2,400여위(餘威) 명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횡성군민이 세워 이들의 충혼을 추모하고 있다.

7. 윌버 웨브스터의 기념 식수



한국전쟁 당시 '학살의 계곡' 전투에 참전한 미합중국 육군 생존자 2명 중 한 사람인 윌버 웨브스터(Wilbur R. Webster)씨가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고 황성인의 각별한 후의를 기리고자 1999년 9월 10일 기탁한 미화 400달러로 기념 식수했다.



윌버 웨브스터 기념 식수비

8. 갑천면 화전리 무명용사 위령비



〈비 문〉

6.25 동란(1951. 1. 4. 후퇴)시 중공군의 침공으로 이곳에서 육군 8사단 예하부대로 입증되는 용사들이 치열한 전투 끝에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한 곳입니다. 횡성댐 건설을 계기로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군부대의 증언과 동민들의 협조로(당시 12세 소년이었던 본동거주 백일현씨의 목격담과 입증)6구의 유해는 발굴하여 대전국립묘지에 안장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용사들의 유해는 발굴치 못하였습니다. 아직 구천(九泉)에 계신 영령이나마 위안코저 이곳에 위령비를 세웁니다.

1998년 6월 일 추진위원 일동



무명용사 위령비 건립취지문

9. 네델란드 참전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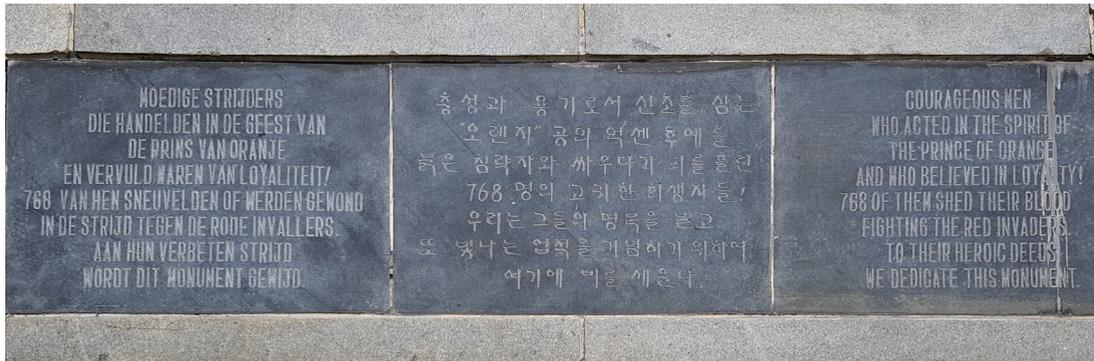


한국동란 참전 국가에 대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건립한 「네델란드 참전기념비」는 우천면 우항리 영동고속도로 새말 인터체인지에 소재한 횡성군의 전적지 명소중의 하나이다.

이 비는 전국에 산재한 참전 16개국의 기념비 중 하나로 1975년 3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 국방부가 건립 제막하여 1975년 10월 29일 횡성군에 이관 군이 관리하고 있다. 네델란드를 상징하는 거대한 풍차 모양을 하고 있는 비를 이 곳에 세운 것은 네델란드군이 횡성을 중심으로 가장 격렬하게 활약하였고 또한 횡성전투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룬바 있어서 그 의미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며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이 참배하고 네델란드 관광객이 필히 참배하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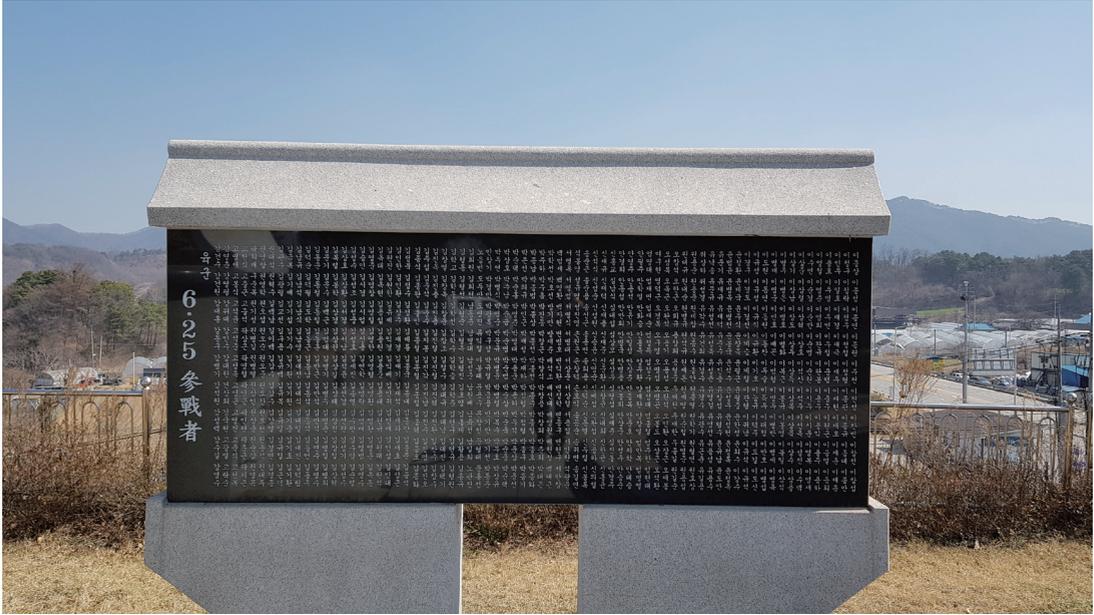
충성과 용기로서 신조를 삼는 “오렌지공”의 역센후예들 붉은 침략자와 싸우다가 피를 흘린 768명의 고귀한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



〈참전 약사〉

네델란드 군은 1950년 정의의 십자군으로 파한되어 용전 분투하다가 육군은 1954년 10월 18일, 해군은 1955년 1월 24일 각각 본국으로 개선한 군대이다.

여기 여러 유우엔 회원국 국민들에게 그 뜻을 전하고자 그들이 남긴 찬란한 전력과 지휘관의 이름을 새긴다.



6.25 참전자 명단 - 육군



6.25 참전자 명단_육군, 해군, 공군, 해병, 경찰, 유격군, 기타

11. 학도병 충혼탑



6.25 전쟁 기간에 전사한 횡성 중·고등학교 출신 학도병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2005년 교정에 학도병 충혼탑을 세웠다.

6.25 전쟁 기간 중 횡성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북한군의 침략에 맨주먹으로 맞섰으며, 많은 학생들이 1950년 6월 25일 남침 이후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아군의 후퇴 및 방어, 반격 작전 등에서 조국을 지키다 전사 또는 부상을 당하였다. (13명 전사 66명 생존)

횡성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현충일에 이들의 추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도병 충혼탑 안내판



학도병 참가자 및 전사자 명단



글쓴이 약력



박순업

〈약력〉

현) 횡성문화원장

전) 횡성초등학교장

전) 춘천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연구〉

3.1운동 유적 교육자료 우수상

(전국교원교육자료 공모전, 1981)

횡성의 3.1운동 연구 1등급

(전국교원현장연구대회, 1982)

고형산 연구 우수상

(전국문화원연합회 향토사 공모전, 2011)

〈저서 및 수상〉

『횡성군지』 (공저)

『화성의 옛터』 (공저)

『횡성의 근 · 현대 교육사』

강원도 교육상(2007)

황조근정 훈장(2008)

제62회 강원도 문화상(2020)



정재영

〈약력〉

소설가. 향토사 연구가

한국문인협회 황성지부 회장

황성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임

한라대학교 외래교수(미디어 콘텐츠과) 역임

섬강 라디오 초대 방송국장 역임

황성문화원 부원장 역임

〈저서 및 수상〉

장편소설 ‘아름다운 것들’

중편소설집 ‘물속에 뜬 달’

소설집 ‘바우’

포토 에세이집 ‘섬강에서 그리움을 만나다’

『황성군지』 (공저)

『황성의 구비문학』 (공저)

황성댐 수몰지리지 『화성의 옛터』 (공저)

『마을신앙』 (공저)

『공근면지』 (공저)

『갑천면지』 (공저)

『서원면지』 (공저) 외 다수

6 · 25전쟁 증언

「 6.25 참상 황성인의 못다한 이야기를 찾아 」

인 쇄 | 2020년 11월 30일

발 행 | 2020년 11월 30일

발행인 | 박순업

편저자 | 박순업, 정재영

기 획 | 민준식

발행처 | 황성문화원

황성군 황성읍 앞들서3로 6 T(033) 343-2271

인쇄처 | 서원기획인쇄

강원도 황성군 태풍로 8 T(033) 343-2404